

# I. 연구 개요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이 연구는 지방자치제의 실시 등 지방화시대에 따른 민주시민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 스스로 지역내의 문제에 대한 토론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문제への 참여에 관해 그동안의 입장은 다분히 부정적인 목소리가 컸으며 청소년들은 단지 보호 또는 선도의 대상으로서만 취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그 지역사회에서 태어나서 그 곳에서 성장하며 문제가 발생한 곳이나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곳도 바로 그 지역사회이며, 또한 청소년들이 그동안 역사적, 사회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었다는 점들이 올바르게 인식되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최근에는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크게 전환되어 지구촌내에서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 사례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환경운동, 평화운동 등의 영역에 있어서는 오히려 청소년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조류에 힘입어 국내에서도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노력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에게 지역사회 주인임을 일깨우고 일체감을 형성키 위한 공동체 만들기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 상징물을 새로이 제정하는가 하면 종전 행정관청 주도의 전시형 행사를 주민행사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노력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청소년들의 지역사회활동에의 참여는 매우 시기적절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참여가 단지 행사에 가담한다는 등 형식적 차원에 머무른다면 그 의미가 축소될 것이며 바람직한 청소년들의 참여형태라고 볼 수

없다. 청소년들의 참여는 지역사회 상황에 대한 기초 조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파악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의 의견과 경험을 나누고 결론에 도달하려는 노력을 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들은 자기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공개토론 활동 수련거리의 개발에 앞서 지방화와 청소년 참여에 대한 우리나라와 프랑스, 미국, 필리핀 등 외국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 사례를 조사·제시함으로써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의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토론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자신의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심을 기르며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하고자 하였다.

## 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 1) 문헌 연구

지역사회와 공개토론과 관련된 선행 연구 자료 및 문헌, 그리고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역사회 관련 프로그램 자료를 수집하였고, 또한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지역사회 관련 프로그램을 조사·활용하였다.

### 2) 설문 조사

설문 조사는 1995년 7월 3일(월)~7월 15일(토) 사이에 서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청소년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의 지방화 의식과 지역사회 참여 실태 등을 파악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조사는 연구자가 직접 대상 학교를 방문하여 담당 교사에게 설문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설문지를 학생들에게 배부하도록 하였으며 연구자가 재차 대상 학교를 찾아가 설문지를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의 표집은 다음 <표 I-1>과 같이 중고등학생 2학년 남녀 각각 250명씩 총 1,000명을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하도록 하였고, 고등학생은 인문계와 실업계로 나누어 비례로 표집을 하였으나 분석 변인으로는 활용하지 않았다. 자료 선별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된 설문지는 총 969부였다.

조사 내용은 크게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 실시, 지역사회 문제, 지역사회 참여,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인식의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1>
설문지 분석수
(단위 : 부)

| 성 별<br>학 교 별 |     | 남   | 여   | 합 계   |     |
|--------------|-----|-----|-----|-------|-----|
|              |     |     |     | 배 포   | 회 수 |
| 중 학 교        |     | 250 | 250 | 500   | 482 |
| 고 등<br>학 교   | 인문계 | 150 | 150 | 300   | 487 |
|              | 실업계 | 100 | 100 | 200   |     |
| 합 계          |     | 500 | 500 | 1,000 | 969 |

먼저 지역사회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은 청소년들의 지역명소 안내 정도, 지역 주민 상호간의 인지도 및 상부상조 정도,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의 주민들에 대한 태도 및 민주적 운영 정도, 지역사회에 대한 자부심에 대해 조사하였고, 지방자치의 실시에 대한 청소년들의 기대는 경제, 복지적 측면, 행정적 측면, 주민들의 의식, 지역대표(공무원)의 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지역사회의 문제, 지역사회 문제 인식 경로,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행정기관의 해결 노력에 대한 태도, 평소 정부의 지방 부처와 시·도청 등 각급 행정기관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해야할 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청소년들이 참여해 본 활동,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조사하였다.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인식은 공공질서, 불우이웃돕기, 환경보호 활동, 경제활동, 정치활동 등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 성향,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 정도,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 수준,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의 의의,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을 조사하였다.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으로는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자원봉사활동 및 어린이 돌보기, 학교 구조물 제작 및 수리, 지역환경보호운동, 자선기금 모금활동, 지역문제 토론회활동, 노인 및 장애인 돌보기, 헌혈 및 헌혈캠페인, 아동을 위한 공연, 지역사회 문제 알리기, 재활용품 분류 및 홍보, 아동 개인교습 지도, 병원, 양로원 등 수용시설 방문, 아동을 위한 레크레이션 및 야외활동 지도, 지역 정보물 제작 각각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희망 정도, 지역사회봉사활동의 참여 형태, 자원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 참여를 어렵게 하는 장애 요인을 조사하였다.

### 3) 면접 및 자문

공개토론의 형태로 실시되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유의하여 교수, 지역사회 청소년단체 종사자, 청소년지도자, 각급학교 교사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방화시대의 전개에 따른 청소년 참여의 역할과 청소년개발의 방향 및 청소년 지역사회 프로그램과 청소년의 토의·토론문화 등에 관해 면접 조사와 자문협의를 하였다.

## 3. 수련거리 개발의 기본방향

### 1) 청소년 중심의 원칙

청소년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욕구와 희망에 근거하여 계획되며 청소년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보장되는 청소년의,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에 의한 프로그램

램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청소년의 특성과 정서를 감안해서 청소년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형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훌륭한 프로그램이라도 참가 청소년들의 특성과 욕구에 부합하지 않으면 성공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잡지나 만화를 고전문학보다 더 선호하며, 클래식 음악보다는 팝뮤직을 더 좋아하고, 팬시 스토아에 가고 캐주얼 의상을 입는 것을 백화점에 가거나 정장차림을 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에게는 이율배반적으로 보이지만, 때로는 상호 보완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프로그램은 참가 청소년의 환경과 상황을 고려하는 동시에 그 실시 시기와 장소를 고려해서 구성·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인들이 만든 프로그램보다도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든 프로그램에 보다 큰 가치를 두어야 한다. 프로그램의 준비나 진행 과정, 강사 선정, 타 단체와 협력 관계, 외부후원 얻기, 평가 제도 등에 있어서도 청소년 주도의 필요성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어른에 의해서 준비되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청소년 스스로 만든 프로그램이 그들에게는 더 많은 즐거움을 주고 감동을 일으키며 깊은 영향을 준다. 청소년 주최의 프로그램이 모두 다 유익하고 가치있다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충분한 의미는 있는 것이다. 이런 프로그램이야말로 프로그램 일반론에서 말하는 좋은 프로그램 즉, 능동적이고, 참가자들의 인간관계가 보다 역동적이며, 참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준비하고 실행하는 프로그램인 경우가 많다.

셋째, 프로그램의 특성과 여건에 의해 성인지도자들에 의해 준비되고 전개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청소년 참가자의 자율적인 활동이 유도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수련활동을 진행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지도자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수련활동 자체에 열중하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수련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청소년들의 주의가 산만해 지는 이유는 주어진 역할이 불분명하거나 이론지도 부분과 같이 전적으로 수동적인 역할이 오래

지속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수련활동에서 맡은 역할을 자율적으로 해 나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련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각각의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으로 특정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이론지도 부분에서도 질문이나 발표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 2) 실천사례의 접목과 적용성의 강화

청소년 수련거리나 프로그램은 그 목표를 분명히 하고 확고한 개발 이념에 입각하여 개발하되 이론적 논의(logic)와 실행가능성(practicability)을 조화롭게 접목함으로써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합의(consensus)를 강화하고 현장적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수련거리를 개발함에 있어 무엇보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분명하고 진지한 논의와 명확한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개발 이전에 구체적인 합리적인 과정의 수립과 그에 따른 실천이 요구된다.

둘째, 개발된 프로그램이 청소년활동 현장에서 참가 청소년이나 지도자들에 의해 여건과 상황에 따라 다소 변용할 수는 있으나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안·개발되어야 한다. 현장 적용성이 뒤떨어지는 프로그램은 아무리 전문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성공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개발된 프로그램의 내용들이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단순한 활동 순서와 나열식 구성 형태를 갖거나,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기술될 경우 오히려 현장 적용을 더욱 어렵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것과는 다른 참신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수준 높은 내용들로 구성하는 한편 구성 방법 역시 단순하지도 복잡하지도 않은 적정 수준의 처방이나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 실천 사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직접 청소년들과 함께 생활해 본 활동지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다.

### 3) 프로그램 개발 제원칙의 준수

청소년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떻게 프로그램을 구성하느냐”는 것이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계획·조직-시행-평가의 절차적 단계와 전개과정 및 그에 따른 프로그램의 내용선정과 조직방법 등에 관한 몇가지 기본적인 원칙의 준수가 요구된다.

첫째, 프로그램의 계획 및 조직 단계에는 프로그램의 목표를 선정하고 프로그램의 전략을 설계하며 목표를 구체화시킬 활동내용과 방법을 선정·조직한다. 어떠한 프로그램 내용 및 활동을 선정할 것이냐는 언제나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느냐에서 찾아내는 것이 원칙이다. 교재·시설·인력 등의 실천 계획을 세우는 일, 일정계획과 평가기준을 수립하는 일 및 자원할당의 선정 및 계획 등도 포함된다. 여기에는 다음의 몇가지 기본원리가 적용되고 있다.

① 프로그램 내용은 목표설정에서 고려된 개인적 요구나 사회적 요구 및 철학적 이념을 구현·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목표와의 일관성) ② 프로그램 참가 청소년들의 개인적인 능력 수준과 흥미를 충분히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주제의 내용과 방법을 선정한다. (능력과 흥미에의 적합성) ③ 선정된 내용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가진 인력이나 시설 및 재정 또는 자원의 여건에 합당하지 않으면 실천에 옮겨질 수 없다. (지도 가능성) ④ 한 가지 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경험 내용만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내용과 연관시켜서 선정하고, 한 가지 내용을 두개 이상의 목표와 관련지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정한다. (목적과 경험의 다원화) ⑤ 청소년활동의 경험은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사회적 요구에 적합하여 사회에서 적용될 수 있는 내용과 활동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실용성) ⑥ 동일한 프로그램일 경우에도 그 활동을 실시하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활동의 효과는 물론 지역의 문화·전통의 계승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원리이다. (지역성의 고려)

둘째,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단계가 끝나면 조직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실시하는 시행 단계로 넘어간다. 여기에서는 프로그램 전략을 세워 목표에 명시된 내용을 프로그램의 특성과 의도를 살리고,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에서 학습자의 자율성과 지도자의 전문성을 잘 조화시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내용은 그것을 구체화하는 방법과 유리되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자들의 흥미와 욕구에 따라 그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을 선택한 후에는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실시 기간, 내용의 우선 순위 등에 따라 프로그램을 횡적, 종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이의 일반적 원칙으로 ① 내용 상호 간에 밀접한 연결을 지우면서, ② 구체적인 데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③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④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관련짓는 것이다.

셋째, 진행된 프로그램은 계속적인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의 장단점이 밝혀지므로 장점은 계속 권장 장려하되 단점은 줄이거나 없애서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되도록 수시로 수정·보완하며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그 전체의 과정과 성과를 평가하여 얻은 정보를 가지고 앞으로 보다는 프로그램 개발에 공헌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프로그램의 전개과정별로 요구되는 일반적 원칙은 본 연구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본적 지침으로 준수될 것이다. 좋은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흥미를 증가시키는 경험을 갖게 하며 사회적응, 상호작용, 상호협조와 민주적인 생활 체험 및 잠재성 개발의 기회를 주기도 하는 것이다. 전문가에 의해 개발되는 프로그램은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개발의 제원칙이 준수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4. 수련거리 구성과 모형 개발

### 1) 수련거리의 구성

지역사회 공개토론활동 수련거리는 청소년들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를 찾아내고 문제를 분석하고 공개토론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는 절차를 통해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전체 과정을 준비, 실행, 평가의 3과정으로 구성하였다. 준비과정은 청소년활동 조직하기, 토론자질 기르기, 지역사회 문제 인식하기 3부분으로, 실행과정은 지역사회 문제 진단하기, 지역사회 문제 해결책 모색하기, 토론결과 정리하기, 토론결과 알리기 4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과정에는 2~3개의 단위활동이 있어 총 20개의 단위활동으로 이루어지며, 활동내용에 따라 단위활동 아래 소과정을 두었다. 각 활동은 활동 개요, 활동 목표, 준비사항, 활동 방법, 유의 사항, 참고 사항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청소년 지역사회 공개토론활동 수련거리 내용 구성을 도표화 하면 다음과 같다.

〈표 I - 2〉

지역사회 공개토론활동 수련거리의 구성

| 과 정              |                       | 단 위 활 동                                       | 활 동 내 용                                                          |
|------------------|-----------------------|-----------------------------------------------|------------------------------------------------------------------|
| 준<br>비<br>과<br>정 | 청 소 년<br>활 동<br>조식하기  | 1. 우리 일은 우리 손으로<br>2. 활동계획 세우기<br>3. 분과별 모임갖기 | 청소년들 스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계획을 세우고 분과모임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율적인 청소년활동을 준비한다.   |
|                  | 토론자질<br>기 르 기         | 4. 토론기법 익히기<br>5. 재미있는 이야기광장<br>6. 자유발언대      | 강의를 통해 여러가지 토론기법을 익히고 다양한 말하기·듣기 및 자기주장훈련을 통해 토론의 기본자질을 기른다.     |
|                  | 지역사회<br>문 제<br>인식하기   | 7. 지역사회 조사하기<br>8. 지역문제 인식하기                  | 지역사회 조사활동을 통해 지역의 문제점을 찾고, 정리. 발표함으로써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인식한다. |
| 실<br>행<br>과<br>정 | 지역사회<br>문 제<br>진단하기   | 9. 문제원인 분석하기<br>10. 모의지방의회활동<br>11. 청소년 법정    | 패널토론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명료화하고 지방의회활동과 법정활동을 통해 문제원인을 진단한다.             |
|                  | 지역사회<br>문제해결책<br>모색하기 | 12. 분과토론하기<br>13. 지역문제 해결책 찾기                 | 분과별 소집단토론을 거친 후 심포지움과 포럼 형식의 전체토론과정을 통해 지역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한다.         |
|                  | 토론결과<br>정리하기          | 14. 토론 결과물 만들기<br>15. 신문 제작하기                 | 보고서를 비롯한 다양한 기록물 작성과 신문 제작을 통해 토론결과를 정리한다.                       |
|                  | 토론결과<br>알 리 기         | 16. 전자통신 토론하기<br>17. 자기주장대회<br>18. 선언문 발표하기   | PC통신토론과 자기주장대회를 통해 토론결과를 알리고, 청소년들의 다짐을 담은 선언문을 작성·발표한다.         |
| 평 가 과 정          |                       | 19. 활동수첩 기록하기<br>20. 영상기록 관람하기                | 활동수첩을 기록하면서, 그리고 활동과정을 담은 영상기록을 보고 공개토론활동을 평가한다.                 |

## 2) 모형 개발

〈표 I -3〉 지역사회 공개토론활동 모형(2박 3일 일정표)

| 시간    | 첫째 날            | 둘째 날                    | 셋째 날                    |  |
|-------|-----------------|-------------------------|-------------------------|--|
| 06:00 |                 |                         |                         |  |
| 07:00 |                 | 기상·세면·아침운동              |                         |  |
| 08:00 |                 | 아침식사                    |                         |  |
| 09:00 |                 | 6. 운영회의 및 분과회의          |                         |  |
| 10:00 |                 | 7. 지역사회문제 인식하기(세미나)     | 14. 지역문제 해결책 모색하기(전체토론) |  |
| 11:00 |                 | 8.지역문제 원인 분석하기(패널토론)    |                         |  |
| 12:00 |                 | 등록                      | 15. 자기주장대회              |  |
| 13:00 | 점심식사            |                         |                         |  |
| 14:00 | 1. 분과별 모임갖기     | 9. 모의지방의회활동             | 16. 공개토론활동 평가           |  |
| 15:00 | 2. 대표자 선거       |                         | 17. 선언문 발표하기            |  |
| 16:00 | 3. 지역사회 조사활동    | 10. 지역문제 해결책 모색하기(분과토론) | 집으로 출발!                 |  |
| 17:00 |                 | 11. 토론결과 정리하기           |                         |  |
| 18:00 | 저녁식사            |                         |                         |  |
| 19:00 | 조사활동 정리하기       | 12. 자유발언대               |                         |  |
| 20:00 | 4. 재미있는         |                         |                         |  |
| 21:00 | 이야기광장 I         | 13. 재미있는 이야기광장 II       |                         |  |
| 22:00 | 5. 활동수첩 기록 후 취침 |                         |                         |  |

## ■ 활동 내용

### 1. 분과별 모임갖기

처음 만나게 된 친구들과 친숙해지기 위한 시간을 갖고, 서로 얼굴을 맞대며 생활해나갈 공동체가 움직이는 데 필요한 생활수칙 및 역할분담 사항 등을 정한다.(참고 : 수련거리 활동 3)

### 2. 대표자 선거

며칠 간의 활동 기간 동안 청소년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생활해 나가는 데에 필요한 대표자들을 선출한다.(참고 : 수련거리 활동 1)

### 3. 지역사회 조사활동 및 조사결과 정리

분과별로 맡은 공개토론 주제를 중심으로 조사계획을 수립한 후 여러가지 조사활동을 실시하고 보고서 형식으로 발표내용을 준비한다.(참고 : 수련거리 활동 7, 14)

### 4. 재미있는 이야기 광장 I

토론활동에 필요한 기본자질을 형성하기 위한 활동으로, 기초적인 자기 표현훈련과 발표력 훈련부터 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주장을 발표하는 연습까지 다양한 토론연습을 한다.(참고 : 수련거리 활동 5)

### 5. 활동수첩 기록하기

활동수첩을 미리 제작하여 청소년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활동 기간 동안 틈나는 대로, 기록하는 습관을 갖게 하고, 특히 매일 취침 전에 잠깐 동안의 공식적인 기록 시간을 줌으로써 하루를 되돌아보고 평가할 수 있게 한다.(참고 : 수련거리 활동 19)

## 6. 운영회의 및 분과회의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운영위원들과 분과대표들이 참석한 회의를 가짐으로써 청소년들 스스로 전체 활동을 점검해 본다.

운영회의가 열리는 동안 일반 청소년들은 분과회의를 열어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 특별한 안전에 대한 토의와 더불어 공동체 놀이, 심성계발 프로그램, 집단상담 등도 함께 실시한다.(참고 : 수련거리 활동 2, 3)

## 7. 지역사회문제 인식하기(세미나)

세미나 형식으로 지역조사활동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분과별로 조사한 다양한 지역문제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넓힌다.(참고 : 수련거리 활동 8)

## 8. 지역문제 원인 분석하기(패널토론)

지역사회 조사활동과 발표과정을 통해 인식한 문제에 대해 그 원인을 진단하는 활동이다. 패널토론 형식을 통해 문제의 논쟁점을 명확히 하고 주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참고 : 수련거리 활동 9)

## 9. 모의지방의회활동

모의지방의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의 원인을 찾아보고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만든다. 상황에 따라 “청소년법정”활동으로 대체해도 된다.(참고 : 수련거리 활동 10)

## 10. 지역문제 해결책 모색하기(분과토론)

구성원을 분과별로 나누어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에 대해 심층토론한다.(참고 : 수련거리 활동 12)

## 11. 토론결과 정리하기

토론결과를 기록물로 남기며 정리해 보는 시간이다. 개인별로 자신의 토론 기록장을 마무리하고, 분과별로 신문을 제작해 본다. 또한 청소년들이 자신의

결심을 다지는 의미에서 명함, 책받침, 광고문안 등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 본다.(참고 : 수련거리 활동 14, 15)

## 12. 자유발언대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일종의 자유시간이다. 분과를 뛰어넘어 활동에 참가한 모든 청소년들과 다양한 토의·토론활동을 벌이고 여러사람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싶은 사람은 발언대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해도 좋다.(참고 : 수련거리 활동 6)

## 13. 재미있는 이야기 광장 II

토론능력을 기르기 위한 훈련으로 분과별 이야기 한마당을 펼친다. 첫째 날 보다는 토론의 주제와 형식이 좀 더 공식성을 띠고 깊이를 갖는 활동을 진행한다.(참고 : 수련거리 활동 5)

## 14. 지역문제 해결책 모색하기(전체토론)

분과토론 결과를 종합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심포지움과 포럼형식의 전체토론을 진행한다. 공개토론을 총정리하는 의미로, 청소년과 지역사회 문제와 관련한 최종 결론을 도출해 낸다.(참고 : 수련거리 활동 13)

## 15. 자기주장대회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다. 대회 형식으로 개최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기량을 뽐낼 수 있게 하고 뛰어난 청소년 연설가를 발굴.격려한다.(참고 : 수련거리 활동 18)

## 16. 공개토론활동 평가하기

지금까지의 활동과정을 슬라이드나 비디오에 담아 놓았던 것을 함께 감상하고 평가한다. 시간 여유가 있으면 간단한 질문지를 함께 병행한다.(참고 : 수련거리 활동 19, 20)

## 17. 선언문 발표하기

선언문준비위원회에서 전체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선언문을 낭독함으로써 실천의지를 다진다.(참고 : 수련거리 활동 18)



## II. 지방화와 청소년참여에 대한 의견조사

### 1. 지역사회와 지방자치 실시에 대한 인식

#### 1)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은 청소년들의 지역명소 안내 정도, 지역 주민 상호간의 인지도 및 상부상조 정도,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인식, 지역 사회의 주민들에 대한 태도 및 민주적 운영 정도, 지역사회에 대한 자부심에 대해 조사하였다.

##### (1) 지역명소

청소년들이 자기 지역의 명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안내하거나 소개할 수 있는 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자기 지역의 명소를 다른 사람에게 안내 또는 소개할 수 있는 청소년’은 18.1%(다소 그렇다 14.3%, 매우 그렇다 3.8%)에 불과했고, 반면 ‘그저 그렇다’는 33.8%로 나타났다으며, ‘별로 또는 전혀 소개할 수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48.0%로 나타났다.

각 변인별로는 전체적인 결과와 비슷하게 자기 지역의 명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안내하거나 소개할 수 있는 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자(‘다소 그렇다’ 13.8%, ‘매우 그렇다’ 5.2%)가 여자(‘다소 그렇다’ 14.9%, ‘매우 그렇다’ 2.5%)보다, 중학생(‘다소 그렇다’ 18.3%, ‘매우 그렇다’ 5.0%)이 고등학생(‘다소 그렇다’ 10.5%, ‘매우 그렇다’ 2.7%)보다, 강남지역 청소년(‘다소 그렇다’ 14.8%, ‘매우 그렇다’ 4.3%)이 강북지역 청소년(‘다소 그렇다’ 12.6%, ‘매우 그렇다’ 1.9%)보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명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안내하거나 소개할 수 있는 정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청소년들이 자기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낮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청소년들에게 지역명소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표 II-1〉 지역명소를 안내하거나 소개할 수 있다 (단위 : %)

|                     | 전혀<br>그렇지 않다 | 별로<br>그렇지 않다 | 그저<br>그렇다 | 다소<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계     |
|---------------------|--------------|--------------|-----------|-----------|-----------|-------|
| 성별 <sup>1)</sup>    |              |              |           |           |           |       |
| 남                   | 22.7         | 25.2         | 33.2      | 13.8      | 5.2       | 100.0 |
| 여                   | 17.8         | 30.4         | 34.5      | 14.9      | 2.5       | 100.0 |
| 학교급별 <sup>2)</sup>  |              |              |           |           |           |       |
| 중학교                 | 13.3         | 25.1         | 38.4      | 18.3      | 5.0       | 100.0 |
| 고등학교                | 27.1         | 30.4         | 29.4      | 10.5      | 2.7       | 100.0 |
| 거주지별 <sup>3)</sup>  |              |              |           |           |           |       |
| 강남                  | 17.2         | 26.4         | 37.3      | 14.8      | 4.3       | 100.0 |
| 강북                  | 31.4         | 32.9         | 21.3      | 12.6      | 1.9       | 100.0 |
| 거주기간별 <sup>4)</sup> |              |              |           |           |           |       |
| 고향거주                | 19.4         | 29.5         | 30.4      | 16.1      | 4.6       | 100.0 |
| 10년미만               | 21.2         | 27.5         | 34.3      | 13.8      | 3.1       | 100.0 |
| 10년이상               | 18.6         | 26.7         | 36.2      | 13.8      | 4.8       | 100.0 |
| 전 체                 | 20.2         | 27.8         | 33.8      | 14.3      | 3.8       | 100.0 |

1)  $\chi^2=10.12$ ,  $p<0.05$  2)  $\chi^2=44.77$ ,  $p<0.01$  3)  $\chi^2=34.07$ ,  $p<0.01$  4) N.S.

## (2) 지역주민

청소년들의 지역주민에 대한 인식은 지역 주민들이 평소에 서로간에 얼마나 알고 지내고 있고 또 얼마나 상부상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통해 알아보았다.

먼저 지역주민들 상호간에 알고 지내는 정도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은 전체적으로 볼 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과반수 이상(61.8%)의 응답 청소년들이 ‘자기 지역 사람들이 이웃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서로 알고 지

〈표 II-2〉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 알고 지낸다

(단위 : %)

|                     | 전혀<br>그렇지 않다 | 별로<br>그렇지 않다 | 그저<br>그렇다 | 다소<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계     |
|---------------------|--------------|--------------|-----------|-----------|-----------|-------|
| 성별 <sup>1)</sup>    |              |              |           |           |           |       |
| 남                   | 5.4          | 13.8         | 19.6      | 34.4      | 26.8      | 100.0 |
| 여                   | 1.7          | 15.1         | 20.9      | 33.3      | 29.1      | 100.0 |
| 학교급별 <sup>2)</sup>  |              |              |           |           |           |       |
| 중학교                 | 2.5          | 11.6         | 18.3      | 30.7      | 36.9      | 100.0 |
| 고등학교                | 4.5          | 17.2         | 22.2      | 37.0      | 19.1      | 100.0 |
| 거주지별 <sup>3)</sup>  |              |              |           |           |           |       |
| 강남                  | 3.3          | 13.4         | 19.7      | 33.9      | 29.8      | 100.0 |
| 강북                  | 4.3          | 18.4         | 22.2      | 33.8      | 21.3      | 100.0 |
| 거주기간별 <sup>4)</sup> |              |              |           |           |           |       |
| 고향거주                | 3.2          | 10.6         | 17.5      | 32.7      | 35.9      | 100.0 |
| 10년미만               | 4.4          | 16.6         | 21.6      | 32.3      | 25.1      | 100.0 |
| 10년이상               | 1.4          | 12.9         | 19.5      | 39.0      | 27.1      | 100.0 |
| 전 체                 | 3.5          | 14.4         | 20.2      | 33.8      | 28.0      | 100.0 |

1)  $\chi^2=10.53, p<0.05$  2)  $\chi^2=40.34, p<0.01$  3) N.S. 4)  $\chi^2=18.36, p<0.05$

낸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저 그렇다'가 20.2%였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단지 17.9%(‘전혀 그렇지 않다’ 3.5%, ‘별로 그렇지 않다’ 14.4%)에 머물렀다.

각 변인별로도 ‘다소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하여 보면 60.0% 이상의 응답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여자(62.4%)가 남자(61.2%)보다, 중학생(67.6%)이 고등학생(56.1%)보다, 그리고 거주 기간별로는 거주지가 고향(68.6%), 10년 이상(66.1%), 10년 미만(57.4%)의 순으로 지역 주민들이 서로 알고 지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 주민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서로 돕고 지낸다는 점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32.3%의 응답자만이 ‘다소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을 뿐 나머지 응답자들은 ‘그저 그렇다’(35.1%)는 미온적인 반응 또는 부정적인 반응(‘전혀 그렇지 않다’ 7.

7%, ‘별로 그렇지 않다’ 25.0%)을 보였다.

각 변인별로도 지역주민들이 서로 돕고 지낸다는 점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별로 그렇지 않다’)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등학교(39.0%)와 강북지역(40.1%) 청소년들이 중학교(26.3%)와 강남지역(30.6%)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성별로는 남녀간에 서로 거의 비슷했으나 남자(36.5%)의 경우가 여자(28.9%)보다 좀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 지역사람들은 서로 돕고 지낸다

(단위 : %)

|                     | 전혀<br>그렇지 않다 | 별로<br>그렇지 않다 | 그저<br>그렇다 | 다소<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계     |
|---------------------|--------------|--------------|-----------|-----------|-----------|-------|
| 성별 <sup>1)</sup>    |              |              |           |           |           |       |
| 남                   | 10.8         | 25.7         | 31.5      | 22.8      | 9.3       | 100.0 |
| 여                   | 4.5          | 24.4         | 38.6      | 24.4      | 8.1       | 100.0 |
| 학교급별 <sup>2)</sup>  |              |              |           |           |           |       |
| 중학교                 | 7.1          | 19.2         | 34.6      | 27.1      | 12.1      | 100.0 |
| 고등학교                | 8.2          | 30.8         | 35.5      | 20.1      | 5.3       | 100.0 |
| 거주지별 <sup>3)</sup>  |              |              |           |           |           |       |
| 강남                  | 7.6          | 23.0         | 35.4      | 24.1      | 9.9       | 100.0 |
| 강북                  | 7.7          | 32.4         | 33.8      | 21.7      | 4.3       | 100.0 |
| 거주기간별 <sup>4)</sup> |              |              |           |           |           |       |
| 고향거주                | 10.1         | 21.7         | 30.4      | 26.7      | 11.1      | 100.0 |
| 10년미만               | 6.7          | 25.9         | 36.5      | 22.6      | 8.3       | 100.0 |
| 10년이상               | 7.6          | 26.2         | 36.2      | 22.9      | 7.1       | 100.0 |
| 전 체                 | 7.7          | 25.0         | 35.1      | 23.6      | 8.7       | 100.0 |

1)  $\chi^2=16.63$ ,  $p<0.01$  2)  $\chi^2=31.16$ ,  $p<0.01$  3)  $\chi^2=11.88$ ,  $p<0.05$  4) N.S.

### (3) 지방의회

지방의회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응답자들은 10.0% 미만(‘다소 그렇다’ 7.0%, ‘매우 그렇다’ 1.5%)에 머물렀고,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그저 그렇다’ (41.0%)

나 ‘별로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 (50.4%)는 반응을 보였다.

각 변인별로도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으나 고등학교(56.0%)와 강북지역(58.5%)의 청소년들이 중학교(44.7%) 및 강남지역(48.2%) 청소년에 비해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 더욱 부정적(‘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별로 그렇지 않다’)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또한 성별로는 남녀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남자(‘전혀 그렇지 않다’ 21.2%)의 경우가 여자(‘전혀 그렇지 않다’ 11.8%)보다 좀 더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 지방의회는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한다

(단위 : %)

|                     | 전혀<br>그렇지 않다 | 별로<br>그렇지 않다 | 그저<br>그렇다 | 다소<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계     |
|---------------------|--------------|--------------|-----------|-----------|-----------|-------|
| 성별 <sup>1)</sup>    |              |              |           |           |           |       |
| 남                   | 21.2         | 29.5         | 40.0      | 7.2       | 2.1       | 100.0 |
| 여                   | 11.8         | 38.3         | 42.0      | 6.8       | 1.0       | 100.0 |
| 학교급별 <sup>2)</sup>  |              |              |           |           |           |       |
| 중학교                 | 12.9         | 31.8         | 43.2      | 9.1       | 2.9       | 100.0 |
| 고등학교                | 20.1         | 35.9         | 38.8      | 4.9       | .2        | 100.0 |
| 거주지별 <sup>3)</sup>  |              |              |           |           |           |       |
| 강남                  | 15.5         | 32.7         | 41.7      | 8.1       | 2.0       | 100.0 |
| 강북                  | 20.3         | 38.2         | 38.6      | 2.9       | .0        | 100.0 |
| 거주기간별 <sup>4)</sup> |              |              |           |           |           |       |
| 고향거주                | 18.4         | 33.6         | 40.6      | 5.1       | 2.3       | 100.0 |
| 10년미만               | 17.0         | 30.6         | 42.8      | 7.9       | 1.7       | 100.0 |
| 10년이상               | 13.4         | 42.6         | 36.8      | 6.7       | .5        | 100.0 |
| 전 체                 | 16.5         | 33.9         | 41.0      | 7.0       | 1.5       | 100.0 |

1)  $\chi^2=20.53$ ,  $p<0.01$  2)  $\chi^2=27.60$ ,  $p<0.01$  3)  $\chi^2=14.50$ ,  $p<0.01$  4) N.S.

#### (4) 지역사회(시, 군)

청소년들은 지방의회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시, 군)도 지역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조사결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들은 13.5%(‘다소 그렇다’ 10.7%, ‘매우 그렇다’ 2.8%)에

머물렀고,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그저 그렇다’ (39.0%)나 ‘별로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 (47.4%)는 반응을 보였다.

각 변인별로도 전체적인 결과와 비슷한 양상으로 지역사회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자(‘전혀 그렇지 않다’ 17.9%, ‘별로 그렇지 않다’ 32.6%), 고등학생(‘전혀 그렇지 않다’ 17.0%, ‘별로 그렇지 않다’ 36.8%) 강북지역 청소년들(‘전혀 그렇지 않다’ 15.9%, ‘별로 그렇지 않다’ 38.2%)이 여자(‘전혀 그렇지 않다’ 9.5%, ‘별로 그렇지 않다’ 34.8%), 중학교(‘전혀 그렇지 않다’ 10.4%, ‘별로 그렇지 않다’ 30.6%) 및 강남지역 청소년(‘전혀 그렇지 않다’ 13.1%, ‘별로 그렇지 않다’ 32.5%)에 비해 지역사회에 대해 더욱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5〉                    지역사회는 지역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단위 : %)

|                     | 전혀<br>그렇지 않다 | 별로<br>그렇지 않다 | 그저<br>그렇다 | 다소<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계     |
|---------------------|--------------|--------------|-----------|-----------|-----------|-------|
| 성별 <sup>1)</sup>    |              |              |           |           |           |       |
| 남                   | 17.9         | 32.6         | 36.1      | 9.5       | 3.9       | 100.0 |
| 여                   | 9.5          | 34.8         | 42.0      | 12.0      | 1.7       | 100.0 |
| 학교급별 <sup>2)</sup>  |              |              |           |           |           |       |
| 중학교                 | 10.4         | 30.6         | 39.5      | 15.2      | 4.4       | 100.0 |
| 고등학교                | 17.0         | 36.8         | 38.6      | 6.4       | 1.2       | 100.0 |
| 거주지별 <sup>3)</sup>  |              |              |           |           |           |       |
| 강남                  | 13.1         | 32.5         | 38.8      | 12.5      | 3.2       | 100.0 |
| 강북                  | 15.9         | 38.2         | 40.1      | 4.3       | 1.4       | 100.0 |
| 거주기간별 <sup>4)</sup> |              |              |           |           |           |       |
| 고향거주                | 17.5         | 31.8         | 40.6      | 7.4       | 2.8       | 100.0 |
| 10년미만               | 10.7         | 35.8         | 38.7      | 12.0      | 2.8       | 100.0 |
| 10년이상               | 17.7         | 30.1         | 38.3      | 11.0      | 2.9       | 100.0 |
| 전    체              | 13.7         | 33.7         | 39.0      | 10.7      | 2.8       | 100.0 |

1)  $\chi^2=20.88$ ,  $p<0.01$     2)  $\chi^2=36.60$ ,  $p<0.01$     3)  $\chi^2=14.30$ ,  $p<0.01$     4) N.S.

〈표 II-6〉

지역사회는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단위 : %)

|                     | 전혀<br>그렇지 않다 | 별로<br>그렇지 않다 | 그저<br>그렇다 | 다소<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계     |
|---------------------|--------------|--------------|-----------|-----------|-----------|-------|
| 성별 <sup>1)</sup>    |              |              |           |           |           |       |
| 남                   | 9.1          | 19.0         | 40.3      | 23.8      | 7.9       | 100.0 |
| 여                   | 4.1          | 19.7         | 51.9      | 19.3      | 5.0       | 100.0 |
| 학교급별 <sup>2)</sup>  |              |              |           |           |           |       |
| 중학교                 | 6.0          | 14.4         | 40.6      | 27.7      | 11.3      | 100.0 |
| 고등학교                | 7.2          | 24.3         | 51.4      | 15.4      | 1.6       | 100.0 |
| 거주지별 <sup>3)</sup>  |              |              |           |           |           |       |
| 강남                  | 5.8          | 17.1         | 44.7      | 24.6      | 7.8       | 100.0 |
| 강북                  | 9.7          | 27.5         | 51.2      | 10.1      | 1.4       | 100.0 |
| 거주기간별 <sup>4)</sup> |              |              |           |           |           |       |
| 고향거주                | 6.9          | 21.3         | 45.4      | 19.9      | 6.5       | 100.0 |
| 10년미만               | 7.2          | 18.1         | 45.6      | 23.6      | 5.5       | 100.0 |
| 10년이상               | 4.8          | 20.7         | 48.1      | 17.8      | 8.7       | 100.0 |
| 전 체                 | 6.6          | 19.4         | 46.1      | 21.5      | 6.4       | 100.0 |

1)  $\chi^2=21.33$ ,  $p<0.01$  2)  $\chi^2=70.47$ ,  $p<0.01$  3)  $\chi^2=40.28$ ,  $p<0.01$  4) N.S.

지역사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과반수 정도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27.9%('다소 그렇다' 21.5%, '매우 그렇다' 6.4%)에 머물렀고, 46.1%가 '그저 그렇다'고 하였으며 26.0%('전혀 그렇지 않다' 6.6%, '별로 그렇지 않다' 19.4%)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별로도 과반수 정도의 응답자들이 '그저 그렇다'에 가장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남자(31.7%), 중학생(39.0%) 및 강남지역 청소년(32.4%)은 여자(24.3%), 고등학생(17.0%) 및, 강북지역 청소년(11.5%)에 비해 지역사회 민주적 운영 방식에 대해 좀 더 긍정적('다소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지역 자부심

청소년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해 자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자기 지역을 어느 정도 또는 매우 좋아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단지 29.9%('다소 그렇다' 19.5%, '매우 그렇다' 10.4%)에 머물렀고 36.3%('전혀 그렇지 않다' 13.5%, '별로 그렇지 않다' 22.8%)가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별로도 자기 지역에 대한 자부심 정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성별에 있어서는 남자('다소 그렇다' 18.4%, '매우 그렇다' 12.4%), 학교급별로는 중학생('다소 그렇다' 21.6%, '매우 그렇다' 14.1%), 지역별로는 강남지역 청소년들('다소 그렇다' 20.1%, '매우 그렇다' 11.8%)이 여자('다소 그렇다' 20.7%, '매우 그렇다' 8.9%), 고등학생('다소 그렇다' 17.5%, '매우 그렇다' 6.8%) 및 강북지역 청소년('다소 그렇다' 17.4%, '매우 그렇다' 5.3%)에

〈표 II-7〉 나는 우리 지역을 좋아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단위 : %)

|                     | 전혀<br>그렇지 않다 | 별로<br>그렇지 않다 | 그저<br>그렇다 | 다소<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계     |
|---------------------|--------------|--------------|-----------|-----------|-----------|-------|
| 성별 <sup>1)</sup>    |              |              |           |           |           |       |
| 남                   | 15.5         | 21.9         | 32.0      | 18.4      | 12.4      | 100.0 |
| 여                   | 11.6         | 23.8         | 35.5      | 20.7      | 8.5       | 100.0 |
| 학교급별 <sup>2)</sup>  |              |              |           |           |           |       |
| 중학교                 | 14.1         | 20.7         | 29.5      | 21.6      | 14.1      | 100.0 |
| 고등학교                | 12.9         | 24.8         | 38.0      | 17.5      | 6.8       | 100.0 |
| 거주지별 <sup>3)</sup>  |              |              |           |           |           |       |
| 강남                  | 13.5         | 22.7         | 31.9      | 20.1      | 11.8      | 100.0 |
| 강북                  | 13.5         | 23.2         | 40.6      | 17.4      | 5.3       | 100.0 |
| 거주기간별 <sup>4)</sup> |              |              |           |           |           |       |
| 고향거주                | 12.4         | 18.9         | 33.6      | 21.2      | 13.8      | 100.0 |
| 10년미만               | 14.4         | 26.0         | 32.7      | 17.5      | 9.4       | 100.0 |
| 10년이상               | 12.4         | 18.6         | 36.7      | 22.9      | 9.5       | 100.0 |
| 전 체                 | 13.5         | 22.8         | 33.7      | 19.5      | 10.4      | 100.0 |

1) N.S. 2)  $\chi^2=21.85$ ,  $p<0.01$  3)  $\chi^2=10.85$ ,  $p<0.05$  4) N.S.



다’ 23.8%, ‘별로 그렇지 않다’ 23.8%), 10년 미만(‘전혀 그렇지 않다’ 16.9%, ‘별로 그렇지 않다’ 22.8%)의 순으로 자기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의 이사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지방자치 실시에 대한 인식

지방자치의 실시에 대한 청소년들의 기대는 경제적, 복지적 측면, 행정적 측면, 주민들의 의식, 지역대표(공무원)의 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 (1) 경제적, 복지적 측면

과반수 미만의 청소년들이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지역사회의 경제 발전 및

〈표 II-9〉 지방자치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단위 : %)

|                     | 전혀<br>그렇지 않다 | 별로<br>그렇지 않다 | 그저<br>그렇다 | 다소<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계     |
|---------------------|--------------|--------------|-----------|-----------|-----------|-------|
| 성별 <sup>1)</sup>    |              |              |           |           |           |       |
| 남                   | 5.8          | 16.7         | 27.8      | 34.4      | 15.3      | 100.0 |
| 여                   | 2.9          | 17.8         | 33.1      | 34.0      | 12.2      | 100.0 |
| 학교급별 <sup>2)</sup>  |              |              |           |           |           |       |
| 중학교                 | 4.8          | 18.5         | 29.7      | 31.4      | 15.6      | 100.0 |
| 고등학교                | 3.9          | 16.0         | 31.2      | 37.0      | 11.9      | 100.0 |
| 거주지별 <sup>3)</sup>  |              |              |           |           |           |       |
| 강남                  | 4.6          | 17.5         | 28.5      | 34.8      | 14.6      | 100.0 |
| 강북                  | 3.4          | 16.4         | 37.7      | 31.9      | 10.6      | 100.0 |
| 거주기간별 <sup>4)</sup> |              |              |           |           |           |       |
| 고향거주                | 6.9          | 16.6         | 32.7      | 30.4      | 13.4      | 100.0 |
| 10년미만               | 3.7          | 17.9         | 29.3      | 36.2      | 12.9      | 100.0 |
| 10년이상               | 3.3          | 16.3         | 31.1      | 33.0      | 16.3      | 100.0 |
| 전 체                 | 4.3          | 17.3         | 30.5      | 34.2      | 13.7      | 100.0 |

1) N.S. 2) N.S. 3) N.S. 4) N.S.

복지의 개선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47.9%의 응답 청소년들이 이에 대해 긍정적(‘다소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이었으며 ‘그저 그렇다’는 30.5%, 그리고 부정적(‘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별로 그렇지 않다’)으로 응답한 청소년들은 21.6%에 머물러 경제적, 복지적 측면에서 지방자치에 거는 기대가 상당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행정적 측면

지역 행정 및 정책 결정에 있어서도 지방자치체의 실시가 주민들의 의사를 많이 반영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응답 청소년이 과반수 미만(40.4%)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40.4%(‘다소 그렇다’ 30.6%, ‘매우 그렇다’ 13.8%)의 응답 청소년들이 이에 대해 긍정적 이었으며 ‘그저 그렇다’는 30.5%, 그리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청소년들은 25.1%(‘전혀 그렇지 않다’ 4.6%, ‘별

〈표 II-10〉 지방자치제 실시로 주민의사가 많이 반영될 것이다 (단위 : %)

|                     | 전혀<br>그렇지 않다 | 별로<br>그렇지 않다 | 그저<br>그렇다 | 다소<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계     |
|---------------------|--------------|--------------|-----------|-----------|-----------|-------|
| 성별 <sup>1)</sup>    |              |              |           |           |           |       |
| 남                   | 6.2          | 19.6         | 27.6      | 29.5      | 17.1      | 100.0 |
| 여                   | 3.1          | 21.3         | 33.3      | 31.7      | 10.6      | 100.0 |
| 학교급별 <sup>2)</sup>  |              |              |           |           |           |       |
| 중학교                 | 5.8          | 18.7         | 31.6      | 27.7      | 16.2      | 100.0 |
| 고등학교                | 3.5          | 22.2         | 29.4      | 33.5      | 11.5      | 100.0 |
| 거주지별 <sup>3)</sup>  |              |              |           |           |           |       |
| 강남                  | 5.3          | 19.8         | 29.6      | 30.5      | 14.8      | 100.0 |
| 강북                  | 2.4          | 22.7         | 33.8      | 30.9      | 10.1      | 100.0 |
| 거주기간별 <sup>4)</sup> |              |              |           |           |           |       |
| 고향거주                | 4.6          | 22.6         | 27.6      | 33.2      | 12.0      | 100.0 |
| 10년미만               | 4.1          | 20.3         | 32.8      | 28.4      | 14.4      | 100.0 |
| 10년이상               | 6.2          | 18.7         | 27.3      | 33.5      | 14.4      | 100.0 |
| 전 체                 | 4.6          | 20.5         | 30.5      | 30.6      | 13.8      | 100.0 |

1)  $\chi^2=15.77$ ,  $p<0.01$  2)  $\chi^2=11.22$ ,  $p<0.05$  3) N.S. 4) N.S.

로 그렇지 않다' 20.5%)로, 지방자치의 실시로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지역 행정 및 정책 결정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별로는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주민들의 의사를 많이 반영하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해 성별에 있어서 남자(46.6%)가 여자(42.3%)보다 더 긍정적인 반응('다소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을 보였으며, 학교급별로는 근소한 차이로 고등학생(45.0%)이 중학생(43.9%)에 비해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부정적인 반응('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별로 그렇지 않다')도 고등학생(25.7%)이 중학생(24.5%)보다 높게 나타났다.

### (3) 지역주민의 의식(소속감)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갖게

〈표 II-11〉 지방자치제는 주민의 소속감을 느끼게 한다

(단위 : %)

|                     | 전혀<br>그렇지 않다 | 별로<br>그렇지 않다 | 그저<br>그렇다 | 다소<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계     |
|---------------------|--------------|--------------|-----------|-----------|-----------|-------|
| 성별 <sup>1)</sup>    |              |              |           |           |           |       |
| 남                   | 7.4          | 17.5         | 32.6      | 33.8      | 8.7       | 100.0 |
| 여                   | 2.9          | 18.2         | 35.0      | 35.2      | 8.7       | 100.0 |
| 학교급별 <sup>2)</sup>  |              |              |           |           |           |       |
| 중학교                 | 6.0          | 15.8         | 37.8      | 30.4      | 10.0      | 100.0 |
| 고등학교                | 4.3          | 19.9         | 29.8      | 38.6      | 7.4       | 100.0 |
| 거주지별 <sup>3)</sup>  |              |              |           |           |           |       |
| 강남                  | 5.4          | 17.3         | 34.0      | 34.0      | 9.2       | 100.0 |
| 강북                  | 4.3          | 19.8         | 32.9      | 36.2      | 6.8       | 100.0 |
| 거주기간별 <sup>4)</sup> |              |              |           |           |           |       |
| 고향거주                | 5.1          | 19.8         | 31.8      | 36.4      | 6.9       | 100.0 |
| 10년미만               | 5.2          | 19.2         | 36.7      | 30.3      | 8.7       | 100.0 |
| 10년이상               | 5.3          | 12.4         | 28.2      | 43.5      | 10.5      | 100.0 |
| 전 체                 | 5.2          | 17.9         | 33.8      | 34.5      | 8.7       | 100.0 |

1)  $\chi^2=10.21$ ,  $p<0.05$  2)  $\chi^2=14.97$ ,  $p<0.01$  3) N.S. 4)  $\chi^2=17.59$ ,  $p<0.01$

할 것으로 과반수 미만의 청소년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43.2%('다소 그렇다' 34.5%, '매우 그렇다' 8.7%)의 응답자들이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그저 그렇다'는 33.8%, 그리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청소년들은 23.1%('전혀 그렇지 않다' 5.2%, '별로 그렇지 않다' 17.9%)에 머물렀다.

변인별로는 '다소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을 합하여 보면, 여자(43.9%)가 남자(42.5%)보다, 고등학생(46.0%)이 중학생(40.4%)보다, 그리고 10년이상(54.0%), 고향거주(45.3%), 10년미만(39.0%)의 순으로 지방자치체가 주민들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갖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에 대해서도 44.3%('다소 그렇다' 33.0%, '매우 그렇다' 11.3%)의 응답자들이 지방자치체의 실시로 민주주의 의식

〈표 II - 12〉 지방자치제는 주민들의 민주의식을 성장시킨다 (단위 : %)

|                     | 전혀<br>그렇지 않다 | 별로<br>그렇지 않다 | 그저<br>그렇다 | 다소<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계     |
|---------------------|--------------|--------------|-----------|-----------|-----------|-------|
| 성별 <sup>1)</sup>    |              |              |           |           |           |       |
| 남                   | 6.6          | 15.3         | 31.8      | 32.8      | 13.6      | 100.0 |
| 여                   | 2.9          | 17.8         | 37.1      | 33.2      | 8.9       | 100.0 |
| 학교급별 <sup>2)</sup>  |              |              |           |           |           |       |
| 중학교                 | 5.8          | 17.5         | 32.4      | 30.6      | 13.7      | 100.0 |
| 고등학교                | 3.7          | 15.6         | 36.4      | 35.4      | 8.8       | 100.0 |
| 거주지별 <sup>3)</sup>  |              |              |           |           |           |       |
| 강남                  | 5.4          | 16.1         | 32.5      | 33.4      | 12.6      | 100.0 |
| 강북                  | 2.4          | 18.4         | 41.5      | 31.4      | 6.3       | 100.0 |
| 거주기간별 <sup>4)</sup> |              |              |           |           |           |       |
| 고향거주                | 5.1          | 20.3         | 32.3      | 31.3      | 11.1      | 100.0 |
| 10년미만               | 5.0          | 15.7         | 33.8      | 34.6      | 10.9      | 100.0 |
| 10년이상               | 3.8          | 14.8         | 38.3      | 30.6      | 12.4      | 100.0 |
| 전 체                 | 4.8          | 16.5         | 34.4      | 33.0      | 11.3      | 100.0 |

1)  $\chi^2=14.67, p<0.01$  2)  $\chi^2=10.69, p<0.05$  3)  $\chi^2=13.45, p<0.01$  4) N.S.

이 성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며, ‘그저 그렇다’는 34.4%, 그리고 21.3%만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별로는 남자(46.4%)가 여자(42.1%)보다, 중학생(44.3%)이 고등학생(44.2%)보다, 그리고 강남지역 청소년(46.0%)이 강북지역 청소년(37.7%)에 비해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지역주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을 성장시킬 것이라는 데 대해 더욱 긍정적인 반응(‘다소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지역대표나 공무원의 태도

지방자치제 실시후의 지역 대표나 공무원에 대한 태도 변화에 대해서도 과반수 미만의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41.2%(‘다소 그렇다’ 32.1%, ‘매우 그렇다’ 9.1%)

〈표 II-13〉 지방자치제로 지역공직자들이 열심히 일 할 것이다

(단위 : %)

|                     | 전혀<br>그렇지 않다 | 별로<br>그렇지 않다 | 그저<br>그렇다 | 다소<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계     |
|---------------------|--------------|--------------|-----------|-----------|-----------|-------|
| 성별 <sup>1)</sup>    |              |              |           |           |           |       |
| 남                   | 6.4          | 20.2         | 30.0      | 33.5      | 9.9       | 100.0 |
| 여                   | 3.1          | 17.2         | 40.8      | 30.6      | 8.3       | 100.0 |
| 학교급별 <sup>2)</sup>  |              |              |           |           |           |       |
| 중학교                 | 4.8          | 19.1         | 31.0      | 32.8      | 12.3      | 100.0 |
| 고등학교                | 4.7          | 18.3         | 39.7      | 31.3      | 6.0       | 100.0 |
| 거주지별 <sup>3)</sup>  |              |              |           |           |           |       |
| 강남                  | 5.0          | 18.4         | 33.4      | 32.9      | 10.3      | 100.0 |
| 강북                  | 3.9          | 19.8         | 42.5      | 29.0      | 4.8       | 100.0 |
| 거주기간별 <sup>4)</sup> |              |              |           |           |           |       |
| 고향거주                | 6.9          | 21.2         | 33.2      | 31.3      | 7.4       | 100.0 |
| 10년미만               | 4.1          | 18.3         | 35.6      | 33.8      | 8.3       | 100.0 |
| 10년이상               | 4.3          | 17.3         | 37.0      | 28.4      | 13.0      | 100.0 |
| 전 체                 | 4.8          | 18.7         | 35.4      | 32.1      | 9.1       | 100.0 |

1)  $\chi^2=16.07$ ,  $p<0.01$  2)  $\chi^2=16.03$ ,  $p<0.01$  3)  $\chi^2=10.46$ ,  $p<0.05$  4) N.S.

의 응답자들이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그저 그렇다’는 35.3%, 그리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청소년들은 23.5% (‘전혀 그렇지 않다’ 4.8%, ‘별로 그렇지 않다’ 18.7%)로 나타났다.

변인별로는 ‘다소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하여 보면 남자(43.4%)가 여자(38.9%)보다, 중학생(45.1%)이 고등학생(37.3%)보다, 그리고 강남지역 청소년(43.2%)이 강북지역 청소년(33.8%)에 비해 지방자치체의 실시가 지역 대표나 공무원들로 하여금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게 될 것으로 더욱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

### 1) 지역사회 문제

청소년들이 현재 살고 있는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문제(30.0%)

〈표 II-14〉 지역사회 문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복수응답)

(단위: %)

|       | 주민의식<br>부족 | 시설<br>문제 | 교통<br>문제 | 환경<br>문제 | 문화공간<br>부족 | 유해<br>환경 | 기타   | 계     |
|-------|------------|----------|----------|----------|------------|----------|------|-------|
| 성별    |            |          |          |          |            |          |      |       |
| 남     | 5.2        | 16.5     | 17.0     | 30.8     | 6.7        | 6.5      | 17.3 | 100.0 |
| 여     | 9.1        | 15.7     | 17.3     | 29.2     | 8.9        | 4.7      | 15.2 | 100.0 |
| 학교급별  |            |          |          |          |            |          |      |       |
| 중학교   | 6.5        | 16.8     | 14.6     | 36.0     | 6.4        | 4.2      | 15.4 | 100.0 |
| 고등학교  | 7.8        | 15.3     | 19.7     | 24.0     | 9.2        | 7.0      | 17.0 | 100.0 |
| 거주지별  |            |          |          |          |            |          |      |       |
| 강남    | 6.4        | 16.7     | 16.7     | 30.6     | 7.3        | 5.6      | 16.7 | 100.0 |
| 강북    | 10.3       | 13.4     | 19.1     | 27.6     | 9.7        | 5.4      | 14.5 | 100.0 |
| 거주기간별 |            |          |          |          |            |          |      |       |
| 고향거주  | 7.3        | 14.6     | 17.6     | 27.6     | 8.1        | 7.0      | 17.8 | 100.0 |
| 10년미만 | 7.4        | 17.4     | 16.9     | 28.9     | 7.5        | 5.1      | 17.0 | 100.0 |
| 10년이상 | 6.5        | 14.1     | 17.6     | 35.4     | 8.4        | 5.4      | 12.7 | 100.0 |
| 전 체   | 7.2        | 16.1     | 17.2     | 30.0     | 7.8        | 5.6      | 16.2 | 100.0 |

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이 교통문제(17.2%), 시설문제(16.1%), 문화공간의 부족(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2) 인식경로

이상의 지역사회 문제를 인식하게 되는 경로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50.3%) 알게 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스스로의 경험에 의해서’ 14.4%, ‘부모님을 통해서’ 12.6%, ‘지역 홍보물을 통해서’ 12.4%의 순으로 나타났다.

변인별로는 성별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자의 경우는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54.0%, ‘스스로의 경험에 의해서’ 16.0%, ‘지역 홍보물을 통해서’ 9.7%, ‘부모님을 통해서’ 9.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여자의

〈표 II-15〉

지역사회 문제를 알게 되는 경로

(단위: %)

|                     | 신문이나<br>TV | 홍보물  | 선생님 | 친구  | 부모님  | 이웃  | 스스로  | 계     |
|---------------------|------------|------|-----|-----|------|-----|------|-------|
| 성별 <sup>1)</sup>    |            |      |     |     |      |     |      |       |
| 남                   | 54.0       | 9.7  | 3.1 | 4.1 | 9.3  | 3.3 | 16.5 | 100.0 |
| 여                   | 46.5       | 15.1 | 2.7 | 2.9 | 15.9 | 4.5 | 12.4 | 100.0 |
| 학교급별 <sup>2)</sup>  |            |      |     |     |      |     |      |       |
| 중학교                 | 50.4       | 12.2 | 2.9 | 4.1 | 12.9 | 4.1 | 13.3 | 100.0 |
| 고등학교                | 50.1       | 12.5 | 2.9 | 2.9 | 12.3 | 3.7 | 15.6 | 100.0 |
| 거주지별 <sup>3)</sup>  |            |      |     |     |      |     |      |       |
| 강남                  | 50.0       | 12.3 | 3.0 | 3.7 | 12.6 | 3.7 | 14.7 | 100.0 |
| 강북                  | 51.2       | 12.6 | 2.4 | 2.9 | 12.6 | 4.8 | 13.5 | 100.0 |
| 거주기간별 <sup>4)</sup> |            |      |     |     |      |     |      |       |
| 고향거주                | 46.5       | 9.7  | 2.8 | 2.8 | 14.7 | 3.7 | 19.8 | 100.0 |
| 10년미만               | 51.1       | 12.9 | 2.8 | 3.7 | 12.2 | 3.5 | 13.8 | 100.0 |
| 10년이상               | 51.9       | 13.8 | 3.3 | 3.8 | 11.4 | 5.2 | 10.5 | 100.0 |
| 전 체                 | 50.3       | 12.4 | 2.9 | 3.5 | 12.6 | 3.9 | 14.4 | 100.0 |

1)  $\chi^2=21.84$ ,  $p<0.01$  2) N.S. 3) N.S. 4) N.S.

경우는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46.5%, ‘부모님을 통해서’ 15.9%, ‘지역 홍보물을 통해서’ 15.1%, ‘스스로의 경험에 의해서’ 12.4% 등의 순으로 나타나 남녀간에 지역사회 문제를 알게 되는 경로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 3) 문제해결에 대한 행정기관의 태도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 청소년들은 지역사회 행정기관(시,도)의 태도가 적극적이지 못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지역사회 행정기관(시·도)의 태도가 적극적이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10.2% (‘매우 적극적’ 0.8%, ‘적극적인 편’ 9.4%)에 불과했고, 48.8%가 ‘그저 그렇다’고 하였으며 41.0% (‘소극적인 편’ 31.9%, ‘매우 소극적’ 9.1%)가 소극적이었다고 응답하였다.

〈표 II - 16〉      지역문제 해결에 대한 지역사회 행정기관의 태도  
(단위 : %)

|                     | 매우<br>적극적 | 적극적  | 그저<br>그렇다 | 소극적  | 매우<br>소극적 | 계     |
|---------------------|-----------|------|-----------|------|-----------|-------|
| 성별 <sup>1)</sup>    |           |      |           |      |           |       |
| 남                   | 1.4       | 11.3 | 43.5      | 32.4 | 11.3      | 100.0 |
| 여                   | .2        | 7.4  | 54.1      | 31.4 | 6.8       | 100.0 |
| 학교급별 <sup>2)</sup>  |           |      |           |      |           |       |
| 중학교                 | 1.5       | 12.4 | 54.1      | 24.5 | 7.5       | 100.0 |
| 고등학교                | .2        | 6.4  | 43.5      | 39.2 | 10.7      | 100.0 |
| 거주지별 <sup>3)</sup>  |           |      |           |      |           |       |
| 강남                  | 1.0       | 10.4 | 49.6      | 30.4 | 8.5       | 100.0 |
| 강북                  | .0        | 5.8  | 45.9      | 37.2 | 11.1      | 100.0 |
| 거주기간별 <sup>4)</sup> |           |      |           |      |           |       |
| 고향거주                | 1.4       | 6.5  | 46.1      | 35.9 | 10.1      | 100.0 |
| 10년미만               | .7        | 10.5 | 49.8      | 31.0 | 7.9       | 100.0 |
| 10년이상               | .5        | 9.5  | 49.0      | 30.0 | 11.0      | 100.0 |
| 전    체              | .8        | 9.4  | 48.8      | 31.9 | 9.1       | 100.0 |

1)  $\chi^2=19.55$ ,  $p<0.01$     2)  $\chi^2=38.95$ ,  $p<0.01$     3)  $\chi^2=9.77$ ,  $p<0.01$     4) N.S.

변인별로는 남자(43.7%)가 여자(38.2%)보다, 고등학생(49.9%)이 중학생(32.0%)보다, 그리고 강북지역의 청소년들(48.1%)이 강남지역 청소년들(38.9%)보다 지역사회 행정기관(시,도)의 태도가 더욱 소극적(‘소극적인 편’ 또는 ‘매우 소극적’)이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4)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일

평소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부의 지방부처와 시·도청 등 각급 행정기관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로 청소년들은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 및 여가시설의 확충’ 35.2%을 가장 중요시 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청소년을 위한 건전 직업 및 아르바이트의 육성’ 25.1%, ‘비행 청소년이나 불량 씨클 단속 강화’ 10.6%, ‘청소년 우대제도의 마련’ 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17〉 청소년을 위해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일 (복수응답)

(단위 : %)

|       | 직업<br>훈련 | 우대<br>제도 | 아트<br>마이트 | 유해<br>환경<br>단속 | 지도자<br>양성 | 여가<br>시설<br>확충 | 교양<br>프로<br>제작 | 불우<br>청소년<br>계몽 | 불량<br>씨클<br>단속 | 계     |
|-------|----------|----------|-----------|----------------|-----------|----------------|----------------|-----------------|----------------|-------|
| 성별    |          |          |           |                |           |                |                |                 |                |       |
| 남     | 7.9      | 8.6      | 23.6      | 4.9            | 1.9       | 31.5           | 4.1            | 3.6             | 13.9           | 100.0 |
| 여     | 8.0      | 6.2      | 26.6      | 5.1            | .5        | 38.9           | 4.4            | 3.0             | 7.3            | 100.0 |
| 학교급별  |          |          |           |                |           |                |                |                 |                |       |
| 중학교   | 5.4      | 7.4      | 24.4      | 7.1            | 1.3       | 31.8           | 5.2            | 4.1             | 13.3           | 100.0 |
| 고등학교  | 10.5     | 7.4      | 25.8      | 2.9            | 1.1       | 38.5           | 3.2            | 2.6             | 8.0            | 100.0 |
| 거주지별  |          |          |           |                |           |                |                |                 |                |       |
| 강남    | 7.5      | 7.6      | 24.6      | 5.9            | 1.3       | 33.1           | 4.4            | 3.7             | 11.8           | 100.0 |
| 강북    | 9.8      | 6.6      | 26.9      | 1.7            | .7        | 42.8           | 3.4            | 2.0             | 6.1            | 100.0 |
| 거주기간별 |          |          |           |                |           |                |                |                 |                |       |
| 고향거주  | 8.3      | 8.1      | 25.2      | 5.8            | 1.6       | 35.9           | 3.5            | 3.2             | 8.3            | 100.0 |
| 10년미만 | 7.4      | 7.4      | 25.6      | 4.7            | .8        | 34.0           | 4.1            | 3.3             | 12.5           | 100.0 |
| 10년이상 | 8.9      | 6.5      | 23.7      | 4.8            | 1.7       | 37.4           | 5.3            | 3.4             | 8.2            | 100.0 |
| 전 체   | 8.0      | 7.4      | 25.1      | 5.0            | 1.2       | 35.2           | 4.2            | 3.3             | 10.6           | 100.0 |

## 5) 지역사회 문제 해결 참여 경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청소년들이 참여해 본 활동으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선생님 등 주위 사람에 의논한다’ 69.6%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으며, 그 다음이 ‘반사회나 어른이 모였을 때 이야기한다’ 23.7%, ‘지역문제와 관련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18.3%, ‘행정관청에 요청한다’ 10.1%, ‘지역사회 문제를 조사 기록한다’ 9.3% 등의 순으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소극적인 활동에 머무르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18〉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방법 (복수 이분화 응답)

(단위: %)

|       | 조사 기록 | 주위와 의논 | 세미나 참여 | 캠페인  | 행정관청 요청 | 지역 언론기관 | 반사회  | 종교 사회 단체 | 정치인 에 요청 | 계     |
|-------|-------|--------|--------|------|---------|---------|------|----------|----------|-------|
| 성별    |       |        |        |      |         |         |      |          |          |       |
| 남     | 5.1   | 32.7   | 3.1    | 8.2  | 5.4     | 6.2     | 12.1 | 2.7      | 5.1      | 48.2  |
| 여     | 4.3   | 37.0   | 0.8    | 10.1 | 4.7     | 3.5     | 11.7 | 2.7      | 0.8      | 51.8  |
| 학교급별  |       |        |        |      |         |         |      |          |          |       |
| 중학교   | 6.2   | 40.1   | 2.7    | 12.5 | 6.2     | 5.8     | 16.0 | 3.5      | 3.5      | 58.4  |
| 고등학교  | 3.1   | 29.6   | 1.2    | 5.8  | 3.9     | 3.9     | 7.8  | 1.9      | 2.3      | 41.6  |
| 거주지별  |       |        |        |      |         |         |      |          |          |       |
| 강남    | 8.2   | 56.0   | 3.9    | 16.3 | 8.2     | 8.6     | 21.4 | 4.7      | 4.7      | 83.3  |
| 강북    | 1.2   | 13.6   | 0.0    | 1.9  | 1.9     | 1.2     | 2.3  | 0.8      | 1.2      | 16.7  |
| 거주기간별 |       |        |        |      |         |         |      |          |          |       |
| 고향거주  | 2.7   | 17.1   | 1.2    | 5.8  | 2.3     | 2.3     | 6.6  | 1.2      | 1.2      | 25.3  |
| 10년미만 | 5.1   | 40.5   | 2.7    | 9.7  | 6.2     | 6.2     | 14.8 | 3.9      | 3.5      | 59.1  |
| 10년이상 | 1.6   | 12.1   | 0.0    | 2.7  | 1.6     | 1.2     | 2.3  | 0.4      | 1.2      | 15.6  |
| 전 체   | 9.3   | 69.6   | 3.9    | 18.3 | 10.1    | 9.7     | 23.7 | 5.4      | 5.8      | 100.0 |

## 6) 지역사회문제 해결 방법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선생님 등 주위 사람에 의논한다’ 34.7%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으며, 그 다음이 ‘반상회나 어른이 모였을 때 이야기한다’ 15.1%, ‘지역문제와 관련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14.1%, ‘지역사회 문제를 조사 기록한다’ 13.1% 등의 순으로 청소년들이 참여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현재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직접 경험한 바 있는 활동인 〈표 II-18〉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난 것인데, 정치적이고 운동적인 차원의 활동보다도 청소년과 가까이 있고 손쉬운 활동부터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19〉 지역문제해결을 위해 참여할 수 있는 일 (복수응답)

(단위 : %)

|       | 조사<br>기록 | 주위와<br>의논 | 세미나  | 캠페인  | 행정<br>관청<br>요청 | 지역<br>언론<br>기관 | 반상회  | 종교<br>사회<br>단체 | 정치인 | 계     |
|-------|----------|-----------|------|------|----------------|----------------|------|----------------|-----|-------|
| 성별    |          |           |      |      |                |                |      |                |     |       |
| 남     | 14.3     | 31.2      | 7.9  | 15.2 | 4.9            | 7.7            | 14.7 | 2.5            | 1.6 | 100.0 |
| 여     | 12.0     | 35.7      | 7.3  | 13.0 | 4.1            | 7.1            | 15.6 | 3.6            | 1.7 | 100.0 |
| 학교급별  |          |           |      |      |                |                |      |                |     |       |
| 중학교   | 14.7     | 33.3      | 6.9  | 14.0 | 4.0            | 6.3            | 16.3 | 2.6            | 2.0 | 100.0 |
| 고등학교  | 11.5     | 33.7      | 8.3  | 14.2 | 5.0            | 8.5            | 14.0 | 3.6            | 1.3 | 100.0 |
| 거주지별  |          |           |      |      |                |                |      |                |     |       |
| 강남    | 13.1     | 33.1      | 7.8  | 14.8 | 4.1            | 7.3            | 15.4 | 2.7            | 1.6 | 100.0 |
| 강북    | 13.2     | 34.7      | 6.7  | 11.7 | 6.0            | 7.7            | 14.1 | 4.2            | 1.7 | 100.0 |
| 거주기간별 |          |           |      |      |                |                |      |                |     |       |
| 고향거주  | 13.7     | 32.2      | 10.4 | 14.0 | 2.8            | 8.5            | 13.7 | 2.8            | 1.7 | 100.0 |
| 10년미만 | 13.3     | 33.6      | 6.7  | 14.2 | 5.0            | 6.4            | 15.7 | 3.5            | 1.6 | 100.0 |
| 10년이상 | 11.9     | 34.6      | 7.0  | 13.9 | 5.0            | 8.7            | 15.2 | 2.0            | 1.7 | 100.0 |
| 전 체   | 13.1     | 33.5      | 7.6  | 14.1 | 4.5            | 7.4            | 15.1 | 3.0            | 1.7 | 100.0 |

### 3.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 1) 지역사회 참여 성향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서 청소년들의 참여 성향을 공공질서, 불우이웃돕기, 환경보호활동, 경제활동, 정치활동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 (1) 공공질서

청소년들의 공공질서에 대한 참여 성향은 ‘길거리에 담배 궂초나 쓰레기가 있을 경우 이를 주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냐’는 질문을 통해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 과반수 정도(52.5%)의 응답 청소년들이 길거리에 담배 궂초나 쓰레기를 주워야 한다고 하였으나 ‘매우 그렇다’는 22.3%, ‘다소 그렇다’ 30.2%로 그 정도는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저 그렇다’가 28.8%로 나타났다

〈표 II-20〉 담배궂초나 쓰레기는 주워야 한다

(단위: %)

|                    | 전혀<br>그렇지 않다 | 별로<br>그렇지 않다 | 그저<br>그렇다 | 다소<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계     |
|--------------------|--------------|--------------|-----------|-----------|-----------|-------|
| 성별 <sup>1)</sup>   |              |              |           |           |           |       |
| 남                  | 7.6          | 15.3         | 30.5      | 24.7      | 21.9      | 100.0 |
| 여                  | 3.3          | 11.2         | 27.1      | 35.7      | 22.7      | 100.0 |
| 학교급별 <sup>2)</sup> |              |              |           |           |           |       |
| 중학교                | 4.6          | 11.6         | 29.5      | 26.6      | 27.8      | 100.0 |
| 고등학교               | 6.4          | 14.8         | 28.1      | 33.9      | 16.8      | 100.0 |
| 거주지별 <sup>3)</sup> |              |              |           |           |           |       |
| 강남                 | 5.4          | 13.1         | 27.7      | 29.5      | 24.3      | 100.0 |
| 강북                 | 5.8          | 13.5         | 32.9      | 32.9      | 15.0      | 100.0 |
| 전 체                | 5.5          | 13.2         | 28.8      | 30.2      | 22.3      | 100.0 |

1)  $\chi^2=22.14$ ,  $p<0.01$  2)  $\chi^2=20.78$ ,  $p<0.01$  3) N.S.

을 뿐만 아니라, ‘별로 그렇지 않다’도 13.2%나 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가 5.5%로 나타났다.

이를 변인별로 살펴보면 여자의 경우가 58.4%(‘다소 그렇다’ 35.7%, ‘매우 그렇다’ 22.7%)로 남자의 46.6%(‘다소 그렇다’ 24.7%, ‘매우 그렇다’ 21.9%)보다, 중학생의 경우는 54.4%(‘다소 그렇다’ 26.6%, ‘매우 그렇다’ 27.8%)로 고등학생의 50.7%(‘다소 그렇다’ 33.9%, ‘매우 그렇다’ 16.8%)보다도 길거리에 담배 궂초나 쓰레기가 있을 경우 이를 주워야 한다고 하는 점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길거리의 담배 궂초나 쓰레기 줍는 것을 통해서 본 청소년들의 공공질서 의식은 조사 응답자의 과반수 정도가 긍정적이었지만 과거와는 달리 매우 악화되고 있고, 특히 남자의 경우는 여자보다도 더욱 나빠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불우 이웃 돕기

청소년들의 불우 이웃 돕기에 대한 참여 성향은 ‘우리 이웃에 어렵게 살고

〈표 II-21〉 어려운 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은 도와야 한다

(단위 : %)

|                    | 전혀<br>그렇지 않다 | 별로<br>그렇지 않다 | 그저<br>그렇다 | 다소<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계     |
|--------------------|--------------|--------------|-----------|-----------|-----------|-------|
| 성별 <sup>1)</sup>   |              |              |           |           |           |       |
| 남                  | 2.7          | 10.1         | 19.8      | 37.9      | 29.5      | 100.0 |
| 여                  | 1.7          | 5.4          | 14.9      | 40.9      | 37.2      | 100.0 |
| 학교급별 <sup>2)</sup> |              |              |           |           |           |       |
| 중학교                | 2.7          | 8.9          | 20.3      | 37.3      | 30.7      | 100.0 |
| 고등학교               | 1.6          | 6.6          | 14.4      | 41.5      | 35.9      | 100.0 |
| 거주지별 <sup>3)</sup> |              |              |           |           |           |       |
| 강남                 | 2.4          | 7.9          | 18.6      | 37.0      | 34.1      | 100.0 |
| 강북                 | 1.4          | 7.2          | 12.6      | 48.3      | 30.4      | 100.0 |
| 전 체                | 2.2          | 7.7          | 17.3      | 39.4      | 33.3      | 100.0 |

1)  $\chi^2=16.42$ ,  $p<0.01$  2)  $\chi^2=10.97$ ,  $p<0.05$  3)  $\chi^2=10.11$ ,  $p<0.05$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나 소년소녀가장이 있으면 도와주어야 하느냐’는 질문을 통해 알아보았는데, 참여의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72.7%의 응답 청소년들이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그저 그렇다’ 17.3%, ‘별로 그렇지 않다’ 7.7%, ‘전혀 그렇지 않다’ 2.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변인별로 살펴보면, 여자의 경우가 78.1%(‘다소 그렇다’ 40.9%, ‘매우 그렇다’ 35.9%)로 남자의 67.4%(‘다소 그렇다’ 37.9%, ‘매우 그렇다’ 29.5%)보다, 고등학생이 77.4%(‘다소 그렇다’ 41.5%, ‘매우 그렇다’ 35.9%)로 중학생의 68.0%(‘다소 그렇다’ 37.3%, ‘매우 그렇다’ 30.7%)보다, 강북지역 청소년이 78.7%(‘다소 그렇다’ 37.3%, ‘매우 그렇다’ 30.7%)로 71.1%(‘다소 그렇다’ 37.0%, ‘매우 그렇다’ 34.1%)의 강남지역 청소년보다도 참여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환경보호활동

청소년들의 환경보호 활동에 대한 참여 성향은 ‘공장폐수의 유입’과 ‘쓰레기장이나 핵폐기장 설치’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를 통해서 알아보았다.

〈표 II-22〉 인근에 공장폐수가 유입되면 신고해야 한다

(단위: %)

|                    | 전혀<br>그렇지 않다 | 별로<br>그렇지 않다 | 그저<br>그렇다 | 다소<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계     |
|--------------------|--------------|--------------|-----------|-----------|-----------|-------|
| 성별 <sup>1)</sup>   |              |              |           |           |           |       |
| 남                  | 3.7          | 4.1          | 15.1      | 20.0      | 57.0      | 100.0 |
| 여                  | 2.5          | 3.9          | 14.1      | 20.7      | 58.8      | 100.0 |
| 학교급별 <sup>2)</sup> |              |              |           |           |           |       |
| 중학교                | 3.9          | 5.4          | 17.6      | 20.7      | 52.3      | 100.0 |
| 고등학교               | 2.3          | 2.7          | 11.5      | 20.0      | 63.5      | 100.0 |
| 거주지별 <sup>3)</sup> |              |              |           |           |           |       |
| 강남                 | 3.3          | 4.2          | 14.9      | 21.3      | 56.3      | 100.0 |
| 강북                 | 2.4          | 3.4          | 13.5      | 16.9      | 63.8      | 100.0 |
| 전 체                | 3.1          | 4.0          | 14.6      | 20.4      | 57.9      | 100.0 |

1) N.S. 2)  $\chi^2=18.07$ ,  $p<0.01$  3) N.S.

먼저 강이나 호수에의 공장폐수의 유입에 대해서는 이를 신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조사결과 78.3%('다소 그렇다' 20.4%, '매우 그렇다' 57.9%)나 되는 많은 응답 청소년들이 신고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그저 그렇다'는 14.6%였고, 반대하는 의견은 7.1%('전혀 그렇지 않다' 3.1%, '별로 그렇지 않다' 4.0%)로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학교급별로 보면 고등학생이 83.5%('다소 그렇다' 20.0%, '매우 그렇다' 63.5%)로 중학생의 73.0%('다소 그렇다' 20.7%, '매우 그렇다' 52.3%)보다도 참여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쓰레기장이나 핵폐기장의 설치에 대해서는 이를 반대하는 의견이 찬성하는 의견보다 많이 나왔으나 공장폐수의 유입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쓰레기장이나 핵폐기장 설치의 반대가 50.2%('매우 그렇다'는 23.8%, '다소 그렇다' 26.4%)로 나왔으나, '그저 그렇다'가 29.4%나 되었으며, '별로 그렇지 않다' 11.1%, '전혀 그렇지 않다' 9.3%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에 따라서 미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쓰레기장이나 핵폐기장의 설치에 대해 여자(50.9%)가 남자(49.4%)보다도 반대 의견('다소 그렇

〈표 II-23〉 우리마을에 쓰레기장이나 핵폐기장 설치는 안된다

(단위 : %)

|                    | 전혀<br>그렇지 않다 | 별로<br>그렇지 않다 | 그저<br>그렇다 | 다소<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계     |
|--------------------|--------------|--------------|-----------|-----------|-----------|-------|
| 성별 <sup>1)</sup>   |              |              |           |           |           |       |
| 남                  | 11.8         | 11.3         | 27.4      | 21.2      | 28.2      | 100.0 |
| 여                  | 6.8          | 10.8         | 31.5      | 26.3      | 24.6      | 100.0 |
| 학교급별 <sup>2)</sup> |              |              |           |           |           |       |
| 중학교                | 11.0         | 10.6         | 31.4      | 21.4      | 25.6      | 100.0 |
| 고등학교               | 7.6          | 11.5         | 27.5      | 26.1      | 27.3      | 100.0 |
| 거주지별 <sup>3)</sup> |              |              |           |           |           |       |
| 강남                 | 9.5          | 10.2         | 29.3      | 23.9      | 27.1      | 100.0 |
| 강북                 | 8.7          | 14.0         | 30.0      | 23.2      | 24.2      | 100.0 |
| 전 체                | 9.3          | 11.1         | 29.4      | 23.8      | 26.4      | 100.0 |

1)  $\chi^2=11.52$ ,  $p<0.05$  2) N.S. 3) N.S.

다’ 또는 ‘매우 그렇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청소년들의 환경보호 활동에 대한 참여 성향은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강이나 호수의 보호 등의 자연환경에 대한 보호 성향이 마을 등 인위적인 환경에 대한 보호 성향보다도 높음을 알 수 있다.

(4) 경제활동 참여

청소년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해서는 많은 청소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경제활동에 찬성하는 청소년들이 60.3% (‘다소 그렇다’ 28.6%, ‘매우 그렇다’ 31.7%)로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 22.0%, ‘별로 그렇지 않다’ 11.0%, ‘전혀 그렇지 않다’ 6.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68.9%)이 중학생(51.7%)보다 지역별로는 강북지역 청소년(73.5%)이 강남지역 청소년(56.8%)보다 경제활동에 참여하기를 더욱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4〉 청소년도 부업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위 : %)

|                    | 전혀<br>그렇지 않다 | 별로<br>그렇지 않다 | 그저<br>그렇다 | 다소<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계     |
|--------------------|--------------|--------------|-----------|-----------|-----------|-------|
| 성별 <sup>1)</sup>   |              |              |           |           |           |       |
| 남                  | 8.5          | 11.6         | 20.2      | 27.7      | 32.0      | 100.0 |
| 여                  | 5.0          | 10.3         | 23.8      | 29.5      | 31.4      | 100.0 |
| 학교급별 <sup>2)</sup> |              |              |           |           |           |       |
| 중학교                | 9.5          | 13.9         | 24.9      | 25.1      | 26.6      | 100.0 |
| 고등학교               | 3.9          | 8.0          | 19.1      | 32.1      | 36.8      | 100.0 |
| 거주지별 <sup>3)</sup> |              |              |           |           |           |       |
| 강남                 | 7.4          | 13.0         | 22.9      | 27.5      | 29.3      | 100.0 |
| 강북                 | 4.3          | 3.4          | 18.8      | 32.9      | 40.6      | 100.0 |
| 전 체                | 6.7          | 11.0         | 22.0      | 28.6      | 31.7      | 100.0 |

1) N.S. 2)  $\chi^2=34.91, p<0.01$  3)  $\chi^2=25.34, p<0.01$

### (5) 정치활동 참여

청소년들의 정치활동 참여에 대해서는 과반수 정도(50.9%)의 청소년들이 찬성(‘다소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하고 있어 반대(‘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별로 그렇지 않다’)하는 청소년(20.8%)에 비해 찬성 비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51.2%)가 남자(50.6%)보다 좀 더 정치참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55.1%)이 중학생(46.5%)보다 참여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5〉 학생들도 정치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단위 : %)

|                    | 전혀<br>그렇지 않다 | 별로<br>그렇지 않다 | 그저<br>그렇다 | 다소<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계     |
|--------------------|--------------|--------------|-----------|-----------|-----------|-------|
| 성별 <sup>1)</sup>   |              |              |           |           |           |       |
| 남                  | 9.5          | 13.6         | 26.4      | 25.2      | 25.4      | 100.0 |
| 여                  | 4.3          | 14.3         | 30.2      | 28.6      | 22.6      | 100.0 |
| 학교급별 <sup>2)</sup> |              |              |           |           |           |       |
| 중학교                | 9.4          | 16.2         | 27.9      | 24.7      | 21.8      | 100.0 |
| 고등학교               | 4.5          | 11.7         | 28.7      | 29.0      | 26.1      | 100.0 |
| 거주지별 <sup>3)</sup> |              |              |           |           |           |       |
| 강남                 | 7.4          | 14.3         | 27.9      | 26.8      | 23.7      | 100.0 |
| 강북                 | 5.3          | 12.6         | 30.0      | 27.1      | 25.1      | 100.0 |
| 전 체                | 6.9          | 13.9         | 28.3      | 26.9      | 24.0      | 100.0 |

1)  $\chi^2=12.40$ ,  $p<0.05$  2)  $\chi^2=15.20$ ,  $p<0.01$  3) N.S.

### 2) 지역사회 참여 정도

그동안 청소년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 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지역사회 참여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의견이 82.1%(‘부진한 편이다’ 44.9%, ‘전혀 없었다’ 37.4%)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그 반면 활발했다는 의견은 3.5%에 머물렀으며, ‘그저 그렇다’는 14.2%로 나타났다.

변인별로는 여자(86.6%)가 남자(78.1%)보다, 고등학생(92.3%)이 중학생(72.1%)보다, 그리고 강북지역 청소년(95.1%)이 강남지역 청소년(78.8%)보다 그동안 청소년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가 부진했거나 전혀 없었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II-26〉                      지역사회에 대한 청소년들의 참여 정도                      (단위: %)

|                     | 매우<br>활발 | 활발한 편 | 그저<br>그렇다 | 부진한 편 | 전혀<br>없었다 | 계     |
|---------------------|----------|-------|-----------|-------|-----------|-------|
| 성별 <sup>1)</sup>    |          |       |           |       |           |       |
| 남                   | 1.0      | 4.5   | 16.3      | 46.5  | 31.6      | 100.0 |
| 여                   | .2       | 1.2   | 12.0      | 43.3  | 43.3      | 100.0 |
| 학교급별 <sup>2)</sup>  |          |       |           |       |           |       |
| 중학교                 | 1.0      | 4.0   | 22.9      | 45.5  | 26.6      | 100.0 |
| 고등학교                | .2       | 1.9   | 5.6       | 44.2  | 48.1      | 100.0 |
| 거주지별 <sup>3)</sup>  |          |       |           |       |           |       |
| 강남                  | .8       | 3.6   | 16.8      | 44.3  | 34.5      | 100.0 |
| 강북                  | .0       | .5    | 4.3       | 46.9  | 48.3      | 100.0 |
| 거주기간별 <sup>4)</sup> |          |       |           |       |           |       |
| 고향거주                | .9       | 1.8   | 11.1      | 42.4  | 43.8      | 100.0 |
| 10년미만               | .6       | 3.5   | 15.5      | 46.6  | 33.8      | 100.0 |
| 10년이상               | .5       | 2.4   | 13.9      | 43.1  | 40.2      | 100.0 |
| 전    체              | .6       | 2.9   | 14.2      | 44.9  | 37.4      | 100.0 |

1)  $\chi^2=24.28, p<0.01$     2)  $\chi^2=87.57, p<0.01$     3)  $\chi^2=33.40, p<0.01$     4) N.S.

### 3) 청소년 참여에 대한 기성세대의 인식

한편,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에 대해 기성세대들은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응답했다. 조사결과 53.6%(‘매우 부정적’ 9.3%, ‘부정적인 편’ 44.3%)의 응답자들이 기성세대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그저 그렇다’는 35.6%, 긍정적인 인식은 10.8%(‘긍정적인 편’ 9.6%, ‘매우 긍정적’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별로는 여자(55.6%)가 남자(51.76%)보다, 고등학생(56.7%)이 중학생(51.4%)보다, 그리고 강북지역 청소년(61.7%)이 강남지역 청소년(51.4%)보다 그동안 기성세대들이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매우 부정적’ 또는 ‘부정적인 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7〉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기성세대의 인식 (단위 : %)

|                     | 매우<br>부정적 | 부정적  | 그저<br>그렇다 | 긍정적  | 매우<br>긍정적 | 계     |
|---------------------|-----------|------|-----------|------|-----------|-------|
| 성별 <sup>1)</sup>    |           |      |           |      |           |       |
| 남                   | 11.8      | 39.8 | 36.2      | 10.4 | 1.9       | 100.0 |
| 여                   | 6.8       | 48.8 | 34.9      | 8.9  | .6        | 100.0 |
| 학교급별 <sup>2)</sup>  |           |      |           |      |           |       |
| 중학교                 | 8.7       | 41.7 | 35.7      | 12.7 | 1.2       | 100.0 |
| 고등학교                | 9.9       | 46.8 | 35.5      | 6.6  | 1.2       | 100.0 |
| 거주지별 <sup>3)</sup>  |           |      |           |      |           |       |
| 강남                  | 8.8       | 42.6 | 36.3      | 11.0 | 1.3       | 100.0 |
| 강북                  | 11.2      | 50.5 | 33.0      | 4.4  | 1.0       | 100.0 |
| 거주기간별 <sup>4)</sup> |           |      |           |      |           |       |
| 고향거주                | 11.1      | 45.4 | 36.1      | 7.4  | .0        | 100.0 |
| 10년미만               | 7.4       | 46.1 | 34.7      | 10.7 | 1.1       | 100.0 |
| 10년이상               | 12.4      | 38.3 | 37.3      | 9.1  | 2.9       | 100.0 |
| 전 체                 | 9.3       | 44.3 | 35.6      | 9.6  | 1.2       | 100.0 |

1)  $\chi^2=14.55$ ,  $p<0.01$  2)  $\chi^2=11.01$ ,  $p<0.05$  3)  $\chi^2=11.40$ ,  $p<0.05$

4)  $\chi^2=16.67$ ,  $p<0.05$

#### 4) 지역사회 참여 수준

본 조사에서는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수준을 ‘지역사회에 대하여 관심과 애착을 갖는 것’, ‘재정적 또는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것’, ‘지역사회 관련 모임 또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 ‘앞장서서 모임을 만들거나 행사를 이끌어 나가는 것’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 수준에 대해서

는 42.8%의 응답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관련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착’ 38.7%, ‘앞장서서 모임을 만들거나 행사를 이끌어가는 것’ 11.9%, ‘재정적 또는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것’의 순으로 나타나, 지역사회 참여에 수준이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변인별로는 성별에 있어서 여자의 경우 바람직한 지역사회 참여 수준으로 ‘지역사회 관련 모임이나 행사 참여’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각각 44.4%와 41.7%로 남자의 41.4%와 35.6%보다 높게 나왔으며, ‘앞장서서 모임을 만들거나 행사를 이끌어가는 것’과 ‘재정적 또는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것’은 각각 9.3%, 4.6%로 남자의 14.5%, 8.5%보다 낮게 나타났다. 거주지역에 있어서는 강북지역 청소년이 ‘지역사회 관련 모임이나 행사 참여’에 51.2%로 강남지역 청소년의 40.6%보다 높은 반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표 II-28〉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 수준                      (단위 : %)

|                     | 지역사회 관심 | 물질적 도움 | 행사참여 | 모임주도 | 계     |
|---------------------|---------|--------|------|------|-------|
| 성별 <sup>1)</sup>    |         |        |      |      |       |
| 남                   | 35.6    | 8.5    | 41.4 | 14.5 | 100.0 |
| 여                   | 41.7    | 4.6    | 44.4 | 9.3  | 100.0 |
| 학교급별 <sup>2)</sup>  |         |        |      |      |       |
| 중학교                 | 40.9    | 6.5    | 39.2 | 13.4 | 100.0 |
| 고등학교                | 36.4    | 6.6    | 46.5 | 10.5 | 100.0 |
| 거주지별 <sup>3)</sup>  |         |        |      |      |       |
| 강남                  | 39.6    | 6.5    | 40.6 | 13.3 | 100.0 |
| 강북                  | 35.3    | 6.8    | 51.2 | 6.8  | 100.0 |
| 거주기간별 <sup>4)</sup> |         |        |      |      |       |
| 고향거주                | 38.4    | 6.5    | 43.1 | 12.0 | 100.0 |
| 10년미만               | 38.7    | 6.7    | 41.7 | 13.0 | 100.0 |
| 10년이상               | 38.8    | 6.2    | 45.9 | 9.1  | 100.0 |
| 전    체              | 38.7    | 6.5    | 42.9 | 11.9 | 100.0 |

1)  $\chi^2=13.89$ ,  $p<0.01$     2) N.S.    3)  $\chi^2=10.92$ ,  $p<0.05$     4) N.S.

애착'은 35.3%로 강남 지역 청소년의 39.6%보다 낮았으며, '앞장서서 모임을 만들거나 행사를 이끌어가는 것'과 '재정적 또는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것'은 강북 지역 청소년이 똑같이 6.8%였으나, 강남지역 청소년은 각각 13.3%, 6.5%로 각각 나타났다.

### 5) 지역사회 참여의 의의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의 의의로는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소속감)의 확대' (39.1%)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 행정예의 청소년 요구 반영' (32.3%), '민주주의 생활태도의 형성' (17.7%)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은 8.7%로 낮게 나타났다.

변인별로는 성별에 있어서 남자는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소속감) 확대'가

〈표 II-29〉                      지역사회에 대한 청소년 참여 의의  
(단위 : %)

|                     | 민주주의<br>의식 | 문제해결 | 소속감  | 청소년<br>요구반영 | 기타  | 계     |
|---------------------|------------|------|------|-------------|-----|-------|
| 성별 <sup>1)</sup>    |            |      |      |             |     |       |
| 남                   | 18.7       | 10.3 | 35.0 | 33.1        | 2.9 | 100.0 |
| 여                   | 16.8       | 7.1  | 43.2 | 31.4        | 1.5 | 100.0 |
| 학교급별 <sup>2)</sup>  |            |      |      |             |     |       |
| 중학교                 | 14.9       | 12.2 | 36.4 | 33.7        | 2.7 | 100.0 |
| 고등학교                | 20.5       | 5.2  | 41.8 | 30.8        | 1.7 | 100.0 |
| 거주지별 <sup>3)</sup>  |            |      |      |             |     |       |
| 강남                  | 19.0       | 9.4  | 36.3 | 32.8        | 2.4 | 100.0 |
| 강북                  | 13.1       | 5.8  | 49.5 | 30.1        | 1.5 | 100.0 |
| 거주기간별 <sup>4)</sup> |            |      |      |             |     |       |
| 고향거주                | 19.4       | 6.5  | 42.4 | 30.4        | 1.4 | 100.0 |
| 10년미만               | 16.8       | 10.1 | 38.4 | 32.1        | 2.6 | 100.0 |
| 10년이상               | 18.5       | 7.3  | 37.6 | 34.6        | 2.0 | 100.0 |
| 전    체              | 17.7       | 8.7  | 39.1 | 32.3        | 2.2 | 100.0 |

1)  $\chi^2=10.05$ ,  $p<0.05$     2)  $\chi^2=21.49$ ,  $p<0.01$     3)  $\chi^2=13.86$ ,  $p<0.01$     4) N.S.

35.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 행정예의 청소년 요구 반영’ 33.1%, ‘민주주의 생활태도의 형성’ 18.7%, ‘지역사회 문제 해결’ 10.3% 등의 순이었는데, 여자는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소속감) 확대’가 43.2%로 남자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고, 그 반면 ‘지역사회 행정예의 청소년 요구 반영’ 31.4%, ‘민주주의 생활태도의 형성’ 16.8%, ‘지역사회 문제 해결’ 7.1% 등은 남자의 경우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의 경우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소속감) 확대’, ‘민주주의 생활태도의 형성’은 각각 41.8%, 20.5%로 중학생의 36.4%, 14.9%보다 높았으며, 그 반면 ‘지역사회 행정예의 청소년 요구 반영’, ‘지역사회 문제 해결’은 각각 30.8%, 5.2%로 중학생의 33.7%, 12.2%보다 낮게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강북지역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참여의 의외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소속감) 확대’에 49.5%가 응답해 강남지역 청소년의 36.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사회 행정예의 청소년 요구 반영’이 30.1%, ‘민주주의 생활태도의 형성’이 13.1%,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 5.8% 등인 반면, 강북지역 청소년은 ‘지역사회 행정예의 청소년 요구 반영’ 32.8%, ‘민주주의 생활태도의 형성’ 19.0%, ‘지역사회 문제 해결’ 9.4% 등으로 나타났다.

## 6) 참여 활성화 방안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 분야의 개발’ (44.0%)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청소년 참여에 대한 기성세대의 인식 전환’ (27.5%), ‘청소년의 지역사회 소속감 및 참여의식의 제고’ 22.3%,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홍보’ (6.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30〉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

(단위 : %)

|                     | 홍보  | 참여의식 | 인식전환 | 참여분야 개발 | 계     |
|---------------------|-----|------|------|---------|-------|
| 성별 <sup>1)</sup>    |     |      |      |         |       |
| 남                   | 7.9 | 20.1 | 27.6 | 44.4    | 100.0 |
| 여                   | 4.6 | 24.4 | 27.3 | 43.7    | 100.0 |
| 학교급별 <sup>2)</sup>  |     |      |      |         |       |
| 중학교                 | 7.3 | 23.8 | 24.6 | 44.4    | 100.0 |
| 고등학교                | 5.2 | 20.8 | 30.3 | 43.7    | 100.0 |
| 거주지별 <sup>3)</sup>  |     |      |      |         |       |
| 강남                  | 6.7 | 22.3 | 26.4 | 44.6    | 100.0 |
| 강북                  | 4.3 | 22.2 | 31.4 | 42.0    | 100.0 |
| 거주기간별 <sup>4)</sup> |     |      |      |         |       |
| 고향거주                | 4.6 | 25.3 | 30.0 | 40.1    | 100.0 |
| 10년미만               | 5.7 | 20.4 | 25.9 | 48.0    | 100.0 |
| 10년이상               | 9.1 | 24.0 | 28.8 | 38.0    | 100.0 |
| 전 체                 | 6.2 | 22.3 | 27.5 | 44.0    | 100.0 |

1) N.S. 2) N.S. 3) N.S. 4) N.S.

#### 4.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 1) 자원봉사활동 경험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33.7%의 청소년만이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이 있었고, 66.3%의 청소년들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1〉

## 자원봉사활동 경험 유무

(단위 : %)

|                     | 있다   | 없다   | 계     |
|---------------------|------|------|-------|
| 성별 <sup>1)</sup>    |      |      |       |
| 남                   | 34.4 | 65.6 | 100.0 |
| 여                   | 33.0 | 67.0 | 100.0 |
| 학교급별 <sup>2)</sup>  |      |      |       |
| 중학교                 | 33.3 | 66.7 | 100.0 |
| 고등학교                | 34.2 | 65.8 | 100.0 |
| 거주지별 <sup>3)</sup>  |      |      |       |
| 강남                  | 32.6 | 67.4 | 100.0 |
| 강북                  | 37.7 | 62.3 | 100.0 |
| 거주기간별 <sup>4)</sup> |      |      |       |
| 고향거주                | 36.9 | 63.1 | 100.0 |
| 10년미만               | 31.9 | 68.1 | 100.0 |
| 10년이상               | 35.2 | 64.8 | 100.0 |
| 전 체                 | 33.7 | 66.3 | 100.0 |

1) N.S. 2) N.S. 3) N.S. 4) N.S.

## 2) 자원봉사활동의 의의

자원봉사활동의 의의로 기쁨과 만족, 인성 개발, 문제 해결 능력의 개발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 32.7%는 것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다음으로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통해 원만한 인성을 기를 수 있다’ 29.7%, ‘스스로 할 일을 찾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다’ 21.7%, ‘이웃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다’ 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변인별로는 학교급별에 있어서 중학생의 경우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 (32.5%)가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다음으로 ‘스스로 할 일을 찾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다’ (26.0%),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통해 원만한 인성을 기를 수 있다’ (23.9%), ‘이웃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다’ (11.5%)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고등학생은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통해 원만한 인

성을 기를 수 있다' (35.5%)가 가장 높고,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 (33.0%), '스스로 할 일을 찾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다' (17.4%), '이웃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다' (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에 따라서는 강남 지역 청소년의 경우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 (33.1%),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통해 원만한 인성을 기를 수 있다' (27.2%), '스스로 할 일을 찾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다' (23.2%), '이웃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다' (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강북 지역 청소년의 경우는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통해 원만한 인성을 기를 수 있다' (38.8%),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 (31.6%), '스스로 할 일을 찾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다' (16.0%), '이웃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다' (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32〉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점 (단위 : %)

|                     | 기쁨   | 인성   | 문제<br>해결능력 | 공동체<br>의식 | 진로선택 | 기타  | 계     |
|---------------------|------|------|------------|-----------|------|-----|-------|
| 성별 <sup>1)</sup>    |      |      |            |           |      |     |       |
| 남                   | 30.3 | 29.0 | 24.2       | 11.3      | 4.2  | 1.0 | 100.0 |
| 여                   | 35.2 | 30.4 | 19.2       | 10.8      | 3.3  | 1.0 | 100.0 |
| 학교급별 <sup>2)</sup>  |      |      |            |           |      |     |       |
| 중학교                 | 32.5 | 23.9 | 26.0       | 11.5      | 5.0  | 1.0 | 100.0 |
| 고등학교                | 33.0 | 35.5 | 17.4       | 10.6      | 2.5  | 1.0 | 100.0 |
| 거주지별 <sup>3)</sup>  |      |      |            |           |      |     |       |
| 강남                  | 33.1 | 27.2 | 23.2       | 11.7      | 4.0  | .8  | 100.0 |
| 강북                  | 31.6 | 38.8 | 16.0       | 8.7       | 2.9  | 1.9 | 100.0 |
| 거주기간별 <sup>4)</sup> |      |      |            |           |      |     |       |
| 고향거주                | 31.6 | 29.3 | 19.5       | 13.5      | 4.7  | 1.4 | 100.0 |
| 10년미만               | 31.2 | 30.4 | 22.9       | 11.0      | 3.5  | .9  | 100.0 |
| 10년이상               | 38.0 | 28.4 | 20.7       | 8.7       | 3.4  | 1.0 | 100.0 |
| 전 체                 | 32.7 | 29.7 | 21.7       | 11.1      | 3.8  | 1.0 | 100.0 |

1) N.S. 2)  $\chi^2=23.27$ ,  $p<0.01$  3)  $\chi^2=15.14$ ,  $p<0.01$  4) N.S.

### 3) 희망하는 자원봉사활동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자원봉사활동으로는 ‘불우이웃 돕기’ (21.9%)를 가장 선호하고 있었으며, ‘유치원 방문’ (15.7%)이나 ‘환경보호활동’ (15.2%), ‘거리 청소’ (10.6%) 등도 자원봉사활동으로 높게 선호되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자원봉사활동 중에는 헌혈, 사회 사건 고발하기 등 시기적으로 삼풍붕괴 사고와 관련한 활동도 상당 정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청소년들이 이러한 시사적인 문제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다.

〈표 II-33〉 자원봉사활동 기회가 주어지면 하고 싶은 일 (복수응답)

(단위 : %)

|        | 불우<br>이웃<br>돕기 | 쓰레<br>기<br>분리<br>수거 | 유치<br>원<br>방문 | 환경<br>보호 | 장애<br>자<br>돕기 | 헌혈  | 모임<br>만들<br>기 | 자선  | 거리<br>청소 | 지역<br>안내 | 농촌<br>봉사<br>활동 | 사회<br>사건<br>알리<br>기 | 기타   | 계     |
|--------|----------------|---------------------|---------------|----------|---------------|-----|---------------|-----|----------|----------|----------------|---------------------|------|-------|
| 성별     |                |                     |               |          |               |     |               |     |          |          |                |                     |      |       |
| 남      | 16.2           | 6.2                 | 10.5          | 18.5     | 2.5           | 7.8 | 3.5           | 2.8 | 14.1     | 2.7      | .9             | 3.0                 | 11.5 | 100.0 |
| 여      | 27.1           | 5.4                 | 20.5          | 12.2     | 4.1           | 5.1 | 2.5           | 4.9 | 7.4      | 2.3      | .1             | .7                  | 7.7  | 100.0 |
| 학교급별   |                |                     |               |          |               |     |               |     |          |          |                |                     |      |       |
| 중학교    | 20.2           | 5.0                 | 15.5          | 12.8     | 2.6           | 5.1 | 3.3           | 3.5 | 15.9     | 2.3      | .6             | 1.6                 | 11.9 | 100.0 |
| 고등학교   | 23.7           | 6.7                 | 16.0          | 18.0     | 4.1           | 7.8 | 2.6           | 4.3 | 4.7      | 2.7      | .4             | 2.0                 | 6.9  | 100.0 |
| 거주지별   |                |                     |               |          |               |     |               |     |          |          |                |                     |      |       |
| 강남     | 20.6           | 6.0                 | 15.5          | 14.8     | 2.5           | 6.0 | 2.9           | 4.0 | 12.5     | 2.1      | .4             | 2.1                 | 10.5 | 100.0 |
| 강북     | 26.7           | 4.9                 | 16.5          | 17.1     | 6.4           | 7.8 | 3.2           | 3.5 | 2.9      | 4.1      | .6             | .6                  | 5.8  | 100.0 |
| 거주기간별  |                |                     |               |          |               |     |               |     |          |          |                |                     |      |       |
| 고향거주   | 23.6           | 6.6                 | 16.2          | 15.4     | 2.9           | 8.0 | 2.7           | 4.5 | 6.4      | 1.6      | .8             | 1.6                 | 9.8  | 100.0 |
| 10년미만  | 20.5           | 5.5                 | 14.7          | 14.8     | 3.4           | 6.2 | 3.0           | 4.1 | 12.3     | 3.1      | .4             | 2.0                 | 9.9  | 100.0 |
| 10년이상  | 23.8           | 5.6                 | 17.9          | 16.2     | 3.4           | 5.3 | 3.1           | 2.8 | 10.4     | 1.7      | .3             | 1.4                 | 8.1  | 100.0 |
| 전    체 | 21.9           | 5.8                 | 15.7          | 15.2     | 3.3           | 6.4 | 3.0           | 3.9 | 10.6     | 2.5      | .5             | 1.8                 | 9.5  | 100.0 |

#### 4) 봉사활동 참가 희망 정도

##### (1) 어린이 돌보기

유아원, 유치원 같은 시설에서 어린이를 돌보아 주는 일에 대해서 69.1% ('반드시 참여' 21.7%, '가능하면 참여' 47.4%)의 청소년들이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9.0%는 '그저 그렇다'고 하였으며, 11.9%만이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별로는 성별에 있어서 여자의 경우(81.4%)가 남자(56.8%)보다도 참가 희망 정도가 월등히 높았으며, 거주지역별로는 강북 지역 청소년들(77.8%)이 강남지역 청소년들(66.7%)에 비해 유아원, 유치원 같은 시설에서 어린이를 돌보아 주는 일에 참가 희망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4〉 유아원,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을 돌보는 일

(단위 : %)

|                     | 반드시 참여 | 가능하면 참여 | 그저 그렇다 | 참여 않는다 | 계     |
|---------------------|--------|---------|--------|--------|-------|
| 성별 <sup>1)</sup>    |        |         |        |        |       |
| 남                   | 13.8   | 43.0    | 24.2   | 19.0   | 100.0 |
| 여                   | 29.5   | 51.9    | 13.8   | 4.8    | 100.0 |
| 학교급별 <sup>2)</sup>  |        |         |        |        |       |
| 중학교                 | 19.5   | 47.3    | 21.2   | 12.0   | 100.0 |
| 고등학교                | 23.9   | 47.5    | 16.9   | 11.7   | 100.0 |
| 거주지별 <sup>3)</sup>  |        |         |        |        |       |
| 강남                  | 21.0   | 45.7    | 20.2   | 13.0   | 100.0 |
| 강북                  | 24.2   | 53.6    | 14.5   | 7.7    | 100.0 |
| 거주기간별 <sup>4)</sup> |        |         |        |        |       |
| 고향거주                | 26.4   | 45.8    | 14.8   | 13.0   | 100.0 |
| 10년미만               | 20.3   | 46.5    | 20.1   | 13.1   | 100.0 |
| 10년이상               | 20.5   | 51.4    | 20.5   | 7.6    | 100.0 |
| 전 체                 | 21.7   | 47.4    | 19.0   | 11.9   | 100.0 |

1)  $\chi^2=86.52$ ,  $p<0.01$  2) N.S. 3)  $\chi^2=9.52$ ,  $p<0.05$  4) N.S.

## (2) 구조물 제작 및 수리

놀이터나 학교기재 공공설비 등의 구조물을 만들거나 제작하는 일에 대해서는 참여 희망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30.2%만이 참가를 희망하고 있었으며, ‘그저 그렇다’ 40.5%, ‘참여하지 않겠다’ 29.3%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37.8%가 참가를 희망하는데 비하여, 여자는 22.5%만이 희망하고 있었으며, ‘그저 그렇다’는 남자가 34.6%, 여자가 46.3%, ‘참여하지 않는다’는 남자가 27.5%, 여자가 31.2%로 일의 성격상 남자의 참가 희망정도가 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5〉 놀이터, 공공설비 등의 구조물을 만들거나 수리하는 일

(단위 : %)

|                     | 반드시 참여 | 가능하면 참여 | 그저 그렇다 | 참여 않는다 | 계     |
|---------------------|--------|---------|--------|--------|-------|
| 성별 <sup>1)</sup>    |        |         |        |        |       |
| 남                   | 9.1    | 28.7    | 34.7   | 27.5   | 100.0 |
| 여                   | 2.5    | 20.0    | 46.3   | 31.2   | 100.0 |
| 학교급별 <sup>2)</sup>  |        |         |        |        |       |
| 중학교                 | 6.4    | 25.7    | 38.0   | 29.9   | 100.0 |
| 고등학교                | 5.1    | 23.0    | 43.0   | 28.8   | 100.0 |
| 거주지별 <sup>3)</sup>  |        |         |        |        |       |
| 강남                  | 6.2    | 24.6    | 39.4   | 29.8   | 100.0 |
| 강북                  | 4.3    | 23.7    | 44.4   | 27.5   | 100.0 |
| 거주기간별 <sup>4)</sup> |        |         |        |        |       |
| 고향거주                | 7.4    | 25.5    | 40.3   | 26.9   | 100.0 |
| 10년미만               | 5.4    | 24.0    | 39.7   | 31.0   | 100.0 |
| 10년이상               | 5.2    | 24.3    | 42.9   | 27.6   | 100.0 |
| 전 체                 | 5.8    | 24.4    | 40.5   | 29.3   | 100.0 |

1)  $\chi^2=34.90$ ,  $p<0.01$  2) N.S. 3) N.S. 4) N.S.

### (3) 지역 환경보호운동

자연환경 보호운동에의 참가 희망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강, 호수, 산 등을 깨끗하게 만들거나 환경을 가꾸는 지역사회 환경보호 운동에는 67.0%의 청소년들이 참가를 희망하고 있었고, ‘그저 그렇다’는 23.6%, ‘참여하지 않겠다’는 청소년들은 9.4%에 머물렀다.

이를 변인별로 살펴보면, 성별에 있어서는 여자 응답자들의 69.5%가 참가를 희망하고 있는데 반해, 남자 응답자는 64.4%가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급별로는 중학생 응답자들의 69.7%가 참가를 희망하고 있는데 반해, 고등학생은 64.3%만이 참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자와 중학생 응답자들이 남자와 고등학생에 비해 자연환경보호운동에의 참가 희망 정도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36〉

지역환경보호운동에의 참가

(단위 : %)

|                     | 반드시 참여 | 가능하면 참여 | 그저 그렇다 | 참여 않는다 | 계     |
|---------------------|--------|---------|--------|--------|-------|
| 성별 <sup>1)</sup>    |        |         |        |        |       |
| 남                   | 25.4   | 39.0    | 23.8   | 11.8   | 100.0 |
| 여                   | 21.1   | 48.4    | 23.4   | 7.0    | 100.0 |
| 학교급별 <sup>2)</sup>  |        |         |        |        |       |
| 중학교                 | 29.0   | 40.7    | 22.0   | 8.3    | 100.0 |
| 고등학교                | 17.5   | 46.8    | 25.2   | 10.5   | 100.0 |
| 거주지별 <sup>3)</sup>  |        |         |        |        |       |
| 강남                  | 24.5   | 42.2    | 23.2   | 10.1   | 100.0 |
| 강북                  | 18.8   | 49.3    | 25.1   | 6.8    | 100.0 |
| 거주기간별 <sup>4)</sup> |        |         |        |        |       |
| 고향거주                | 27.8   | 39.4    | 25.0   | 7.9    | 100.0 |
| 10년미만               | 21.3   | 44.4    | 24.8   | 9.6    | 100.0 |
| 10년이상               | 23.8   | 46.7    | 19.0   | 10.5   | 100.0 |
| 전 체                 | 23.3   | 43.7    | 23.6   | 9.4    | 100.0 |

1)  $\chi^2=12.58$ ,  $p<0.01$  2)  $\chi^2=18.16$ ,  $p<0.01$  3) N.S. 4) N.S.

#### (4) 자선기금 모금

지역사회 자선 이벤트, 각종 바자회 등 지역사회 발전이나 다른 좋은 일을 위해 자선기금을 마련하는 일에 대한 청소년들의 참가 희망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69.9%의 응답자들이 참가를 희망하고 있었으며, ‘그저 그렇다’는 29.5%, ‘참여하지 않는다’는 10.7%에 머물렀다.

성별에 있어서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보다 여자 응답자가 높게 나타났다는데, 남자는 52.5%인데 반해, 여자는 67.3%가 참가를 희망하고 있었다.

〈표 II-37〉 지역사회 자선 이벤트 참여 및 기금 마련

(단위: %)

|                     | 반드시 참여 | 가능하면 참여 | 그저 그렇다 | 참여 않는다 | 계     |
|---------------------|--------|---------|--------|--------|-------|
| 성별 <sup>1)</sup>    |        |         |        |        |       |
| 남                   | 13.0   | 39.5    | 32.9   | 14.7   | 100.0 |
| 여                   | 22.4   | 44.9    | 26.1   | 6.6    | 100.0 |
| 학교급별 <sup>2)</sup>  |        |         |        |        |       |
| 중학교                 | 19.5   | 41.2    | 30.1   | 9.1    | 100.0 |
| 고등학교                | 15.8   | 43.2    | 28.8   | 12.1   | 100.0 |
| 거주지별 <sup>3)</sup>  |        |         |        |        |       |
| 강남                  | 18.2   | 41.7    | 28.8   | 11.3   | 100.0 |
| 강북                  | 15.9   | 44.0    | 31.9   | 8.2    | 100.0 |
| 거주기간별 <sup>4)</sup> |        |         |        |        |       |
| 고향거주                | 20.4   | 43.5    | 25.9   | 10.2   | 100.0 |
| 10년미만               | 15.7   | 43.4    | 30.3   | 10.7   | 100.0 |
| 10년이상               | 20.1   | 37.8    | 31.1   | 11.0   | 100.0 |
| 전 체                 | 17.7   | 42.2    | 29.5   | 10.7   | 100.0 |

1)  $\chi^2=32.09$ ,  $p<0.01$  2) N.S. 3) N.S. 4) N.S.

(5)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토론활동 참여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토론회에 참여하거나 청소년 토론모임을 만들어 활동하는 일에 대해서는 45.3%가 참가를 희망했으며, ‘그저 그렇다’는 36.3%, ‘참여하지 않는다’는 18.4%로 과반수 미만만이 토론활동에의 참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의 경우가 남자보다 참가 희망 정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여자는 ‘반드시 참여한다’가 12.8%, ‘가능하면 참여한다’ 35.0%, ‘그저 그렇다’ 38.7%, ‘참여하지 않는다’ 18.4%로 나타났고, 남자는 ‘반드시 참여한다’가 13.0%로 여자보다 높았지만, ‘가능하면 참여한다’ (29.8%)는 적었으며, ‘그저 그렇다’ 33.9%, ‘참여하지 않는다’ 23.3%로 나타났다.

〈표 II-38〉 지역문제에 대한 청소년 토론 활동하기

(단위 : %)

|                     | 반드시 참여 | 가능하면 참여 | 그저 그렇다 | 참여 않는다 | 계     |
|---------------------|--------|---------|--------|--------|-------|
| 성별 <sup>1)</sup>    |        |         |        |        |       |
| 남                   | 13.0   | 29.8    | 33.9   | 23.3   | 100.0 |
| 여                   | 12.8   | 35.0    | 38.7   | 13.5   | 100.0 |
| 학교급별 <sup>2)</sup>  |        |         |        |        |       |
| 중학교                 | 14.1   | 30.6    | 36.4   | 18.9   | 100.0 |
| 고등학교                | 11.7   | 34.2    | 36.2   | 17.9   | 100.0 |
| 거주지별 <sup>3)</sup>  |        |         |        |        |       |
| 강남                  | 12.9   | 32.0    | 35.4   | 19.7   | 100.0 |
| 강북                  | 13.0   | 33.8    | 39.6   | 13.5   | 100.0 |
| 거주기간별 <sup>4)</sup> |        |         |        |        |       |
| 고향거주                | 18.5   | 31.9    | 32.4   | 17.1   | 100.0 |
| 10년미만               | 11.6   | 30.6    | 38.7   | 19.0   | 100.0 |
| 10년이상               | 10.5   | 37.3    | 34.0   | 18.2   | 100.0 |
| 전 체                 | 12.9   | 32.4    | 36.3   | 18.4   | 100.0 |

1)  $\chi^2=16.45$ ,  $p<0.01$  2) N.S. 3) N.S. 4) N.S.

(6) 노인 및 장애인 돌보기

혼자 사는 노인이나 장애인을 돌보는 일에 대해서는 57.9%의 응답 청소년이 참가를 희망하고 있었으며, 11.8%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나머지 30.3%는 그저 그렇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의 경우(66.2%)가 남자(49.5%)보다도 노인이나 장애인을 돌보는 일에 참여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9〉                      노인이나 장애인을 도와주는 일                      (단위 : %)

|                     | 반드시 참여 | 가능하면 참여 | 그저 그렇다 | 참여 않는다 | 계     |
|---------------------|--------|---------|--------|--------|-------|
| 성별 <sup>1)</sup>    |        |         |        |        |       |
| 남                   | 13.5   | 36.0    | 33.3   | 17.2   | 100.0 |
| 여                   | 21.7   | 44.5    | 27.3   | 6.4    | 100.0 |
| 학교급별 <sup>1)</sup>  |        |         |        |        |       |
| 중학교                 | 17.7   | 40.1    | 30.6   | 11.6   | 100.0 |
| 고등학교                | 17.5   | 40.4    | 30.1   | 12.0   | 100.0 |
| 거주지별 <sup>3)</sup>  |        |         |        |        |       |
| 강남                  | 17.0   | 39.3    | 30.8   | 12.9   | 100.0 |
| 강북                  | 19.9   | 43.7    | 28.6   | 7.8    | 100.0 |
| 거주기간별 <sup>4)</sup> |        |         |        |        |       |
| 고향거주                | 18.1   | 42.6    | 27.3   | 12.0   | 100.0 |
| 10년미만               | 16.1   | 37.7    | 32.7   | 13.5   | 100.0 |
| 10년이상               | 21.1   | 44.5    | 27.3   | 7.2    | 100.0 |
| 전    체              | 17.6   | 40.3    | 30.3   | 11.8   | 100.0 |

1)  $\chi^2=40.32$ ,  $p<0.01$     2) N.S.    3) N.S.    4) N.S.

(7) 헌혈

헌혈 및 헌혈 캠페인 참여에 대해서는 과반수 정도의 응답 청소년이 참여 의사를 나타내고 있었다. 조사 결과 58.3%가 참가를 희망하고 있었으며, ‘그저 그렇다’는 26.5%,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 청소년은 15.2%에 머물렀다.

변인별로는 남자의 경우(61.2%)가 여자(55.3%)보다도, 고등학생(65.4%)이 중학생(51.2%)보다도, 그리고 강북 지역 청소년들(69.9%)이 강남 지역 청소년(55.1%)보다 헌혈 및 헌혈 캠페인에의 참가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0〉

헌혈하거나 헌혈캠페인 참가

(단위 : %)

|                           | 반드시 참여 | 가능하면 참여 | 그저 그렇다 | 참여 않는다 | 계     |
|---------------------------|--------|---------|--------|--------|-------|
| <b>성별<sup>1)</sup></b>    |        |         |        |        |       |
| 남                         | 28.0   | 33.2    | 22.8   | 16.0   | 100.0 |
| 여                         | 19.8   | 35.5    | 30.2   | 14.5   | 100.0 |
| <b>학교급별<sup>2)</sup></b>  |        |         |        |        |       |
| 중학교                       | 20.8   | 30.4    | 31.0   | 17.9   | 100.0 |
| 고등학교                      | 27.0   | 38.4    | 22.1   | 12.6   | 100.0 |
| <b>거주지별<sup>3)</sup></b>  |        |         |        |        |       |
| 강남                        | 21.7   | 33.4    | 28.7   | 16.2   | 100.0 |
| 강북                        | 32.0   | 37.9    | 18.4   | 11.7   | 100.0 |
| <b>거주기간별<sup>4)</sup></b> |        |         |        |        |       |
| 고향거주                      | 31.0   | 31.0    | 22.7   | 15.3   | 100.0 |
| 10년미만                     | 21.4   | 35.1    | 27.9   | 15.5   | 100.0 |
| 10년이상                     | 23.0   | 35.9    | 26.8   | 14.4   | 100.0 |
| 전 체                       | 23.9   | 34.4    | 26.5   | 15.2   | 100.0 |

1)  $\chi^2=12.41$ ,  $p<0.01$  2)  $\chi^2=20.11$ ,  $p<0.01$  3)  $\chi^2=16.76$ ,  $p<0.01$  4) N.S.

(8) 아동을 위한 공연

아동들을 위해 음악, 연극, 댄스, 인형극 등을 준비하거나 직접 작품을 공연하는 일에 대해서 55.4%의 응답 청소년들이 참가를 희망했으며, ‘그저 그렇다’는 27.7%,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 청소년은 16.9%로 나타났다.

성별에 있어서는 여자(64.2%)가 남자(46.7%)보다, 그리고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강북 지역 청소년(62.8%)이 강남 지역 청소년(53.4%)에 비해 아동을 위한 공연에의 참가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1〉 아동을 위한 연극, 음악 등을 준비하고 공연하기

(단위 : %)

|                     | 반드시 참여 | 가능하면 참여 | 그저 그렇다 | 참여 않는다 | 계     |
|---------------------|--------|---------|--------|--------|-------|
| 성별 <sup>1)</sup>    |        |         |        |        |       |
| 남                   | 17.4   | 29.3    | 28.7   | 24.6   | 100.0 |
| 여                   | 27.3   | 36.9    | 26.7   | 9.1    | 100.0 |
| 학교급별 <sup>2)</sup>  |        |         |        |        |       |
| 중학교                 | 20.4   | 34.7    | 27.9   | 17.0   | 100.0 |
| 고등학교                | 24.3   | 31.5    | 27.6   | 16.7   | 100.0 |
| 거주지별 <sup>3)</sup>  |        |         |        |        |       |
| 강남                  | 21.3   | 32.1    | 28.3   | 18.3   | 100.0 |
| 강북                  | 26.1   | 36.7    | 25.6   | 11.6   | 100.0 |
| 거주기간별 <sup>4)</sup> |        |         |        |        |       |
| 고향거주                | 26.9   | 37.0    | 22.2   | 13.9   | 100.0 |
| 10년미만               | 19.6   | 32.0    | 28.8   | 19.6   | 100.0 |
| 10년이상               | 24.8   | 31.9    | 30.5   | 12.9   | 100.0 |
| 전 체                 | 22.3   | 33.1    | 27.7   | 16.9   | 100.0 |

1)  $\chi^2=49.60$ ,  $p<0.01$  2) N.S. 3)  $\chi^2=7.45$ ,  $p<0.05$  4)  $\chi^2=14.35$ ,  $p<0.05$

(9) 지역사회 문제 알리기

사회적 사건, 공공안전, 기타 다른 주제들에 대한 정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리는 일(보건환경 등 지역사회 문제 알리기)에 대해 46.4%의 응답 청소년들이 참가 의사를 나타냈으며, ‘그저 그렇다’가 40.9%, ‘참여하지 않는다’가 12.7%로 나타났다.

성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여자(48.1%)가 남자(44.6%)보다 참여 의사가 높게 나왔는데, ‘반드시 참여한다’에는 남자(14.0%)가 여자(9.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2〉 지역사회문제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널리 알리기

(단위 : %)

|                     | 반드시 참여 | 가능하면 참여 | 그저 그렇다 | 참여 않는다 | 계     |
|---------------------|--------|---------|--------|--------|-------|
| 성별 <sup>1)</sup>    |        |         |        |        |       |
| 남                   | 14.0   | 30.6    | 40.1   | 15.3   | 100.0 |
| 여                   | 9.9    | 38.2    | 41.7   | 10.1   | 100.0 |
| 학교급별 <sup>2)</sup>  |        |         |        |        |       |
| 중학교                 | 12.4   | 31.3    | 43.6   | 12.7   | 100.0 |
| 고등학교                | 11.5   | 37.4    | 38.3   | 12.8   | 100.0 |
| 거주지별 <sup>3)</sup>  |        |         |        |        |       |
| 강남                  | 12.5   | 32.3    | 41.9   | 13.3   | 100.0 |
| 강북                  | 10.1   | 42.0    | 37.2   | 10.6   | 100.0 |
| 거주기간별 <sup>4)</sup> |        |         |        |        |       |
| 고향거주                | 11.1   | 34.3    | 41.2   | 13.4   | 100.0 |
| 10년미만               | 13.3   | 31.2    | 42.6   | 12.9   | 100.0 |
| 10년이상               | 9.5    | 42.9    | 36.2   | 11.4   | 100.0 |
| 전 체                 | 12.0   | 34.4    | 40.9   | 12.7   | 100.0 |

1)  $\chi^2=12.80$ ,  $p<0.01$  2) N.S. 3) N.S. 4) N.S.

(10) 재활용품 분류 및 홍보

재활용에 대한 홍보와 재활용품들을 모으고 분류하고 재생하는 작업에 참여하는 일(물건 바꿔쓰기, 재활용품 개발하기)에 대한 청소년들의 참여 의사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73.6%의 청소년들이 참가 의사를 나타냈고, ‘그저 그렇다’ 21.0%, ‘참여하지 않는다’ 5.5%로 나타났다.

변인별로는 성별에 있어서는 여자(76.6%)가 남자(70.4%)보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77.0%)이 고등학생(70.1%)보다 재활용품 분류 및 홍보에 대한 참가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3〉 물건 바꿔쓰기와 재활용품 개발하기 (단위 : %)

|                     | 반드시 참여 | 가능하면 참여 | 그저 그렇다 | 참여 않는다 | 계     |
|---------------------|--------|---------|--------|--------|-------|
| 성별 <sup>1)</sup>    |        |         |        |        |       |
| 남                   | 26.2   | 44.2    | 22.1   | 7.4    | 100.0 |
| 여                   | 29.5   | 47.1    | 19.8   | 3.5    | 100.0 |
| 학교급별 <sup>2)</sup>  |        |         |        |        |       |
| 중학교                 | 32.8   | 44.2    | 18.5   | 4.6    | 100.0 |
| 고등학교                | 23.0   | 47.1    | 23.5   | 6.4    | 100.0 |
| 거주지별 <sup>3)</sup>  |        |         |        |        |       |
| 강남                  | 28.5   | 44.9    | 21.4   | 5.1    | 100.0 |
| 강북                  | 25.6   | 48.3    | 19.3   | 6.8    | 100.0 |
| 거주기간별 <sup>4)</sup> |        |         |        |        |       |
| 고향거주                | 31.5   | 45.8    | 17.6   | 5.1    | 100.0 |
| 10년미만               | 27.1   | 44.5    | 22.3   | 6.1    | 100.0 |
| 10년이상               | 26.2   | 48.6    | 21.0   | 4.3    | 100.0 |
| 전 체                 | 27.9   | 45.7    | 21.0   | 5.5    | 100.0 |

1)  $\chi^2=8.80$ ,  $p<0.05$  2)  $\chi^2=13.00$ ,  $p<0.01$  3) N.S. 4) N.S.

(11) 아동 개인교습지도

개인교습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어린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교사들과 같이 협조하는 일(동네아이 돌보기, 학습지도)에 대해서는 60.1%의 응답 청소년이 참가 의사를 보였고, 28.7%는 ‘그저 그렇다’, 11.2%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나타냈다.

성별에 있어서는 여자의 경우가 73.7%로 남자의 46.4% 보다 아동 개인교습지도에 참가 의사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4〉 동네아이 돌보거나 학습지도하기 (단위 : %)

|                     | 반드시 참여 | 가능하면 참여 | 그저 그렇다 | 참여 않는다 | 계     |
|---------------------|--------|---------|--------|--------|-------|
| 성별 <sup>1)</sup>    |        |         |        |        |       |
| 남                   | 13.9   | 32.5    | 36.9   | 16.8   | 100.0 |
| 여                   | 26.2   | 47.5    | 20.7   | 5.6    | 100.0 |
| 학교급별 <sup>2)</sup>  |        |         |        |        |       |
| 중학교                 | 20.3   | 39.8    | 30.7   | 9.1    | 100.0 |
| 고등학교                | 19.8   | 40.2    | 26.8   | 13.2   | 100.0 |
| 거주지별 <sup>3)</sup>  |        |         |        |        |       |
| 강남                  | 19.9   | 38.3    | 30.7   | 11.2   | 100.0 |
| 강북                  | 20.8   | 46.4    | 21.7   | 11.1   | 100.0 |
| 거주기간별 <sup>4)</sup> |        |         |        |        |       |
| 고향거주                | 22.2   | 40.7    | 24.1   | 13.0   | 100.0 |
| 10년미만               | 19.2   | 38.4    | 30.1   | 12.2   | 100.0 |
| 10년이상               | 20.0   | 43.3    | 30.0   | 6.7    | 100.0 |
| 전 체                 | 20.1   | 40.0    | 28.7   | 11.2   | 100.0 |

1)  $\chi^2=81.21$ ,  $p<0.01$  2) N.S. 3) N.S. 4) N.S.

(12) 수용시설 방문

병원이나 양로원, 고아원, 정신지체아 수용시설에의 방문에 대해서는 59.0%의 응답 청소년이 참가 의사를 보였고, 28.0%는 ‘그저 그렇다’, 13.0%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변인별로는 여자(69.7%)의 경우가 남자(48.4%)보다, 고등학생(64.9%)이 중학생(53.1%)보다, 그리고 강북 지역 청소년(72.5%)이 강남 지역 청소년(55.3%)에 비해 병원이나 양로원, 고아원, 정신지체아 수용시설에의 방문 의사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5〉                      병원, 양로원 등 수용시설 방문하기  
(단위 : %)

|                     | 반드시 참여 | 가능하면 참여 | 그저 그렇다 | 참여 않는다 | 계     |
|---------------------|--------|---------|--------|--------|-------|
| 성별 <sup>1)</sup>    |        |         |        |        |       |
| 남                   | 12.2   | 36.2    | 31.6   | 20.0   | 100.0 |
| 여                   | 24.0   | 45.7    | 24.4   | 6.0    | 100.0 |
| 학교급별 <sup>2)</sup>  |        |         |        |        |       |
| 중학교                 | 16.2   | 36.9    | 32.4   | 14.5   | 100.0 |
| 고등학교                | 20.0   | 44.9    | 23.7   | 11.5   | 100.0 |
| 거주지별 <sup>3)</sup>  |        |         |        |        |       |
| 강남                  | 17.3   | 38.0    | 30.1   | 14.6   | 100.0 |
| 강북                  | 20.8   | 51.7    | 20.3   | 7.2    | 100.0 |
| 거주기간별 <sup>4)</sup> |        |         |        |        |       |
| 고향거주                | 20.4   | 39.8    | 25.5   | 14.4   | 100.0 |
| 10년미만               | 17.3   | 38.7    | 29.9   | 14.0   | 100.0 |
| 10년이상               | 17.6   | 47.6    | 25.7   | 9.0    | 100.0 |
| 전    체              | 18.1   | 40.9    | 28.0   | 13.0   | 100.0 |

1)  $\chi^2=65.13, p<0.01$     2)  $\chi^2=13.84, p<0.01$     3)  $\chi^2=20.86, p<0.01$     4) N.S.

(13) 아동을 위한 레크레이션 및 야외활동 지도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레크레이션을 함께 하거나 야외활동에 참여하고 지도하는 일에 대해서는 61.4%의 응답 청소년이 참가를 희망하고 있었으며, ‘그저 그렇다’가 25.7%, ‘참여하지 않는다’가 12.9%로 나타났다.

성별에 있어서는 여자 응답자들(68.6%)이 남자들(54.1%)보다 아동을 위한 레크레이션 및 야외활동 지도에 참가를 더욱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6〉 지역어린이들과 레크레이션하거나 야외활동하기

(단위 : %)

|                     | 반드시 참여 | 가능하면 참여 | 그저 그렇다 | 참여 않는다 | 계     |
|---------------------|--------|---------|--------|--------|-------|
| 성별 <sup>1)</sup>    |        |         |        |        |       |
| 남                   | 19.0   | 35.1    | 26.4   | 19.4   | 100.0 |
| 여                   | 31.0   | 37.6    | 25.0   | 6.4    | 100.0 |
| 학교급별 <sup>2)</sup>  |        |         |        |        |       |
| 중학교                 | 26.3   | 35.7    | 23.4   | 14.5   | 100.0 |
| 고등학교                | 23.7   | 37.0    | 28.0   | 11.3   | 100.0 |
| 거주지별 <sup>3)</sup>  |        |         |        |        |       |
| 강남                  | 24.6   | 35.0    | 26.4   | 14.1   | 100.0 |
| 강북                  | 26.6   | 41.5    | 23.2   | 8.7    | 100.0 |
| 거주기간별 <sup>4)</sup> |        |         |        |        |       |
| 고향거주                | 26.9   | 39.8    | 21.3   | 12.0   | 100.0 |
| 10년미만               | 24.4   | 34.5    | 27.3   | 13.8   | 100.0 |
| 10년이상               | 24.8   | 37.6    | 26.2   | 11.4   | 100.0 |
| 전 체                 | 25.0   | 36.4    | 25.7   | 12.9   | 100.0 |

1)  $\chi^2=46.26$ ,  $p<0.01$  2) N.S. 3) N.S. 4) N.S.

(14) 지역 정보물 제작

지역사회의 공공 정보를 알리고 공원 안내도, 포스터 등을 제작하거나 지역 신문을 만드는 일에는 47.6%의 응답 청소년이 참가를 희망하고 있었으며, ‘그저 그렇다’가 35.6%, ‘참여하지 않는다’가 16.7%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52.9%)가 남자(42.3%)의 경우보다 지역 정보물 제작에의 참가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7〉 지역사회 정보 알리는 포스터나 신문만들기 (단위 : %)

|                     | 반드시 참여 | 가능하면 참여 | 그저 그렇다 | 참여 않는다 | 계     |
|---------------------|--------|---------|--------|--------|-------|
| 성별 <sup>1)</sup>    |        |         |        |        |       |
| 남                   | 13.8   | 28.5    | 36.8   | 20.9   | 100.0 |
| 여                   | 13.2   | 39.7    | 34.5   | 12.6   | 100.0 |
| 학교급별 <sup>2)</sup>  |        |         |        |        |       |
| 중학교                 | 15.4   | 32.0    | 34.6   | 18.0   | 100.0 |
| 고등학교                | 11.7   | 36.2    | 36.6   | 15.4   | 100.0 |
| 거주지별 <sup>3)</sup>  |        |         |        |        |       |
| 강남                  | 13.9   | 34.2    | 34.2   | 17.7   | 100.0 |
| 강북                  | 12.1   | 33.8    | 41.1   | 13.0   | 100.0 |
| 거주기간별 <sup>4)</sup> |        |         |        |        |       |
| 고향거주                | 15.3   | 36.6    | 32.9   | 15.3   | 100.0 |
| 10년미만               | 11.8   | 32.3    | 37.8   | 18.1   | 100.0 |
| 10년이상               | 16.2   | 36.2    | 32.9   | 14.8   | 100.0 |
| 전 체                 | 13.5   | 34.1    | 35.6   | 16.7   | 100.0 |

1)  $\chi^2=19.13$ ,  $p<0.01$  2) N.S. 3) N.S. 4) N.S.

## 5) 바람직한 참가 형태

지역사회봉사활동의 참여 형태로는 주로 친구들끼리나 지역 청소년단체 또는 개별적, 동아리로 하는 형태를 골고루 선호하고 있었으나 학교 선생님의 소개로 하는 봉사활동의 형태는 다른 형태에 비해 희망 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친구들끼리 팀을 짜서 봉사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한다’ (29.8%)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다음으로 ‘지역 청소년단체의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21.8%, ‘생활하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일에 개별적으로 참여한다’ 20.0%, ‘학교 봉사활동 동아리에 가입한다’ 19.4% 등

〈표 II - 48〉 자원봉사활동에는 어떤 형태로 참여하는 것이 좋은가  
(단위 : %)

|                     | 동아리  | 기관<br>배치 | 프로그램<br>참여 | 직접기획 | 개별참여 | 기타  | 계     |
|---------------------|------|----------|------------|------|------|-----|-------|
| 성별 <sup>1)</sup>    |      |          |            |      |      |     |       |
| 남                   | 20.2 | 7.3      | 23.3       | 26.5 | 21.0 | 1.7 | 100.0 |
| 여                   | 18.5 | 8.3      | 20.2       | 33.1 | 19.0 | .8  | 100.0 |
| 학교급별 <sup>2)</sup>  |      |          |            |      |      |     |       |
| 중학교                 | 18.4 | 6.3      | 17.6       | 35.4 | 21.2 | 1.0 | 100.0 |
| 고등학교                | 20.3 | 9.3      | 25.9       | 24.2 | 18.8 | 1.4 | 100.0 |
| 거주지별 <sup>3)</sup>  |      |          |            |      |      |     |       |
| 강남                  | 19.6 | 7.6      | 20.7       | 30.0 | 21.4 | .8  | 100.0 |
| 강북                  | 18.4 | 8.7      | 25.7       | 29.1 | 15.0 | 2.9 | 100.0 |
| 거주기간별 <sup>4)</sup> |      |          |            |      |      |     |       |
| 고향거주                | 16.7 | 7.4      | 26.5       | 29.8 | 18.1 | 1.4 | 100.0 |
| 10년미만               | 21.8 | 8.0      | 20.3       | 28.9 | 19.9 | 1.1 | 100.0 |
| 10년이상               | 15.9 | 7.7      | 20.7       | 32.2 | 22.1 | 1.4 | 100.0 |
| 전 체                 | 19.4 | 7.8      | 21.8       | 29.8 | 20.0 | 1.3 | 100.0 |

1) N.S. 2)  $\chi^2=21.85$ ,  $p<0.01$  3)  $\chi^2=11.35$ ,  $p<0.05$  4) N.S.

의 순이었고, ‘학교 선생님의 소개로 봉사할 기관에 배치받는다’ (7.8%)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별로는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경우 ‘친구들끼리 팀을 짜서 봉사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한다’ 35.4%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다음으로 ‘생활하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일에 개별적으로 참여한다’ 21.2%, ‘학교 봉사활동 동아리에 가입한다’ 18.4%, ‘지역 청소년단체의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17.6%, ‘학교 선생님의 소개로 봉사할 기관에 배치받는다’ 6.3% 등의 순이었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지역 청소년단체의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25.9%, ‘친구들끼리 팀을 짜서 봉사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한다’ 24.2%, ‘학교 봉사활동 동아리에 가입한다’ 20.3%, ‘생활하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일에 개별적으로 참여한다’ 18.8%, ‘학교 선생님의 소개로 봉사할 기관에 배치받는다’ 9.3%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강남 지역 청소년의 경우는 ‘친구들끼리 팀을 짜서 봉사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한다’ 30.0%, ‘생활하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일에 개별적으로 참여한다’ 21.4%, ‘지역 청소년단체의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20.7%, ‘학교 봉사활동 동아리에 가입한다’ 19.6%, ‘학교 선생님의 소개로 봉사할 기관에 배치받는다’ 7.6% 등의 순이었고, 강북 지역 청소년은 ‘친구들끼리 팀을 짜서 봉사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한다’ 29.1%, ‘지역 청소년단체의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25.7%, ‘학교 봉사활동 동아리에 가입한다’ 18.4%, ‘생활하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일에 개별적으로 참여한다’ 15.0%, ‘학교 선생님의 소개로 봉사할 기관에 배치받는다’ 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볼 때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봉사할 기관에 배치하는 형식의 지역사회봉사활동에는 매우 불만족하고 있으며, 이 보다는 자기들 스스로나 친구들과끼리, 혹은 동아리나 지역 청소년단체를 통한 자원봉사활동의 형태를 더욱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6) 자원봉사활동의 장애요인

한편 자원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 참여를 어렵게 하는 장애 요인으로는 ‘청소년들의 시간 부족’ (34.0%)을 가장 많이 들고 있었으며, ‘청소년들의 필요성 인식 부족’ (19.6%), ‘참여 방법에 대한 인식 부족’ (18.9%), ‘기성세대의 부정적 인식’ (14.1%), ‘프로그램의 부족’ (1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49〉 자원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  
(단위 : %)

|                     | 시간부족 | 기성세대<br>인식부족 | 필요성<br>인식부족 | 방법을<br>몰라서 | 프로그램<br>부족 | 계     |
|---------------------|------|--------------|-------------|------------|------------|-------|
| 성별 <sup>1)</sup>    |      |              |             |            |            |       |
| 남                   | 33.4 | 17.8         | 19.5        | 17.6       | 11.6       | 100.0 |
| 여                   | 34.5 | 10.4         | 19.8        | 20.2       | 15.2       | 100.0 |
| 학교급별 <sup>2)</sup>  |      |              |             |            |            |       |
| 중학교                 | 29.6 | 14.0         | 22.5        | 19.2       | 14.6       | 100.0 |
| 고등학교                | 38.2 | 14.3         | 16.7        | 18.6       | 12.2       | 100.0 |
| 거주지별 <sup>3)</sup>  |      |              |             |            |            |       |
| 강남                  | 32.5 | 14.4         | 20.8        | 18.7       | 13.6       | 100.0 |
| 강북                  | 39.1 | 13.0         | 15.5        | 19.8       | 12.6       | 100.0 |
| 거주기간별 <sup>4)</sup> |      |              |             |            |            |       |
| 고향거주                | 35.8 | 15.8         | 16.7        | 19.1       | 12.6       | 100.0 |
| 10년미만               | 31.5 | 12.6         | 20.6        | 20.6       | 14.7       | 100.0 |
| 10년이상               | 38.3 | 16.3         | 20.1        | 14.4       | 11.0       | 100.0 |
| 전 체                 | 34.0 | 14.1         | 19.6        | 18.9       | 13.4       | 100.0 |

1)  $\chi^2=12.64$ ,  $p<0.05$  2)  $\chi^2=10.48$ ,  $p<0.05$  3) N.S. 4) N.S.

변인별로는 성별에 있어서 남자는 ‘시간 부족’ 33.4%, ‘청소년 필요성 인식 부족’ 19.5%, ‘기성세대의 인식 부족’ 17.8%, ‘참여방법에 대한 인식 부

족' 17.6%, '프로그램의 부족' 11.6%인데 반해, 여자의 경우는 '시간 부족' 34.5%, '참여방법에 대한 인식 부족' 20.2%, '청소년 필요성 인식 부족' 19.8%, '프로그램의 부족' 15.2%, '기성세대의 인식 부족' 1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경우는 '시간 부족' 29.6%, '청소년 필요성 인식 부족' 22.5%, '참여방법에 대한 인식 부족' 19.2%, '프로그램의 부족' 11.6%, '기성세대의 인식 부족' 14.0%인데 반해, 고등학생은 '시간 부족' 38.2%, '참여방법에 대한 인식 부족' 18.6%, '청소년 필요성 인식 부족' 16.7%, '기성세대의 인식 부족' 14.3%, '프로그램의 부족' 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Ⅲ. 우리나라 청소년의 여러가지 토론활동

#### 지역사회 청소년 토론활동의 운영

박 성 호\*

##### 1. 머리말

우리는 한동안 토론 없는 시대를 살아왔다. 자유로운 토론의 권리를 빼앗기고, 토론의 필요도 없이 토론의 능력마저 마비되어 버린 상황에서 살아왔다. 권위주의적 유교사회였던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지난 30여년간의 군부통치시대는 자기를 표현하고 주장하고 자유로운 의견을 교환할 기회가 막힌 채,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관료적이고 일방적인 명령과 지시만이 편만한 사회였다. 또한 학교에서는 대학입시를 위한 주입식 방법만이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대화의 방법도, 자유롭게 표현하는 훈련도, 민주적인 사고나 인간관계를 습득할 기회도 없었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양자택일 혹은 철저한 이분법적 사고의 팽배는 이것과 저것을 통합시켜 제 삼의 논리를 창출해 내는 힘을 갖지 못하게 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진전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민주화는 비로소 국가라는 행정적, 법적, 제도적 통치기구로부터 독립된, 토론과 타협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민사회라는 자율적 영역을 형성시켰다. 더욱이 새롭게 전개되는 지방자치시대는 혈연적, 정서적 일체감으로 묶여졌던 전통적 지역공동체로부터, 주민들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여 지역사회의 공론을 형성하고 문제해결력을

---

\* 천안 YMCA 총무

높여가는 합리적, 자율적 지역공동체로 재창조되고 있다.

단원 사회에서는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현실문제를 푸는 데에 순쉬운 현실논리가 될 수도 있었지만, 시민사회라는 열린 사회에서는 이런 단순사고로는 오히려 현실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하게 된다. 시민사회는 다양화되고 전문화된 사회로서 단선적 시각으로는 복잡하게 얽히고 분화된 사회와 세계를 제대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다양하게 분화되어 가고 있는 다층적 세계 인식에 필요한 다양한 시각갖기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훈련의 구체적 실현은 주로 토론의 형식을 통해 가능하다. 토론에 참여한 다양한 사람들의 갖가지 시각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경험을 통해 세계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렇게 토론의 필요성과 과제를 잔뜩 안고 있으면서도 토론문화가 대단히 취약한 상태에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민주적인 토론교육이 없는 교육제도와 교육내용의 문제, 둘째, 우리 사회의 권위주의와 가부장제로 인한 수직적 인간관계, 셋째, 군사문화에서 야기된 목적과 효율을 중시하는 관료주의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모두의 생각을 적절히 수렴하고 종합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금 열린 사회로 나아가면서도 모두가 다 자기 생각만 주장하고 있는 집단이기주의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토론문화의 정착은 하루 이틀에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되고 누적되는 경험 위에서 체질화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열린 사회의 주역이 되는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서 토론과 합의의 문화를 형성하는 주체가 될 가능성은 기성세대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 2. 청소년활동과 토론활동

청소년활동은 청소년 각 개인의 생활에 관계되는 구체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고 시민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민주사회의 건설에 참가하는 태도를 형성함으로써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아를 확립해가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이 자기자신의 흥미나 관심을 가지고 자

기 생활에 관계되는 것이나 배워보고 싶은 것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집단 내에서의 토의과정을 통해서 개개인의 정신적인 성장을 촉진시켜 사회적 태도나 실천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형성해 가는 것이다. 청소년활동에는 취미활동, 문화예술활동, 수련활동, 스포츠활동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토론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사회의 원리인 주체성, 합리성, 공동체성을 배양하는 것은 여타 부분의 청소년활동의 기본이 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 다수의 의견을 조정하면서 그 속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책임을 다하는 태도라말로 경험이 아니고서는 배울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활동이 학교현장에서는 특별활동의 영역으로 나타난다. 특별활동에 대한 교육부의 지침을 살펴보면, 특별활동은 ‘학교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한 교과 학습 활동 이외의 학교 교육활동, 즉 학생의 개성신장, 건전한 취미와 특수기능, 그리고 민주적 생활태도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회, 클럽활동, 학교행사 등을 통하여 행해지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5차 교육과정 지침서에서는 특별활동의 목표를 ‘집단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유롭게 자기표현을 하는 기회를 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고, 자주적이고 협동적인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게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목표에 따른 하위목표로서 첫째, 자아를 탐색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함으로써 개성과 소질을 신장하고 스스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 둘째, 다양한 활동경험을 통하여 풍부한 정서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 셋째,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주적인 생활태도를 가지게 한다. 넷째, 집단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협동과 봉사의 정신을 가지게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클럽활동이 청소년들의 자율활동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다. 클럽활동은 ‘일정한 교육적 목적에 따라 학교에서 인정되어, 취미와 기호, 경험을 같이 하는 학생 소모임 및 단체활동을 의미’한다. 제5차 교육과정 지침서에서는 클럽활동의 교육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해놓고 있다. 첫째, 관심과 취미가 다른 활동 분야에 참여하여,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창의성을 신장할 수 있게 한다. 둘째, 교과활동에서 학습한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는 기회를 가지게 함으로써 학습효과를 높인다. 셋째, 단체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

함으로써 협동심을 기르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한다. 넷째, 참신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활동 및 클럽활동의 목표는 손색없이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실제 특별활동 및 클럽활동의 운영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현재 특별활동의 시간배당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히 학급회의 주1시간, 클럽활동 주1시간으로 편제되어 있다. 일주일에 1시간씩 특별활동을 실시한다면 1년에 70시간 가량의 클럽활동을 실시하게 되지만 우천시라든지, 학교행사 등으로 빠지는 시간을 제외한다면 실제 활동시간은 많이 줄어들게 된다. 최근에는 조금 나아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3학년의 경우에는 특별활동시간을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으로 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학교에 따라서는 1, 2학년도 특별활동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클럽활동에 있어서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학교시설의 부족에 따르는 문제이다. 몇개 안되는 특별실과 클럽당 인원이 많아 클럽활동이 제대로 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클럽활동의 내용도 학생들의 욕구와 희망에 기초하기 보다 지도교사가 지도 가능한 클럽을 구성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학생들의 교외활동에 대해 학교에서는 지도의 어려움때문에 허용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자발적 활동욕구는 대단히 제한된 활동영역 속에 존재하거나 음성적인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청소년활동의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아래의 글은 청소년의 표현욕구가 극도로 제약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6시 45분 등교, 시계바늘이 7시를 코앞에 두면 아이들이 지각할새라 초죽음이 되어 뛰어들어 온다. 1초라도 어기면 선생님의 칼같은 목소리와 매 한 대, 7시 자율학습 시작, 여기저기 새어 나오는 작은 한숨소리...’ 16일 오후 3시 30분 홍사단이 서울 동숭동 홍사단 강당에서 마련한 청소년 문화 육성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남현정 양(17. 서울 S고 3)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남양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교장 선생님이 참석을 허락하지

않아 토론장에 나올 수 없었다. 주최측이 배포한 토론회 자료집에 남양이 ‘머리에서 발까지 어느 한 곳도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다’고 적은 것처럼 토론장에 참석할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다. 교육학자들과 중학교 교장, 교사, 학부모, 대학 1년생, 남양 등 모두 7명이 참석키로 되어 있던 토론회에서 남양은 ‘살맛나는 학교생활’을 위해 갖춰야 할 세 가지를 말하려 했다. ‘자율적인 학생회와 동아리 활동 의 보장’, ‘우리 고유 문화의 도입’, ‘청소년에 대한 기성세대 의 인식변화’. 남양은 끝내 직접 발표하지 못한 토론회 자료집에서 ‘제도교육 탓에 참된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야 할 친구들조차 서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 안타깝다’고 적었다. ‘학교는 우리가 입시에 충실하기만을 바랄 뿐 연극이나 풍물, 탈춤, 역사연구를 할 수 있는 마당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았다. ‘중·고교에서 정치 사회화 교육을 하자’, ‘청소년 문화공간을 만들자’,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주자’ ‘삶의 지혜를 주는 학교교육을 하자’. 그러나 남양이 빠진 탓이었을까. 끝까지 토론을 지켜본 청소년은 10여명에 불과했다. 토론이 끝난 뒤 한 고교생은 ‘공부에 시달리다 친구들이 자살을 하고, 현정이가 발표회장에조차 못 나오는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이상론만 잔뜩 들었다’고 소감을 말했다.”(조선일보 1992. 5. 17)

이러한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활동 중에서도 청소년 토론활동의 사례는 많지 않지만, 아래의 몇가지 사례를 통해 청소년 토론활동의 운영과 문제점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찾아보도록 한다.

### 1) 청소년 토론의 광장

청소년 토론의 광장은 청소년 스스로 자신들의 관심사를 토론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참여를 통해 자율적 토론문화를 형성하고, 청소년 스스로 교육환경 문제와 사회현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비판능력을 키워 창조적인 청소년문화를 형성하고, 나아가 장래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지도력을 함양하

는데 목적을 두고, 1993년부터 문화체육부에서 청소년단체인 YMCA, YWCA 등과 같이 개최한 청소년 토론프로그램이다. 이전에 몇몇 청소년단체에서 ‘심대의 광장’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토론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체계적인 공개토론의 장으로서는 ‘청소년 토론의 광장’이 본격적인 출발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 토론의 광장의 가장 큰 특징은 주제선정, 원고작성, 설문조사 및 탐방활동 등의 준비과정에서부터 사회, 발표, 질의응답의 진행 전체가 청소년들의 자발적 동기부여와 자율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청소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할 수 있었으며 참가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참여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는 점이다.

민주시민사회의 핵심이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토론을 통한 조정과 합의이며, 이는 청소년 시기부터 훈련되어야 한다고 볼 때, 청소년 토론의 광장은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토론문화 형성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준비기간이 촉박했던 관계로 학생들의 의지와 기대를 충족시키며, 그들의 진지한 주장을 보다 설득력있게 전달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아직까지도 학교에서 청소년 자율활동, 특별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참가한 청소년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토론에 참여하여 생산적인 토론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주제아래 청소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담아낼 수 있었던 것은 청소년 토론의 광장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청소년들이 평소 YMCA, YWCA 등의 청소년단체에서 토론과 문화활동에 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청소년들의 자율적 토론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자율활동, 특별활동의 활성화가 시급히 요청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바람직한 토론문화는 지속적인 훈련과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 토론의 광장은 계속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95 청소년 토론의 광장

- \* 주최 : 한국YMCA전국연맹
- \* 주관 : 전국 25개 지역YMCA

\* 후원 : 문화체육부

| 지역 | 일 시       | 장 소                   | 주제 및 내용                                                                                                                                                           |
|----|-----------|-----------------------|-------------------------------------------------------------------------------------------------------------------------------------------------------------------|
| 진주 | 1995.5.13 | 진주<br>YMCA<br>강당      | 주제 : 청소년 클럽활동 활성화방안<br>발제 1.학교에서의 클럽활동에 대한 우리의 의견<br>2.선생님과 학교, 지역사회에 바란다<br>3.바람직한 자율활동을 위한 우리의 역할과 과제<br>4.보다 나은 청소년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
| 부천 | 1995.5.20 | 부천<br>YMCA<br>강당      | 주제 : 신세대문화 우리가 만든다<br>발제 1.외래문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br>2.우리 놀이문화, 이건 어때요?<br>3.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문화, 바라는 문화<br>4.청소년문제, 이렇게 풀고 싶어요<br>5.교육환경, 이렇게 풀시다<br>6.21세기 문화, 우리 손에 달려있습니다 |
| 청주 | 1995.5.20 | 청주<br>YMCA<br>강당      | 주제 : 21세기를 여는 내일의 청소년<br>발제 1.우리가 생각하는 광복<br>2.신세대문화, 그 현실<br>3.청소년의 여가생활<br>4.분노를 아는 민족이 되자<br>5.광복 50주년과 문화                                                     |
| 홍성 | 1995.5.20 | 홍주<br>문화<br>회관<br>소강당 | 주제 : 광복 50주년, 홍성 청소년의 꿈<br>발제 1.요즈음 우리 친구들의 꿈 이야기<br>2.우리의 꿈을 좌절하게 하는 것들<br>3.우리의 눈으로 바라본 오늘의 내고향 홍성<br>4.친구여, 이런 꿈을 가져보자구나<br>5.우리의 꿈을 위한 우리의 노력들                |
| 부산 | 1995.5.27 | 부산<br>일보<br>강당        | 주제 : 청소년 우리의 눈으로 일본을 본다<br>발제 1.아직도 남은 정신대문제 해결 어떻게 하나<br>2.나는 일본을 이렇게 생각한다<br>3.교과서의 친일문학<br>4.가라앉은 일본<br>5.일본에 의한 한국의 식민화<br>6.‘일본은 없다’를 읽고<br>7.일본의 틀          |

| 지역 | 일 시       | 장 소              | 주제 및 내용                                                                                                                                                                                                    |
|----|-----------|------------------|------------------------------------------------------------------------------------------------------------------------------------------------------------------------------------------------------------|
| 대구 | 1995.5.27 | 대구 YMCA 강당       | 주제 : 청소년의 지역사회 일감찾기<br>발제 1.청소년이 본 대구지역의 현실과 미래<br>2.청소년 문화활동의 현황과 과제<br>3.등·하교길의 교통문제<br>4.청소년이 바라본 환경문제<br>5.청소년 컴퓨터활용의 현황과 문제<br>6.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의미와 전망                                                   |
| 광주 | 1995.5.27 | 광주 YMCA 강당       | 주제 : 청소년 유해환경과 우리 문화<br>발제 1.학교주변 유해환경에 대한 나의 경험<br>2.청소년이 진단하는 우리 만화의 현주소<br>3.우리가 바라는 가정환경<br>4.청소년은 문화공간을 바란다<br>5.PC게임에 대한 우리의 생각                                                                      |
| 인천 | 1995.5.27 | 인천문화 예술회관 국제 회의실 | 주제 : 우리고장 인천 광복역사의 발자취를 따라서<br>발제 1.광복 50주년을 맞는 인천지역 청소년 의식세계<br>2.내가 알고 있는 인천 청소년<br>3.청소년문화의 재창조                                                                                                         |
| 대전 | 1995.5.27 | 대전 YMCA 강당       | 주제 : 미래 정보사회의 주인, 청소년 우리가<br>발제 1.청소년이 바라본 정보화사회<br>2.컴퓨터, 청소년 얼마나 사용하고 있나<br>3.유해 컴퓨터통신(전자오락게임)과 청소년<br>4.컴퓨터 교육 무엇이 문제인가<br>5.미래 정보사회에 청소년이 얻게 될 직업<br>6.활발한 정보통신 교육을 위한 우리의 바람<br>7.적극적이고 바람직한 컴퓨터 사용방안 |
| 마산 | 1995.5.27 | 마산 시청 대회 의실      | 주제 : 청소년과 매스 문화<br>발제 1.인쇄매체와 청소년<br>2.청소년에게 광고란 무엇인가<br>3.컴퓨터와 청소년<br>4.비디오, 영화, 그리고 청소년<br>5.TV에 비취지는 우리의 자화상                                                                                            |
| 속초 | 1995.5.27 | 속초 신흥 강당         | 주제 : 광복 50주년, 속초 청소년의 생활세계<br>발제 1.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이성친구<br>2.청소년 정서가 메달라간다<br>3.우리가 대하는 부모님은?<br>4.우리가 바라는 바람직한 청소년세계<br>5.친구를 보내며<br>6.우리에게 필요한 주체성                                                          |

| 지역 | 일 시       | 장 소                   | 주제 및 내용                                                                                                                                                                                  |
|----|-----------|-----------------------|------------------------------------------------------------------------------------------------------------------------------------------------------------------------------------------|
| 거창 | 1995.5.27 | 거창군<br>복지<br>회관       | 주제 : 농촌 청소년의 꿈과 좌절<br>발제 1.농촌 청소년의 꿈과 좌절(취업을 중심으로)<br>2.농촌 청소년의 꿈과 좌절(사회분석을 통해)<br>3.우리가 본 도시 청소년의 꿈과 좌절<br>4.농촌 청소년, 도시 청소년 우리는 하나                                                      |
| 경주 | 1995.5.27 | 경주<br>상공<br>회의소<br>강당 | 주제 : 광복 50주년, 우리가 통일시대를 연다<br>발제 1.우리가 생각하는 통일교육<br>2.청소년 통일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보고<br>3.우리가 바라는 통일교육<br>4.통일, 그후의 내가 바라는 세상<br>5.평화를 일구어가는 청소년                                                   |
| 안양 | 1995.5.27 | 안양<br>축협<br>강당        | 주제 : 안양지역의 항일운동과 청소년이 바라본 통일문제<br>발제 1.안양을 빛낸 4인의 항일운동가<br>2.일본만화 이렇게 생각한다<br>3.통일, 그것이 알고 싶다                                                                                            |
| 천안 | 1995.5.27 | 천안<br>문화원<br>강당       | 주제 : 우리들의 문화창조와 학교문화<br>발제 1.우리들의 놀이문화와 학교축제<br>2.천안지역 학교축제 실태조사 보고<br>3.축제문화 활성화를 위한 우리들의 제언(1)<br>4.축제문화 활성화를 위한 우리들의 제언(2)<br>5.축제문화 활성화를 위한 우리들의 제언(3)<br>6.학교축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프로그램제안) |
| 군산 | 1995.5.27 | 군산<br>KBS<br>공개홀      | 주제 : 지역사회에 잔재한 일본문화에 대한 극복과 대안<br>발제 1.군산지역에 잔재한 일본문화 현황<br>2.청소년 생활에 미치는 일본문화<br>3.쌀수탈 현장인 군산지역에 대한 연구와 발표<br>4.군산지역에 발생한 항일운동에 대한 발표                                                   |
| 순천 | 1995.5.27 | 순천대<br>공대<br>강당       | 주제 : 우리 함께 이야기해요.나에게도 친구가 있는데<br>발제 1.가출하려는 친구가 동행을 요구할 때, 나는?<br>2.나는 문제아도 좋아!<br>3.다른 친구를 사귀면서 멀어진 친구에게,<br>나는 어떻게<br>4.비슷한 친구(성격, 집안형편, 성적)와 사귀는<br>것이 좋을까<br>5.내가 버려야 하는 친구          |

| 지역 | 일 시       | 장 소                    | 주제 및 내용                                                                                                                                                     |
|----|-----------|------------------------|-------------------------------------------------------------------------------------------------------------------------------------------------------------|
| 구리 | 1995.5.27 | 구리<br>시립<br>도서관<br>공연장 | 주제 : 우리가 바라는 세상<br>발제 1.우리가 바라는 학교(설문조사 보고)<br>2.우리가 바라는 가정<br>3.우리가 바라는 친구<br>4.우리가 바라는 환경<br>5.우리가 바라는 통일(설문조사 보고)                                        |
| 고양 | 1995.5.27 | 고양<br>YMCA<br>강당       | 주제 : 통일세대들의 바른 성장을 위하여<br>발제 1.고양지역의 향토문화<br>2.우리가 바라는 고양시의 청소년문화<br>3.동아리활동에 대하여<br>4.우리들의 고민거리<br>5.우리의 문화, 미래의 문화                                        |
| 안산 | 1995.5.27 | 강서고<br>강당              | 주제 : 통일후 새나라의 국호와 수도 어떻게 할 것인가<br>(청소년모의국무회의)<br>발제 1.외무부장관의 국호에 대한 발제와 토론<br>2.국민발언대－참석자들의 자유발언시간<br>3.건설교통부장관의 수도에 대한 발제와 토론<br>4.국민투표                    |
| 영천 | 1995.5.27 | 영천<br>시민<br>회관<br>강당   | 주제 : 전통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계승을 위한 청소년<br>의 역할<br>발제 1.우리사회에 잔존한 일제문화의 실태와<br>극복방안<br>2.오늘날 청소년의 무분별한 외래문화의 수용실태<br>3.우리민족 전통문화의 우월성과 올바른 이해<br>4.올바른 청소년문화의 정립을 위하여 |
| 춘천 | 1995.5.27 | 춘천<br>YMCA<br>강당       | 주제 : 해방의 날에서 X세대까지의 청소년문화<br>발제 1.청소년 가족관, 진학관<br>2.청소년 직업관, 지도자상<br>3.일본잔재에 관하여<br>4.우리들이 받아들인 무비관적인 일본문화                                                  |
| 이천 | 1995.5.27 | 이천<br>YMCA<br>강당       | 주제 : 우리가 알고 있는 이천의 독립운동<br>발제 1.내가 알고 있는 이천의 독립운동<br>2.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br>3.바람직한 청소년 역사이해를 위하여                                                                |

| 지역 | 일 시       | 장 소                         | 주제 및 내용                                                                                                  |
|----|-----------|-----------------------------|----------------------------------------------------------------------------------------------------------|
| 서울 | 1995.5.28 | 문래<br>청소년<br>회관<br>야외<br>무대 | 주제 : 우리 생활속에 비친 일본문화<br>발제 1.외래문화에 대한 인식과 수용자세<br>2.청소년문화속의 일본문화<br>3.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과제<br>4.올바른 청소년문화를 위하여 |
| 제주 | 1995.5.28 | 제주<br>YMCA<br>강당            | 주제 : 광복 50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이야기<br>발제 1.현시대에서 본 광복의 의미와 우리의 할 일<br>2.내가 겪은 짧은 이야기<br>3.주인의식을 통한 우리들의 통일       |

다음은 '93 청소년 토론의 광장을 계속적인 활동으로 추진하고자 같은 프로그램 방식으로 시행하였던 제2회 천안YMCA 청소년 토론광장 사업시행보고서로서, 청소년 토론광장의 기획, 준비, 운영 등에 관해 간단하지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실어본다.

○ 사업명 : 제2회 천안YMCA 청소년 토론광장

○ 주제 : TV에 나타난 우리들의 자화상

○ 사업목적 :

가. TV가 그리고 있는 청소년들의 생활, 의식 등이 오늘의 우리 청소년들의 실제 생활과 고민 등을 제대로 담고 있는지 청소년 스스로 진단해 본다.

나.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객관화시켜 자신들과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거리감을 좁히도록 한다.

다. 다양한 대중영상매체에 무방비상태로 놓여 있는 청소년들이 TV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이해하여 TV를 바로 볼 수 있도록 한다.

○ 사업개요 :

가. 일시 : 1994년 5월14일(토) 14:30-17:30

나. 장소 : 천안YMCA 강당

다. 참석인원 : 천안지역 중고생 55명

○ 사업내용 :

14 : 30—14 : 45 평화를 위한 노래

14 : 45—16 : 00 토론광장(사회 : 정진호. 천안북일고교 1년)

발제1 : 우리들의 학교생활/공룡선생(SBS), 사춘기  
(MBC) (권지혜. 천안북자여고 1년)

발제2 : 우리들의 우정/마지막 승부(MBC)  
(도혜란. 천안여고 1년)

발제3 : 우리들의 내일/직업의 세계(EBS), 내일은 사랑  
(KBS2) (고재광. 천안공고 1년)

16 : 00—17 : 00 질의응답 및 토론

17 : 00—17 : 30 학생 풍물패 공연 및 한마당

○ 추진방법 :

가. 주제결정 : 주제는 담당실무자가 결정하였고, 발제제목과 내용은 청소년들이 결정하였다.

나. 발제자선정 : 사회자 및 발제자 1명은 YMCA청소년회원 중에서 담당하고, 2명은 학교에 추천의뢰하여 담당케 하였다.

다. 홍보 : 거리현수막(4개), 포스터(300부), 초청장(청소년용 2천부, 성인용 3백부), 지역신문, 유선방송, 생활정보신문 홍보의뢰

라. 자료집발간 : 행사 당일 발제자료집(100부)과 행사종료 후 보고자료집(100부) 발간

○ 추진일정 :

4월 6일—4월14일 발제자 추천의뢰

4월16일 제1차 준비회의 : 발제제목 결정 및 발제 분담  
TV비평에 관한 오리엔테이션

4월23일 제2차 준비회의 : 해당 프로그램 비디오 편집 및 시청

4월30일 제3차 준비회의 : 발제원고 협의

5월 7일 제4차 준비회의 : 발제원고 완성, 최종점검

5월14일 청소년 토론광장

5월17일 평가회의

○ 소감 및 평가 :

- 정진호 : 다른 사람들이 사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방청인 입장에서 볼 때는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사회자가 되어 해보니 무척 어려웠다. 특히 얘기가 많이 나올 때는 방향을 잡기가 힘들었으며, 얘기가 안 나올 때는 내가 무언가를 얘기해 이어주어야 했는데 나도 말문이 막혀 어색했다.
- 권지혜 : 나는 발제원고를 읽다가 끝난 것 같다. 연습을 좀 했는데도 막상 내 발제순서가 되어 할 때는 많이 긴장되었다. 다음에 할 때는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 도혜란 : 준비기간이 너무 짧았다. 1~2주 동안 원고지 20매 정도를 쓸래니 힘들고 내용이 충실하지 못했다. 근데 준비기간이 길었어도 학교공부에 쫓겨 어차피 미찬가지였을 것이란 생각도 든다.
- 고재광 : 내가 맡은 주제는 좀 광범위하고 재미없었다.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우리같은 실업계 학생들의 생각을 대변한 것 같아 뿌듯한 느낌도 있다.

가. 문화체육부 후원으로 이루어진 ‘93 청소년 토론의 광장에 비해 본회가 자체로 추진한 이번 제2회 청소년 토론광장은 발제자 추천이나 홍보 등에서 학교의 협조가 소극적이었다.

나. 사회자의 역할, 발제원고 등은 나름대로 충실했으나, 해당 프로그램 비디오 편집은 조금 미숙하였다.

다. 토론을 통해 TV가 직업에 대한 편견을 심어주거나 어느 한면만을 강조해서는 안되며, 청소년이 TV를 바로 볼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함으로써, 학교교육에서의 영상매체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제공이 요청되고 있다.

## 2) 토의식 수업

우리나라 학교학습은 스스로 생각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사고력 배양에 실패하고 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모든 교과목의 수업이 대학입시에 소용되는 지식의 주입과 암기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의력, 판단력, 추리력 등 고등정신능력은 발붙일 틈이 없다. 물론 우리나라 학교교육이 사고

력의 배양을 표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사고력은 시험에 나오는 문제에 정답을 골라내거나 쓰는 데에 필요한 사고력이기 때문에 초보적인 논리적 사고력에 불과하다. 정답을 쓰는 판단과정에서 요구되는 논리적 사고가 중요하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가 더 중요할 것이다. 그러한 사고력을 창의력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은 창의력 배양에는 완전히 실패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1993년도부터 시행된 대학 수학 능력 시험과 본고사가 중심이 된 새 대입제도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에게도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 대학이 우리 현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크고, 대학 입시 제도의 변화는 대학에 가질 원하는 모든 이들에겐 당연히 큰 고민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새 대입제도는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현실 고교 교육내용이나 과정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그 충격은 더욱 컸으리라 본다. 기존의 교육에서는 옳은 정보를 배우는 활동을 강조했다. 배워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교육은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좋은 질문을 할까에 중점을 두고, 바른 일에 주의를 집중하고 새로운 개념에 개방적이 되며, 정보에 접근하는 바른 자세를 강조한다. 따라서 기존의 교육이 산출물과 목적중심의 학습에 중점이 있었다면 새로운 교육은 과정과 여정(여행) 중심의 학습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에 대처하기 위해 학생 및 학교 교사는 ‘똥살’을 앓아야 했다. 그런 고민의 결과 가운데 하나가 바로 토의식 수업이다. 기존의 교육이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력, 합리성을 키워주는 것과는 별개였다면, 토의식 수업은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

토의식 수업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암기하는 형태가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민주적 생활태도를 키워 준다. 토의식 수업은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력, 적응능력 등 고차원적인 사고능력을 증진시키며, 학업에 흥미를 유발하여 학생들로부터 학습동기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토의식 수업은 우선 그때그때 가장 관심을 모으는 시사문제나 학생들의 공동관심사를 1~2주전에 토론주제로 정한다. 그리고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제에 따른 자료를 조사, 수집,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조사는 직접 현장을 찾아 조사할 수도 있고, 주제에 관한 문헌을 조사할 수도 있다. 문헌 중에는 날마다 온갖 새로운 소식들을 전하고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각종 신문이 중요한 자료가 됨과 동시에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은 수집된 자료를 자신의 견해에 비추어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취사선택한 후 자신의 견해를 전개하는 데 알맞도록 가공한다. 일정한 주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토론이 될 경우에는 학생들을 찬성그룹과 반대 그룹으로 나눠 사회자의 좌우에 자리잡게 하고, 두 그룹은 각각 자신들의 주장을 펼 사람과 발표순서를 정하고 발표시간은 일정하게 제한하되 무조건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말고 확실한 근거와 이유를 밝히도록 한다. 마지막 순서에 교사가 조언을 함으로써 수업을 마치는데, 이때 교사가 너무 과도하게 결론을 내리는 경우 학생들은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있으므로 교사는 늘 잘 지켜보면서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91년도부터 토의식 수업을 진행해온 충남 천안북일고교 유환성 교사(사회과)는 자신이 맡고 있는 철학과목, 사회문화과목 등은 토의식 수업이 가능하지만, 역사과목, 정치경제과목만 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해 수업진도를 맞추기에 급급하다고 한다. 그간의 경험으로 볼 때, 많은 학생들은 흥미를 갖고 참여하지만, 일부 학생은 학기초에 토의식 수업을 학업으로 인정하지 않아 다른 과목공부를 하거나 하고 싶어 한다고 한다. 그것은 학생들이 기존의 주입식 교육방법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눈앞의 효과를 바라는 조바심때문인데, 토의식 수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그 학생들도 점차 흥미를 갖고 토의식 수업에 대한 이해가 생겨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가 최근에 교육내용과 관련하여 수업주제로 삼았던 것은 ‘빈곤의 원인은 무엇인가’, ‘신의 존재－유신론·무신론·범신론’, ‘지역사회문제의 현황과 사회운동’, ‘낙태와 생명’, ‘진화론과 창조론’, ‘핵보유 문제’ 등이었다. 특히 ‘신의 존재’라는 주제를 토론할 때는 학생들의 토론이 매우 활발하여 1회(1시간)로는 부족해 3회에 걸쳐 진행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는 토의식 수업의 전

망에 대해 6차교육과정 중 공통사회과목은 사례 중심으로 교과서가 편재되어 있기 때문에 확산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토의식 수업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는 교사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한다. 또한 교사가 토의식 수업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교육자료가 많이 개발되어 나와야 하고, 교사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토의식 수업 사례연구 등이 자발적인 교사모임 또는 연수과정 중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다음은 컴퓨터통신 하이텔에 올려졌던 토론글로서, 고등학교 1학년인 김택구 군이 토의식 수업을 처음 받고 느꼈던 생각을 표현한 것이다.

“올해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훌륭하다고 판단되는 담임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반은 토론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수업을 하게 되면서 토론에 많은 재미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앞에 나서면 입이 얼어붙던 저도 조금은 덜한 편입니다. 단지 지식을 배우고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듣고 얼마나 아는가를 시험하고, 알지 못하면 때리고 실수하면 벌을 받고 하는 등등. 또 청소란 것은 서로 돌아가면서 자신들이 배웠고, 배워야 할 장소를 깨끗이 하고 아끼는 것입니다.”

### 3) 토론 동아리활동

토론활동을 하는 동아리에는 시사토론동아리, 독서토론(주로 문학토론)동아리, 영화감상토론동아리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 글에서는 시사토론활동을 하는 동아리에 국한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시사토론동아리는 청소년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친구들과의 토론을 통해 사회현상에 대한 나름대로의 시각을 갖도록 하는 데 일차적인 목표가 있으며, 부수적으로는 다양한 생각을 접해봄으로써 사고력의 증진을 꾀할 수 있다. 한번 만들어지면 몇년 동안은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의 생각과 자료에 얽매어 있는 청소년들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대해 나름대로 관점을 갖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 ① 천안지역의 시사토론동아리 ‘더퍼리’

1993년부터 충남 천안지역 청소년들이 모여 독서토론을 중심으로 이어져 오던 모임인 ‘더퍼리’(‘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우리말)는 1995년도 들어서면서 시사토론동아리로 내용을 바꾸어 활동하고 있다. 현재 7명의 고교생(3개 학교, 남자 5명, 여자 2명)들로 구성되어 매주 토요일에 모여 약 2시간 가량 토론모임을 갖고 있다. 토론은 다음주의 주제를 같이 정하고, 한주 동안 그 주제에 관해 각자 조사한 뒤 각자가 준비해 온 것을 짧게 발제하고 자유토론으로 진행한다. 자료는 주로 학교도서관에 있는 관련된 책이나 잡지를 활용하여 준비한다. 그동안 다루었던 주제는 ‘청소년 놀이문화’, ‘청소년의 음주·흡연 문제’, ‘일본의 민족성’, ‘여성의 성상표화’, ‘5.31 교육개혁’, ‘삼풍백화점 붕괴’, ‘인물 흥선 대원군’ 등이다.

이 동아리의 회원인 김아무개 군(고2)은 작은 인원이 지속적으로 만나 온 동아리여서 서로 부담이 없고 친해 열띤 토론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자리가 된다고 한다. 토론을 통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쉽게 생각했던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 토론을 하면서 좋은 점이며, 무엇보다 또래끼리 만나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토론형식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조사와 준비가 미흡해 토론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할 때가 많고, 자료를 준비해 온 학생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준비 못한 친구는 이야기를 잘 안하게 되어 토론이 활발히 진행되지 못할 때도 있어, 토론을 도와줄 선배나 지도자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했었다고 한다. 또한 시사토론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이 적어 회원을 모으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아쉬워했다.

## ② 아산지역 학생동아리연합회

1989년에 충남 아산지역의 각 고교 동아리연합회로 출발한 이 모임은 지금은 많이 축소되어 2개 학교 15명 정도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매주 토요일 풍물모임, 노래모임으로 나뉘어 1부 활동을 하고 2부 활동으로 전체가 모여 토론모임을 갖고 있는 자생적 동아리이다. 토론은 2주 전에 주제를 정해 1~2명이 자료를 준비해 발제를 한 후, 자유토론으로 토론이 진행되는데 열띤 공방전으로 예정시간보다 늦게 끝날 때가 많다고 한다. 다른 동아리에 비해 선

배들이 많아 주제를 정할 때나, 자료를 이용할 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토론을 진행할 때에도 선배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금년에 다루었던 주제는 ‘바보상자 TV’, ‘청소년비행문제’, ‘친구’, ‘상품화된 결혼’, ‘청소년 동아리활동’, ‘청소년의 생활실태’, ‘4.19 학생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X세대’, ‘신세대 성문제’ 등이다.

이 동아리의 회원인 조아무개 군(고2)은 다른 학교의 소식을 접할 수 있고, 서로 벽이 없이 친하고 선후배 관계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며, 무엇보다 최근 대학입시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논술에는 자신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토론이 결론없이 끝날 때도 많고, 주제에 따라 흥미롭고 토론하기 쉬운 주제(신세대 성문제, 이성문제 등)일 때는 회원들이 많이 참석하지만, 무겁고 딱딱한 주제일 때는 적게 모이기도 하고, 학교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회원들을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 ③ 천안 복자여고 시사토론반

학교 클럽활동 중의 하나로 1, 2학년 16명의 학생으로 이루어진 충남 천안 복자여고 시사토론반은 학교 교사의 지도 아래 나름대로 토론의 형식을 갖추어 진행되는 모임이다. 매주 다음주의 주제를 정한 후 몇개의 조를 나눠 다시 소주제를 정하고, 한 주 동안 조사를 하여 2~3일전에 조사한 자료를 미리 나누어준다. 토요일 4교시에 원탁으로 책상을 배열하고 조를 나눠 찬반토론으로 진행되며, 사회자는 돌아가며 맡는다. 지도교사는 토론이 끝난 후, 토론 진행 및 내용에 대해 전반적인 조언 겸 논평을 한다. 최근에 다루었던 주제는 ‘안락사’, ‘패륜’, ‘5.31 교육개혁’, ‘미인중후군’, ‘차량 10부제 운행’, ‘우리사회 안전문제 - 삼풍백화점 붕괴’ 등이다.

이 시사토론반 활동을 하고 있는 신미정 양(고2)은 이 활동을 통해 선·후배간에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고, 토론을 통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넓은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되어 보람을 갖는다고 한다. 그러나 1학년인 경우엔 좀 소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학교의 행사, 시험 등으로 규칙적으로 모이지 못할 때도 많고, 시간이 짧아(1시간) 충분히 토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 아쉽다며, 특별활동 시간이 전일제 수업이 되어 토론시간이 충분히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내기도 했다.

#### ④ 홍성YMCA 청소년클럽 ‘하늘을 닮은 아이들’(시사토론클럽)

충남 홍성YMCA 청소년클럽 ‘하늘을 닮은 아이들’은 1994년 창립하여 현재 13명(4개 학교, 남자 3명, 여자 9명)의 고교생들이 매주 토요일 홍성YMCA회관에 모여 토론활동을 하는 모임이다. 매주 다음주의 주제를 학생들 스스로 정한 후, 자료준비를 하여 토론을 진행하는데 주제발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바로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토론으로 들어가는 때도 있다. 그동안 다룬 주제로는 ‘TV광고의 문제점’, ‘교복자율화’, ‘이성친구’, ‘청소년 노래방 이용에 대해’, ‘종군위안부문제와 민족의식’, ‘성차별’, ‘청소년흡연’ 등이 있다.

이 모임에는 YMCA의 지도자가 함께 참석하는데, 지도자는 학생들의 토론을 듣고 토론정리와 함께 관점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홍성YMCA의 정형영 총무의 말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상식 및 정보를 수용하고 토론 및 발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고, 시험기간을 제외하고는 방학 중에도 쉬지 않고 모임을 계속할 정도로 열심이라고 한다. 그러나 주제선정을 1주전에 하기 때문에 토론준비가 충실하지 못할 때도 있고, 농촌지역이라 자료수집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여건이 마련되지 못해 자료구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또한 가정에서는 학업문제 때문에, 학교에서는 교외에서 이루어지는 학생지도문제 때문에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이들의 활동을 가정과 학교에서 잘 이해하고 격려해주는 일이 청소년들의 토론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말한다.

#### 4) 컴퓨터통신 토론광장

컴퓨터통신 하이텔(HITEL)이나 천리안에는 어떤 주제에 관해 토론을 할 수 있는 메뉴가 있다. 하이텔 ‘토론의 광장’과 천리안 ‘토론한마당’ 등이 그것이다. 통신에 올려진 여러가지 토론주제와 내용들은 토론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토론활동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하이텔이나 천리안에 회원신청을 하면 자신의 ID(이름)를 갖게 된다. 회원인 사람 가운데 어떤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토론회 개설 신청을 하고 그 신청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을 때 토론회가 열린다. 회원들은 누구나 의견을 올릴 수 있고 올려진 의견들을 열람할 수 있다.

94년 7월20일 하이텔(HITEL)에는 ‘610. 학교가 학생을 죽이고 있다’라는 토론회가 열려 3주동안 175회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으며, 95년 8월6일 ‘866. 최우주 군의 학교문제, 함께 따라가 봅시다’라는 토론회에는 4주동안 251회에 걸쳐 열띤 토론이 전개됐는데, 주로 우리 교육의 문제 및 입시교육 속에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솔직한 생각이 이야기되었다.

이러한 학교교육이나 학교생활 등의 주제외에도 많은 토론회에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며 참가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컴퓨터통신의 토론회활동은 주제별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나름대로 논리적인 주장을 펴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을 바로 마주보고 하는 토론이 아니어서 자신의 의견과 다를 때 모욕적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어 단점이긴 하다. 또한 아직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의 청소년들은 컴퓨터 보유율이 낮고 컴퓨터통신의 사용능력이 떨어지긴 하지만, 학업으로 인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적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자유롭게 토론에 참여할 수 있고 토론에 흥미를 느낄 수 있으므로 더욱 확산되리라 본다.

### 3. 청소년 토론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청소년 토론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 환경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우리사회 전반적으로 토론문화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정치, 문화, 종교, 가정 등 사회의 각 영역에서 토론의 물줄기가 잡히고, 토론의 네트워크이 형성되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토론공동체로 향할 때 청소년들은 자연스럽게 토론문화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이자 방법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둘째, 입시위주의 교육으로부터 전인교육으로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학교수업 때문에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고, 조그만 짬이 나면 휴식과 수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감각적 활동에 소비하는 현재의 청소년들의 현

실 속에서 자유로운 토론활동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셋째, 교육에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현재와 같은 전근대적인 교육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한 학급의 학생수를 줄여 토의식 수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클럽활동실 및 학교도서관 등이 제대로 갖춰져 학생들의 토론욕구를 자극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비민주적 학교문화가 개선되어야 한다. 친구들 사이에서 서로 감정을 억제하고 문제를 토론으로 푸는 평화적 방법을 가르치고, 교사 역시 훈육의 방법을 체벌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잘못을 깨닫을 수 있게 대화와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며, 교육 및 학교운영의 주요사안을 교장의 일방적 지시가 아니라 교사들의 토론을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환경의 변화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육개혁을 통해 앞으로 개선될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할 때, 청소년들은 현재의 상황을 힘들다고만 여겨 포기하지 말고 꿈틀거림을 멈추지 말아야 하고, 청소년 지도자들은 그들의 몸짓을 지켜보며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청소년 토론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몇가지 과제를 제시해 본다.

첫째, 청소년 토론모임을 가능한한 많이 만들도록 한다. 비록 토론의 질(주제선정, 토론준비, 토론진행 등)이 낮을지라도 양적으로 우선 많이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 토론광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도록 한다. 지역의 각 학교 대표자들로 청소년토론광장 준비(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는 청소년 토론광장의 주제 및 발제제목들을 결정하고, 사회자 및 발제자들을 선정하여 가능한 월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한다. 장소는 청소년단체나 공공장소의 협조를 얻고, 홍보 및 자료집 출간비용은 뜻있는 지역인사들로부터 후원을 받도록 한다.

셋째, 청소년 지방의회를 개최하도록 한다. 청소년들이 각 지역의 지방의회가 휴회기간인 여름,겨울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지방의회 회의장을 빌려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문제 및 지역사회 현실을 분과별로 토의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함으로써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진단하고 지역사회에 반영시키는 활동을 전개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우리지역의 청소년회관 건립

문제’, ‘우리지역의 환경문제’, ‘등·하교길의 교통문제’, ‘학교주변 폭력문제’, ‘청소년 흡연과 담배자판기문제’ 등을 의제로 상정하여 실태와 문제점, 개선 방안 및 현실가능성 등에 대해 토론하여 의결하도록 한다.

넷째, 교내신문 혹은 지역별로 청소년신문, 잡지 등 청소년매체를 만들도록 한다. 청소년들이 볼 거리를 많이 만들어내 그들 스스로 많은 토론을 하면서 작품을 만들어 가게 하도록 한다. 청소년 토론동아리, 청소년 토론광장, 청소년 지방의회 등의 토론결과나 활동 등이 소개되어 많은 청소년들이 자극받고 경험이 공유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청소년 출판매체를 통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나라정책연구원 편(1995), 소비자주권의 교육대개혁론, 길벗.

남송우(1995), 지역시대의 문화논리, 도서출판전망.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편(1993), 성숙한 부모, 자유로운 학교, 건강한 아이, 대화출판사.

최형규(1994), 즐거운 토론교실, 내일을 여는 책.

한국교육개발원(1994), 민주시민교육, 대한교과서주식회사.

한국YMCA전국연맹·대한YWCA연합회 편(1993), '93 청소년 토론의 광장 보고서.

한국YMCA전국연맹 편(1995), '95 청소년 토론의 광장 보고서.

한국청소년개발원(1994), 바론시민생활활동개발보고서,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1994), 청소년활동론, 인간과복지.

한준상(1992), 한국교육의 민주화, 연세대학교출판부.

# 사이버 스페이스를 이용한 청소년 토론의 지도방안

서 영 창\*

## 1. 들머리

올해 초부터 멀티미디어, 인터넷 등이 홍보되면서, PC통신 환경에 새로운 돌풍이 일어났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등의 대형 BBS들이 보다 더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경쟁하게 되고, 또 SDS 등에서도 PC통신 사업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또 많은 중·소형 BBS들도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지방자치선거전에서도 많은 정치지방생들이 이런 통신망을 통해서 선거유세를 실시하여 PC통신망을 이용한 전자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있다. 또, 교육개혁 정책에 따른 정보나 삼풍백화점의 붕괴소식이나 태풍 제니스호의 피해 현황 등 관련된 정보를 폭 넓고 빠르게 전달, 교환, 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여론을 형성하였다. PC통신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TV, 신문 등에 이어서 새로운 미디어로 정착되고 있다. 또 청소년들에게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어 청소년들의 토론장으로, 정보교환의 장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제 사이버스페이스(Syber Space :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가상적 공간)는 새로운 문화로 정착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스페이스가 청소년들에게 단순한 잡담이나 오락의 대상에서 벗어나서 실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전자토론실을 통해 민주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할 때이다.

전자토론실이라는 새로운 토론문화가 건전하고 민주적인 회의방식의 유형

---

\* 중앙여고교사(“등대” 청소년상담 컴퓨터 통신망 운영자, 국제 컴퓨터통신연구회장).

이 정립되지 않아서 혼란에 빠져 청소년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아 매우 심각한 시점까지 왔다.

그래서 이 글은 멀티미디어 사회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단히 언급하고 채팅실과 주제토론실의 이용방법을 안내하고 사이버 스페이스의 파괴적인 활용과 창조적인 활용방안을 살펴보고, PC 통신 예절이라는 새로운 전자문화를 정리, 소개하고 또 전자 토의·토론실의 이용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멀티미디어 사회와 청소년문화

현대에 들어오면서 청소년문화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학교와 가정에서의 경험외에 비디오, 전자오락, TV, 컴퓨터 등으로 대중 매체나 전자 매체로 인해 새로운 가치기준과 행동규범이 창출되고 있다.

청소년문화 계층은 시대에 따라 다양하고 독특한 그들의 영역을 형성해 왔다. 70년대 이전에는 히피족(hippie), 앵그리 영맨(angry youngman)처럼 기성세대에 저항하는 청소년들이 등장했으며, 80년대에는 이피족(yippie), 여피족(yuppie)처럼 현실 참여와 행동표시를 강렬하게 하는 이들이 나타났다. 최근에는 마마보이처럼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 자신의 뚜렷한 개성을 강조하는 신세대나 기술맹신주의에 빠진 사이버 펑크(Cyber Punk), 뚜렷한 삶의 목표가 설정되지 않는 X세대와 또 무질서하고 소비성향이 강한 소위 오렌지족이 생겼다고 할 수 있다. 혹은 개성있는 인기스타나 가공의 연예인을 무조건적으로 좋아하고 모방하려는 신영웅주의적 계층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대중매체나 전자매체에 중독되어서 대인관계가 나빠지거나 자기중심적인 폐쇄성과 정서불안으로 흘러 인간적 유대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현상은 멀티미디어 시대로 나아가면서 급속하게 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확실한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뚜렷한 목표의식과 시대에 맞는 윤리의식이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대와 같은 멀티미디어 사회에서는 컴퓨터의 비중이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것이 컴퓨터를 활용하는 주된 계층인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컴퓨터를 편리한 생활도구인 문명의 이기로써 활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컴퓨터의 창조적인 활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음란물의 이용, 지나친 오락물로서의 이용, VDT 증후군, 바이러스, 해커의 활동 등으로 인해 우리 청소년들에게 유해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컴퓨터의 파괴적인 활용형태라고 할 수 있겠다.

전자매개체의 파괴적인 활용으로 청소년문화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지금, 창조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여 다가올 멀티미디어 사회를 적극 수용하여 올바른 청소년문화, 컴퓨터문화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PC통신망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민주시민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전자 토의·토론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이다.

### 3. 전자대화실과 토론실 실례

#### 1) 나우누리에서의 대화, 토론실의 안내

##### (1) 대화실

###### ① 전자대화실이란?

###### 가. 대화실 종류

- 공개대화실 : 누구든지 참여 가능
- 비공개대화실 : 개설자가 부여한 비밀번호를 알아야만 참여 가능
- 숨은대화실 : 비공개와 같으나 대화실 주제 및 참여자 현황도 비공개

###### 나. 참여인원 : 3~12명

※ 현재로서는 2인 대화는 지원하지 않습니다(향후 기능추가 예정)

입)

1대 1 대화를 원하시면 1줄 메시지 보내기의 TO 명령을 이용하십시오.

다. 주제 : 60 BYTE 이내에 입력 가능

라. 대화명 : 대화실 안에서 쓰이는 이름(언제든지 변경 가능)

마. 동시 최대 999개의 대화실이 개설 가능합니다.

## ② 대화실 기본예절

- 호칭 : 일반적으로 PC통신 서비스에서 상대방에 대한 호칭은 \*  
\* \*님을 씁니다. 이는 대화실 안에서의 만남이 나이, 성별, 경력 등을 서로 모르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수년 전부터 이루어져온 관행으로, 처음에는 어색해도 곧 익숙해질 것입니다.
- 인사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화실에 들어갈 때나 나올 때는 반드시 다른 이용자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또한 서로 자기 소개를 먼저하면 오해없는 밝은 통신문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 대화명 : 다른사람의 이용자 번호로 접속해서 대화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반드시 대화명을 수정(AL 대화명)하여 본인의 이름을 밝힙니다.
- 타인에 대한 비난, 상스런 욕설, 저속한 음담패설은 절대 금지합니다.
- 다른 이용자의 화면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자제합니다(안시로 화면조정 등)
- 타이핑이 느린 초보이용자를 만날 경우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 ③ 대화실 참여 및 개설

대화 참여는 대기실에서 대화실의 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또 다른 서비스에서 쓰이는 명령어 J(Join)도 지원합니다. 그냥 J만 치면 대화실 번호를 묻게 되는데 이때 원하는 대화실의 번호를 치면 되고 'J 대화실 번호' 명령을 쓰셔도 대화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대화실을 열고 싶은 경우는 대화참여를 선택, 대기실에서 명령어 ‘O’를 이용하면 됩니다. 일단 ‘O’를 입력하면 대화실의 종류를 묻는데 여기에는 다음의 3가지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1. 공개대화실 2. 비공개대화실 3. 숨은 대화실) 선택없이 그냥 Enter를 치면 공개대화실이 개설됩니다.

#### ○ 대화실 참여 및 개설

대화실 종류를 선택하면 다음에는 대화실의 주제를 묻게 되는데(숨은 대화실 제외) 주제는 60Byte(한글 30자)이내로 입력하고, 원치 않으면 그냥 Enter를 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화 참여자 수를 묻는데 이는 이번에 여는 대화실에 참여할 수 있는 이용자 수를 몇명으로 제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란입니다. 3~12명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입력을 안하면 최대 숫자인 12명으로 결정됩니다. 2인 대화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현재 TO 명령으로 간단히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추후 온라인 게임 등 1대 1 대화를 응용하는 새로운 기능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 누군가를 찾고 초대하고 싶다면

대기실에 들어서면 대기실 및 대화실의 이용자 명단을 볼 수 있는데(숨은 대화실 제외) 이때 우리는 우선 서비스 이용자 중에서 누구와 대화를 할까? 하고 대화상대를 찾게 됩니다. 이때 내가 아는 누군가가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찾는 명령어는 ‘WH ID(WHere)’이고, 혹 그 이용자가 대화실 내에 있다면 몇번 대화실에 있는지를 찾는 명령어는 ‘FI ID’(FInd) 입니다.

관련된 명령어로 UID 및 USER가 있는데 UID는 현재 전체 서비스 이용자의 ID 목록을 보여주며 USER는 전체 이용자 이용현황을 보여주는 명령어입니다.

대화실 안에서 대기실이나 다른 대화실 혹은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를 부르고 싶다면 /IN ID(INvite) 명령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화면에는 지금 내가 몇번 대화실에서 상대를 부르는지 그 방번호가 표시되며, 비공개대화실인 경우 비밀번호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TO ID’ 명령을 이용해 한 줄 메시지를 보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찾고 초대하고 싶다면 상대방이 ‘ME OFF’ 명령어로 수신을 거부한 상태라면 초대가 불가능합니다. 이때 초대를 받은 사람이 바로 대화에 참여하려면 ‘GO CHATIN 대화실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 ○ 대화중 불쾌한 이용자를 만났을 때

간혹 대화실에서 욕설이나 저질스런 이야기로 대화실의 분위기를 해치는 이용자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선 /EX ID(EXclude) 명령을 이용하면 다시 /EX ID로 해제하기 전까지 그 사람의 대화 내용이 화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는 가장 소극적인 대화회피 방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기능입니다.

두번째는 /OUT ID 명령으로 특정이용자를 대화실에서 내보내는 방법입니다. 3명 이상이 대화를 할 경우 불량이용자를 제외한 대화실 안의 모든 이용자가 만장일치로 /PUT ID 명령을 내리게 되면 해당 이용자는 대화실에서 추방됩니다. 물론 추방된 이용자는 해당 대화실에 다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세번째 방법은 공개대화실에서 /JUDGE 명령을 이용, 해당 대화실의 대화 내용을 운영진에게 고발하는 방법입니다. 대화 참여자 누구라도 이 명령을 내리게 되면 해당 대화실 개설순간부터의 모든 대화내용이 화일로 저장되어 운영진에게 보내집니다. 운영진은 이 내용의 모니터링 결과 이용자 관리차원의 조치를 취하게 대화중 불쾌한 이용자를 만났을 때 됩니다. 공개대화실 주제열람 메뉴에서 역상으로 표시되는 대화실이 고발된 대화실이며 참여인원 뒷부분에 나오는 숫자가 /JUDGE 명령을 내린 사람의 수입니다.

#### ○ 대화실을 나가려면

대화실 이용을 마치고 대기실로 나가려면 /P를 치면 됩니다. 물론 초기화면으로 가기위한 명령 /T나 특정 인덱스로 가기위한 /GO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화실 안에서 서비스 종료를 원하실 때 /X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 경우 /BYE 혹은 /QUIT 명령을 이용하십시오.

#### ○ 컷속말/대화실 상황 등

대화도중 특정이용자 한 사람에게 다른 참여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비밀얘기를 전하고 싶을 때는 명령어 '/EAR ID 메시지'의 컷속말 기능을 쓰십시오. 단, 이 명령은 지정/해정 기능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TO 명령과 마찬가지로 1줄 이내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현재 대화실 참여 현황이 궁금한 경우에는 ST(STatus) 명령을 씁니다. 이 명령의 출력화면은 대기실(ST)과 대화실(/ST)에서 서로 다른데 대기실에서 쓰면 숨은대화실을 제외한 대화실 전체이용자 현황을 보여주고, 대화실에서 /ST 명령을 쓴 경우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대화실의 참여자 현황을 좀더 자세히 보여줍니다.

다른 대화실의 대화현황을 알고 싶으면 /ST 방번호, 대화도중 대기실 현황을 보려면 /ST WAIT, 전체대화실 현황을 보려면 /ST ALL을 이용하여 컷속말/대화실 상황을 들을 수 있습니다.

#### ○ 대화실 명령어 일람

대화실에는 전체 서비스와는 다른 별도의 명령어가 몇가지 있습니다. 명령어는 대기실에서 쓰는 것과 대화실에서 쓰는 것으로 나뉘는데 대화실에서는 대화내용과의 구분을 위하여 모든 명령어 앞에 '/'를 입력해야 합니다.

##### 〈대기실 명령어〉

- J 방번호 : 대화 참여
- O : 대화실 열기
- WH id : 특정이용자 이용현황 보기
- /BYE, /QUIT : 접속종료, (/X는 대화실에서 이용불가)

## (2) 토론실<토론실의 으뜸차림표>

| (토론실)            | (방송)                              | (연구원)                    |
|------------------|-----------------------------------|--------------------------|
| 1) 알립니다          | 21) MBC 카메라 출동                    | 41) 대전환 21(MBC, 중앙, NSI) |
| 2) 토론하기          | 22) MBC 시사매거진 2580                |                          |
| 3) 제안하기/<br>재청하기 | 23) 신세대 보고 어른들은 몰라요<br>24) 추적 60분 |                          |
| 4) 과거 토론실 보기     |                                   |                          |
| 5) 주제로 찾기        |                                   |                          |
| 6) 토론실 이용안내      |                                   |                          |

### ○ 토론실 이용안내

토론실의 의미와 개요. 토론실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에 관계없이 전국에 있는 모든 이용자들이 특정한 주제를 놓고 각자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고 다른 이용자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전자회의실입니다. 이 서비스는 그 인덱스명(acro)이 뜻하는 대로 고대 아테네에서 직접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던 광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서비스로서 토론 주제의 제안과 진행 그리고 폐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절차를 이용자가 직접 운영하도록 모든 기능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토론실의 각종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의자 : 제안, 제안취소, 진행, 기간연장
- 토론자 : 재청, 재청취소, 토론참여
- 운영진 : 토론실 개설 및 발의자/재청자에게 개설통보, 폐회
- 동시개설 토론실 수 : 제한없음
- 개설가능 최소 재청수 : 50명
- 토론실 개설 가능기간 : 최소 1~2이내, 1주씩 8주까지 연장 가능(연장이 없으면 자동 폐회)

#### ○ ACRO 토론실 이용안내

토론실에 참여하려면 토론실 메뉴의 2번 ‘토론하기’를 선택하면 현재 상정된 안건들의 목록이 보이게 됩니다. 이 때 해당 안건의 번호를 선택하면 토론실에 들어가게 되는데 먼저 토론취지를 묻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 때 토론취지를 보고 싶은 경우 y를 선택하여 읽고나면 토론참여자들의 토론내용이 게시판 형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의견을 적고 싶으실 때는 일반 게시판처럼 w를 입력하여 글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 토론실에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의제를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 토론실 메뉴 3번의 ‘제안하기/ 재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일반 게시판과 같이 w명령을 이용해 제안설명을 하고 나면 제안 절차는 끝나게 됩니다.

제안된 의제는 다른 이용자가 열람할 경우 재청여부를 묻게 되는데 50명 이상의 재청을 받는 경우 의제로 상정되어 토론하기란으로 옮겨집니다. 필요한 경우 운영자인 나우지기에 의해 재청자가 50명 이하인 경우라도 상정될 수 있습니다. 의제가 상정될 경우 개설자에게는 안내편지가 가게 됩니다. 만일 발제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50명 이상의 재청을 받지 못한 경우는 자동으로 삭제조치 됩니다. 주단위로 8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방법은 e명령을 이용하여 기간연장을 선택하면 됩니다.

#### ○ 토론주제 찾기

토론주제를 찾으려면 특정 토론의제를 찾고자 하는 경우 선택하면 검색어를 물어옵니다. 이 때 검색어를 입력하면 현재 제안중이거나 토론중인 의제 및 과거에 토론되었던 의제들까지 전체를 대상으로 원하는 토론의제를 찾아줍니다. 만일 찾기에 실패할 경우에는 다시 다른 검색어로 찾을 것인지를 물어옵니다.

토론의제를 찾을 경우에는 완전한 단어를 입력하여 찾는 것이 정확하고 빠릅니다. 만일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검색어의 글자수를 줄여가며 다시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토론주제로 인정되지 않는 안건

- 최근 여러차례에 걸쳐 토론된 의제
- 주제가 불분명하거나 이미 개설된 토론실과 내용이 중복된 의제
- 장난스럽거나 퇴폐적인 의제
- 사적이거나 특수한 이용자를 토론대상으로 삼는 의제
- 비난이나 일방적인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의제
- 동일인에 의해 이미 제안된 안건이 있을 경우
- 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의제

○ 토론이 중지되는 경우

- 개설취지와 관련없는 주제로 일관하거나 욕설, 비방이 심한 경우
- 토론주제에 해당하는 문제가 토론중 해결되어 더이상 토론이 무의미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 개설자가 허위가입자이거나 불량이용자로 판정되어 경고 이상의 제재 조치를 당한 경우
-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해 토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천리안에서의 온라인 대화의 안내와 실례

### 천리안의 온라인 으뜸 차림표

여기는 지역, 공간, 계층에 구애받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대화실입니다.

온라인 대화실에서는 서로를 존중해 주는 미덕을 발휘하여 명랑하고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불량 대화자에게는 법적으로 제재가 따를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 ☞ 조용한 대화를 원하는 분은 “GO TALK(조용한 대화)”를 이용하십시오.
- ☞ 불건전대화를 하는 회원의 메시지는 “/EX” 명령어로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 불량대화자는 대화/토론(PCMEET) “대화피해자 신고”에서 접수 받습니다.
- ☞ 전화/우편/컴퓨터 통신을 통한 음란행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GO SERV” 후 “PC 통신 관련 법규” 참조)

온라인 대화(CHAT)

대화/토론(PCMEET)

#### 「자유대화」

1. 온라인 대화
2. 조용한 대화

#### 「POP 대화실로..」

11. 온라인 대화
12. 조용한 대화

#### 「주제별 대화」

21. 대화참여
22. 개설신청/목록열람
23. 이용안내

#### 「토론 한마당」

31. 토론 참여
32. 개설신청/목록열람
33. 과거토론모음('94. 2월 이후)
34. 토론모음집
35. 이용 안내
77. 온라인 메모
99. 남기고 싶은 이야기(25/2207)
111. 대화피해자 신고
112. ID 도용 신고

○ 「주제별 대화」 이용안내

주제별 대화는 관심사가 같은 회원들이 모여 공통화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 받기 위한 대화의 장입니다. 기존의 온라인 대화실과는 달리 미리 개설 신청을 받아 센터에서 다른 회원님들의 찬성수와 내용을 검토하여 개설해 드립니다. 대화실은 회원여러분의 참여율에 따라 일정기간 운영하게 됩니다. 주제별, 계층별, 연령별 그룹 대화를 원하시는 회원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원하는 대화실이 개설되어 있지 않으면 대화주제와 개설취지를 입력하여 개설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개설신청한 회원은 대화실이 개설된 경우에 의장이 되며, 지정한 집중 대화시간에 대화실에 직접 참여하여 대화를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회원이 신청한 대화실 번호에 찬성표시를 하시면, 찬성수가 많은 회원이 신청한 대화실이 우선적으로 개설됩니다.

주제별 대화실은 신청인이나 개설찬성 표시를 하지 않은 회원이라도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대화실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개설된 대화실 목록에 있는 대화실은 지정한 집중대화시간 외에도 활짝 열려있으니 언제든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토론한마당」 토론참여

토론 한마당(FORUM)

| 번호 | 의 장    | 개설일      | 의견수    | 토 론 주 제                   |
|----|--------|----------|--------|---------------------------|
| 50 | KOJH   | 95/07/21 | 4/13   | 화려한 여름휴가 계획에 적당한 지역이 없나요? |
| 49 | NES71  | 95/07/21 | 7/17   | 우리사회에서 시정하거나 폐지해야할 악법은?   |
| 48 | SH469  | 95/07/21 | 4/13   | 일본 만화에 대해서!!              |
| 47 | SHILL  | 95/07/18 | 8/117  | 천리안 팝아이드 폐지 운운에 관하여...    |
| 46 | NL1995 | 95/07/18 | 52/355 | 5.18 불기소 처리 정당한가?         |

- 45 CION 95/07/18 7/76 한국인 여직원을 폭행한 일본인 구속, 추방하자!
- 44 5644 95/07/18 0/53 유흥업소 12이후 영업 해제해야 한다.
- 43 UETTE 95/07/12 1/341 WORLD CUO 한국&일본 공동개최!?!?
- 42 OPSL 95/07/11 52/1188 김대중씨의 정계 복귀와 신당 창당에 대해...

토론실 선택(번호) 다음 페이지(리턴키) 연속출력(NS) 기타(Z) > 48

※ 참여하고 싶은 번호를 입력한다.(48번을 입력하면 아래가 나옴)

토론실 48 「일본 만화에 대해서 !!」

의장 : VVYSH469(김태호) 토론기간 : 95/07/21~95/08/10 (상황에 따라 조정가능합니다)

| 번호    | 토론자      | 수신자 | 토론일      | 출수  | 조회 | 제 목                      |
|-------|----------|-----|----------|-----|----|--------------------------|
| 13    | ASTOLE   | ALL | 95/07/22 | 16  | 11 | 글쎄~~                     |
| 12    | POPFYS   | ALL | 95/07/22 | 119 | 24 | 돈있나 뭐!                   |
| 11    | KJK 1892 | ALL | 95/07/22 | 2   | 24 | I love Japanese dynamics |
| 10    | 88888    | ALL | 95/07/22 | 75  | 28 | 내가 보기에는...               |
| ..... |          |     |          |     |    |                          |
| 2     | KGJ0440  | ALL | 95/07/21 | 4   | 59 | 만화 제작자의 정성               |
| 1     | JHCHOI83 | ALL | 95/07/21 | 1   | 65 | 분발자                      |

선택>‘번호’

※ 위의 차림표에서 원하는 번호를 선택하여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 「토론 한마당」 이용안내

“토론 한마당”은 천리안 Magicall 가족들의 이성과 비판의 소리가 어우러

지는 토론의 장으로서 마련된 공간입니다.

회원 여러분께 토론실 개설신청을 받아 센터에서 다른 회원님들의 찬성수와 내용을 검토하여 토론실을 개설해 드립니다. 개설된 토론실은 의장의 주도에 기본적으로 3주간 운영되며, 토론의 활성화에 따라 의장의 신청으로 토론기간의 연장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이미 폐쇄된 토론실에서 이루어졌던 토론의 내용은 “토론모음집”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언제라도 내용열람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토론실이 개설되어 있지 않으면 신청인명과 주제, 개설취지 등을 입력하여 개설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개설신청한 회원은 토론실이 개설된 경우에 의장이 되며, 토론연기 신청권한을 갖게 됩니다.

또한, 다른 회원들은 이미 등록된 신청목록을 보고 찬성표시를 할 수 있으며 5줄 이내의 찬성의견의 작성이 가능합니다. 찬성의견 열람시에 찬성인의 회원 ID가 표시되므로 책임감 있는 의견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토론 한마당”을 통해 건설적으로 활기찬 토의가 이루어져 건강한 비판과 대안이 제시되는 여론마당의 장으로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 3) HITEL 토론 광장의 안내와 실례

#### (1) 회의실 이용법

##### 회의실 이용방법(HOWCONF)의 차례

- 1) 회의실 참가 및 이용안내
- 2) 안전열람/재청 및 신규안전 발의
- 3) 토론이 더 필요할 때 : 회기 연장
- 4) 토론을 중지하려면 : 회의실 닫기
- 5) 지나간 토론실 내용 : 과거 회의실

○ 회의실 참가 및 이용안내 : “토론의 광장” 서비스의 의의에 대해서

토론의 광장은 온라인 상에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공적인 토론의 주제를 놓고 전국의 하이텔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 전자회의실입니다.

토론의 광장은 안전의 발의와 회의의 주제 및 진행 그리고 회의실의 폐쇄에 이르기까지 모든 토론의 절차를 이용자가 직접 참여해서 운영되는 건전한 민주적인 토론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토론의 광장(GO CONF)기본 서비스 화면에서 여러분은 개설된 회의실(최대 14개)에서 토의 주제와 각 주제의 개설시기와 개설기간 그리고 어제까지의 게시물수와 오늘 올라온 게시물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예 :

321. 중고생의 머리문제 (외국인의 오해) (93/03/28 : 4주) (392/1)

토의주제

개설시기

개설기간

총게시물수

오늘게시물수

회의에 참가하기 전에 반드시 각 주제의 1번 게시물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1번 게시물은 의장이 최초 주제를 제안하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그 회의실의 개설취지 및 방향성을 가장 잘 제시해 줍니다.

그날 새벽까지의 회의실 상황(과거회의실 포함)을 ZMODEM, KERMIT으로 DOWN-LOAD할 수 있습니다. 해당 회의실 전체를 미리 FILE로 DOWN-LOAD하여 OFF-LINE 상태에서 숙지하신 후 해당 토론의 전체적인 방향을 짧은 시간내에 파악할 수 있으며, 이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 전화요

금을 대폭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용자가 올린 토론내용을 자세히 읽고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 안전열람/재청(GO RDCF)

이미 발의된 안전을 열람하거나 재청하시려면 1번 안전열람/재청(GO RDCF)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1번을 선택하시면 안전의 제목들이 나열되며 해당 안전의 번호를 치면 재청자의 취지 게시문이 나타납니다. 취지문을 읽으시면 재청유무를 묻게 되는데 재청하시고 싶으시면 ‘Y’를 누르시면 됩니다. 재청은 하나의 안전에 대하여 한번밖에 하실 수 없습니다.

최소한 20명 이상의 재청을 받은 안전으로 가장 많은 재청을 받은 안전이 우선적으로 회의실의 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회의실이 개설됩니다. 회의실의 갯수는 기본적으로 12개이며 운영진의 판단에 따라 2개의 회의실이 더 개설될 수 있습니다(최대 14개의 회의실).

○ 신규안전 발의(GO NEWCH)

신규안전안을 발의하시려면 2번, ‘신규안전 발의’를 선택합니다. 안전과 발의 이유를 작성하셔야 하며 회의실이 개설될 경우 회의기간을 지정하셔야 합니다. 회의기간은 신규안전 발의시 지정하며 한회에 한해 연기가 가능합니다(최대 6주). 또한 회의실이 개설될 경우 의장이 처음에 작성한 발의 이유는 신규회의실의 첫번째 글로 자동적으로 올라간다. 회의실이 개설될 경우 자동적으로 의장에게 회의실이 개설되었음을 알리는 전자우편이 가기 때문에 자신이 발의한 안전이 정식주제로 채택되어 회의실이 개설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발의하신 안전이 1개월동안 정식주제로 채택되지 않는 경우는 자동적으로 삭제됩니다.

○ 부적절한 안전들!

토론의 광장란은 많은 이용자 분들이 관심을 갖는 시사 및 공공의 주제가 폭넓게 토론되는 마당으로 많은 이용자 분들이 공감하고 토의되어질 수 있는 안전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몇가지 주의하실 사항이 있으니 참조하시고 부적절한 안전들이 올라올 경우에는 임의로 삭제하겠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차례에 걸쳐 토론된 안전
- 최근에 토론된 안전
- 토론의 성격이 규명되지 않는 안전 (예) HiTEL을 새로 만들자
- 혼돈을 초래할 수 있는 안전
- 장난성 안전
- 음란성 안전
- 취지나 내용이 성의(내용)없이 올려진 글
- 특정한 것(인물, 학교, 지역, 연예인, 종교, 제품, 게임, 영화)으로 공적인 주제로 적합하지 않는 안전
- 서비스(HiTEL)내에 유사한 게시판이 개설되어 있을 때  
예) 연예인에 관한 것 스타란(GO STAR)  
정치에 관한 것 정치마당(GO POLITICS)  
동호회 개설에 관한 것 동호회 마당(GO MADANG)
- 안전 자체에 비난이나 욕설이 섞인 글
- 사적인(개인적)인 것 - 편팔, 반려자, 사원모집 등
- 안전 제목에 특수문자나 안시 그리고 그림문자 등을 포함한 경우
- 다른 이용자의 ID로 안전을 제시한 경우
- 서비스에 대한 문의(이용안내 및 신문고 등 이용)
-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안전
- 이미 같은 내용의 안전이 올라와 있거나 회의실이 열려있는 경우
- 이미 회의실이 개설되어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같은 사람의 또다른 안전이 주제로 선택되었을 때(두개의 회의실을 운영하는데 무리)
- 기타 안전으로 부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 토론이 더 필요할 때 : 회기 연장

자신이 의장인 회의실에 한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회기 연장은 한번에 한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 회의실이 열릴 때 3주를 선택하였는데 회의진행

이 활발하여 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한번에 한해서 연장하실 수가 있습니다(이럴 경우 총 4주).

서비스 인덱스 : GO PPCONF

○ 토론을 중지하려면 : 회의실 닫기.(1/1)

세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첫째 회의 진행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의장이 판단하여 회의실을 닫는 경우, 둘째는 회기가 되어 자동적으로 회의실이 닫히는 경우, 셋째는 의장의 활동이 없고 부진하거나 또는 토의가 개설 취지와는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임의삭제하고 공지사항에 해당사항을 통보)입니다. 회의실이 종료된 후에는 과거회의실 영역으로 자동적으로 옮겨줍니다.

서비스 인덱스 : GO CLOSECONF

○ 지나간 토론실 내용 : 과거회의실(1/1)

과거회의시에서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토론들이 하나의 자료로서 보관되며 의장을 제외하고는 쓰기가 금지됩니다. 의장은 의사록을 작성하거나 토론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 쓰기 기능이 부여되며 누구든 삭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과거회의실은 시간이 지나 점점 내용이 축적될수록 여러분에게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서비스 인덱스 : GO OLOCONF

(2) 토론의 광장 안내 : '95. 6. 20~30일 (1/3)

안녕하십니까? 한국 PC 통신(주) 입니다.

'95. 6. 19~6. 30일 “토론의 광장(GO CONF)” 입니다.

|        | 제 목                                                                                                                                                                                                | 의 장                                                                                                                              | 건 수                                      |
|--------|----------------------------------------------------------------------------------------------------------------------------------------------------------------------------------------------------|----------------------------------------------------------------------------------------------------------------------------------|------------------------------------------|
| 열<br>림 | 웃기는 세계화, 세계화의 허구를 논하자<br>교통위반 신고시 10,000원씩이나 준다.<br>웃기는 세계화, 세계화의 허구를<br>도둑맞은 172만표, 어떻게 찾을 것인가<br>「단말기」 이용자를 위하여<br>와타나베의 망언에 관해...<br>삼성의 광고 이대로 좋은가<br>삼풍백화점 붕괴, 이런 일이...<br>방송사는 왜 구조작업을 방해하나? | hanbim/박한빛<br>JINYEUP/추진엽<br>hanbim/박한빛<br>jinbo 95/노희찬<br>LEESUN2/이 경<br>gemara/이준호<br>TOMHANKS/오두진<br>770815/김상용<br>latest/박상욱 |                                          |
| 단<br>웹 | 한통노조에 대한 탄압<br>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와 제16조항<br>KIU 이용정지에 관해<br>남의 ID에 들어가는 4차원 판문<br>토끼몰이식 노동탄압 정당한가<br>HITEL 고쳐야할 1000가지 문제점<br>통신 민영화/개방화 가능한가                                                            | jang888/장중운<br>Knulf/조길용<br>hiarkhe/김호준<br>tiger777/안형진<br>kjongsik/김종식<br>jetgirl/김민정<br>batman3/김규식                            | 14<br>12<br>124<br>59<br>69<br>121<br>42 |

#### 4. PC 통신 예절가꾸기

인간이 다함께 평화롭게 살려면 사회의 어떤 곳에서도 그곳 특유의 도덕과 예절이 있으며 그러한 예절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굳어진 습관적인 규범으로 그 기본정신은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PC 통신이 처음 보급될 때만 해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예절바르고 아름다운 미담들이 많았지만 요즈음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로 그런 모습들이 점차 사라져 가고 심지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PC 통신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바로 우리나라 컴퓨터 통신의 문화를 이끌어 나갈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예절을 가꾸어야 할 것이다.

컴퓨터 통신은 신문, 방송에 이은 새로운 통신 문화로서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지도 않고 자유롭게 자기의사를 광범위하게 교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익명성의 특성 때문에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기가 쉬울 수 있다.

이런 잘못에 빠지 않고 컴퓨터 통신문화를 다같이 즐기기 위해 지켜야 할 공중도덕과같은 최소한 예절을 지켜주었으면 한다.

## 1) 게시판 예절

게시판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양의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는 곳이다. 전국의 많은 이용자가 동시에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어 편리한 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게시물을 올리는 이가 너무 안일한 생각으로 올리기 때문에 적지 않은 문제점 또한 발생하고 있다.

- 개인의 인격에 대한 내용을 게시판 영역에 올려서는 안된다.
- 단순하고 가벼운 흥미위주의 게시물은 삼가한다.
- 게시물의 내용을 제목에 간단 명료하게 적는다.
- 자신의 신분을 꼭 밝힌다.
- 존대말을 사용한다.
- 맞춤법에 유의하여 한글을 제대로 사용한다.
- 다른 사람의 글에 대한 개인 감정을 지나치게 표현하지 않도록 한다.

## 2) 전자편지 예절

전자편지의 예절은 사회생활에서 편지쓸때 지켜야할 예절과 비슷하여 다음과 같다.

- 자신의 개성을 지나치게 돋보이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과 잘 어울리도록 한다.
- 자기의 가치관을 고집하여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 한번 전송한 편지는 다시 고칠 수 없으므로 미리 편지를 작성하여 검토한 후에 발송한다.
- 자신의 신분을 미리 밝히고 편지를 보낸다.
- 상대방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따뜻한 우대로서 편지를 쓴다.

- 익명성을 이용해 인신공격을 하거나 비밀번호의 노출로 인해 남의 화일을 손상시키거나 욕이나 음담패설로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야 한다.

### 3) 대화실 예절

서로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끼리 대화실에 모여 이야기를 주고 받기 때문에 무책임한 말이나 욕설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다. 또, 감정을 앞세운 거친 말이나 알맹이 없는 대화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서로가 예절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대화실에서는 누구에게나 “님”자를 붙이고 존칭을 사용하자.
- 진행중인 대화의 분위기를 파악한 후 참여하자.
- 자신을 소개한 후에 대화에 참여하자.
- 다른 사람이 새로 참여할 때는 “어서오세요”라는 환영의 인사를 하여 좋은 대화 분위기를 마련하자.
- 대화실을 빠져 나올 때에는 양해를 구하고 나간다.
- 초대할 때는 각 개인의 바쁜 업무를 방해하지 않도록 한두 번 정도만 부르고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 초대받았는데 참여하지 못할 때는 자신의 초대 상태를 “불가”로 해 놓도록 한다.
- 저속한 욕설, 음담패설을 삼가한다.
- 안시로 화면을 조정하여 다른 이용자의 화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 워드가 느린 이용자를 만날 경우 천천히 기다려주는 예절도 있어야 한다.

### 4) 그 밖에 지켜야할 통신예절

- 무절제한 온라인 대화나 목적없이 대화실 이곳 저곳에 들어가는 일은 가급적 삼가자. 전화회선이 적은 지방의 이용자와 급하게 이용해야 할 이용자들이 겪을 접속의 어려움을 감안해야 하다.
- 상업용 소프트웨어는 올리지 말아야 한다. 일정한 가격을 지불한 사람

- 만이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외하고 공개용 소프트웨어만 올리자.
  - 공개용 소프트웨어를 올리기 전에 반드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점검한 후에 올려 바이러스 확산을 막도록 하자.
  - 남이 힘들여 개발한 프로그램이나 자료를 구했을 때는 그 자료를 만든 사람에게 감사의 편지 한장 정도라도 보내는 자세를 갖도록 하자.
  - 사용을 중단할 때는 정해져 있는 방식으로 끊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속 사용중인 것으로 오인되어 호스트의 불필요한 폭주가 발생할 수가 있다.
  - 사실 BBS를 이용할 때 운영자의 호출은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호출하면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있다. 운영자의 호출을 삼가하자.
-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남을 위하는 마음이다. 이것이 잘 지켜질 때 예의바른 컴퓨터통신 문화가 새롭게 정착될 것이다.

## 5. 등대 BBS의 이용현황

### 1) 개설목적(95년 9월현재)

급변하는 멀티미디어 사회에서 청소년들은 가치관의 혼란과 지나친 경쟁의 식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하는데 지장을 받고 있다.

등대 BBS는 올바른 PC 통신 문화의 정착과 아울러 방황하고 표류하는 청소년들에게 조그만 길잡이 역할과 PC 통신을 통한 대화의 광장을 마련하고자 1991년 8월 28일 개설되었다.

### 2) 활동내용

- 매일 24시간 PC 통신망으로 청소년의 고민을 무료상담
- 매월 1회 청소년상담 및 PC통신 세미나 개최
- 격월제로 “등대” 소식지를 발간하여 학교, 관련기관, 일반인에게 무료 배부

- 청소년통신원을 선발하여 청소년들의 의식을 이해하여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디딤돌이 되고자 함.
- 연 1회 한글별칭 자랑대회를 개최하여 컴퓨터 용어의 한글화와 청소년 정서 함양에 조그만 보탬이 되고자 함.
- 연 2회 겨울 및 여름방학 때 “등대” 장애인 교실을 열어 장애인 단체에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등을 기증하고 강사, 조교를 통해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여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 청소년들과 정보에 소외된 계층들에게 정보화 사회의 참여의식을 높이는데 조그만 보탬이 되고자 함.

### 3) 이용현황

- “등대” 통신망의 총 이용자 수는 7,500여 명이 됨
- 청소년상담을 한 사례를 재편성하여 데이터화시킨 사례집은 천 여 종류가 있음
- 또래 상담실이 마련되어 같은 친구끼리 함께 걱정하고 고민하는 대화의 장도 마련되어 있음
- 청소년상담사례집을 음성 정보서비스인 02-700-4774로 제공되고 있음
- 나우누리에서 go loi하면 등대 BBS를 만날 수 있음
- UNITEL의 꾸러기 동산 등에서도 등대 BBS를 만날 수 있음(SDS).
- 청소년상담 등의 이용조회수는 총 수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음.

### 4) 등대 BBS의 온라인 상담 사례집

다음은 등대 BBS에 올라온 상담 사례중 하나이다. 여타의 고민들이 많이 올라오지만 성에 대한 고민과 교우관계에 대한 고민, 성적에 대한 고민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 지면에 소개하는 사례는 우연히 목격한 사고로 지하철에 대한 공포심을 가져 스스로를 더욱 타하게 된 한 고등학생의 고민이다. 참고로 나우누리에서 go loi로 가면 등대 BBS를 만날 수 있으며 UNITEL에도

지원하고 있고, 직접 접속하려면 955-2304로 접속하면 된다.

〈사 례〉

외판점의 등대지기님! 이곳에서 고민을 털어 놓을 수 있어 참으로 다행입니다. 저는 어릴때부터 고개를 푹 숙이고 걸어가는 버릇과 긴장하면 실수를 자주하고 실실 웃는 버릇이 있어 바보 취급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게다가 우연히 지하철 사고를 목격한 뒤부터는 등학교 길에 지하철을 탈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는 진로, 학업문제로 인한 지하철 공포증이라고 걱정하지 말래요. 그런데 최근에 제 친구가 이 사실을 알고 여학생들에게도 얘기를 하며 자기들끼리 깔깔거리더군요. 친구녀석을 죽여 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놀림을 받으면서 공포심으로 지하철을 타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미워요. 저는 겁장이에 미친놈이 아닐까요?

등대지기님!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될 수 없을까요?

〈조 언〉

괴로운 심정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저는 교직에 근무한 지 15년이나 되었죠. 그런데도 여전히 공개석상에서 가르치는게 두려워요. 며칠 전에 교장선생님 등 많은 선생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학생들과 연구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를 할까 두려워 목소리와 손이 떨려서 칠판에 글씨를 제대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다. 실수를 좀 한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하니까 마음이 조금은 안정이 되더군요. 너무 신중하고 완벽하게 표현하려고 하면 함부로 발표할 수가 없고, 그래서 발표할 기회를 잃게 되어 더욱 소극적이고 내성적으로 변해갈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것을 고칠 수 없지만 자신의 의지에 따라 노력한다면 성격은 변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 보십시오. 또 자기감정을 개발하여 자부심을 가져 보십시오. 실수를 통해서도 많은 경험을 갖게 되면 자기의 생각을 떳떳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사고를 목격하고 그 두려움이 좀 오래 가는 것 같군요. 사람은 누구나 다 너무 한 곳에 집착하면 자율신경이 긴장하여 자

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므로 지나치게 집착할수록 문제를 더 악화 시켜서 종류에 따라 고공에 대한 두려움, 대인관계의 두려움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걱정할 것은 아닙니다만, 견디기 힘들면 부모님과 의논하여 전문기관을 찾아보세요. 친구문제도 누구나 다 소외당했다고 느낄 때 가장 괴롭습니다. 친구들을 죽이고 싶은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로 인해 마음을 닫고 파괴적인 성격으로 돌변한다고 소외감이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친구를 사قم에 있어 사교적인 성격보다는 성실과 진솔한 마음가짐이 더 중요합니다. 힘들겠지만 마음을 활짝 열고 마음 속으로 그 친구들을 먼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솔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대하면 우정을 가꾸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세요. 그래도 힘들면 부모님과 의논하여 상담관련 기관에 꼭 문의하세요. 안녕...

(동대소식지 12월호에서)

등대지기 서영창 올림

## 6. 사이버 스페이스의 활용형태

성과 나이와 신분과 그리고 국적을 초월하는 만남이 새로운 문화공간인 사이버 스페이스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PC 통신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대화실(chatting)을 이용해서 이성교제를 하거나 열띤 토론을 하기도 한다. 또 취미가 같은 동호회의 정기모임이나 번개팅을 통해서 바로 만나게 되는 즉석 미팅도 있다. 주제를 정해 놓고 의장을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주제토론실도 있어 학생들에게 창의적 결론도출, 문제해결능력을 키워주는 방법도 있다.

80년대에는 펜팔을 통해 서로의 의사를 교환하던 것이 90년초에는 E-mail로 펜팔을 하는 콤팩이 유행하였다가 최근에는 온라인좌담회, 비공개, 공개대화방을 통하거나 주제토론실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보를 교환하는 다양한 대화를 통해 사람을 접촉하게 되었다. 만능기계로 인한 컴퓨터피아에서 사람들이 점차 이기적이고 폐쇄적으로 삭막해져 간다고 걱정하기도 했지만, PC 통

신은 점차 활성화되고 인터넷의 이용 등으로 이념과 국적을 초월한 만남의 장으로 되어가고 있다.

사이버 스페이스의 파괴적인 형태와 창조적인 활용형태를 다음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1) 파괴적 활용형태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수집 검색하는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요즘, 사실 BBS와 대형 BBS를 전부 합치면 60만명으로(95년말 현재) 추산되고 이 중에 청소년들은 25% 정도로 약 16만명이 넘는다.

특히 대화방(chatting)을 이용하는 경우를 보면 대학생이나 직장인은 별로 없고 청소년들이 대부분인데 집에 들어오면 PC를 켜 놓고 통신을 시작하여 밤새도록 통신상대와 이야기를 나눈다.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지 못하는 약물 중독과도 같이 컴퓨터 통신 중독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파괴적인 컴퓨터 통신 활용형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형 BBS의 경우에 별칭(ID)을 살펴보면 “드라큘라(Dracular)”, “유령(Ghost)”, “지하감옥(Dungeon)” 등의 끔찍한 영어 별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눈에 많이 뜨인다. 사실 BBS의 경우 한글 별칭(ID)이 “악마, 니콜라지, 따까리맨, 너주거, 노반스” 등 저속하고 음란한 사용자명(ID)이 늘어나고 있어 청소년들의 정서생활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대화방에 주로 사용되는 맞춤법을 살펴보면 “안냐세요, 어쵸여” 등의 은어를 사용하는데 특징을 보면 글자를 줄여서 쓰거나 즉흥적이고 소리나는 대로 그대로 적어서 우리 문법에 전혀 맞지 않아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셋째, 대화실의 이야기 흐름을 보면 음담패설을 주고 받거나 의견이 맞지 않을 때에 심한 욕설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넷째, 공개자료실을 활용함에 있어서는 음란화일이나 누드화를 교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다섯째, 알맹이 없는 토론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

여섯째, 통신요금이 월 10만원 대 이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며, 통신 상대방의 얼굴도 모르고 목소리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거리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화를 하여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올바른 통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통신예절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며 기성세대들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 2) 창조적인 활용

PC 보급의 확산으로 PC 통신을 이용하여 가정, 사무실, 학교, 회사, 공공기관 등에서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PC 통신은 기존의 통신 수단인 전화, FAX, 우편 등과 비교할 때 공간적인 제약성을 극복할 수 있고, 시간의 절약과 정확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특징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PC 통신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일곱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 PC 통신을 이용하여 학생들은 그날 배운 교과과정을 집에 앉아서 복습을 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내일의 수업을 예습할 수 있다. 또한, 통신용 학습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신의 학습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자신이 스스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대학에서는 각 대학 간에 근거리 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대학의 도서관자료, 최신 연구논문, 외국과의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다.

셋째, PC 통신의 뛰어난 검색 시스템을 이용하여 학생들은 과거의 신문기사들을 시기별, 사설별, 순서별로 찾아낼 수 있을뿐 아니라 진행과정 등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흥미있는 사건에 대한 정리를 통하여 학생들의 수학적능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넷째, 학교에서도 컴퓨터 망을 구성하여 여러 학교의 학생과 선생님들의 접촉 및 교류가 가능하며, 그렇게 됨으로써 학생들은 다양한 선생님들로부터 학습정보와 의견 등을 얻을 수 있게 되고 PC 통신을 통한 Team teaching이 가능해진다.

다섯째, 동호회를 통하여 취미와 특기 등이 같은 친구들을 사귄 수 있고,

공개 소프트웨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여섯째, 정보의 활용에 있어서도 국내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세계의 다양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어 정보의 세계화에 중요한 매개체로 활용할 수 있다.

일곱째,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주제를론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민주 시민의 자질을 높이는데 활용되고 있다.

## 7. 사이버 스페이스를 이용한 전자 대화·토론실 이용현황 과 제안

### 1) 전자토론의 필요성

최근 몇년 사이에 사이버 스페이스를 통해 전자 대화와 토론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건전한 이용방법이나 길잡이가 될 만한 모델이 없어 많은 아픔과 갈등을 낳고 있다.

최근 교육개혁에 따르는 수학능력의 학습 방법에 있어서도 토론학습이 중요시되고 있다. 창의력, 탐구학습, 합리적 사고, 결론도출 등의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주어야 할 때이다.

청소년들의 가치관이 그 사회·문화적 환경에 영향을 받아 평생동안 중요한 가치관을 형성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역적·공간적·시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권인 사이버 스페이스에 대한 인식을 재조명해야 될 때이다.

또한 초고속 정보화 시대를 앞두고 청소년들이 합리적 사고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미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자토론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2) 전자대화실(CHATTING)의 종류

#### (1) 나우누리에서 대화실의 종류

“공개대화실”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 “비공개 대화실”은 개설자가 부

여한 비밀번호를 알아야만 참여가 가능하며 또 대화실 주제 및 참여자 현황 등 비공개로 하는 “숨은대화실”로 3가지 종류가 있다. 대기중인 사람들을 초대할 수도 있고 불쾌한 이용자를 만났을 때는 명령어를 이용해 대화내용이 화면에 나타나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다.

또 불량이용자를 만장일치로 대화실에서 추방할 수도 있으며 대화실을 이용한 불법복제 및 자료교환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에게 1차, 2차 경고를 하거나 서비스 중단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

## (2) 천리안의 온라인 대화의 종류

“자유대화”, “POP 대화실”, “조용한 대화”, “주제별 대화”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이텔도 비슷한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데, 천리안의 특징인 “주제별 대화실”은 공동의 화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 받는 대화의 장으로 미리 대화 주제와 개설취지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개설한 사람이 자동으로 의장이 되어 지정한 시간에 집중대화를 할 수 있다. 천리안에서도 불량대화자에 대한 조치로 “대화 피해자 신고” 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 3) 전자 토론실의 종류

### (1) Hitel의 토론실

Hitel에서는 “토론의 광장”에서 토론실을 제공하고 있는데 온라인 상에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공통된 주제를 놓고 깊이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 전자회의실이다.

신규안건을 발의하려면 안건 발의 이유를 작성하여 회의기간을 정하면 된다. 회의실이 개설될려면 20명 이상의 재청이 있어야 하며, 신규안건이 지정 되면 1회에 한해 1차례 연기될 수 있다. 처음 발의한 사람이 자동적으로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하게 된다.

회의 진행이 더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의장이 판단하거나 회의가 만료되거나 토의개설 취지와 다르게 진행될 때 회의실이 닫히며 종료된 후에는 자동적으로 과거 회의실 영역으로 이동된다.

## (2) 천리안의 토론실

천리안에서는 “토론 한마당”에서 토론실의 개설 신청을 받아 다른 회원들의 찬성수와 내용을 검토한 후 토론실이 개설된다. 개설한 사람이 의장이 되어 3주간 운영되는데 의장의 신청으로 토론기간이 연장도 된다.

새로 개설하려면 신청인명, 주제, 개설취지 등을 입력하면 되고 등록된 신청목록을 보고 5줄이내의 찬성의견으로 재청할 수 있다.

## (3) 나우누리의 토론실

나우누리에서는 제안 안건이 20일 이내에 30명 이상의 재청을 받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며 토론의 연장은 1주일 단위로 최대 8주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토론의 책임자인 의장의 별칭을 밝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여러차례 토의된 의제나 중복된 의제나 개인적인 홍보나 퇴폐적인 의제는 제안이 허락되지 않고 있다.

# 8. 전자토론의 운영방안에 대한 제언

## 1) 전자대화실에 대한 제언

전자대화실은 대체로 자유대화실, 비공개 대화실 그리고 주제별 대화실 등 3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이들은 각기 특징있게 활용되고 있지만 때로는 음담패설과 욕설 등이 나타나고 비공개적인 욕방, 비디오방, 포르노방이 개설되는 경우가 있어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대화실에서 지켜야할 예절은 앞장에서 PC 통신예절 가꾸기에 대화실 예절을 제안했는데 참고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많이 홍보해야 할 것이다.

대화실의 참여에 있어서도 알맹이 없는 잡담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어떤 책을 각자 읽고 대화를 하는 독후감 대화실이나 청소년상담을 중심으로 하는 상담대화실 등 특성화된 대화실이 개설되도록 해야 한다.

대화실에서도 개설취지 등을 분명히 하여 목적이 뚜렷한 대화실을 개설하

며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내어야 한다. 주제별로 공동의 화제를 사전에 준비·토의하여 폭넓은 대화를 통하여 건전한 민주시민의 역할을 키워야 한다.

또 대화실에서도 의장이나 사회자를 두어 책임을 부여하고 개설취지에 맞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책임자인 사회자나 의장에게 경고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

## 2) 전자토론실에 대한 제언

전자토론실은 PC 통신망을 이용하여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토론의 주제를 선정하는 대중적인 토론장이다. 이러한 토론실에 많은 계층이 직접 참여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건전한 통신민주주의를 정착하기 위해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주제토론은 발의에서부터 폐쇄까지 이용자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어야 하며 시스템제공자는 전자토론실의 운영방식 등에 대한 안내와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야 한다.

현재 일부 의장은 주제선정이라는 간단한 방법으로 의장이 되어 회의 운영방식을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사례를 초래하고 있는데 발의 안전이 올라오면 발의여건을 살펴보고 재청을 하도록 하여 전문성과 토론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토론의 전문성에 따라 재청자의 수는 5명~30명 이상 규정을 두고 있는데, 현재는 재청의 수가 많은 것을 우선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제내용의 전문성, 특수성을 함께 고려하여 안전을 채택해야 한다.

신규안전이 개설되었을 때는 시스템 운영자가 의장과 재청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자메일을 통해 3일전에는 통보를 해야 한다.

과거 토론실 내용을 볼 수 있게 하여 과거 정보 검색을 통해 현재의 토론실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참고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대중의 공동관심 분야를 주제로 선정해 폭넓은 토론장을 통하여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반박을 위한 토론안건, 음란성, 부도덕적인 내용, 사적인 홍보안건을 특정한 연예인, 종교·제품을 주제로 하거나 주제선정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제청자의 수가 많더라도 채택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이용자를 중심으로 비밀번호를 부여하는 비공개 전문토론실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이는 전문토론실로 개설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통신망에서는 피해자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활성화시켜야 한다. 즉 경고 및 법적조치의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명예훼손이나 음담패설 등으로 정신적인 고통과 아픔을 간직한 청소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공적 토론에 대한 내용은 언론의 보장도 지켜주어야 한다.

의장의 권한과 의무에는 예절에 벗어난 이용자를 쓰기금지 등의 조치를 시스템 운영자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또 회의진행 방법에 대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 3) 제안자와 참여자들이 지켜야 할 자세

전자토론에 참여할 때는 지식을 전달하거나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설득하거나 주제를 명확히 하여 대화에 참여하여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다 대화를 통하여 인정받고 싶어한다. 자신의 주장을 앞세우기 이전에 상대방의 대화를 들어주는 미덕을 가꾸어야 한다. 주제토론에 따르는 공동의 관심사는 적극적이고 신중한 태도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 ① 전자토론실의 참여자들이 지켜야 할 자세

- 주제 토론의 글을 올릴 때에는 감정에 호르지 말아야 한다.
- 사전에 주제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자기의 의견을 제출하여 즉흥적인 경솔함을 나타내지 않도록 한다.
- 자신의 주장에 대해 책임을 질수 있어야 한다.
- 자신의 주장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여 주제토론의 목적을 분명하게 한

다.

- 토론과정에서 근거도 없이 상대방을 무시하는 글을 올리지 않도록 한다.
- 예상되는 반론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실과 추론을 분명하게 구별한다.
- 전자토론도 사이버 스페이스를 통한 인간의 만남이다. 이러한 만남을 소중히 여겨 정답게 대화를 주고 받아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주제의 제안자(의장)가 지켜야 할 자세

- 제청자의 글이 주제에 벗어나지 않도록 유도한다.
- 참여자의 주제발표가 미흡할 때는 의장이 보충설명을 통해 전자토론실을 원활하게 진행한다.
- 참여자 중에 침묵하는 이용자들에게 E-mail을 통해 참여를 유도한다.
- 토론 중에 혼란이 올 때는 즉시 중재하여 시정하도록 한다.
- 전자토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순서와 규칙을 제시하여 홍보한다.
- 토론장을 닫기 전에 의장은 주제발표 내용을 영역별로 정리하여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종합한다.
- 토의였다면 문제해결을 위해 의견의 일치로 보았는지를 반성해 본다.
- 토론이었다면 참여자들이 충분한 논거를 바탕으로 설득력이 있었는지 정리하여 본다.



## IV. 외국의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활동

### 프랑스에서의 청소년 정치활동 : 새로운 시민권 분야

올리비에 듀아드\*

우리나라에서 언론에서 자주 보도되는 진부한 자료들은 정책에 대한 청소년들의 각성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최근 몇년 동안 특별한 강조를 해왔다. 아마 이것은 Res Publica 가 운영되고 있는 의미에서 보다는 오히려 정치정당이 사실상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의 정치학에 관련이 있다.

시민권이 위기를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많은 예들이 있다. 1991년 「지역사회 교육과 청소년을 위한 국회(CNEPJ)」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시민권에 대한 보고서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가장 두드러진 것은 노종조합주의의 쇠퇴와 악화되어가는 공동체 투쟁정신과 더불어 너무 지속돼서 억측으로 발뻘할 수 없는 선거 포기이다.

만약 우리가 시에 의해 인정받은 구성원의 하나로서 각 개인을 의미하는 시민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시민권은 어린이와 16세 이하 청소년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태도는 지난 몇 년 동안 발전되어 왔고,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해 그들이 의견을 가질 권리와 능력이 보다 빨리 인정된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그것은 CNEPJ 위원회가 그들의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 것과 같이 모든 민주주의 사회를 특징짓는 집단적 구조에서 청소년에 대해 보다

---

\* Olivier Douard. 프랑스 사회학자, 청소년과 대중교육 연구원(INJEP) 연구실장.

큰 위치를 제공하는 관점 안에서 가능하다. : “ .....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효과적으로 그들의 시민권을 훈련하게 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드는 것은 지방 수준에서 필수적이다.”

이 CNEPJ 보고서는 프랑스 국민에 대한 지역사회의 숙고 단계를 보여준다. 게다가, 「어린이의 권리에 대한 대표자회의」에 대해 프랑스의 비준이 있었던 것도 그 시기이다. 이 특별한 시기는 청소년들과 시 교육 사이에서 새로운 형태의 시민참여로 지지되어 왔다.

## 1. 역사적 요소

프랑스에서 시민권 교육은 가족을 제외하고, 교육 단계에서 어린이가 맞는 최초의 필수적 단계이며, 오랫동안 공립학교에서 실시되어왔다. 19세기 말 이래로, 그것은 인권과 시민권의 기본원칙에 바탕을 둔 국가적 통일을 확고히 하기 위한 과업으로 수행되어 왔다.

이것은 수학이나 역사와 같은 방법으로 학과목으로 가르쳐지는 시민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국가교육체제의 바로 중심부에서 그것들을 학교 개혁에 공헌하기 위한 목표로 세우려는 운동은 신교육운동 (New Education) 목표의 영향을 받아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시민교육의 전혀 새로운 훈련을 실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한 언급 중에는 협력 계층들, Celestin FREINET 의 고무된 교육적 접근방법들이 있다. 후에, 계층대표자 체제는 시민의 자각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학교와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국가교육체제와 같은 방향으로 형성된 지역사회 교육 (Community Education) 조직과 청소년 운동 부문은 그들의 목적 안에서 어린 시민들의 훈련을 담당해왔다.

이것은 특히 비교파적 여가센타 연합을 만들고 그 시작에서부터 사회교육적 여가활동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시민권을 반영하고 실천해온 “Francs et Franches Camarades” (오늘날 “Francas”로 알려진) 와 같은 운동 사례이다. 그러나 다른 조직들은 스카우트, 유스 호스텔, 어린이 카톨릭 활동과 마찬가지로 언급되어야 하고, 그러한 청소년 운동들은 “어린이 공화국”, “개

척자”, “용감한 청소년”(프랑스 공산당과 연결된)을 만든 “노동계층 어린이를 위한 운동”(노동당과 연결된 “붉은 매”) 등과 같이 다소 정치정당과 관련이 있다.

“새로운 교육”과 “지역사회 교육”의 이러한 공통적인 유래를 넘어서서 의회 형식은 도시계획자, 심리분석가, 사회과학 연구자들의 연구에 의해 고무되었다. 그 형식은 역사가 짧은 인구과잉 도시들의 문제를 경감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새 도시”에서 수립함으로써 도시화되었다. 의회 자료의 첫번째 경험은 70년 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첫 번째 결과는 알사스 지방의 작은 마을인 쉴티겐(Schiltigheim)이었다. 그것은 ‘세계 아동의 해’ 이후 1979년에 시작되었다. 쉴티겐의 시장은 「청소년 의회의 시대표자회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조직을 계속해서 만들었다. 「어린이와 청소년 시의회」의 첫번째 회의는 1987년에 열렸고 그 이후 1988년 앙굴렘(Angoulême)에서 「국제공동회의」로 이어졌다. 현재 프랑스에는 약 750개의 「어린이와 청소년 시의회」가 있다. 과거 몇 년 동안 독일(11개 의회), 벨기에(27개), 스페인(1개), 헝가리(9개), 이탈리아(6개), 폴란드(9개), 체코슬로바키아(1개), 루마니아(4개), 스위스(13개) 등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의회가 생겼고, 최근에는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포르투갈, 네덜란드 등 더욱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청소년 의회들이 모두 엄밀한 의미에서 시의회인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은 모두 결국 이웃이나 마을, 또는 지역이나 학교 등, 지역 발전 문제로 모아지는 지역 수준의 분야에 관심을 갖는다.

## 2. 어린이와 청소년 시의회

시의회는 도시저소득층 지역의 생활 특히, 젊은이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민주적인 생활에서의 구체적인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의회들은 일반적으로 1년 또는 2년 동안 또래들에 의해 선출된 20명에서 40명 정도의 청소년들로 이루어진다. 그들의 업무는 지역에서 청소년들과 관련된 과제를 만들고, 제안하고 더 나아가 그것을 수행하는데 참여하는 것이

다. 성인 시의회와 달리, 「어린이와 청소년 시의회」에는 지역 운영에 도움을 줄 한 명의 자문대표가 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지향하는 목적에 관한 한 명백하다.

- 성인들, 특히 권위자들의 자문을 구하는 것
- 계획안을 제안하는 것
- 지역의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것
- 적극적인 시민교육을 경험하고 성인들을 위해 구체화하는 것
- 청소년들의 요구를 경청하고 그들을 이해하는 것
- 청소년들과 관련된 계획에 대해 그들의 의견을 듣는 것
- 보다 나은 민주적인 훈련 방법을 실시하는 것

비록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 의회」의 기능이 서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 목표로 하는 공적인 것들이 광범위하다.(어린이와 청소년, 의회가 개인적 기반에 대한 요구와 욕구에 적응할 수 있게 하고 환경에 따라 발전하게 하는 융통성 있는 개념 등)
- 특별한 장비가 필요없다.(유스 호스텔이나 사회센터처럼)
- 사업을 맡을 특수한 전문 관리자에 대한 필요조건이 없다. 비록 성인이 항상 참석한다고 해도, 그들은 가장 쉽게는 전문 청소년사업가나 교사, 또는 부모일 수도 있으며, 시의원일 수도 있다.
-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일정한 규칙이 없이 각 의회는 각자의 운영규칙에 따라 움직인다.

비록 의회의 구체적인 기능이 하나에서 다른 하나까지 매우 다양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해질 수 있다. : 의회원을 위한 선거의 마지막 과정에서 각 청소년 당선자는 위원회에 참여한다. 위원회는 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 모임을 갖는다. 그들은 성인 운영자와 함께 일을 한다. 위원회가 운영되는 방식과 아동과 성인 각각의 역할은 계속되는 토론의 주제이다. 1991년 최초의 ANACEJ 의회 동안, 그것은 워크샵 주제로 가장 열심히 준비되었던 것 중의 하나였다. 그것은 다음의 것에 초점을 두었

다. : “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성공적인 의회 활동을 위한 중요한 역할의 하나이다. 그것은 기민함과 청소년이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위원회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주제는 스포츠와 문화 여가 활동, 환경, 인권, 연대의식,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기본규율의 결정과 개선, 그리고 학교와의 연계 등과 관련된다. 한 회기에 한 번씩 선출된 사람들은 정식 개회를 하고 각 위원회의 계획에 대해 토의한다. 청소년 의회에 의해 하나의 계획안이 선정되면 그것은 그 특별한 계획안의 실행가능성에 대해 차례로 의견을 나누고 필요하면 자금지원을 결정하는 성인 시의회에 제출된다. 「어린이 시의회」는 보통 자율적으로 운영예산을 해결한다.

### 3. 내가 크면 의원이 될까? 경험 분석

의회경험은 19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 최초의 자료 이래로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 전체 인구에 비하면 단지 소수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실제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배울 만한 교훈이 있고, 우리는 청소년에 대한 이러한 청소년 의회의 영향에 대해 놀라고 있다.

의회의 청소년 실무자들의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과 대중교육을 위한 국제협회」에서 온 지도자들인 이들은 종종 이상과 현실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지역을 변화시키고 매일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지역을 더욱 매력적이고 우호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젊은 당선자들과 몇몇 성인들의 ‘이상’과 재정적 압박, 정치적 호의, 행정적 방해, 논리와 로비활동의 다른 제도적 형식 등의 ‘현실’, 이것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이익에 항상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의회를 만들 때 부딪치게 되는 가장 전형적인 몇가지 어려움들을 생각해 보면, 그것들은 반드시 두 가지 측면에 관련되어 있다. 즉, 청소년 당선자들의 대표자격 문제와 의회가 운영되는 방식에 관한 문제이다.

전자에 관해 언급하자면, 민주주의적 태도가 부족하고 특권의식이 팽배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중요한 비판은 운영 방식에서 개선되어지고 있다. 비록

개선이 그 또래들에 의한 젊은 당선자들의 선출 방식에서 보여졌지만 그들은 사회적 훈련 과정에서 그들 자신을 완전히 해방시키지 못했음은 확실하다. 민주적인 국가생활에 기반한 가정의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멀리 떨어진 어린이 돌일수록 사회문화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가정의 어린이들 보다 훨씬 더 능력을 발휘하거나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 학교에 대한 의회의 관계는 역설적으로 이 문제를 강조한다. 왜냐하면 가장 소외된 자들에 대해 특별한 후원을 제공하는 차별적인 단계는 상황을 개선시키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의회조직과 연합의 검토 아래 있는 두 번째 점은 의회를 청소년들의 표현을 위해 진정으로 개방된 의회로 만드는 데에 따르는 어려움에 관한 것이다. 이 어려움은 의회를 운영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성인은 청소년들의 표현을 가능하게 하고 격려하기 위해 언제 주체넘지 않게 행동하고 자신의 관점을 나타내야 할 것인지 알아야 하며, 적당한 시기에 문제를 현실 강제 상황으로 되돌려 놓을지 알아야 한다. 또한 성인들은 시민교육 훈련을 더욱 광범위하게 시킬 수록 더욱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보고서의 다른 요소들은 만약 우리가 이러한 설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가능한한 실현된다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다.

- 청소년들에 의해 다루어진 업무들의 경과를 감시할 필요성
- 의회 협의내용의 외부 전달
- 청소년들의 진실된 표현을 묵살하는 성인 세계의 무수히 많은 부락에서 탈출해야 하는 어려움
- 의회의 업무를 더 넓은 사회·교육·문화적 계획에 통합시킬 수 있는 지역 청소년 조직을 확고히 하는 가치
- 행정부 조직의 정치적 변화로부터 의회를 보호하는 비상시
- 효과적인 업무 도구로서 의회의 제도화를 바라볼 필요성

이러한 비판적인 요소를 설명하는 것을 제외하고, 일단 그들의 임무의 임기를 끝마쳤을 때 이 젊은 당선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놀라게 될 것이다.

위에서 알아보았듯이 우리는 지금 주목할 만한 첫 세대를 보유하고 있다. 왜냐하면 최초로 당선된 어린이들은 지금 성인이 되어 투표권을 가진 시민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프랑스 전역에 걸쳐 15개의 의회가 1993년 수행했던 연구에서 「아동과 가정 학회」(IDEF)와 「아동과 청소년 의회를 위한 국제연합」(ANACEJ) 이 관심을 가졌던 것도 바로 이 질문이었다. 이것은 이전 어린이 당선자들에 대해 의회 경과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위해 가능한 구조를 규정하기 위해 1994년 ANACEJ 에 의해 위임된 예비 연구로 이어졌다. Nathalie Rossini 가 수행한 이 예비 연구는 이전 당선자들과 정치학 사이에서 만들어진 관계들, 시 기관들과 자원 조직의 세계, 그리고 결국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환경 속에서 스스로를 활동가로 인식할 것인지 등에 관련된 생각과 많은 가정들에 대해 몇가지 발단을 제공한다.

그러면 내가 크면 의원이 될 것인가? Nathalie Rossini는 다음을 주목하게 한다. : “「어린이와 청소년 의회」에 하고자 하는 진정한 질문은 그 점이 아니다. .... 청소년들이 의회를 통해 자신을 활동가로 위치지움으로써 그들의 경험과 주위세계의 관계의 의미를 구성하게 하는 한, 우리는 François Dubet 가 말한 사회적 경험에 의해 의회의 발언에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 시기의 단계는 오로지 하나인 것이 아니며, 그 자체가 끝인 것도 아니다.”

의회로의 경로는 청소년 참여를 결정할 수 있는 마법의 방식이 아니라 독특하고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제공된다. 청소년들은 공공정신에 대해 배우고 그것을 직접 경험한다. 그들은 시청의 역할이 무엇인지, 계획들을 어떻게 감시할 것인지 등에 대한 지식 뿐만 아니라 자아확신, 대중 앞에서 말하고 듣는 방법 등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능력들은 그 효과가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고 비록 청소년 의회에 참여하는 것과 미래에 성인이 되어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 사이에 별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 청소년들이 대표기구의 민주적인 활동을 더 잘 이해하고 더 많이 관여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 4. 청소년과 성인의 민주 포럼

제한되고 때로는 다소 인위적인 CMEJ의 경험은 8세부터 12세 어린이들과 관련이 있는데, 그것은 더 나이가 많은 집단에는 그리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 그때는 많은 사항들을 거부하려고 하는 나이이고, 만약 우리가 이러한 대표체제 만을 제공한다면 많은 청소년들이 탈퇴하는 위험상황에 처하게 된다. 청소년 위원회와 일하는 것, 즉 그들에게 발언할 기회와 지역에서 처리되는 일들에 대해 책임감을 주는 것은 시민권과 예방을 위한 기본단계이다.....”

그것은 틀림없이 청소년의 시민권과 사회통합에 대한 다른 방법을 시도하게 한 의회 방식에서 오는 한계이다. 우리는 흥미로운 최초 사례인 「청소년과 성인의 민주 포럼」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던 “청소년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를 살펴볼 수 있었다. 그들이 목표로 하는 바는 “지역 수준에서 세대간의 대화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전체 사회와 제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조직되고 그것이 계속 지속될 같은 지역내 세대들 사이의 토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이러한 최초의 시도 뒤에는 도시 저소득층 지역의 문제를 직시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임을 주장하는 작은 인류학자 팀이 있다. 비록 Athis-Mons Poitiers 또는 Grigny와 같은 최초의 민주 포럼의 결과가 그리 성공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최소한 지속되어 다른 지역에 더욱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형태로 발전하였다.

포럼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특히, 이주해 온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역사회가 바라고 지원하는 포럼의 기본 원칙들은 독립성, 개방성, 다원주의이다.

이러한 접근은 해마다 가장 핵심적인 세가지 대중포럼을 개최함으로써 구체화된다. 이 포럼들은 특정 주제에 대해 이전에 실시된 조사와 개방형 질문지 기록을 통해 청소년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다룬다. “성인 응답자들”은 이

러한 방법을 지속시키고 다른 지역계획안들과 연결시켜야 하는 과제를 가진다. 이제 이 포럼들은 사라져 간 전통적인 세대간 대화 형식과 대체되어 의사소통과 이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도시저소득층 지역의 생활에서 이러한 청소년의 참여 형태가 흥미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민주적 표현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기 마련이다.

첫째는 활동가들에 관련된 것으로, 이러한 과정 속에 있는 청소년들은 그들 자신의 질문이 가로채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 최선의 상황에서 그들은 다른 청소년들에 의해 공개적으로 재형성되고 표현되며, 최악의 상황에서는 존속하기 힘들거나 가끔 느끼는 실패의 감정을 추스리기도 어렵다.

게다가 그러한 엄격한 방식은 한가지 질문에 대한 다양한 답변조차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한가지 사항과 질문하기 쉬운 응답에만 “올바른 대답”의 자격을 줌으로써 잘못된 영향력을 갖게 된다.

질문과 그것을 제기하는 “상황” 사이의 불화로 나타나는 결과로서 문제가 구체적 현실로부터 명백하게 분리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Athis—Mons의 당선자 중의 한 명은 “TV와 같은 대중적 토론 형식 자체는 관에 박은 듯하고 풍자된 세계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반면, 나는 이러한 포럼의 교육적 성과에 대해 확신한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경험을 뛰어넘는 이 모든 것들이 계획된 평가 형식에 기반을 두고 분석하게 하는 진정한 실천적 상황을 괴로워하거나, 준거집단에 의한 통제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분석은 언어적 의미에서 자주 불평등하게 이루어지며 그렇게 불충분하게 이루어진 성공과 실패의 측면들은 처음 시작할 때 그대로의 입장을 가지고 이 포럼들을 평가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현재 그것은 청소년의 시민참여의 최초의 방식에 대해 정보를 얻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최초의 시도와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영역과 조직들이다. 그러나 「청소년과 성인 민주 포럼」과 「어린이와 청소년 의회」의 절박한 목적은 대화를 통해 문제의 근본적인 부분을 찾아냄으로써 ANACEJ와 같은 조직을 이끌어 낼 수도 있다. 공적, 사적인 체계적인 연구는 여전히 필요하

며, 다가올 날에 이 위급한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 5. 혁신적인 시민권 분야를 목적으로

비록 어떤 형태의 시민참여가 똑같은 것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전통적인 형식의 정치입문과 대체된 개혁과 공존한다. 청소년들이 효과적으로 그들의 시민권을 훈련하게 하는 것은 지방 수준에서 교육적인 것과 실험적인 것을 결합시키는 구체적인 훈련 영역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모든 시작은 보이지 않게, 그리고 역설적으로 집단적인 구속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욱 개인으로서의 우리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됨을 보여준다. 전체 사회적 반향과 함께 계획안의 운영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책임감들은 장기간을 기반으로 하여 도시 저소득층 지역으로부터 청소년들을 참여하게 하는 최선의 방침인 것 같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형태의 몇몇은 어떤 복제를 반영하지만, 그것들은 고려할 가치가 있는 전통적 형식의 정치적 입문의 대체할 만한 개혁과 함께 존재한다.

비록 우리가 청소년들을 “정치 활동가”로 보려 하고 ‘각성, 복제(연습), 혁신’ 이 세가지 용어에 토론의 초점을 둔다 하더라도, 현실은 보다 더 변증법적이고 이 세가지 개념을 발전적으로 잘 조합하면 재미있는 새로운 형식의 청소년 시민권을 쉽게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의회 안에서 더욱 고려할 사항이며, 생각을 모으고 유럽수준에서 효과적인 실천활동을 교류·실행한다면 틀림없이 새롭고 본질적인 제안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로부터 「유럽공동체 위원회」가 1995년 11월 프랑스 스트라부르그(Strasbourg)에서 개최될 “청소년과 대중교육 국제협회(INJEP)”와 “아동과 청소년 의회 국제연합(ANACEJ)”으로 개막될 거대한 유럽 회합에 재정을 담당하고 있다. 다른 국제적 경험이 시작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것은 이 회합을 위한 유럽 지도집단의 예비활동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나타난다.

시민권을 위해 청소년들을 훈련시키는 목적은 최근 어느 지역사회 교육조직의 시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 역동을 창출해낼 필요성, 공동교육이

가미된 공동작용, 어린이와 청소년이 효과적으로 그들의 시민권을 연습하게 하는 것 등이다. 그러므로 성인 집단이 장기 계획을 잘 창안하고 수립하기 위해 도시 저소득층 지역 어린이들의 입장에서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나중에 이러한 계기 덕분에 다양하고 근본적인 활동들이 복잡한 지역 환경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풍부한 경험들은 나누어지고 분석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불평등을 줄이고, 모든 종류의 소외에 대항하여 싸우고, 청소년들을 하나의 시민으로서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게 하는 데에 목표를 둔 새로운 사회상을 실현시키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 미국 청소년의 지역사회 및 정책결정 절차 참여

원 영 준\*

## 1. 서론

현재 한국은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두개의 국가발전 전략하에서 다가오는 21세기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27일에 있었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서 한국도 지방화 시대의 첫 발을 디딘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 중심의 행정체제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각각이 각자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해야 하는 임무를 맡게된 이 시점에서 그 사회의 소속원인 청소년의 참여와 역할 또한 실질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린 미국의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이들이 자신의 의견을 어떤 방법으로 피력하고 있으며 그 의견이 어떤 경로로 수렴되고 있는지와 한국과 미국의 두 문화를 동시에 접하고 있는 재미 한인 청소년들의 교포사회 참여 활동을 살펴보고, 이들의 성공적인 사회참여 활동에는 어떤 요소가 작용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국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이 글의 목적이 있다.

## 2. 미국의 청소년 현황

미국에서 청소년에 대한 연령상의 정확한 정의는 없으나 고등학생과 대학생생을 의미하는 14세에서 24세까지, 즉 어느정도의 고등교육을 받아 재정적 자립을 할 수 있는 나이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1950년에 2

---

\* 미국 로스 앤젤레스 한인청소년지역사회센터(KYCC) 특별사업부장

천 4백 5십 1만 9천명을 기록하던 청소년 인구는 1995년에 3천 9백 7십만 명이 되어 전체 인구의 15.1%를 차지하고 있고, 2001년에는 그 수가 4천 6백 9십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Office of Educational Research and Improvement, 1993). 이전 농경사회와 가내 수공업사회 중심의 가정에서는 청소년이라는 개념이 희미했으며, 이 연령의 자녀들이 가업을 이끌어 나갈 생산력이 있는 자산(asset)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후 현대산업사회의 가정에서는 이들이 재정적인 자립을 할 수 없어 부모에게 의존을 해야 하고 보호와 선도를 필요로 하는 부담의 존재(liability)로 인식되어 왔다(Robertson, 1987). 그러나 점차적으로 청소년의 사회참여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청소년들도 지역사회와 당면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우수한 인적자원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들의 인력을 좀 더 생산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 3. 청소년의 정치참여

미국인을 연령별로 나누어 각 연령층의 정치력을 살펴본다면 아동과 청소년층의 힘이 가장 약함을 알 수 있다. 일례로 지난 1980년대의 미국 연방정부 예산중 30%가 노년층을 위해 할당된 것에 비해 아동과 청소년들에게는 3%만이 할당되었다는 것을 보아도(Malcolm, 1985), 이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미미한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선거에 의한 민주주의가 토착화된 미국에서 선거에 참여할 나이가 안되는 아동과 일부 청소년들에게 유권자로서의 영향력이 없다는 것이 이런 현상의 가장 주된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Robertson, 1987). 이와함께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의 청소년들도 투표참여가 비교적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1964년 대통령 선거부터 1988년 선거까지의 청소년 유권자들의 투표상황을 보면 1966년 전체 청소년 유권자들 중 약 50.9%가(일반성인 71.1%) 투표를 했으나 1988년에는 단지 36.2%만이(일반성인 61%) 참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Office of Educational Research and Improvement, 1993).

나이가 어려서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점과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년들의 투표참여율 또한 저조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해서 청소년들이 정치에 전혀 무관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복잡한 정치개념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해도는 비교적 높고, 또한 정부와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비교적 깊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Sigel, 1981),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국민투표를 통한 정치참여 외에 나름대로 여러 방면에서 정치에 참여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 1) 토론활동/의견전달

### (1) 타운미팅과 이웃모임

지역사회의 문제와 당면과제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발전하여 지역사회 문제해결은 연방정부의 방침/계획에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각자의 노력을 통해 이룰 수 있다는 소위 community empowerment 개념이 확산되면서 각 지역사회에서는 문제점 인식과 해결책 모색을 위해 나름대로의 토론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활동은 특히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미 약속했던 타운미팅을 통한 의견수렴이 진행되면서 더 활성화되어 대통령이나 연방정부 요인들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토론회가 활발히 시작되었다. 클린턴 대통령이 주창한 타운미팅은 특정지역의 주민과 백악관을 위성으로 연결해서 대통령과 같이 토론을 하거나 대통령이 그 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한 자리에서 토론을 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이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은 그 지역이 직접적으로 당면한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 대통령 및 정부요인들과 열린 토론을 할 수 있었고, 이 활동을 통해서 그 어떤 해결책이 모색되었다는 것 보다는 국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수 있었다는 것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 토론활동에도 청소년들의 참여가 활발했는데, 일례로 지난 8월 2일 워싱턴 D.C.에서 열렸던 타운 미팅에는 뉴트 킹그리치 하원의장과 제시 잭슨목사를 비롯하여 20여명의 여당 하원의원들과 그 지역 고위 공무원들이 나와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산 삭감 정책을 비롯한 새로운 정책들에 대해 주민들과 의견을 나눴

으며, 한 사람당 1분씩으로 정해진 주민 의견발표/질의 시간에는 10여명 이상의 청소년을 포함한 100여명의 주민들이 차례로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하고 또 정부정책에 대한 질문을 했다. 이들은 주로 자신들이 당면해야 하는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발표했는데, 그중 청소년들은 갯문제, 마약문제 그리고 총격사고 문제들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제시했고, 예산 삭감으로 인해 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청소년사업에 대한 구제방안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러한 토론회 외에도 지역사회와 소규모 토론회가 계속되어 왔는데, 그중 가장 소규모인 “이웃모임”에서 청소년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전형적인 개인주의 속에서 각자의 사생활에 참견하지 않는 미국인들이지만 이웃모두가 당면하는 어떤 과제에 있어서는 서로가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이웃모임은 한국의 반사회와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지만 정기적인 모임일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일자가 조정되며 말 그대로 이웃간의 친분을 유지하고, 이웃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토론했으며, 이웃간의 협조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그 지역을 담당하는 경찰관부나 교육관계자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의견을 전달하기도 하는데, 이 모임은 주로 이웃의 집에서 돌아가며 열리게 되고, 토의주제 중에 청소년들과 관계된 갯단, 낙서, 마약, 교육, 총기사용 등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는 청소년들과 그 부모들의 의견피력이 가장 활발하다.

## (2) 청소년 토론회

청소년들의 올바른 정치·사회 참여와 의견피력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많은 청소년단체들이 청소년 토론회와 워크숍을 마련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학교에 클럽을 조직하고 그 속에서 사회참여활동과 시사문제에 대한 연구 및 토론헬동을 하며, 1년에 수차례 해당 지역, 혹은 전국규모의 토론회와 연수회를 갖는다. 학생들도 자신의 취향에 따라 가장 적절한 단체를 택하게 하는데, 이러한 청소년들의 활동과 참여는 이후 대학진학에 도움이 되며 대학생들도 졸업후 취업시 도움이 된다. 일례로 Junior Statesmen of America와 같은 단체는 캘리포니아주의 각 고등학교에서 클럽활동을 하고 있으며,

1년에 수차례 전체회의를 갖게 되는데, 그중 2회 정도는 캘리포니아주 전체의 청소년회원들이 모여 캘리포니아주, 미국, 그리고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가지 일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며 서로가 믿는 바에 따라서 단체 토론과 의견발표를 하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훈련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서 이들은 지역, 국가,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좀 더 깊이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되며,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조리있게 민주적으로 피력하는 논쟁의 기술을 직접 배우게 된다. 이들의 토론결과중 우수한 것은 지역 정부기관과 국가기관들에게도 발표될 수 있어 참가 청소년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 「Summer of Safety End of Summer Forum, 1994」

Summer of Safety는 17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여름동안 최소한의 급여를 받으며 지역사회의 안전과 환경미화 활동을 한 연방정부 주관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이 청소년들은 활동기간이 끝나면서 그동안 급여 외에 일정액의 장학금을 받는다. 이들의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실시하지 못했던 여러 과업이 수행되었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여름동안 노동수입 및 장학금을 받는 것과 동시에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지역사회 문제를 배우게 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에 일조를 하는 한편 이후 대학진학, 취업에 도움이 되어 지역사회와 청소년간에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프로그램이 되었고, 이 프로그램의 성공과 함께 60년대의 미국 평화봉사단을 본딴 Americorp라는 연방정부 주관의 미국내 청소년사회봉사단이 출범하게 되었다.

1994년도 여름에 Summer of Safety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은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간 워싱턴 D.C.에 모여서 그동안의 활동을 종합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약 300명의 청소년들이 18개 그룹으로 나누어져 자신들의 활동경험, 보람, 앞으로의 계획, 개선안들을 논의했고 여기서 나온 토론 결과와 제안점은 미국 백악관 및 해당 부처에 전달되어 이후 Americorp의 최종계획안 개발시 수용되었다. 이 토론회의 일정과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일정

제1일

|                   |                                                                |
|-------------------|----------------------------------------------------------------|
| 오전 9:00—오후 12:00  | 등록                                                             |
| 오전 11:30—오후 12:30 | 점심식사                                                           |
| 오후 1:30—오후 2:00   | 토론회 개최                                                         |
|                   | — 비디오 상영                                                       |
|                   | — 개회사                                                          |
|                   | — 토론회 순서안내                                                     |
| 오후 2:15—오후 4:00   | Summer Stories                                                 |
|                   | — 그룹별 토론: 활동을 통해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으며 지역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 |
|                   | 각자의 활동분야별로 모여 실시                                               |
| 오후 4:30—오후 5:00   | Americorp의 장래                                                  |
|                   | 현 상황과 내년 계획에 대한 설명                                             |
| 오후 6:00           | 저녁식사                                                           |

제2일

|                   |                                                                  |
|-------------------|------------------------------------------------------------------|
| 오전 7:00           | 기상 및 아침식사                                                        |
| 오전 8:30—오전 11:30  | 활동평가 및 제안의 시간                                                    |
|                   | 이번 기간동안의 활동결과중 성공적이었던 결과와 실패부분에 대한 검토 및 평가, 프로그램의 개선점과 제안점토 및 발표 |
| 오전 11:30—오후 12:30 | 점심식사                                                             |
| 오후 1:30—오후 3:00   | 워크샷(1)                                                           |
|                   | 각자의 활동 분야별 토론회                                                   |
| 오후 3:30—오후 5:00   | 워크샷(2)                                                           |
|                   | 그룹별 발표회를 위한 연습시간                                                 |
| 오후 6:00           | 저녁식사, 시내관광                                                       |

제3일

|                   |                         |
|-------------------|-------------------------|
| 오전 7:00           | 기상 및 아침식사               |
| 오전 8:30—오전 9:30   | 주제토론 “주제활동과 나”          |
| 오전 9:30—오전 10:30  | 주제강의 “사회활동의 역사와 미래”     |
| 오전 10:30—오전 10:45 | 휴식                      |
| 오전 10:45—오후 12:00 | 그룹별 활동성과 평가회            |
|                   | 미리 정해진 평가기준에 따른 활동상황 평가 |
| 오후 12:30—오후 1:30  | 점심식사                    |
| 오후 1:30—오후 3:00   | 그룹별 발표회                 |

## ② 활동분야별 토론회

참가자 각각은 자신이 여름동안 참여했던 활동분야에 따라 다음의 주제별 토론에 참가하게 되는데, 이 토론회에서는 자신의 활동경험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안전에 대한 토론을 한다.

○ 주제 : 지역사회 경찰행정(지역사회의 경찰행정에 참여했던 경험과 이를 통해서 느낀 제안점 및 개선점에 대한 토론)

- 분쟁조절 : 지역사회내의 분쟁 중재 교육실시 경험과 이를 통해 나타난 안전토의
- 가정폭력 : 가정폭력(아동학대, 성학대)의 피해자들을 돕는데 있어서의 한계와 지역사회 계몽활동에 대한 안전토의
- 피해자·목격자 보조 프로그램 : 범죄 피해자와 목격자를 위한 지원활동 및 정보안내를 담당한 참가자들의 경험소개와 관련 안전토론
- 이웃중심 방법활동 : 이웃간의 이웃지키기 운동(Neighborhood Watch : 범죄예방을 위해 이웃 순찰 및 수상한 점 발견시 즉각 경찰에 신고를 하는 민간방법활동으로 “경찰의 귀와 눈”이라는 별칭을 갖기도 한다) 개발, 기획, 협조 등을 담당한 참가자들이 느낀 개선점과 관련 안전토론
- 공원, 놀이터, 지역환경, 미화작업 : 공공장소와 지역사회 미화작업과 이에 따른 범죄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 효과에 대한 경험소개와 토론
- 청소년상대 범죄예방, 청소년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활동 : 청소년들이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없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안전지대 조성(예, 여가활동(예술, 문화, 체육, 오락활동 등) 진행에 대한 경험발표와 관련 안전 토의
- 지역사회 범죄예방 교육 :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활동과 행사에 대한 지원 및 진행에 대한 경험발표 및 안전토의
- 노인상대 범죄예방·노인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 활동 : “노인동행 프로그램”과 같은 활동 및 교육·안내를 통해 노인들의 범죄피

해 감소 활동을 담당한 참가자들의 경험발표 및 토론

- 경찰기관과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간의 상관관계 : 성공적인 청소년 사회활동을 위해 경찰기관 및 그외의 공공봉사기관과의 유대증진 및 상호협조 체계 확립에 대한 토론
- 빈민주택지역 범죄 예방 : 빈민주택지역의 범죄감소를 위해 경찰기관, 공공봉사기관, 그리고 민간단체와의 협조경험 발표 및 토론
- 갱 예방 및 개입 : 갱활동이 활발한 지역의 청소년, 갱단원, 갱단원의 형제·자매들을 대상으로한 갱단 가입 방지 및 갱관련 범죄 감소활동에 대한 토론
- 환경보존·개선활동 : 산책로 개발, 유적지 미화·보존활동, 수질검사, 홍수대비활동, 자원 재활용 등의 환경활동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경험 발표 및 토론

#### ③ 주제토론 “사회활동과 나”의 토론내용

개인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작성하여 발표한다.

- 사회활동 전의 나
- 활동을 통해 변화한 나 자신과 그 지역사회
- 가장 기억에 남는, 보람있었던 활동

#### ④ 그룹별 발표회

폐회전 마지막 발표회때 소개될 내용으로 각 그룹은(평균 15명) 자신들의 여름활동에 대해 연극, 노래, 무용, 그림 등으로 기획하여 5분간 발표한다. 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활동을 좀 더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이 발표의 준비를 통해서 그룹원들 사이의 협동의식과 우애를 증진 시키는데 주 목적이 있다.

이러한 토론회를 통해서 300여명의 참가자들은 자신과 동료들의 활동상에 대한 경험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서 앞으로의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사명감을 다시 북돋는 계기를 가졌다. 이들이 이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토론한 내용들은 종합, 정리되어 Americorp 담당부처와 백악관에 보고되

었다. 이들의 토론내용과 기타 전문 평가작업을 결과, 여름동안만 펼쳐졌던 이 프로그램은 지난 60년대에 세계 각국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던 미국평화봉사단을 본따 Americorp이라는 이름으로 미국내의 빈곤지역에서 1년 내내 활동을 실시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발전되었다. 참고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는 매주 160달러의 급료와 1년간의 활동완수 후 4,725달러의 학자금 이 지급된다.

### (3) 인터넷을 통한 의견피력

발달된 통신기술과 컴퓨터 기술로 이제 인터넷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인 개념이 되었고, 이를 통한 의견피력과 의견수렴활동 또한 활발해졌다. 우선 클린턴 대통령과 고어 부통령은 백악관 역사상 처음으로 자신들의 전자우편(e-mail) 계정을 가진 대통령과 부통령이 되었는데, 이 전자우편을 통해서 이들에게 전달되는 의견은 하루에 약 2,000통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이 특히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상용 인터넷 서비스에는 청소년 학생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이 속에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미국전체, 그리고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가지 일들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으며, 정치인들과 연구기관에서도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례로, 미국의 상용 인터넷 서비스 회사중 320만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CompuServe사에서는 어린이 학생 포럼을 마련해 놓고 청소년들의 온라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각 포럼은 23개 주제로 나누어져 대학 정보에서부터 각 전공과목, 사회생활 등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자신이 관심있는 주제에 자신의 생각이나 질문을 올려서 다른 청소년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매일 인터넷 상으로 마련된 대화방을 통해서 자신들의 관심사를 토론하고 있다. 또한 시사포럼과 교육포럼을 통해서도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고, 정부기관과 백악관에 자신의 의견을 쉽게 정보를 받아볼 수도 있고, 자신들의 의견을 교환하거나 피력할 수도 있어 앞으

로는 인터넷을 통한 여론수렴과 의견피력 및 교환이 매우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2) 청소년위원회(Youth Council)

미국의 정부체계는 중앙정부인 연방정부와 주정부, County(몇개의 도시가 합쳐진 행정단위) 정부, 그리고 시정부로 나뉘어져 있다. 이들 중에서 지역사회의 당면과제를 직접 다루는 정부단위는 아무래도 그 지역사회가 속해있는 시정부일 수 밖에 없는데, 이 시정부는 선거로 선출되는 시장과 시의원에 의해 운영된다. 시의원들은 각각 몇개의 분과위원회에 소속해서 시정활동을 한다. 이 중에는 그 도시의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위원회도 포함하는데, 이 위원회는 청소년 행사를 기획하고 지원하며, 시정부가 결정해야 할 정책중 청소년과 관계된 정책들에 대해 조언과 비평을 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위원회 회의는 매 모임을 공청회 형식으로 진행시켜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이 위원회 모임에 참석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직접 발표하고 있다. 이 청소년위원회 모델은 여러 도시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모델보다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허락하는 청소년위원회 모델이 다음과 같이 개발되어 실행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 (1) Torrance Youth Council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에서 남쪽으로 약 20마일 정도 떨어진 토랜스시는 인구 15만명에 가구당 연평균 수입이 4~5만 달러 정도인 중형도시이다. 시장 한명과 시의원 6명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이 도시에도 청소년위원회가 있지만, 특이한 점은 이 청소년위원회가 철저히 청소년들에 의해 운영되면서 다른 기존 시정부 위원회와 똑같은 자문단체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서 토랜스시는 청소년관계 정책과 관련, 청소년들로부터 직접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되며, 청소년들은 정치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얻게 된다.

### ① 구성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토렌스 통합교육구내 4개 고등학교에서 선발된 대표 8명(각 학교당 2명), 토렌스 시에 속해있는 El Camino Community College(2년제 대학으로 정해진 과정의 이수후 4년제 대학의 3학년으로 편입이 가능)에서 선발된 2명, 그리고 그외 청소년중에서 2명이 선발된다. 위원이 되고 싶은 청소년은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해서 매해 가을까지 제출하고 곧 면담을 거쳐서 선발된다. 12명의 위원들 중에서 의장이 투표로 선출되는데, 의장은 청소년위원회 활동 경험이 많은 사람이 주로 되므로 현재까지 고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활동을 해 온 대학생이 의장직을 맡고 있다. 성인 지도자가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며, 시의원이 회의에 참석을 하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참관인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결정사항에 대한 그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② 활동

매월 첫째 수요일과 셋째 수요일 오후 7시에 정기모임이 있고, 이 모임에서는 앞으로의 활동계획 점검과 진행, 그리고 시정부와의 협조사항 토의 및 결정이 있게 된다. 위원회의 주요활동으로는 1년 전반에 걸쳐 계획된 청소년 행사 기획과 진행이 있는데, 봄철 청소년축제 및 크리스마스 행사, Friday Night Live(매주 금요일 저녁에 행해지는 청소년행사로 클럽활동, 현장견학, 무도회, 음악회, 캠핑, 영화관람회 등의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술과 마약의 유혹의 기회를 줄이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진행, 그리고 각급 지역사회 행사에 대한 자원봉사자 파견 및 협조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행사진행 외에도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 시의회에 참석하여 청소년관계 정책과 그외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결정에 참여하게 되며 지역사회서비스위원회(Community Service Commission)와 공원관리위원회(Park and Recreation Commission)의 정기모임에도 참여하여 상호 협조사항을 협의하기도 한다. 특히 올해는 토렌스시가 "Torrance

2010”이라는 21세기를 대비한 중·장기 단계별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기획진 70명중 20명이 청소년위원회 소속 위원과 기타 청소년들로 되어 있어 성인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의견을 피력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 ③ 활동기금 조성 및 사용

청소년위원회는 토론티시의 공식 자문기관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면서도 시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지 않는 재정적인 독립체로 활동한다. 모든 행사진행과 활동에 필요한 자금은 순전히 위원회가 직접 조성한 기금에서 지출되는데, 이 기금은 주로 지역사회 축제 및 행사장에 음식 판매대를 설치, 운영한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흥미롭게도 현재 토론티 시정부 산하의 14개 위원회 중 활동기금이 가장 많은 위원회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시정부의 문화행사중 예산부족으로 취소될 위기에 있었던 한 행사에 자금지원을 할 정도로 재정면에서도 시정부와 지역사회에 일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재정적인 면에서도 시정부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지역사회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까지 갖추고 있어, 자칫 선거권이 없는 나이라는 이유로 시정부 내에서 무시될 수 있는 요지를 미리 없애고 시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이중의 효과를 보고 있다.

이와같은 청소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위원들은 시정활동의 전반적인 부분을 배우게 되며, 학교에서 배웠던 정부에 대한 수업과목들을 실지로 적용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자신의 의견과 조언이 성인들에 의해 운영되는 시정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또 자신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정부체계를 보며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이 증가하게 되어 긍정적인 자아상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와함께 자원봉사활동과 과외활동이 대학입학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미국에서 이들의 경력은 대학진학에 큰 도움이 되므로 청소년위원회 활동은 학생들 사이에 상당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 4. 청소년의 사회참여

미국청소년들이 사회봉사 참여와 이를 통한 지역사회 개발 지원은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보다 훨씬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990년 미국 노동부 통계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16세에서 24세 사이의 청소년 중 3백 9십 6만 6천명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교와 교육기관에서의 봉사가 가장 많았으며, 1년에 평균 13주 정도를 일하고 있으며 한 주에 평균 4.5시간 정도를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U.S. Department of Labor, 1990). 예산의 부족과 인력의 부족으로 실행되지 못한 여러 활동이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 혹은 최저임금 봉사를 통해서 가능해졌고, 청소년들에게는 개인적인 보람 외에도 사회적인 경험을 얻게 되는 기회가 되면서 봉사활동 경력으로 인한 여러 특전이 주어지는 결과가 있게 되므로 사회와 청소년 모두 이익을 보게 되는 체계가 성립되었다. 이러한 참여활동은 기금지원이 없는 자원봉사 활동, 정부주도 활동, 정부기금을 통한 민간활동, 민간기업의 기금 지원을 통한 활동들로 나눌 수 있는데, 참여분야로는 교육, 환경,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에 걸쳐 골고루 퍼져 있다.

### 1) 교육활동

「Youth Tutoring Youth(YTY) 학습보조 프로그램」

청소년들이 학습부진 국민학생들의 공부를 도와주는 YTY는 1967년에 시작되어 현재는 미국 전국 450개 이상의 도시에서 1,00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시행중에 있다. 비영리 독립재단인 National Commission on Resources for Youth(NCRY)에 의해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원래 빈곤 청소년들에게 직업을 알선해 주는 연방정부 후원의 Neighborhood Youth Corps(NYC)를 변형한 것으로, NYC에서 제공하던 직업의 종류가 개인적인 보람이나 성장을 초래할 수 없는 직업들이어서 이를 좀더 보람있고 뜻있는 직업으로 바꾸어보

자는 착안에서 시작됐다. 미국 노동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우선 뉴저지주의 뉴워크시와 펜실바니아주의 필라델피아시에서 시범 프로그램을 했는데, 총 200명의 14세~15세 청소년들이 약 400명 정도의 학습부진 국민학생들을 상대로 개인 지도를 하기 위해 일주일에 22시간(6시간 훈련, 16시간 실기지도)씩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도록 계획되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선발된 200명의 청소년 교사들도 모두들 자신의 나이 평균보다 읽기능력이 떨어지는 학습부진 학생들이라는 점이다. 이들을 활용한 이유는 학습부진의 청소년들도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학습부진 국민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 국민학생,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모두 이익을 볼 수 있음으로 입증시키기 위한 시도였다. 각 학교별로 파견된 청소년들은 지도교사와 자신들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 보조교사의 협조를 받으며 스스로 학습 계획을 만들어 국민학생들을 지도했는데, 한 학기가 지난후 실시한 평가결과 이 프로그램은 예상외의 성과가 있었음이 나타났다. 일례로, 학기말에 실시된 표준 읽기시험에 의하면 자신의 학년수준보다 읽기능력이 0.4~2.9학년까지 떨어졌던 국민학생들이 자신의 학년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읽기능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민학생들의 지도를 맡은 청소년들은 어학수준과 학업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되었으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게된 것으로 나타났다(National Commission on Resource for Youth, 1974). 위의 두 시범 프로그램이 예상외의 성과를 거두면서, 이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는데, 대부분의 도시에서 똑같은 성공적 결과를 이루고 있고, 이와 비슷한 독립적인 프로그램들도 계속해서 생기고 있어,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이 전국에 정확히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 조차가 힘든 일이 되었다.

## 2) 환경보호 활동

### 「Mobil Green Team 환경보호/청소년선도」

미국 최대 석유기업 중 하나인 모빌사에서는 1992년부터 연간 300만 달러 이상을 전국의 청소년 환경보호 활동과 학습활동에 지출하면서 2,000명 이상

의 학생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Mobil Green Team으로 알려져 있는 이 프로그램은 여름방학 동안 실시되는데 빈곤가정의 고등학생들을 채용하여 환경보호 활동을 시키면서 보충수업을 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 고등학교 중퇴를 방지하고 중퇴한 학생들이 학교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들을 통해서 지역사회 환경보호와 미화활동을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례로, 모빌사는 캘리포니아주의 토랜스시의 Green Team 프로그램을 위해 1994년의 5만 달러에 이어 1995년도에는 10만 달러를 배정했으며, 7월부터 8주간 계속되는 이 활동은 토랜스시에 대한 환경미화 활동과 교육활동이 병행된다. 이에 관한 실무계획과 활동내용 그리고 학과과정은 미간기업 위원회, 토랜스 통합교육구, 토랜스 공원관리 위원회 그리고 남가주 직업훈련소에 의해 공동개발, 진행된다. 참가자들의 환경보호/미화 활동으로는 토랜스 지역의 꽃밭 관리, 철로변 청소년활동, 낙서제거 등이 있고 모빌 아카데미로 명명된 학습 프로그램은 학습부진 청소년들인 참가자들에게 학교공부와 직업선택에 관한 연관성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학과과정과 자아상 계발에 도움이 되는 학과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Mobil Donates \$ 100,000 to Torrance Youth Program, 1995).

### 3) 범죄 예방

#### 「Junior Crime Fighters 청소년범죄 예방 활동」

오레곤주 포틀랜드시 경찰에 의해 조직된 이 자원봉사단체는 나날이 증가하는 청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여 지역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교육을 시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주요활동 내용이다. 7~8학년(중학교 1~2학년)의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은 활동을 시작하기 앞서 3주동안 하루에 한 시간씩 학교교사와 경찰관에 의해 국민학생들과 범죄예방에 대해 토의하고 필요한 기술과 자료들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교육이 끝난 후 이 청소년들은 다섯명씩 한 조가 되어 그 지역 국민학교 학급에 들어가 하루에 한 시간씩 일주일 동안 국민학생들에게 영화, 역할연극,

그리고 실습활동을 통해서 지역안전, 마약, 학교문제, 아동학대, 기물파괴, 상  
품절도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청소년범죄를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이 결과는 국민학생들  
보다도 이 활동을 이끌어 나간 자원봉사자들에게 더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 활동을 처음으로 시작했던 학교는 항상 여름동안 학교기물 파손으로 300  
~400달러의 손해를 보아왔는데, 이 프로그램이 실시된 첫해의 여름에는 기  
물파손 사건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 프로그램의 시범실시 이후로 여  
러 중학교들의 참여가 늘어났고 이에 이어서 청소년들이 더 어린 학생들의  
방학중 오락 활동을 담당하는 여름방학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결실도 이루었  
다(Schine et al, 1981).

#### 4) 지역사회 종합개발 활동

지금까지 위에서 본 활동들은 특정분야로 세분화 되어 무급 자원봉사 청소  
년들을 활용하거나 유급으로 청소년들을 채용하여 활동을 전개한 프로그램들  
이었다. 이외에도 청소년들과 지역사회, 그리고 유관단체 및 민간기업들이 서  
로 손을 잡고 청소년들의 주도아래 지역사회 재개발을 위한 다방면의 활동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활  
동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역할이 얼마나 넓게 확대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  
는 좋은 예라 하겠다.

「Around the Corner to the World(ACW) 워싱턴 D.C.」

워싱턴 D.C.의 아담스-모간 지구는 다양한 인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  
으로, 저소득층의 소수계 민족과 상대적 부유층이 서로 모여 사는 곳이다.  
1980년대초 나날이 증가해 가는 이 지역의 마약범 근절을 위해 지역주민들에  
의해 조직된 ACW는 탈선의 위험성이 있는 청소년들과 전과자들을 채용하여  
지역사회 재개발 사업을 시작했다.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면서 ACW의 자문  
역을 맡았던 아이젠하워 재단은 연방정부로부터 25만 달러의 기금을 받아,

이를 통해 본격적인 청소년 중심 지역사회 개발활동에 착수했다.

ACW는 동 단체의 목적을 지역사회의 협동의식을 고양하고 청소년 중심의 지도력 배양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일체감을 재활성화 시키고자 하는데 두었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문화배경이 다른 민족들간의 상호이해 증진, 지역사회 관련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시민활동, 그리고 지역사회의 필요에 부응하는 사업활동을 통한 청소년들에게 현실성이 있는 취업의 기회 및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준비, 계획했다(Milton S. Eisenhower Foundation, 1990).

#### ① 정치참여

ACW는 우선 워싱턴 D.C. 지역의 지역개발계획위원회에 ACW 소속의 청소년 임원들을 위원으로 당선시켜 지역사회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필요한 공공기금을 지역사회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배정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정책결정 참여활동은 계속해서 꾸준히 진행되어 ACW 회원들 중 16명이 아담스-모간 지구에 영향을 주는 지역사회 개발회의, 경찰자문위원회 등의 지역사회단체의 임원들로 당선이 되었다. 이외에 다른 5명이 이들 단체의 임원들로 임명되는 결과를 낳게 했다.

#### ② 지역경제개발

ACW의 기본 주요 청소년 프로그램은 청소년 사업개발로, 우선 그 지역주위의 미숙산에서 나오는 말들의 오물들을 천연 비료로 전환시켜 판매한 D.C. Doo 사업은 1984년 여름동안 20톤을 판매하는 성과를 올리게 되었다. 이외에도 그 지역주택들에 대한 보수사업을 통해 1985년 여름에는 그 지역의 청소년 11명을 유급 상근직원으로 고용, 한주에 평균 4~5개 주택을 보수하여 수익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고 이 사업을 통해 총 백만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렸으며, 저소득층 400가구에 무료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등, 여러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Milton S. Eisenhower Foundation, 1990). 사업의 성장과 함께 이를 통해 취업의 기회를 얻고 기술을 배우는 기회도 늘어나게 되어 1985년에서 1988년까지 3년동안 60명의 청소년과 청년들을 채용하여

알맞은 직업훈련을 시켜온 바 있다(Chavis, 1989).

### ③ 교육

ACW의 경제개발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서 ACW는 그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지도와 기술개발 활동을 시작, 연간 100여명의 어린이들을 상대로 방과후 학습지도와 사진, 컴퓨터, 그래픽, 실크 프린팅, 현대무용, 신문제작 등의 분야에 대한 취미활동 및 기술개발 활동을 실시했다. 이외에도 이 어린이들의 지역 박물관 견학과 단체 운동경기 등을 후원하여 이 지역의 어린이들이 사회·문화적으로 균형있는 성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으며, 이는 결국 후에 있을 청소년탈선을 미리 방지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 ④ 청소년 탈선예방

위와 같은 활동들 외에도 ACW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은 ACW 사물실에 모여 서로의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며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상호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갔고 이로 인해 결국 ACW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범죄와 폭력이 허용되지 않는 일종의 중립적 모임 장소가 되었으며, ACW 회원들은 또한 그 지역의 마약사범들의 유혹대상이었던 나이어린 학생들의 귀감으로도 여기지게 되었다.

1989년 ACW와 청소년 탈선예방에 대한 평가를 맡았던 Rutger 대학 조사팀은 11명의 참가 청소년들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결과 이들 중에서 ACW에 참가하기 전 12개월동안 이들 중에서 10건의 체포사례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ACW에 참가하여 활동한 18개월 동안에는 한 사람도 체포된 적이 없으며, ACW 프로그램을 끝내고난 이후 12개월 동안에는 단 3건의 체포사례가 있었다(Chavis, 1989). 이 조사결과를 보아도 ACW에 참가한 청소년들 자신이 탈선을 하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당시의 워싱턴 지역 범죄 증가율(예 : 마약사범 774%증가)과 비교해 본다면 ACW의 청소년범죄 예방 실적은 가히 놀랄만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 하겠다.

### ⑤ 대규모 지역경제개발 사업

위의 모든 활동들이 예상외의 성과를 거두면서 ACW는 1988년 이후 최대 주요사업으로 24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구입, 저소득층 주민들의 공동소유 주택으로 전환시키려는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소요될 2백 5십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 기업체 및 공공기관들과 활발한 협조를 하고 있다.

## 5. 미주 한인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로스앤젤레스 지역)

1990년에 실시된 인구조사에 의하면 로스앤젤레스시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는 25만 9천 9백 41명의 한인들중 10대와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3.2%(8만 6천 3백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미주 한국일보 1994년 1월 5일). 이들 청소년들은 주로 2세와 1.5세로 구분되는데 2세는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을 칭하고 1.5세는 어렸을 때 미국으로 온 한인들을 의미한다. 사회참여활동은 대개 미국청소년들의 활동들과 그리 다르진 않으므로, 여기서는 한인청소년들의 한인사회를 위한 참여활동만을 다루기로 한다.

### 1) 선결조건 : 문화적 정체성 확립

미국내 한인 청소년들이 겪어야 하는 가장 큰 고민중 하나는 가정의 한국식 문화와외부의 미국식 문화 사이에서 자신이 어떻게 자리를 잡아나가야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재미한인들의 이민 연조가 비교적 짧고, 대다수의 한인 1세 이민자들이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한인 가정들이 거의 한국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 속에서 형성되고 있음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고 있다(Lee, 1989).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한인 1.5세와 2세청소년들이 학교와 사회에서 자신의 가정과는 상당히 다른 미국 문화와 가치관을 접하게 되면서 상당한 문화적 혼란이 오게 되며 이로 인한 갈등이 심화된다(Golden, 1987). 이 혼란 속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이 한국인인지 아니면 미국인인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은 어쩌면 한국인도 미국인도 아닌 그 어떤 인종·문화적 소속이 없는 존재인지도 모른다는 설부른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실지로 남가주에 거주하는 14~

21세 사이의 한인 청소년 208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40%가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해 고민을 해 본적이 있다고 대답했고, 미국에 이민온지 5년에서 10년 사이의 청소년 사이에서 이 문제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을 표현할 때 어떤 호칭이 가장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 물어본 질문에도 응답자의 54%는 코리안, 42%는 코리안-아메리칸이라 대답하고 있다(미주 한국일보 1994년 1월 1일). 그러므로 이들이 미국사회와 재미한인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생산적인 시민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재미한인사회에서는 이들 한인청소년들이 확고한 문화적 정체성을 성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몇몇 단체들이 한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인사회 참여활동을 전개하며 이를 통한 문화적 정체성 확립 운동을 병행하고 있다.

## 2) KYCC(Korean Youth and Community Center)

로스앤젤레스시에 위치한 KYCC는 다민족 사회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이곳의 한인사회와 타민족 사회와의 이해증진과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보다 나은 로스앤젤레스시를 만드는데 앞장선다는 사업목표 아래 설립된 비영리 사회봉사 단체로 1975년 설립 이후 한국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급증하는 한인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으며 나아가 여러 민족이 어울려 사는 로스앤젤레스시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미국내 한인 봉사단체 중 가장 많은 활동 예산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 단체는 이민 청소년과 그 가족들을 위한 서비스 업무가 주 임무이지만, 청소년들에 의한 서비스 또한 점차 개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 자신이 한인사회에 참여하여 봉사하면서 자신들의 문화적 뿌리와 정체성에 대해 배우고 있다.

Youth Leadership Development로 명명된 이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비교적 시간이 많은 여름철에 활발히 진행되는데, 현재까지의 단순 자원봉사 차원을 넘어서서 직접 자신들이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그 진행을 책임지면서 한인사회와 주류사회를 직접 접하는 기회를 얻고 있다. 현재 14명의

한인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인사회의 결속과 이들의 권익옹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이들은 한인사회 지도자들 및 지역 국회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내의 반이민 불결과 인해 합법이민자들에게도 닥쳐올 부당대우에 대한 지역사회 교육과 상정된 법안 저지운동 등을 벌이고 있으며, 한인 고등학교 및 대학생들에 대한 계몽운동을 통한 권익옹호 사업을 전개시키고 있다. 또한 한인사회를 위한 뉴스레터를 편집, 제작하여 미국사회와 한인사회의 현안을 널리 알릴 계획과 한인사회 사진 전시회를 통해서 미국에서 한국인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즉 Korean American으로서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와함께 KYCC는 현재 로스앤젤레스 지역 및 미국 전역의 한인단체와 그 외 소수민족 사회단체를 컴퓨터 상으로 연결하려는 작업을 시도중인데 1994년에 뉴욕 및 주요 한인 밀집지역의 한인사회단체와 로스앤젤레스 한인사회단체의 대표들이 AT & T 장거리 통신회사의 협찬으로 각자의 소재지에서 원거리 화상회의(teleconferencing)를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는 인터넷과 첨단통신 장비를 사용해서 우선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필리핀, 중국, 일본계 소수민족 단체와 그 청소년들간의 화상회의를 시도하고자 준비중에 있다. 이 계획에는 또한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의 아시안 아메리칸 연구소가 같이 참여하여 청소년 및 지역사회 지도자들의 원거리 화상회의 결과를 평가·연구하여 지역사회 개발에 한 모델로 설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기 위한 제반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 3) 한인총고등학교(KHSA : Korean High School Association)

로스앤젤레스시와 그 인근지역의 한인 고등학생들이 친목과 결속을 목적으로 18년전에 설립된 단체로 현재로는 미국내에 단 하나뿐인 한인 고등학생협회로 알려져 있다. 약 40여개 고등학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모든 것이 학생들에 의해 결정된다. 대부분의 활동이 문학의 밤, 단체 체육행사 등 문화활동에 치중되고 있으나, 이외에도 KYCC와 협조, KYCC의 여름학교 보조교사, 아

동 여름캠프 인솔자 등으로 참여하면서 한인사회의 국민학생들을 위한 봉사를 담당하고 있고 매년 9월에 있는 로스앤젤레스 한국의 날 행사때도 자원봉사를 담당하는 등 나름대로 지역사회 참여에 열심을 내고 있다.

## 6. 결론

위에서 살펴본 활동사례와 같이, 많은 미국 청소년들은 자신의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또한 직접적인 봉사를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는 등 이제 사회의 선도와 지도만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에 일조를 하는 존재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위의 성공적인 활동사례들의 뒷면에는 몇몇 공통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한국청소년들의 실질적이고 활발한 사회참여와 토론활동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공동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1) 토론을 통한 실질적 이익

청소년 토론회 혹은 지역사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 토론회가 대화와 토론만으로 끝이 나는 형식적인 토론의 장이 아니라 이 대화와 토론의 결론 및 내용이 정책수립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되는 어느정도 가시적인 결과가 있어야 한다. 즉, 토론의 내용과 정책결정의 경로 사이에 그 어떤 상관관계가 없다면 청소년들을 비롯한 모든 참가자들은 이 토론회가 결국 시간낭비였음을 깨닫게 될 것이고, 이후의 토론회는 그 취지에 상관없이 별다른 호응을 받지 못하게 되나 토론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결론이 지역사회 정책 혹은 프로그램 결정에 일조를 하고 있음이 명확해지면 그만큼 뜻있는 청소년들의 참여가 더욱 활발해 질 것이다.

### 2) 사회참여를 통한 이득

사회참여 활동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것이 개인적인 보람이다. 물론 이것

이 틀린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는 활동에는 보람이상의 이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득은 여러가지로 보일 수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이득은 청소년들의 대학 진학시 사회활동 참여정도가 입학심사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미국의 대학입학은 고등학교 성적, 대학 입학고사 성적(SAT 시험), 그리고 그의 사회활동(자원봉사, 특별활동, 방과후 단체활동 등)을 골고루 보아 결정되는 만큼 고등학생들은 시험공부외에도 여러가지 사회참여 활동을 하고 있다. 때에 따라서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하는 활동이 아닐 수도 있으나 대학입학을 위한 활동이라도 사회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사회와 개인 쌍방간에 서로 도움이 되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들에게는 대학동안의 사회참여활동이 이후 대학원 진학이나 취업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어 이들에게도 사회참여 활동이란 자신의 개인적인 보람외에도 실질적인 이득에 뒤따라 준다는 점이 상당한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 3) 정부·지역사회의 다각적인 지원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 혹은 사회참여 활동에 정부나 지역사회의 관심과 다양한 지원이 있을 때 그 활동은 더욱 성공적인 결실을 맺게 되고 이는 결국 소속의 사회의 질이 향상되는 등 쌍방간의 이익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처음에는 단순한 자원봉사로 시작했다 해도 정부차원의 기술적인 지원과 지역사회 및 민간재단에서의 자금지원은 이러한 봉사업무를 좀더 전문화 시킬 수 있어 참여 청소년들이 새로운 기술과 경험을 얻게 되고 좀더 체계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지역사회에도 큰 이익이 되는 등 효율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역사회의 지원은 극히 필요한 요소이다. 단, 다각적인 지원 속에서도 이 활동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활동 참여자들 자신이며, 정부와 지역사회는 뒤에서 여러가지로 후원만을 해준다는 서로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이해가 정확해야 할 것이다.

#### 4) 과학적이고 철저한 평가작업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과 토론활동의 결과를 측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적이고 철저한 평가작업일 것이다. 단기간의 실적만을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가늠한다는 것은 그동안 해당 지역사회에 만재해 있는 문제들의 비중에 비추어 볼 때 비현실적인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활동평가에 대한 과학적인 체계가 잡혀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한 학계의 검증이 필요하다.

위의 요소들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사회참여에는 청소년을 주축으로 하되 소속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사회참여를 통해서 개인적인 그 어떤 보람의식 외에도 실질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며 정부와 지역사회의 기술적 혹은 재정적인 후원을 통해 사회활동의 개발 및 성장의 계기를 마련해 주고, 또한 학계에서 실시할 활동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사회의 필요한 청소년 사회활동 등이 체계적으로 연구되어 쌍방간의 이익이 최대화 될 수 있는 지역사회가 생길 때 한국도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두 국가발전 전략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청소년이라는 강력한 잠재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Chavis, D.M. (1989), "A Retrospective Examination of Around the corner to the world." New Brunswick : Rutgers U.
- Golden, J. (1987), "Acculturation, biculturalism and Marginality : A Study of Korean-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Diss. U. of Coloradi, Bolder.
- Lee, S. (1989), "Child-Rearing practices of Korean Mothers in the United States in Relation to Acculturation : A Study of Ethnic Persistence", Diss. The State U. of New Jersey, New Brunswick.
- Malcom, Andrew H.(1985), "New generation of poor youths emerges in U.S.", New York Times.
- Milton, S. Eisenhower Foundation(1990), Youth Investment and Community Reconstruction, Milton S. Eisenhower Foundation.
- Mobil Report(1995), Mobil Donates \$100,000 to Torrance Youth Program.
- National Commission on Resources for Youth(1974), New Roles for Youth in the School and the Community, New York : Citation P.
- Office of Educational Reserach and Improvement(1993), Youth Indicators.
- Washington D.C.(1993) : U.S. Department of Education.
- Robertson, Ian(1987), Sociology, New York : Worth Publishers, Inc.
- Schine, Joan, Barbara shoup & Diane Harrington(1981), New Roles for Early Adolescents, New York : National Commission on Resources for Youth.
- Sigel, Roberta S.(1981), The Political Involvement of Adolescents, New Brunswick : Rutgers U.

U.S. Department of Labor(1990), “Thirty—Eight Million Persons Do Volunteer Work”, Washington D.C. : U.S. Department of Labor.

# 미국 청소년들의 환경참여활동

원 영 준\*

## 1. 서론

환경문제는 이제 국경과 문화를 초월한 범세계적인 문제가 되었다. 오존층의 파괴나 온실효과 등과 같은 현상은 우리가 사는 이 지구의 심각성을 단편적으로 지적해 주고 있는 몇몇 어두운 예라 하겠다. 세계 각국에서는 환경의 파괴를 중단 시키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지체시키기 위한 방안을 세우기 위해 고심중인 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일 것이다. 물품소비가 가장 많은 나라중 하나인 미국도 이러한 노력에 예외는 아니다. 일례로, 미국의 한 가정에서는 1년에 2460 파운드의 종이, 540파운드의 금속, 480파운드의 유리제품, 그리고 480 파운드의 음식을 버리고 있으며 미국인이 1년에 버리는 음료수 깡통과 유리병은 약 400억개에 다다르고 있다. (Elkington et al. 1990) 현재의 세대와 이전 세대가 이루어놓은 무분별한 소비문화의 댓가를 우리의 자녀가 치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때, 환경문제 해결이라는 대명제는 더욱 그 심각성을 띄게 된다.

환경보존 운동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연령, 성별, 계층을 막론하여 그 누구도 이 운동에 제외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미국의 청소년들이 어떻게 환경보호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데 있으며 다각적인 환경교육과 직접적인 보호활동에대한 예가 소개되고, 또 이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어떻게 개발되어야 할것인지에 대한 방향설정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

\*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청소년 지역 사회센터(KYCC) 특별사업부장

## 2. 교육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이들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 하겠다.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이 문제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이해 시키는 것은 관련 안전에 대한 교육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깨닫게 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환경교육은 두종류로 나뉘어지게 된다.

첫째, 청소년들은 오존층, 산림훼손, 수질오염등과 같은 환경문제들을 과학적인 측면에서 배우게된다. 학생들은 어떻게 그리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배우며, 사람들, 특히 어른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배운다.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때 교사들은 이들에게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유도시킨다. 교사들의 이러한 노력을 돕기위해 많은 교육기관과 교육관련 출판업계에서는 여타가지 학습과제를 개발해 놓고 있는데, 다음은 학생들이 수질오염에 대해서 오후동안 할수 있는 과제의 보기이다. 우선 교사는 수질오염에 대해 설명을 하고 토론을 진행시킨다. 학생들이 모두 수질오염에 대해 이해를 하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게된 후, 이들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수질오염 문제를 막을 수 있는지를 조사해 보도록 하는 과제를 받게 된다.

### 수질오염 추적 - 오후과제

우선 우리 주위의 수자원을 찾습니다. 이 물줄기를 따라 걸어가면서 쓰레기, 하수도, 기름, 화학폐기물 등과 같은 모든 오염물질들과 이것들을 찾는 장소를 기록하십시오. 집에서 물줄기와 오염지역의 지도를 만드십시오. 수질오염 지도를 만들어 놓으면 오염원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강물에 폐기물질을 버리는 공장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종이접시들을 마구 버리는 유원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염원이 어디이건간에 이를 관찰 기관에 알리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물을 깨끗하게 하는 데 한 몫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Miles, 1974) 학생들이 환경문제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이해를 하도록 하기 위해 지역 도서관에는 필요한 책들을 상당량 구비해 놓고있다.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 이들이 무엇을 통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를 깨우쳐 주는 것이 환경교육의 나머지 한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환경교육자들과 단체들은 청소년들이 어떻게 참여하여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해 체계적인 지도를 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 정치인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정식으로 편지를 보내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으며 환경단체에서 발행되는 책자들에는 지역, 주, 연방정부 공직자들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청소년들이 이들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들은 또한 청소년들에게 기사작성 요령, 기자회견 요령들을 가르치면서 언론 매체의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렇게 다방면의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들은 좀 더 체계적으로 환경문제에 참여하게 된다.

### 3. 기타 매체를 통한 교육

지난 수년간 빠르게 발달한 통신기술은 정보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전달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를 통해서 정보시대가 그 막을 올리게 되었다. 청소년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대중매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많은 청소년 프로그램들이 환경문제에 중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면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유선방송인 Nickelodeon 방송에서는 환경문제와 이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는 정규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다.

환경문제가 계속 관심을 끌게 되면서 전통적으로 유행, 화장, 그리고 상품 구매를 중점적으로 다루어왔던 십대 잡지들도 환경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미국과 캐나다에 연 200만부를 발행하고 있는 청소년 잡지인 Seventeen지의 기사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Curie(1994)에 의하면 환경문제와 관련된 기사의 수가 현격히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일례로, 1951년도 판에는 107개의 정치적 성격을 띄고 있는 기사들 중 7.5%가 환경에 관한 기사였고, 1991년

관에는 이 수치가 급격히 증가해서 59개의 기사중 27%가 환경에 대한 기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잡지에는 “Earth Talk”이라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어 환경문제에 관련된 기사들과 단신들을 취급하고 있고, 10대 기자가 인터뷰 취재한 유명인들의 환경보호에 대한 의견들도 기재된다.

#### 4. 실질적 참여

환경문제가 중요시 되면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Student Conservation Association에 의하면 현재 환경보호와 관련되어 있는 단체와 기관들은 미국전역에 걸쳐 1,400개 이상이 있으며 (The Student Conservation Association, 1994), 이들이 모두 유급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을 찾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과업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때 필요한 인적자원을 공급받는 것이어서 사회에 큰 도움이 되고, 아울러 참여를 통해 얻어지는 경험들이 후에 진학이나 취직에 큰 잇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참가하는 청소년들 자신에게도 도움이 된다. 아래의 4가지 보기를 통해서 이러한 기회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펼쳐져있고, 참여가 얼마나 용의하며, 참여를 통해서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전세계적 참여기회－평화봉사단

미국의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은 평화봉사단 (Peace Corps)을 통해서 지구를 보존하고 지키려는 범세계적인 노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1961년에 창립된 평화봉사단은 개발도상국에 인적자원을 공급하고 미국과 다른 나라간의 이해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18세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2년 동안 외국에 나가 봉사활동을 펼친다. 이 2년 동안 봉사자는 생활비를 받게 되고 봉사기간을 마치고 돌아오면 일정액의 보상금을 받는다. 최근에는 공원관리 및 야생동물 보호활동, 산림조성, 수자원보호, 농업기술 개발 및 자연 보호 등과 같은 환경관련 업무가 늘어나기 시작해서, 현재 55개의 환경관련 업무에 7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전세계에 파견되어 있으며 이와 아울러 6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55개국에 파견되어 장기적 산림조성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 조성업무에는 묘목개발 및 관리, 농·산림 개발기술, 훼손된 산림복구, 지역별 펠감 저장소 설치, 산림자원관리와 목재절약 기술 등이 포함 된다. (The Student Conservation Association, 1994)

## 2) 전국적 참여기회—Student Conservation Association

Student Conservation Association (SCA)은 1954년 당시 한 21살 난 대학생이 제출한 한 제안서에 기초를 해서 설립되었는데, 이 제안서에는 학생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국가공원 관리와 이를 통한 환경보호 교육계획이 담겨 있었다. 이 계획은 당시 미국 공원관리국에 의해 받아들여졌고 그 첫해에 50명의 학생들이 Grant Teton 및 Olympic 국립공원 관리자로 일을 하게 되었다. 현재 SCA는 미국 내에서 가장 큰 환경보호 자원봉사 단체로 성장했는데, 지금은 매년 20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공기오염 및 수질오염 감시, 멸종위기 생물보호 업무, 그리고 등산로 개발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SCA는 기존의 환경보호 기술 교육 및 정보수집 단체의 대명사 격이 되었으며 신기술과 새로운 교육방법을 받아들이고 실용화 하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1988년에 엘로스톤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대화재로 훼손된 환경 복구하는데 SCA 자원봉사자들이 투입되었으며 이를 더욱 발전시켜 현재는 600여명의 SCA 자원봉사자들이 엘로스톤 국립공원내에 훼손된 생태계를 복구하기 위한 업무를 3년간 전담하고 있다. (The Student Conservation Association, 1994)

SCA 프로그램들은 자원봉사자들의 연령에 따라 구분된다. 고등학생들에게는 5~6주 기간의 자원봉사 업무가 맡겨지고, 대학생 연령층과 젊은이들은 현장에서 담당자들의 보조역할을 맡는 12~16주간의 인턴쉽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사회가 계속 다원화 되면서 SCA는 Conservation Career Development Program (CCDP)을 개발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여성과 소수민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들과 소수민족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2학년때 부터 대학졸업 때 까지 환경보호활동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환경보호관련 직종에 진출시킨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참여 청소년들은 학급교육 뿐 아니라 체계적이고도 심도 깊은 기술교육 및 현장경험을 얻게 되어 졸업과 함께 취업에 필요한 요건들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된다.(The Student Conservation Association, 1994)

### 3) 주(州) 단위 참여활동—California Conservation Corps

미국내의 여러 주에서는 청소년들이 급료를 받으면서 환경보호 활동 등과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계속적인 교육의 기회를 얻게 하도록 하는 주 정부 주관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수는 매해 7,000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들 중 캘리포니아주의 California Conservation Corps (California CC)가 미국내 주 정부 주관 프로그램들 중 가장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알려져있다.

California CC가 1976년에 설립되기전, 당시 로널드 레이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971년에 California Ecology Corps를 창설했는데 이 프로그램에는 100명의 봉사자들이 산불감시 업무를 담당했다. 1976년 에드먼드 브라운 주지사는 이 프로그램을 California CC로 대체했고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1979년에 새로 책임자로 부임한 B.T. 콜린스의 지도력 아래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월남전에서 한쪽 다리와 한쪽 팔을 잃은 콜린스는 취임즉시 “힘든 작업, 낮은임금, 열악한 환경” 이라는 California CC의 모토를 만들었고, “술 금지, 마약금지, 폭력금지, 주 정부 기물 훼손금지, 작업거부 금지”라는 간단명료한 규칙 또한 만들었다. 모든 참가자들은 유권자 등록과 헌혈을 해야하며 남성 참가자들은 징병등록을 해야한다(Moskos, 1988).

고등학생 연령 및 그 이상의 연령층 청소년들이 1년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법적 최저임금을 받게 되며, 이 임금에서 1/3은 보험금 등으로 공제된다. 업무 배치를 받기전 2주동안 체력단련, 직업윤리에 대한 강의, 응급조치, 수상안전, 소방교육, 공구사용법등에 대한 기초교육을 받는다. 이 교육이 끝나면 참가자들은 나무심기, 묘목재배, 시냇물을 막은 통나무제거, 물고기 부화장 전사, 폭우피해복구, 등산로 개발, 그리고 공원지대 개발

등과 같은 업무를 배당 받는다. (Moskos, 1988) 또한 기름유출이나 산불과 같은 환경재난이 일어날 경우에도 파견을 나가 복구작업을 돕게 된다.

California CC가 되는데는 신청자가 현재 보호감찰 중이거나 가석방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제한조건이 없는데, 이 프로그램의 목표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기회와 소액이자만 임금이 지불된다는 관계로 인해 소수민족과 빈곤층 청소년들 사이에 더 많은 관심이 있으며 현재 참가하는 청소년들의 가정 중 1/3이 사회복지혜택 수혜자임을 보아도 (The California Conservation Corps, 1985) 빈곤층의 관심 정도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으리라 본다.

#### 4) 지역사회단위 참여활동—Bellamy 중학교

메사츄세츠주에 있는 도시인 치코피는 오염된 하수 침전물 (sludge) 문제가 심각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20,000을 투자했어야 하는 문제에 당면해 있었다, 이 하수 침전물은 그 지역 공장의 하수 폐기물과 주택에서 흘러나오는 쓰레기들이 섞이면서 생긴 것인데 종래에는 이 침전물을 태워 없앴으나 주 정부의 엄격한 공기오염 규정으로 인해 더이상 태워 없애질 못하고 이들을 건져 쓰레기 매립장에 묻어버리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방법이었다. 그러나 이 방법도 겨울철에는 침전물이 얼어버려 사용되지 못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총 공사비 \$120,000을 들여 침전물이 많이 모이는 곳에 벽돌로 건물을 만들어 침전물이 얼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나왔으나 시 정부의 예산 난으로 인해 공사비 조달을 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 사실이 그 지역 신문에 기사화 되면서, Bellamy 중학교 학생들이 이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침전물이 모이는 장소를 둘러보는 한편 학생들이 서로 모여 다른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지역사회에도 도움을 요청, 지역주민들의 제안을 받기 시작했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이들은 최종 해결방안을 만들어 시청에 건의했는데, 이 해결방안은 침전지역에 비닐온실을 세워 태양열을 이용하여 침전물이 얼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시 정부의 벽돌건물에 비하면 상당히 간단하고도 실용적인 방안이었고 공사비도 \$500 밖에 들지 않으므로, 시청은 종래의

벽돌 건물 안을 백지화 시키고 온상 방안을 받아들이게 되었다.(Lewis, 1991)

## 5) 참여장려방안

환경보호 활동 참여는 여러 방면에서 장려되고 있다. 즉, 청소년들은 이 참여를 통해서 그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혜택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우선 자신의 삶에 변화를 주고 남에게 도움이 된다는 심리적인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그와 동시에 금전적인 보상, 실질적인 작업기술, 혹은 대학 진학, 장학금 수혜, 또는 취업에 따르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나뉘어진다. 만일 청소년이나 성인을 막론하고 자신의 시간과 정력을 할애할 자원봉사자를 찾으면서 이들에게 그 어떤 상대적인 혜택을 주지 않는다면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원봉사들도 참여를 통해 꼭 돈이 아니더라도 아래와 같이 무언가를 얻는 것이 있어야 한다.

대학진학 희망자에게 있어서 환경보호활동과 같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대학들의 입학 심사가 성적에만 치중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교 입학 심사 요건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학생의 학교성적, Scholarstic Aptitude Test (한국의 수능시험과 유사한 전국시험), 그리고 과외 활동에 각각 중요한 비중을 둔다. 과외활동 심사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자원봉사 활동보다는 환경보호 활동 등과 같이 특이하고 값진 경력이 더 많은 관심을 유발시킨다. 장학금에 있어서도, 미국 대학과 사회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의 수는 상당히 많지만 이들이 모두 성적위주의 장학금이 아니며, 후에 지역사회 지도자가 될 자질이 보이는 학생들에게도 주어지는 장학금들이 준비되어 있어 활발한 참여활동은 이러한 장학금을 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참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참여 청소년과 청년들이 실질적인 작업기술을 배우고 있음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으리라 본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얻은 기술은 앞으로 이들이 취업을 할 때와 직장 내에서

진급을 할 때 큰 도움이 된다. 이들이 보유한 기술 자체도 값진 것일 뿐만 아니라, 많은 고용주들이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재들을 일부러 찾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경험 그 자체도 큰 이득이라 할 수 있다. 일례로, 세계 각국의 환경단체들에서는 미국의 평화봉사단 소속 자원봉사자들의 실력과 경험을 높이 인정해 주고 있으며, 주 정부와 연방정부내의 기관들에서도 해당 부문에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미국 연방정부에서는 평화봉사단 업무를 마치고 돌아온 자원봉사자들에게 1년간 무경쟁자격(NCE : noncompetitive eligibility)을 주어 이들이 연방정부 내의 관련 직종에 취업신청을 할 경우, 일반 신청인들과의 비교경쟁을 거치지 않고 즉시 임용되는 특혜를 주고 있다. 연방정부 내의 많은 기관들중 특혜 산립국, 미국 어류 및 야생생물 보호국, 국립공원 관리국, 환경보호국등이 이러한 자원봉사자들을 가장 많이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he Student Conservation Association, 1994)

## 5. 결론

위에서 본바와 같이 청소년들은 환경보호를 위한 움직임의 한 부분으로서 일조를 할 준비가 되어있다. 청소년들과 아동들은 이 세계의 상속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자신들이 살아야 환경의 보호를 주장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교육과 실질적인 보호활동을 통해서 이들의 환경에 대한 인지도는 높아가고 있고 위의 실례에서 나타난 것 처럼, 몇몇 청소년들은 이미 현장에서 자신의 지역사회를 위해 변화를 이루어나가고 있다.

이 세계가 생존가능한 장소로 남아있기 위해서는 교육 분야와 실질적인 보호활동 분야에서 좀 더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전세계적 환경보호를 위해 1992년 브라질의 리오테자네이로에서 UN 주최로 개최된 역사적인 Earth Summit에서는 참가국가 전부가 서명한 행동강령인 Agenda 21이 만들어 졌는데, 이 강령에서도 청소년의 참여는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어진다.

“청소년, 즉 12세 이상의 십대들은 전세계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

다. 환경문제 및 이에 따르는 개발결정에 이 청소년들을 참여 시키는 것이야말로 Agenda 21의 장기적 성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들이 지식과 참여를 통한 일조 외에도 이들만의 독특한 경험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각 나라들은 청소년층과 정부간의 대화창구를 만들어야 한다. 청소년들은 정부정책에 대한 정보를 받아볼수 있어야 하고 또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할 수도 있어야 한다.(Agenda 21, 1993.pp 266~67)”

Agenda 21에서는 또한 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과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 환경에 관한 정책결정에 있어서 남녀 청소년들의 참여를 허용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 환경감시 등과 같은 실질적인 기술을 가르치는 혁신적인 교육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전국단위와 지역단위 언론매체, 일반단체, 그리고 사업체들이 이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Agenda 21, 1993, p 267)

위에서 제시된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은 현 사태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일깨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전제조건이 깔려 있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이와 아울러 많은 청소년들이 이미 현재의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자신들이 다음 세기에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미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 또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일례로, 2,0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5%의 응답자가 미국정부는 공기오염 해결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쏟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할 수 있다면 자신들이 이 오염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Curie, 1994). 위에서 계속 지적된 대로, 청소년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일조를 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이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육뿐만 아니라 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선거권이 없는 관계로 그 동안 청소년 계층은 비교적 무시를 당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이들이 결코 가르침과 선도만을 받아야

하는 십대들로만 생각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이들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또한 그 해결책을 직접 일선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강력하고도 이상적인 계층임을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 청소년 권한부여(Youth Empowerment)

## 모형에 관한 조사 :

### 효과적 청소년 참여에 대한 비교 연구

알란 빌라란테\*

## 개 요

이 연구의 중요성은 성장과 발전이라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오늘날 필리핀 정부가 청소년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려는 노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3개 정부 즉, 마르코스(Ferdinand E. Marcos)정부, 아퀴노(Corazon C. Aquino)정부, 현 정부인 라모스(Fidel V. Ramos)정부에서 내놓은 주제와 핵심 내용, 접근방식 및 전략을 비교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참여(mobilization)와 권한부여를 위한 전국적인 규모의 포름을 만드려는 3개 정부의 모형을 평가한다. 저자는 국가 정치 발전의 중요한 변수로서 필리핀 청소년에게 권한을 부여하려는 3개 정부의 노력을 선택한다. 이러한 작업은 이러한 노력을 단순히 검토하거나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함축된 의미와 잠재력을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필리핀 청소년을 위한 3개 정부의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춘 비교 연구는 실제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권한부여, 곧 전국적인 규모의 강력한 정치적 가담이라는 점에서 필리핀 청소년의 참여에 대한 전망을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이 연구를 통하여 필리핀 청소년들에게 숨쉴 공간을 제공하는 진정한 청소년 권한부여의 정의에 대한 보다 인간적이고 보다 폭넓고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모든 일에 더하여, 이 노력은 또한 이들 정부의 궁극적인 방향에 대한 전체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필리핀 청소년들을 위한 진실

---

\* Allan Jose Justiniani Villarante. 필리핀 대학교 연구원

되고, 상호 반응적이고 문화적으로 건강한 청소년 권한부여 프로그램을 제안 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 1. 서론

청소년 권한부여는 정치학이나 기타 어떠한 관련 학문 분야에서도 거의 연구된 바가 없는 주제 중의 하나이다. 청소년이 전체 사회적 상황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청소년은 여자와 마찬가지로 약하고, 종속적이고, 쉽게 타락하고, 결국 지각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전통적으로 일부 문화에서는 그 사회의 청소년을 물질보다도 더 가치없는 것으로 취급한다. 사실 일부에서는 청소년들을 그들이 언제라도 원하는 때에 사고 팔 수 있는 재산으로까지 여긴다.

청소년 권한부여에 관한 연구는 청소년 부문이 필리핀 사회에서 가공할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제쳐두고라도 실제로는 약하고 종속적이며 지각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청소년 부문은 정부에 대한 운동과 흐름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역동적인 부문 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청소년들은 수많은 사례에서 개인 또는 단체로 사회적 상호작용에 새로운 역동성을 도입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왔다는 점을 1994~1998 전국청소년개발계획(National Youth Development Plan, NYDP)에서 재확인된다. 국가 재건 및 발전 프로그램은 항상 이러한 특별한 재능을 가진 청소년 세대를 중요하게 고려해 왔다.

필리핀 군도 북쪽의 Kankanaey 사회에 관한 Sennagen(1985)의 연구는 그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에 의해서 수행되는 통과의례는 사회화와 그 사회의 발전에 적극적인 참여를 허용한다. 특히 필리핀 산악 지방에서의 사냥(head-hunting)은 그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간에 공통적인 생각을 나누기 위한 청소년들의 패기, 무용 및 결단의 명백한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그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기 위해 겪어야 하는 전통적인 의식이다. 현대 필리핀 사회에서 청소년 문화는 글썽과 가치없는 수동의 문화가 아니라 사려깊고 지적인 특성을 갖는 문화라고 할 수 있다. Agoncillo(1990)

와 Constantino(1975)는 그들의 저작물에서 필리핀에 자유 정신을 개척하고 통일의 씨앗을 뿌린 1896년 혁명은 청소년들이 피를 흘린 댓가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필리핀의 많은 청소년들은 그 시대의 도전에 대응했고 외국 지배에 대항해 자신들의 생명을 희생시켰다. Kerkliet 와 Mojares(1991)은 마르코스와 아퀴노 집권시기에 청소년들의 똑같은 경우를 목격했다.

Jose. P. Rizal 박사는 그 당시 필리핀 청소년의 잠재력을 인식하면서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부터의 이동, 인습적인 행동양식으로부터의 탈피, 곧 파라다임의 이동이라고 하였다. 그 당시에 청소년들에게 주었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절하다. 그의 시 A La Juventud Filipina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O youth, fair hope of fatherland  
With thy mighty hand,  
Raise the eager mind to higher station,  
Come down with pleasing light  
O youth and there untie  
The chains that heavy lie  
Your spirit free to flight !

따라서 이 연구의 중요성은 오늘날 정부에 의한 청소년 권한부여 노력의 발전과 성장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을 제시하는 데 있다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3개 정부 즉, 마르코스(Ferdinand E. Marcos)정부, 아퀴노(Corazon C. Aquino)정부 및 현 정부인 라모스(Fidel V. Ramos)정부에서 내놓은 주제와 핵심 내용, 접근방식 및 전략을 비교하며, 청소년의 참여(mobilization)와 권한부여를 위한 전국적인 규모의 포름을 만들려는 3개 정부의 전형적인 구조를 평가한다.

저자는 국가 정치 발전의 중요한 변수로서 필리핀 청소년에게 권한을 부여하려는 3개 정부의 노력을 선택한다. 이러한 작업은 이러한 노력을 단순히 검토하거나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함축된 의미와 잠재력을 분석하는 것이

다. 저자는 개인적으로 청소년 권한부여를 신장시키기 위한 활동에 참여해 왔다. 이러한 관심은 정치적인 의미에서 “아래로부터의 민주화”인 청소년 권한부여를 위한 일정의 발전에 근간이 되고 있다.

필리핀 청소년을 위한 3개 정부의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춘 비교 연구는 실제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권한부여에 대한 전망, 곧 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청소년의 사회 참여를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이 연구를 통하여 필리핀 청소년들에게 숨쉴 공간을 제공하는 진정한 청소년 권한부여의 정의에 대한 보다 인간적이고 보다 폭넓고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청소년들로 하여금 정치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이들 모든 정부의 궁극적인 방향에 대한 전체적인 전망의 설정시도하게 한다. 청소년 권한부여 노력에 대한 비평적인 반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의 주제, 목표 및 전략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진다. 결과적으로 이 논문은 미래를 준비하는 필리핀 청소년들을 위한 진실되고, 상호 반응적이고 문화적으로 건강한 청소년 권한부여 프로그램을 제안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2. 개념 정의 및 연구의 틀

Gutierrez, Torrente 및 Narca(1992)는 넓은 의미에서 “권한부여(people empowerment)”를 “아래로부터의 민주화(democratization from below)”로 정의하였다. 청소년 권한부여의 맥락에서 이러한 생각은 “역 피라미드”를 청소년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구조적 패러다임으로 사용함으로써 설명된다. 이러한 구조적 패러다임은 나라 전체의 청소년 집단으로부터의 진정한 대표를 참여하게 하여 풀뿌리 수준에서의 진정한 권력 및 지도력을 보장하게 된다. 이것은 전통적인 중앙집권적인 지도력에 반대되는 생각이다. 이러한 역 피라미드 모델은 모든 권한과 결정 및 정책이 필리핀 사회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청소년 부문으로부터 나오게 한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프로그램과 정책이 지역수준에서 청소년 집단에 국가 전략의 문제로 건네지고,

이슈가 토론되고, 심의되고 자문이 이루어지게 된다.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창의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청소년조직에 필요한 지원 뿐만 아니라 청소년 조직의 개별적인 관심에 따른 연계 및 동맹 조직의 설립을 위한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창의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청소년조직들은 필리핀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를 확보하기 위한 각자의 관심을 토론하고 해결책을 발견하기 위해서 지역적 수준에서 그들 스스로 회의를 만들 것이다. 이러한 조직의 형성과 문제의 해결과정은 아주 장황하고 긴 과정이지만 청소년 부문으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그들 자신의 계획과 특권과 전망 및 운명을 방향짓게 하는 자유를 느끼게 하는 긍정적인 수단으로 보여진다. 그러한 모델은 청소년 부문의 무절제한 이상주의를 청소년 권한부여가 존재하는 실제 사회로 재조정하기 위한 효과적인 논거라고 생각된다. 더우기 정부는 청소년들이 그들 자신의 관심을 자유롭게 설계하는 데 장애를 주지 않으면서 기술 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결국 정부의 기능과 역할은 순수하게 청소년들을 감독하고 지원하며 그들의 계획, 결정 및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차단하게 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본래의 목적에서 보면 권한부여는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즉, 청소년들에게 독립성을 주고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등으로 정의된다. 여기에는 정책과 의사결정에 관한 통제에서의 민주화를 통한 권력의 획득 뿐만 아니라, 그러한 청소년 부문의 환경, 경제, 정치 및 사회 문화적 조건의 실제적인 장악을 의미하는 권력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이용을 포함한다.

정치적 동원(Political mobilization)은 사람들이 정부나 민간기관 및 기타 부문에서 수행하는 정치적 사업이나 노력에 참여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하는 전략 및 과정이다. 정부, 민간기관 및 기타 부문 등 사회의 각 부문은 그들의 구성원들을 참여의 극대화와 정치 사업에의 관여를 위하여 동원한다. 그러나 어떠한 관여에 앞서 의식 고양이가 필요하다. 목적과 핵심 내용 및 방향에 대한 우연적이고 선명하지 못한 지각을 가진 동원 집단은 와해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슈, 문제, 관심 등에 대한 원리, 원칙 및 이해가 없는

피상적인 기초에 기반한 동원 노력은 단명하고 불안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은 실제적인 기초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 권한부여의 문제에 있어서 청소년 문화에 대한 중요성이 마땅히 고려되어야 한다. 청소년 문화는 일반적으로 청소년 행동 양식의 총화이다. 그것은 상호작용 과정에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학습되고 규정되고 전달하는 사회 통합의 하나의 파생물이다. 단순한 의미에서 호기심, 감수성, 비평, 역동성, 이동성 등 청소년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난 경향 및 행동을 말한다.

이 논문에서의 모형은 현재의 권한부여 노력에 대한 전망을 추구하고 이끌어내기 위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으며 풀뿌리 수준에서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대안적인 논거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 그것은 필리핀 청소년들이 국가 건설에 참여하기 위해 촉발된 프로그램을 위한 활동 및 계획에 대한 전망이다.

### 3. 토론 영역

이 논문에 있어서 3개 정부에 의한 청소년 관련 노력에 대한 역사적인 조망, 국가 경험을 통해 반영된 청소년들의 가치의 형성, 3개 정부의 동원 노력에 있어서 청소년 경험의 영향, 국가 건설에 청소년들의 진정한 참여를 위한 대안 마련의 4개 영역은 분석의 기초를 제공한다.

#### 1) 역사적 고찰

① 마르코스 음모 : 신 사회운동(New Society Movement)의 계획된 틀에 의해서, 1975년 4월 15일 마르코스 대통령은 “동참하라! 여러분들은 새로운 필리핀인이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Kabataang Barangay(KB)<sup>1)</sup>를 설립하였다.

신 사회 청소년을 위한 정치운동으로 설립된 Kabataang Barangay은 지역사회 건설과 국가 발전과 관련한 많은 사업과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Kabataang Barangay는 한국의 새마을 운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 실천

프로그램, 미래 청소년 지도자를 준비하기 위한 지도력 훈련 세미나 등 지역 사회 개발 사업 프로그램에 역점을 두었다. 또한 거기에는 스포츠활동, 청소년들에게 풍부한 문화적 유산을 상기시키기 위한 문화적 사업, 제3세계 청소년들과의 교류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

그러한 프로그램을 모든 필리핀들에게 보다 적절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KB의 활동이 모든 군도에 있는 기초단위와 15세에서 21세의 청소년들에게 전파되었다. 국가 개발 노력을 영향력을 있게 하기 위하여 KB사업은 Malacanang<sup>2)</sup>의 직접적인 감독하에 매우 조정된 규모로 수행되었다. KB의 지도 핵심 자리에 대통령 딸인 Aimee R. Marcos의 임명에 따라 이러한 조정은 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되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국가 청소년 운동의 최고 서열에 또 다른 마르코스를 앉히고 있는 조직의 목적과 목표의 진실성에 대하여 의심하였다. “역파라미드”의 전형적인 구조와는 대조적으로 KB는 중앙집중적으로 후에 마르코스의 권력을 영속화 시키기 위한 정치 도구로 되었다.

KB가 기초단위에 설치되게 됨에 따라 KB는 청소년들의 무한한 이상주의를 경제발전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조정한다는 모습으로 치장되어 마르코스의 선전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임이 잘 입증되었다.

국가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유통기술을 필리핀 청소년들이 소유할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KB는 필리핀 직업 시장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국가 실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 계획에는 KB 교외 청소년 프로그램, 기능훈련 사업, 소득발생 사업, 직업 소개 사업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1980년대의 청소년들의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Ocampo(1989)는 독

---

1) Kabataang Barangay 혹은 KB는 영어로 Barangay 청소년으로 번역된다. 히스페닉 이전의 필리핀 역사에서 Barangay는 “datu”로 알려진 추장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지역사회의 가장 적은 정치단위이다. 신 사회(New Society)의 출현에 따라 Barangay라는 개념은 마르코스에 의해서 의사결정과정에 필리핀 국민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촉구하기 위한 필리핀 위기 정부의 일부를 형성하는 근린 정치단위(neighborhood political unit)를 의미하게 되었다.

2) 마닐라시 Mendiola Bridge 근처에 위치한 필리핀 대통령의 관저이다.

제로부터의 정치적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였다. 1980년대 청소년 운동은 주로 수업료 인상에 대항한 1977년 동맹운동의 결과로 나타난, 민주개혁운동(Democratic Reforms Movement, DRM)의 성공에 의해 동기화되었다. 필리핀 학생연맹(LFS)에 의한 민주개혁운동은 기본적으로 협의회의 조직, 출판물의 관리 및 군정기의 학생들을 부정하는 기타 권리 등 학생들의 권리의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교육법 통과와 지연을 포함하는 민주개혁운동의 기본적인 요구의 실현은 통합된 노력과 자경운동이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마르코스 정부에 대한 대중적 저항을 폭넓게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학생협의회, 출판조직, 하위 부문별 협회 및 이슈 중심의 연합조직 등은 학생들의 부문별 인식과 참여의 수준을 높였다.

② 아퀴노 지배 : 마르코스 정권의 붕괴에 관한 많은 이론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에 덧붙여 마르코스의 인기는 기대했던 것보다 급속도로 떨어졌다는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마르코스의 20년 동안의 대통령직에서의 몰락에 기여하였다.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마르코스의 주요한 경쟁자인 전 상원위원 Benigno “Ninoy” Aquino의 냉혹한 살인이 있는 후에 국민들의 격분은 참을 수 없는 지점에까지 이르렀다. 대부분의 목격자들은 대중들이 분노하게 된 논리에는 마르코스 정권의 강압적인 특성에 마르코스 집권기의 경제의 악화가 겹쳤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는 점을 들고 있었다. 사람들은 “Tama Na! Sobra Na! Politan Na!”<sup>3)</sup>라는 구호로 변화를 외치며 거리로 뛰어나갔다. 마르코스 통치의 위기는 마르코스에 대한 대중적 저항과 도전이 1986년에 발생했던 현재 EDSA(Epifanio de los Santos Avenue)로 알려진 혁명(People Power Revolution)을 불가피하게 한 1985년말과 1986년 초에 절정에 이르렀다.

---

3) 이것은 아퀴노 대통령이 마르코스 대통령직에 도전했을 때 사용했던 유명한 캠페인 슬로건이다. 이 슬로건은 마르코스를 교체하기 위하여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구호로 되었다. 그 구호는 “마르코스, 이제 그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마르코스를 교체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EDSA 사람들은 필리핀 국민들의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였다. 1986년 아퀴노의 구세주적인 지원은 마르코스를 경멸하는 사람들에 의해 환영받았다. 그러나 마르코스의 영광에 혜택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퀴노는 잠재적인 위협이었다.

게다가 이러한 변화의 경험은 통일국가 건설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청소년 부문의 문을 두드리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려는 아퀴노 정부의 기여였다.

또한 EDSA 이후의 기간에는 새로운 정치적 흐름이 국가 운동의 흐름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 운동을 용납하지 않았다. 아퀴노 대통령이 집권한 직후 필리핀 청소년운동의 추진에 갑작스런 변화가 나타났다. 대부분의 청소년 집단은 체제 내에서 일하는 것으로 선전되어 지는 정치 통치에 보다 많은 참여를 하게 되었다. 그 당시에 정부 관료정치와 함께 내에서 일할 새로운 청소년지도자가 출현하였다.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을 정부 일을 하도록 허용하는 획기적인 활동은 1987년 2월 Konsultahang Kabataan<sup>4)</sup> 국가청소년회의가 시작이었다. 그 회의에서 전국 각 조직의 청소년 대표들은 국가청소년위원회(National Youth Commission), 전국청소년단체회의(National Assembly of Youth Organization), 청소년지방정부대표기구(Representation of Youth in the Local Government Set-up)의 창설 등을 제안하였다. 자치적인 전국청소년단체연맹(National Confederation of Youth Organizations, NCYD)의 설립은 Konsultahang Kabataan의 전략 목표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상담기구는 후에 청소년에 관한 대통령위원회(Presidential Council for Youth Affairs, PCYA)에 남게 되었다.

청소년 개발 프로그램에 관한 정부의 노력 덕분에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국가청소년정책에 대한 요구가 개념화되었다. PCYA에 의해 수행된 최초의 연구에서 최소한 12명의 정부 관리가 다양한 청소년 관계 활동에 참여하였다. 그 연구에서 활동이 다른 방향으로 수행되고 있고 서로간에 중복되고 있다는

---

4) Konsultahang Kabataan은 청소년 자문으로 번역된다. 이것은 1987년 2월 23-28일에 Pook Maria Makiling, Los Banos, Laguna 에서 개최된 청소년위원회, PCIYY 및 다양한 청소년 지도자들에 의해 조직된 국가청소년회의의 표제이다. 그 회의에 전국 조직에서 383명의 청소년 지도자가 참석하였다.

접을 제안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련의 자문 모임이 다양한 사회 민간조직을 가진 PCYA에 의해 수행되었다. 후에 이러한 노력은 전국청소년개발 프로그램(National Youth Development Program, NYDP)안에 통합된다. 청소년정책의 형성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은 청소년의 발전적 계획과 사후 활동에 관한 UN 지침을 본따서 PCYA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러한 발전을 통하여 청소년운동은 이슈, 관심 사항 및 전략의 다양성에 손상을 입었다. 일부 집단은 신정치 연맹에 가담하였고 다른 집단은 진보적 정당 후보를 지지하였다. 이러한 일은 제쳐두고라도 PCYA는 아시아 청소년 포럼과 아시아 청소년협의회 실행위원회의 회원으로 국제적인 장에 들어섰다.

Ocampo(1989)는 80년대 청소년 권한부여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몇가지 점을 열거하였다. 그의 첫번째 관심은 청소년들 사이의 비판적이고 지적인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긴급한 과제라는 것이었다. 두번째는 과거의 조직 과정은 변화 시기에 적절한 새로운 형태와 창의성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EDSA 폭동의 교훈을 지적하면서 모든 청소년 진보세력 간의 광범위한 통일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통일된 사업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변화를 위한 투쟁에서 중간 세력이 중요한 부문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필리핀 학생운동의 국제적인 전망과 다른 진보적 청소년및 세계적 학생운동과의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③ 라모스 속임수 : 정치 비평가들 사이에는 Fidel V. Ramos가 필리핀 대통령직을 맡는다는 가정에 많은 회의의 눈길을 던졌다. 이러한 의심에는 기본적으로 특성상 정치적인 두가지 주요한 근거로부터 유래되었다. 첫번째 근거는 전당대회에서의 그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1993년에 대통령에 출마한다는 라모스의 주장에 기초하고 있다. 라모스는 LDP(Labanng Demokratikong Pilipino)로부터 탈퇴하여 전 상원위원 Raul Manglapus의 전국기독교민주주의연합(National Union of Christian Democrats, NUCD)과 함께 자신의 연합조직을 만들었다. 라모스 대통령은 아퀴노의 인기가 자신을 대통령 경쟁에서 사실상의 승리자로 만드는 것을 즐겼다. 의심을 하게 되는 두번째 근거는

1993년 라모스 대통령을 승리로 이끈 선거 결과로부터 유래한다. Santiago의 변호인 Mariam은 그 선거에는 커다란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거 경쟁은 라모스와 대항하여 지금까지 법정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Santiago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 논문의 관심은 최근 3개 정부의 청소년 권한부여의 노력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리핀 청소년들에 권한을 부여하려는 라모스 대통령의 정책 및 노력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1993년 라모스 대통령의 집권 이래로 청소년의 동원과 권한부여에 관한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다. 이러한 노력에는 1993년 대통령의 청소년여름프로그램(President's Summer Youth Work Program, PSYWP)와 1994년 Kabataan 2000, 중기 필리핀개발계획(Medium Term Philippine Development Plan, MTPDP)과 조화하여 종합적인 청소년 개발 계획(National Youth Development Plan, NYDP)의 마련 등이 있었다. NYDP의 제도화는 주요한 목적이 청소년들에게 국가 건설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국가 청소년위원회(National Youth Commission)의 설립, 결국, 청소년 의회를 형성할 수 있는 적합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전세계적으로 긴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킨 것은 바로 '필리핀 2000'에 대한 라모스 정부의 시작이다. 라모스 정부는 현재 산업화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를 무시하는 경향에 대해 강조하였다. 국가 발전을 계획하는 유일한 길은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서라는 점은 지속적인 개발에 대한 필리핀의 전략을 정당화시킨다. 그것은 파괴없는 발전이다. 그것은 자연 생태계의 파괴없는 물질적 진보이며, 환경을 보존하거나 좋게 하면서 보다 높은 생활의 질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발전이다. 이러한 시각을 성취하기 위해서 개발 계획을 감시할 수 있는 청소년의 경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노선에 따라 라모스 정부는 그 공식적인 팔인 청소년대통령위원회(Presidential Council for Youth Affairs, PCYA), 환경 및 천연자원부(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DENR), 전국 청년법률가 운동(National Movement for Young Legislators, NMYL)을 통하여 필

필리핀의 환경 상태를 평가하고 환경 보호와 신천을 위한 청소년지도자의 연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전국 청소년 환경 의회(National Youth Environmental Congress, NYEC)를 만들었다. 전 의회일정 동안의 통일된 결정으로 안전이 결정되는데, 정부 보조 뿐만 아니라 전체 필리핀 청소년 부문을 우선적인 안건으로 강조하였다.

그러나 라모스 정부가 필리핀 청소년들의 전통적인 위치와 역할로부터 현저한 도약을 이루었다고 보여지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맞물려 그 방향이나 동기를 고려해야 할 가치가 있다. 라모스 정부의 청소년 권한 부여에 대한 노력이 모두 마르코스가 KB와 함께 행한 정치적인 동기로부터 행해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다 분명한 것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이끌어졌다는 점은 명백하다. 이것은 청소년 권한 부여에 관한 MTPDP, NYDP 및 기타 대통령 창안 조직의 초안을 자문할 수 있는 청문회가 결여되고 있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청소년들의 권한 부여를 위한 진정한 노력이었다고 하면, 그들은 왜 청소년들과 적정한 선에서 상의를 하지 않았는가? 청소년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청소년지도자로 하여금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미래를 느끼게 하는 것은 정말로 그들을 위해 준비한 것인가? 필리핀 청소년을 진병으로 이끌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

## 2) 청소년의 가치(values)와 국가의 경험

필리핀 청소년들이 오랜동안 겪어왔던 경험의 양식은 그들 내에 삶에 대한 지각, 판단, 및 시각을 결정하는 독특한 가치 체계를 형성하게 하였다.

전통적으로 가치(values)는 인간 행동과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기초적인 태도와 신념으로 이해되었다. 그것은 삶에 있어서 정신적 가치(worth)나 대가(prices)를 말한다. 가치는 갖는다는 것(to value)은 활력을 갖는 것을 의미하고, 활력을 갖는다는 것은 중요한 어떤 것에 대한 긴급한 요구의 실현에 필요한 특정한 일을 하기 위한 권력을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Robeach (1968)은 가치를 관심, 즐거움, 기호, 선호, 의무, 도덕적 책임, 욕구, 욕망, 목적, 요구, 반감과 매력 및 기타 행동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선택적인 지향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사회과학자들은 가치의 개념을 교체가 가능한 행위의 내면화된 기준 또는 규범으로 사용한다.

대다수의 펠리핀 청소년들은 수동성과 창의성 부족 등의 심각한 문제로 공격을 받아왔다. 인류학자 Margaret Mead의 인성 유형에 대한 이론은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사모아 섬 사람들에 대한 그녀의 연구에서 사람들은 아동기에 그가 태어난 사회에 의해서 그로부터 기대된 행위유형을 배우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한 행위유형은 문화전달의 결과이다……. 사회의 목표는 개개인을 세계의 지배적인 관점을 갖도록 일치하게 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미드에게 있어서 인간 행위, 가치, 태도는 사회의 성원에 의해서 고착된 아동 양육 과정의 파생물이다. 그래서 사회가 아무리 역동적일지라도 문화가 굳공하면 구성원들도 또한 무기력하게 된다.

펠리핀에서 청소년들 사이의 수동성과 창의성 부족이라는 심각한 문제는 기성세대에 일반적인 보수주의 문화의 지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전통적으로 기성세대들은 성실, 견해, 판단 등의 권위를 어느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왔다. 인류학자들은 이러한 것을 가족이나 지역사회 의 어른에 대한 높은 존경을 표시하는 동양의 전통으로부터 문화적 기원을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효도(filial piety)의 개념을 어른에 대한 높은 존경으로 부른다. 그것은 어른이 오랜 동안의 생존을 위한 투쟁의 경험을 통하여 얻고 다듬어진 위대한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는 믿음으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위대한 지혜는 주로 권력이라고 주장한다. 권력은 사회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고 사회의 젊은이들 사이에 존경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들 구성원의 가치와 성격을 의도적으로 형성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펠리핀 청소년들은 어릴 때부터 복종적이고 존경적이며 인내심이 많게 단련·형성되게 된다. 권위있는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절대적인 진리로 여겨진다. 이러한 과정은 스페인의 식민지 지배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식민지 지배자들은 그것을 기독교 신앙의 교리로 하는 정신적 의미와 일치시킨다. 전통을 위반하면 지옥에서 인간 영혼을 영원한 지배하는 벌을 받게 한다고 말한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사회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청소년들은

권위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무기력하게 되고 권력에서 소외되며 쇠뇌된다. 지나친 종속의 문화가 싹트며 청소년들은 자신의 삶에 수동적이고 무관심하게 느끼게 된다.

Licuanan(1988)의 연구는 필리핀 청소년들 사이의 수동성과 창의성 부족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제시해 준다. 해야할 일을 시키기를 기다리는 것이 필리핀 청소년들 사이의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한다. 필리핀 청소년들의 태도의 문제로 자신의 일을 하는데 지도자나 정부 등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Licuanan(1988)은 이러한 것을 권위에 대한 태도와 관계된다고 한다. 권위는 청소년들에게 일을 떠맡기고 그들에게 종속시킨다. 청소년들을 권위의 의지에 복종하게 하는 일은 쉽다. 그들은 좀처럼 그들의 권위와 결정에 어떠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주어진 문제에 재빨리 반응한다는 긴박감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며 현상태에 대한 높은 만족감과 그들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도 인내하게 된다. 그 밖에 Enriquez(1989), Quisumbing(1985), Bulatao, Lynch 및 많은 사람들의 연구는 필리핀 청소년들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보다 깊게 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수동성과 창의성 부족의 문제는 권한 부여의 노력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 이 슬픈 사실은 필리핀 청소년들로 하여금 기득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소년들의 위치를 약화시키고 정신 세계를 정복하며 영속적으로 식민지화 시키기를 원하는 정치적 가해자에 의한 피해자가 되기 쉽게 한다. 최근의 3개 정부 사례는 외관상으로는 청소년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모습을 띠고 있지만 유일한 관심은 정치적 동기에 청소년들을 이용하는 것에 있는 정부에 의해서 어떻게 청소년들이 부패되고 계속적으로 교묘한 착취를 받게 되는가의 경험을 말해주고 있다. 마르코스 시기를 회상해 보면 청소년에 대한 정치적 조작과 억압을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아퀴노 정권은 청소년 운동을 우회적인 화해과정을 통하여 무력하게 하였다. 이것은 청소년 운동의 발전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게 하였다. 라모스 집권기에는 완벽하게 계획된 실천의 모범을 되찾게 되었고, 현재에는 “필리핀 2000” 프로그램의 열렬한 고객이 되었다. 모든 이러한 경험은 필리핀 청소년들을 권한부

여 프로그램 등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정부의 보조금에 의해 지내는 무기력한 거지가 되게끔 만들었다.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의제를 계획하려는 지속적인 정부의 노력은 청소년들을 무능력, 무기력하게 만들었으며 권력에서 소외되게 하였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정치적 자유에 대해 정부가 제시하는 것보다 낮게 평가하게 되었다. 그것을 결과적으로 젊은 무기력한 영혼의 제도화된 타락의 수레바퀴를 만들게 하였다. 권력은 정치 조작자의 손에 영속화되고 청소년들은 피해자로 남게 된다.

필리핀 청소년들의 또 다른 문제는 “게 심성 증후군(crab mentality syndrome)<sup>5)</sup>”을 유발하는 지위나 특권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질투심과 경쟁심을 유발하는 이기적인 특성이다. 말하자면 “Kanya-Kanya” 증후군은 각자 가지고 있는 권력과 지위에 대한 개인적 야망과 충돌에서 명백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공동의 선에 대한 완전한 무감각으로 나타난다. 개인 또는 집단 내의 이익은 공동의 이익보다 우선한다. 이것은 청소년들 사이의 봉사정신의 결여, 특히 어떤 긍정적인 직접적인 결과를 가지지 않는 일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일부 비평가들은 “Kanya-Kanya” 증후군은 마키아벨리 통치 원리(divide and rule principle)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정치적 사회에서 집단적인 정치적 당파성과 노선을 촉발시킨다.

### 3) 청소년 문화와 보수주의 문화

많은 청치가들은 청소년들의 독특한 문화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의 일부는 그 문화는 단지 과도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까지 생각한다.

그러나 청소년 문화는 학창시절을 즐기려는 청소년들의 일상적인 일과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한다. 그것은 단지 부모들의 염려와 애를 타게하는 밤늦은 귀가는 아니다. 청소년 문화는 사회의 참여 또는 관여 현상을 말한다. 변화에 주목하고 변화에 참여하며 변화된 조건에 순응하는 것은 청소년기의 표시이

5) 양동이 안에 있는 게가 서로 떨어뜨리려는 경향을 말한다.

기 때문에 청소년문화는 불가피한 사실이다. 전통은 암암리에 그러한 문화에 대해 가르치지 않았음에 틀림없다. 청소년들의 활력과 역동성 및 잠재력이 있는 곳은 바로 그곳이다.

역사는 보수주의 문화가 청소년들의 수동성 및 무관심의 전통을 어떻게 되풀이하여 가르쳐왔는가를 보여준다. 보수주의 문화는 주로 개인적 차원의 경계 내에 한정된 일상생활의 생존 경쟁에 관심을 가져왔고 역사적 사건을 형성하는 사회적 환경에는 무관심한것으로 보여진다. 그들은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커다란 사회변화를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이 고수하는 관점은 언제나 같다. 청소년들은 사회현상에 대해 비판적으로 반응하는 반면 보수주의 사람들은 사회현상을 멀리하고 기존 사회문제에 똑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잘못된 교육과 서구 선전물의 감언이설로 인하여 기성세대들은 오늘날의 청소년들의 참여에 대한 진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완전히 다르다. 삶에 대한 희망과 사회적 사건에 대한 관심 및 변화에 대한 참여는 모든 정부 지도자로 하여금 청소년문화에 대한 주의와 이해를 요구로 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청소년들의 권한부여 노력에 성실히 임한다면 그들 사이의 청소년 문화에 대한 적응 과정은 틀림없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Constantino(1971)는 이것을 전통적인 역할의 전도라고 부른다. 전통적으로 그의 부모와 활동가들은 청소년들은 사회적으로 매우 무책임할 정도로 자기 중심적이기를 기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성세대들은 그들 스스로를 사회의 과수꾼으로 보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사회에 대한 무책임은 기성세대에 그 원인이 있고 청소년들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스스로를 계획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 지도자가 청소년들에 귀를 기울이고 의견을 물어보며 읽어야 할 것을 읽게 하고 그들의 가치를 조사해야 할 불가피함이 있다.

필리핀 사회 생활의 거의 모든 면에 있는 이러한 보수주의 문화에 도전하는 것은 아주 힘이 드는 일이다. 그것은 단지 정치지도자들의 정치적 관점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 가치, 문화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보수주의라는 바이러스는 이미 오랜기간 동안 그 체제를 잠식해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힘없는 희생자이다. 청소년과 정치 지도자 간의 일치된 노력이

없으면 그 미래는 여전히 어렵게 될 것이다. 이 두 부문은 손을 맞잡고 싸움을 내면화하며 청소년에 권한이 부여된 진정한 사회의 건설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진정한 청소년에 대한 권한부여는 단지 광범위한 청소년 대중의 진정한 참여와 청소년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와 책임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고자하는 정치지도자의 무조건적인 의지가 있는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다.

보수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내부적 변화에서 나오는 태도와 가치의 변화는 다른 어떠한 수단보다도 더 효과적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그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열심히 힘을 쏟아야 한다. 사회의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청소년들로부터 발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청소년의 자유에 대한 존경에 기초하고 있는 진정한 협력은 청소년 권한부여의 본질을 성취하는데 필수적이다. 그것은 정부의 노력은 단지 청소년들을 복종시키기 위한 화해 과정으로 생각하는 청소년들의 긴장을 줄이게 한다. 결국 이것은 청소년들의 현재의 경험을 넘어서는 사회의 특정 영역에서의 값진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 4) 대안과 임무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위한 그들의 계획과 목적 및 전략을 설계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다. 그것은 진정한 청소년 권한부여를 고양하고자 하는 정부의 시각과 일치한다. 그러한 것을 위한 준비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부문과 정부 사이의 협력과 밀접한 동반자 관계가 필요하다.

● 청소년 측 :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그렇지만 책임있는 청소년 부문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부문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스스로 서고 계획하고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 부문의 가치를 입증할 것이다.

① 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을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자원에의 접근과 창의성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의 실현을 위한 통로를 마련하기 위

하여 정부와 민간기관 사이의 연계망을 형성해야 한다.

② 지방과 지구 수준에서 민주주의 선거의 유권자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③ 각 지구 수준에서 사전 청소년 법률, 정책, 변호, 협조적인 권한부여 및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로비활동에 필요한 재정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론 집단을 구성하고 대중 매체를 이용해야 한다.

④ 청소년에 관한 정부의 정책에 급속한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 청소년 권한부여에 관한 정부의 법률과 프로그램을 검토해야 한다.

⑤ 필리핀 교육 체계의 검토 및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⑥ 지구 수준에서 청소년 하부 조직을 강화 또는 확대해야 할 것이다. 지방 청소년 하부조직은 청소년 권한부여의 주요한 조직적 표현이다.

⑦ 청소년조직의 조직 역량의 개발, 지도력 개발 및 회원들에 대한 기능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여기에는 지도력과 적절한 문제에 관한 사회의식 포럼의 조직을 포함한다.

⑧ 청소년 부문의 안밖으로 동맹 또는 제휴조직을 형성해야 한다. 동맹조직은 나중에 더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목표를 지향하진만, 성격상 보통 다 부문으로 구성되고 전술적 문제 중심으로 출발한다. 제휴조직은 다양한 정치적이데올로기 경향을 띠며 특성상 한 부문 또는 다 부문으로 구성된다.

⑨ 지방 청소년조직이 바라는 기본적인 의제를 위한 지방 청소년의 하위 선거구를 축소 또는 확장하기 위해서 운동조직을 개발해야 한다.

⑩ 종합적인 청소년 부문의 의제를 설계해야 한다. 이것은 다양한 지방 하위조직에 의해 제기된 관심사항과 문제를 종합하는 것이다.

⑪ 청소년의 민주주의적 권리에 관한 대헌장의 실행 초안을 제안 및 작성해야 한다.

⑫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나 관심사항과 관련하여 하부 조직 구성원들에 정통하고 의식을 새롭게 하기 위한 하위 부문에 기초한 정규적인 대안 조직을 형성 또는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일은 청소년 부문을 응집력있고 단결력 있는 조직으로 만들 것이다.

⑬ 우호적인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부와 비정부 기관과의 조

정 및 공동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이 기회에 생산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 정부 측 : 독립적이고,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책임있는 진정한 권한부여의 본질에 도달하기 위한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노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해야 한다.

① 청소년과 관련된 프로그램 및 정책 형성에 청소년들의 자문과 참여를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② 청소년들의 잠재력, 활력 및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전통적인 신화를 제거해야 한다.

③ 청소년 부문과 권한부여 노력에 대하여 자문, 조정 및 함께 일을 해야 한다.

④ 청소년 부문의 발전을 위한 노력에 모든 형태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⑤ 필리핀 청소년 사이의 무력감의 전개 상황을 진단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⑥ 지방 청소년 하부 조직 사이의 동맹과 제휴를 이룰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⑦ 청소년들의 민주주의적인 노력과 창의성을 증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⑧ 청소년 부문과 정부 및 민간기관 사이의 연계망 설립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

⑨ 진정한 청소년 권한 부여의 목적과 일치하는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

⑩ 지역사회 중심 활동에의 참여를 권장하고 특히 교외 지역에서의 청소년들의 기업가 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청소년 협동조직의 창설을 지원해야 한다.

#### 4. 결론

민주주의적 통치 체제의 생존은 진정한 민주주의적인 이상에의 대중의 참여에 의존한다.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제시하는 목적을 믿고 활동적으로 참여

하지 않게 되면 민주주의의 이상은 꿈이나 열망으로 남게 된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에 기초해야 한다. 그것은 실제적인 사실에 기초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필리핀 청소년들은 필리핀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가피한 실재이다. 청소년들의 위대한 삶은 필리핀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싸워왔지만 도달하지 못한 해방을 성취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역사는 독립을 성취하기 위하여 독재와 부정의, 계급 착취 및 식민지 종속에 대항해 끊임없이 힘겨운 투쟁을 벌였다. 수세기 동안 필리핀 청소년들은 주도면밀한 행정당국에 의한 그들의 처우를 목격했다. 즉, 그들은 청소년들의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했으며, 근거없는 이상과 계획을 따르라고 위협했고, 청소년들이 선천적으로 가지는 힘을 부정하였다. 청소년들의 미래를 소멸시키기 위한 조치가 청소년들의 위대한 이상에 위협을 느끼는 행정당국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들의 교활한 공작은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위태롭게 하였다. 필리핀 전체 해방을 위해 포장한 길을 황폐하게 하였다.

이러한 모든 일은 과거의 역사가 아니다. 오늘날에도 필리핀 청소년들은 대개 힘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착취와 무시를 경험한다. 통치에 대한 자기 표현과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기회와 혜택이 단지 그들의 동기와 행동을 지시하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무디게 된다.

그러나 필리핀 청소년들은 그들의 곤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이 필리핀 민주주의의 잠재적인 힘을 단호하게 입증해야 한다. 그들은 깨어나서 경계와 관심을 보여야 한다. 그들은 지금의 사회 문제에 빠른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청소년들에 대한 권한 부여는 단지 라모스 정부에 의해 계획된 지속적인 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를 돕는 일에 청소년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청소년들의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이상으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어떠한 형태의 사회범죄에 대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특별히 경계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필리핀 청소년들은 그들의 잠재력을 인정하여 권익과 복지의 발전을 위해서 그들의 잠재력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들은 전체적인 부정과 적대적인 태도가 아니라 그들은 정치화되지 않은 대중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관용의 정신으로 정부와 싸워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성공을 통하여 어느 정도 사회의 다른 부문에서 그들의 대의 명분을 회복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능력을 시험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청소년 권한부여를 위해서 청소년에 관한 주요한 전망과 문화에 관한 모든 노력이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효과적이다.

청소년 권한부여 노력에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점들은 다음과 같다.

① 각 정부가 가지고 있는 틀 내에서 청소년들에게 권한을 주려는 3개 정부의 노력은 단지 청소년들과 정부 사이의 목표와 전략의 차이의 이중성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다. 소위 정부에 의해서 청소년을 위해 개념적으로 준비된 이중 문화의 올라미는 필리핀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관심에 민감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동기는 청소년들의 진정한 권한 부여와 거리가 멀게 나타났다.

② 아래로부터 민주화라는 개념이 파고가 일게 됨에 따라 다양한 권한부여의 모형이 청소년들을 사회정치적 사다리로서 등급을 매기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통치에 대한 청소년들의 진정한 자문과 참여에 변화를 가지게 되었음에 틀림없다. 이리하여 청소년들은 그들의 현재적 상황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한다.

③ 정부에 의한 청소년 프로그램은 검토되어야 한다. 정부는 청소년들에게 정부의 계획과 시각을 부여해서는 안되며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개발할 보다 많은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정부에 의해서 계획된 청소년 계획은 간접적으로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잠재력을 파괴하게 된다. 결국 그러한 것들은 청소년들의 삶을 계속적으로 종속적으로 복종하도록 하는 자동 추종자로 만들어내게 된다.

④ 정부는 참여자로서의 청소년과 방관자로서의 청소년간의 현저한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보편적으로 청소년들은 정치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즉, 청소년들은 주로 여론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들은 대개의 경우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무관심하지 않다. 청소년들은 그들의 이상이 실현되는 것을 지켜보는 데 커다란 관심이 있다.

## 부 록

|     |  |  |  |  |
|-----|--|--|--|--|
| I.D |  |  |  |  |
|-----|--|--|--|--|

## 지방화와 청소년 참여활동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청소년육성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문화체육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청소년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들의 지방화에 대한 의식과 지역사회 참여 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설문지의 응답내용은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한 문항이라도 빠뜨리지 말고 솔직하고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995년 ○월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60번지 (137-130)

Tel) 578-7922/7923

I. 다음은 여러분이 현재 살고있는 지역사회와 지방자치에 대하여 평소 알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는 바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V표 하시기 바랍니다.(1~13)

전 혀 별 로 그 지 다 소 매 · 우  
그렇지 그렇지  
않 다 않 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1. 우리 지역의 명소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안내하거나 소개할 수 있다.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2. 우리 지역 사람들은 이웃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서로 알고 지낸다.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3. 우리 고장의 지방의회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4. 나는 가능하면 우리 고장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싶다.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5. 우리 지역사회(시, 군)는 지역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6. 우리 지역의 사람들은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돕고 지낸다.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전 혀 별 로 그 저 다 소 매 우  
 그렇지 그렇지  
 않 다 않 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7. 우리 지역사회(시, 군)는 민주적  
 으로 운영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8. 지방자치는 지역사회의 경제발전  
 과 복지의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

9. 지방자치체의 실시는 지역행정과  
 정책결정에 주민들의 의사를 많  
 이 반영하게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

10. 지방자치체의 실시는 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  
 감을 느끼게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

11. 지방자치체의 실시로 지역대표  
 나 공무원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

12. 나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  
 (고장)을 좋아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

13. 지방자치체의 실시는 지역주민  
 들의 민주주의 의식을 성장시  
 켤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

II. 다음은 지역사회 문제의 인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0)

14.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문제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2가지만 답하시오)

(14-1)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_\_\_\_\_

(14-2) 두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_\_\_\_\_

15. 지역사회의 문제는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됩니까?

- (1)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 (2) 지역 홍보물을 통해서
- (3) 선생님을 통해서
- (4) 친구를 통해서
- (5) 부모님을 통해서
- (6) 이웃 또는 친지를 통해
- (7) 스스로의 경험에 의해서

16.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지역사회 행정기관(시, 군)의 태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 (1) 매우 적극적이다.
- (2) 적극적인 편이다.
- (3) 그저 그렇다.
- (4) 소극적인 편이다.
- (5) 매우 소극적이다.

- (1) 직업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 및 직업훈련 활성화
- (2) 청소년 우대제도 마련
- (3) 청소년을 위한 건전 직업, 아르바이트 육성
- (4)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유해환경 규제
- (5) 청소년지도자 양성
- (6)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 여가시설 확충
- (7) 청소년 교양 프로그램 제작(TV, 라디오, 신문 언론매체)
- (8) 불우청소년에 대한 관심, 계몽
- (9) 비행청소년이나 불량 서클 단속 강화

( )

- ① 지역사회 문제를 조사하여 기록을 남긴다.
- ② 선생님 등 주위 사람과 지역문제에 대해 이야기 한다.
- ③ 관련 문제에 대한 세미나나 토론회에 참여한다.
- ④ 지역문제에 관련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 ⑤ 해당 행정관청에 문제해결을 요청한다.
- ⑥ 지역 신문사나 지역방송국 등에 알린다.
- ⑦ 반상회나 어른들이 모였을 때 이야기한다.
- ⑧ 지역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에 호소한다.
- ⑨ 정부관리나 정치인을 직접 찾아간다.

19. 위의 18번의 <보기 1>중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가지만 골라 해당되는 번호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20.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 (1)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홍보
- (2) 청소년의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참여의식의 제고
- (3) 청소년들의 참여 활동에 대한 기성세대의 인식
- (4) 청소년의 참여 활동 분야의 개발

Ⅲ.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는 환경운동, 평화운동, 사회봉사활동 등을 중심으로 전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요구가 점차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설문에 대하여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바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21-24)

21. 그동안 지역사회에 대한 청소년들의 참여 정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니까?

- (1) 매우 활발히 이루어졌다.                      (2) 활발히 이루어진 편이다.
- (3) 그저 그렇다                                      (4) 참여가 부진한 편이다.
- (5) 참여가 전혀 없었다.

22.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에 대하여 기성세대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 (1) 매우 부정적이다.                              (2) 부정적인 편이다.
- (3) 그저 그렇다.                                      (4) 긍정적인 편이다.
- (5) 매우 긍정적이다.

23.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는 어떤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민주주의 생활태도를 형성한다.
- (2)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 (3)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소속감)이 확대된다.
- (4) 지역사회 행정에 청소년들의 요구가 반영된다.
- (5) 기 타( )

24.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는 어느 정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지역사회에 대하여 관심과 애착을 갖는 것에서 만족해야 한다.
- (2) 재정적 또는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지역사회 관련 모임 또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앞장서서 모임을 만들거나 행사를 이끌어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IV. 다음은 지역사회를 위해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 여러가지 자원봉사 활동을 제시한 것입니다. 항목별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여하고 싶은 정도는 어떠한지 여러분의 경우 해당되는 번호에 V표 하시기 바랍니다. (25-38)

|                                           | 반 드 시<br>참여한다 | 가능하면<br>참여한다 | 그 저<br>그렇다 | 참여하지<br>않 는 다 |
|-------------------------------------------|---------------|--------------|------------|---------------|
| 25. 유아원, 유치원 같은 시설에서<br>어린이들을 돌보아 주는 일    | ①             | ②            | ③          | ④             |
| 26. 놀이터, 학교기재 공공설비 등의<br>구조물을 만들거나 수리하는 일 | ①             | ②            | ③          | ④             |

|                                                                                     | 반 드 시<br>참여한다 | 가능하면<br>참여한다 | 그 저<br>그렇다 | 참여하지<br>않 는 다 |
|-------------------------------------------------------------------------------------|---------------|--------------|------------|---------------|
| 27. 강, 호수, 공원, 산 등을 깨끗하<br>게 만들거나 환경을 가꾸는 일<br>(지역환경보호운동 참가)                        | ①             | ②            | ③          | ④             |
| 28. 지역사회 발전이나 다른 좋은 일<br>을 위해 자선기금을 모금하는 일<br>(지역사회 자선 이벤트 참여, 각<br>종 바자회 등)        | ①             | ②            | ③          | ④             |
| 29. 지역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토<br>론회에 참여하거나 청소년토론<br>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기                             | ①             | ②            | ③          | ④             |
| 30. 혼자 사는 노인이나 장애인들을<br>위해 집을 방문하여 점검하고 도<br>와 주는 일                                 | ①             | ②            | ③          | ④             |
| 31. 직접 헌혈을 하거나, 헌혈캠페인<br>에 참여하기                                                     | ①             | ②            | ③          | ④             |
| 32. 아동들을 위해 음악, 연극, 댄스,<br>인형극 등을 준비하거나 직접 작<br>품을 공연하는 일                           | ①             | ②            | ③          | ④             |
| 33. 사회적인 사건, 공공안전, 기타<br>다른 주제들에 대한 정보를 여러<br>가지 방법으로 알리는 일(보건환<br>경 등 지역사회 문제 알리기) | ①             | ②            | ③          | ④             |

|                                                                            | 반 드 시<br>참여한다 | 가능하면<br>참여한다 | 그 저<br>그렇다 | 참여하지<br>않 는 다 |
|----------------------------------------------------------------------------|---------------|--------------|------------|---------------|
| 34. 재활용에 대한 홍보와 재활용품들을 모으고 분류하고 재생하는 작업에 참여하는 일<br>(물건바꿔쓰기, 재활용품 개발하기)     | ①             | ②            | ③          | ④             |
| 35. 개인교습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어린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교사들과 같이 협조하는 일<br>(동네아이 돌보기, 학습지도) | ①             | ②            | ③          | ④             |
| 36. 병원이나 양로원, 고아원, 정신지체아 수용시설 방문하기                                         | ①             | ②            | ③          | ④             |
| 37.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레크레이션을 함께 하거나 야외활동에 참여하고 지도하는 일                            | ①             | ②            | ③          | ④             |
| 38. 지역사회에 공공정보를 알리고 공원안내도, 포스터 등을 제작하거나 지역신문 만들기                           | ①             | ②            | ③          | ④             |

V. 다음은 여러가지 청소년들의 지역참여 활동 중에서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 내용입니다.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바대로 해당하는 번호에 V표 하시기 바랍니다.(39-43)

39. 지금까지 자원봉사활동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1) 있다. (2) 없다.

40.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어떤 것입니까? 2가지만 적어 주십시오.

(40-1) \_\_\_\_\_

(40-2) \_\_\_\_\_

41.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 (1)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  
 (2)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통해 원만한 인성을 기를 수 있다.  
 (3) 스스로 할 일을 찾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다.  
 (4) 이웃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공동체의식을 기를 수 있다.  
 (5)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이 어떤 것인지 진로선택 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6) 기 타 ( )

42. 자원봉사활동에는 어떤 형태로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 (1) 학교 봉사활동 동아리에 가입한다.  
 (2) 학교 선생님의 소개로 봉사할 기관에 배치받는다.  
 (3) 지역 청소년단체의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4) 친구들과끼리 팀을 짜서 봉사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한다.  
 (5) 생활하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일에 개별적으로 참여한다.  
 (6) 기 타 ( )

43.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 참여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1) 학교공부와 성적에 관심을 갖다보면 시간이 나지 않아서
- (2) 부모나 기성세대가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 (3) 스스로도 참여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해서
- (4) 어떻게 참여해야 할 지 그 방법을 몰라서
- (5) 청소년들이 참여하거나 봉사할 수 있는 일이나 프로그램이 없어서

VI. 여러분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래의 문장을 잘 읽어보신 후에 자신의 의견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 답해 주십시오. (44-49)

전    혀    별    로    그    저    다    소    배    우  
그렇지    그렇지  
않    다    않    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44. 길거리에 담배꽂초나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주워야 한다.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45. 우리 이웃에 어렵게 살고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나 소년소녀가장이 있다면 도와주어야 한다.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46. 우리 지역 근처의 강이나 호수에 공장 폐수가 유입되면 이를 신고해야 한다.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전 혀 별 로 그 저 다 소 매 우  
그렇지 그렇지  
않 다 않 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47. 청소년(학생)이라도 기회가 생  
긴다면 부업을 갖거나 경제활동  
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②      ③      ④      ⑤  
|-----|

48. 우리 마을에 쓰레기 소각장이나  
핵폐기장을 설치하면 이를 결코  
묵과해서는 안된다.

①      ②      ③      ④      ⑤  
|-----|

49. 학생들도 정치가 잘못되어가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정치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VII.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물음입니다. 해당되는 경우를  
답해 주십시오.(50-55)

50. 성별은?

(1) 남

(2) 여

51. 재학중인 학교는?

(1) 중학교

(2) (인문계)고등학교

(3) (실업계)고등학교

(4) 대학교

52.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아래 〈보기 3〉과 같이 써 주십시오.

( \_\_\_\_\_ 특별(광역)시·도 \_\_\_\_\_ 구·군 )

|                           |                               |
|---------------------------|-------------------------------|
| _____ 〈보기 3〉 _____        |                               |
| <u>서</u> <u>울</u> (시) · 도 | <u>강</u> <u>서</u> 시 · 군 · (군) |
| <u>경</u> <u>기</u> 시 · (도) | <u>김</u> <u>포</u> 시 · (군) · 구 |

53. 현재 살고 있는 지역(시, 군)에서의 거주 기간은?

- (1) 이 지역에서 나타나서 현재까지
- (2) 5년 미만
- (3) 5년 ~ 10년
- (4) 이 지역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10년 이상

54. 현재 청소년단체에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55. 우리나라의 전체 생활수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여러분 가정의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아주 잘 사는 편이다
- (2) 대체로 잘 사는 편이다.
- (3) 보통이다.
- (4) 대체로 못 사는 편이다.
- (5) 아주 못 하는 편이다.



**수 고 하 셴 습 니 다**



혹시 빠진 문항이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Youth and Community Participation**

- I . Young Political Actors
  - : Targetting New Areas of Citizenship in France
- II. Les Jeunes Acteurs du Politique
  - : Vers de Nouveaux Espaces de Citoyenneté en France
- III. Youth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Activities in U.S.
- IV. A Quest for A Paradigmatic Framework for Youth Empowerment
  - : Comparative Study of Three Government Administrations' Approaches to Effective Youth Mobilization

# Contents

## I. Young Political Actors : Targetting New Areas of Citizenship in France

1. Historical Elements
2. Childrens' and Young Peoples' Town Councils
3. Will I Be A Councillor When I Grow Up? An Analysis of Experiences
4. Young Peoples' and Adults' Democratic Forums
5. Targetting Innovative Areas of Citizenship

## II. Les Jeunes Acteurs du Politique :Vers de Nouveaux Espaces de Citoyenneté en France

1. Éléments Historiques
2. Les Conseils Municipaux d'Enfants et de Jeunes
3. Petit Élu Deviendra Grand? Analyse des Expériences
4. Les Forums Démocratiques Jeunes/Adultes
5. Vers des Espaces Innovants de Citoyenneté

Éléments Bibliographiques

## III. Youth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Activities in U.S.

1. Introduction
2. Education
3. Education through Different Media
4. Actual Involvement
5. Conclusion

Reference

## IV. A Quest for A Paradigmatic Framework for Youth Empowerment : Comparative Study of Three Government Administrations' Approaches to Effective Youth Mobilization

1. Introduction
2. Overview of the Scope
3. Defining Concepts and the Framework Used
4. Four Areas for Discussion
5. Conclusion

Endnotes

Reference

# Young Political Actors

## Targetting New Areas of Citizenship in France

Olivier Douard\*

In our country the analysis of already obsolete data, frequently relayed by an unsubtle press, has placed particular stress in recent years on what could pass as a disenchantment of young people with regards to policy. Perhaps this related move to those politics over which the political parties virtually have the monopoly rather than to politics in the sense in which the *Res Publica* is run.

There are numerous examples to show us that citizenship is going through a crisis. The most striking are an electoral abstaining which is too persistant to be explained away in conjectural terms as well as declining trade unionism and a weakening of community militantism, as stated in the report on the citizenship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of the National Council for Community Education and Youth (CNEPJ) in 1991.<sup>1)</sup> If we retain the definition that by citizen we mean each individual recognised by the city as one of its members, then citizenship as such also applies to children and to the under 16's. It seems evident that the attitude of society with regard to young people has evolved over these past few years and that their right and capacity to have an opinion on those matters affect-

---

\* Sociologist, National Institute for Youth and Popular Education (INJEP)

1) Report of the commission "Citoyenneté des enfants et des Jeunes" du Conseil National de l'Éducation Populaire et de la Jeunesse, présenté par Patrick LÉTANG. — Paris, 20 Avril 1991.

ing them directly is more readily admitted.

It is within this perspective of offering a greater place to young people in the collective construction which characterises all democratic society that the commission of CNEPJ concluded its report in these terms : “...it is essential at local level to create the dynamics which can bring about those conditions enabling children and young people to effectively exercise their citizenship”.

This CNEPJ report marks a stage in community reflexion on the subject in France. Furthermore, it is contemporary to the ratification by France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ren. This particular conjuncture has favoured new modes of citizen's involvement amongst young people and of civic education.

## 1. Historical Elements

Apart from the family, the first essential rung for children in the educational ladder, learning about citizenship in France is above all, and has for a long time, been provided by the Republican School. Since the end of the XIXth century, it has endowed itself with the task of securing national unity based on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Human and Citizens' Rights.

This is best achieved through civic education taught as an academic subject in much the same manner as mathematics or history. But at the very heart of the State Education system, those movements who set themselves the target of contributing to the renovation of the School, and which come under the heading of the New Education movement plan to put into place a whole new practice of civic education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Amongst those worthy of mention are the cooperative classes, the inspired educational approaches of Celestin FREINET. Later on, the system of class delegates<sup>2)</sup> also contributed to the acquisition of a cit-

izen's awareness.

And linking in with the School, the sector of Community Education organisations and youth movements historically formed as a parallel to the State Education system, have also included the training of the young citizen in their objectives.

This is, in particular, the case of movements such as the "Franes et Franches Camarades" (known today as the "Francas") which makes up the federation of non-denominational leisure centres, and which from the very outset reflected upon and practised the citizenship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through socio-educative and leisure activities. But other organisations should be cited such as the Scouts, Youth Hostels, Children's Catholic Action, and those youth movements more or less linked to political parties such as the "Movement for Working Class Children" (Red Falcons, linked to the Labour Party) who set up the "Children's Republics", the Pioneers, the "Valiant Young Boys and Girls" (linked to the French Communist Party).

Beyond this joint filiation of New Education and Community Education the model of Councils was also inspired by the reflexions of town planners, of psychoanalysts, of social science researchers. The formula became "urbanised" by establishing itself in the "new towns", towns without a history, thrown together to relieve the overcrowded cities. The first experiences of councils date back to the 70's, but the first one of any consequence was a small commune in Alsace : Schiltigheim<sup>3)</sup> It was set up in 1979, after the International Children's Year. The Mayor of Schiltigheim went on to set up an organisation of Mayors who took an interest in the

---

2) ROUDET (Bernard) .— Conseil des délégués et droits des élèves. Quelle citoyenneté des lycéens pour quelle évolution du système scolaire.— Savoir Éducation Formation, n° 3, 1994.

3) JODRY (Claire) .— A 13 ans, déjà citoyen ! — Éd. SYROS : Paris, 1987.

subject : the Town Convention of Youth Councils. The first congress of Childrens' and Young Peoples' Town Councils took place in 1987. This was followed in 1988 by an international colloquium at Angoulême. Today in France there are about 750 Childrens' and Young Peoples' Town Councils. Similar councils have come into existence over the past few years in other countries such as Germany (11 councils), Belgium (27), Spain (1), Hungary (9), Italy (6), Poland (9), the Czech Republic (1), Romania (4), Switzerland (13)<sup>4)</sup>, and even more recently more countries have joined in such as the United Kingdom, Norway, Denmark, Finland, Portugal and the Netherlands. Not all these youth councils are town councils in the strict sense of the term, but they all concern areas at local level which consequently integrates them into a local development issue, whether it be a neighbourhood, a country, a region or even a secondary school.

## 2. Childrens' and Young Peoples' Town Councils

Their aim is to offer concrete training in democratic life through active participation in projects which improve the quality of life in inner city areas, particularly that of young people.

These councils are generally made up of 20 to 40 young people elected by their peers for one or two years. Their task is to construct, propose and even participate in the implementation of projects concerning young people in the commune. As opposed to adult Town Councils, Childrens' and Young Peoples' Town Councils only have one consultative voice in the management of the neighbourhood. But their concern is quite obvious with regard to the objectives targetted :

- to be heard by adults, and especially by the authorities

---

4) ANACEJ, October 1994.

- put forward proposals
- take part in the social life of their neighbourhood
- experience active civic instruction and concrete for adults
- listen to the requests of young people and apprehend them
- consult young people on projects which concern them
- institute better forms of democratic training

Although all Childrens' and Young Peoples' Councils function slightly differently from one another they do nevertheless have one common characteristic, i.e. :

- there is no legal status
- the public which is targetted is very broad (children and young people, flexible notions which enable the council to adapt to demands and needs on an individual basis and evolve according to circumstances);
- there is no need for specific equipment (such as in Youth Hostels or Social Centres)
- there is no requirement for a specific professional supervisor, qualified for this undertaking. Although an adult is always present, they can just as easily be a professional youth worker, or a teacher, or perhaps even a parent, or a town councillor.
- there are no set rules on how to function, each council works out its own operational rules.

Although concrete functioning of the councils is very varied from one place to another, it can generally be said that : at the end of the electoral process for members of the council, each young elected member participates in a committee. The committees meet once or twice a month to set up projects. They do this with an adult worker. The manner which committees are run and the respective roles of children and adult is an ever-recurring subject of debate. During the first ANACEJ congress in 1991, it

was one of the most eagerly awaited workshop themes. It was pointed out that : “good management of committees is one of the major corner stones to successful operational councils. It requires alertness, an ability to listen and receptiveness to what young people have to say.”<sup>5)</sup>

The topics which come up most frequently in committees concern sports and cultural leisure activities, the environment, human rights, solidarity, improvement and provision of amenities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the link up with school. Once a term, elected members hold a plenary session and discuss the projects of each committee. When a project is selected by the youth council, it is then proposed to an adult town council which in turn delivers its opinion as to the feasibility of that particular project and votes funding if necessary. The childrens’ town council usually disposes of an autonomous operating budget.

### **3. Will I Be A Councillor When I Grow Up ? An Analysis of Experiences.**

The experiences of councils is relatively recent since the very first date back to 1980 and only really affect a small number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relation to the total population. Nevertheless, there are already lessons to be learned and we can distance ourselves sufficiently to wonder as to the effects of these councils on young people.

As trainers<sup>6)</sup> from the National Institute for Youth and Popular Education, responsible for the training of the youth workers of councils have pointed out, these are often located somewhere between the dream and re-

---

5) Soyons acteurs et citoyens! .— Congrès national des Conseils Municipaux d’Enfants et de Jeunes, ANACEJ : Laval, 4 et 5 Mai 1991.

6) Guide méthodologique de formation à l’animation des conseils d’enfants et de jeunes .  
— Les Dossiers pédagogiques de l’INJEP, n° 5, 1995.

ality.

The dream of young elected members and of some adults to transform the commune and make it more attractive and user friendly in everyday life, and the reality, financial constraints, political goodwill, administrative hold-ups, different institutional forms of logic and lobbying, which is not always to the advantage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Let us start by recalling some of the most classical difficulties encountered when setting up councils. They essentially concern two aspects : the representativeness of young elected members and the manner in which councils are run.

With reference to the former, there considerable criticism has been levelled at the manner of operating, seen as short on democracy and excessive on elitism. Although an improvement can be seen in the modes of election of young elected members by their peers, it is evident that they have not managed to disengage themselves entirely from a process of social duplication. Children estranged by the socio-cultural situation of their family from the democratic life of the country are much more difficult to mobilise and involve than those whose families are more socially and culturally integrated. The proximity of councils to schools can paradoxically accentuate this problem, since the inegalitarian step of offering special back-up to the most disadvantaged is the only way of improving the situation. The second point which like the first is perpetually under review by the organisations and federations of councils brings to the forefront the difficulty of making these councils a genuine open forum for the expression of young people. This difficulty relates directly to the problem of running the councils. The adult, in order to enable and encourage the expression of young people, must know when to be self effacing and not to infer his/her own views and yet be able to bring things back to the constraints of reality at the appropriate moment. Adults must also be attentive and

ensure that the larger than life civic education exercise affects the greatest number possible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beyond the elected members who by necessity are not numerous.

Other elements of the report need at least to be quoted if we wish these experiences to be helpful to others and passed on as much as possible : such as the following aspects :

- The necessity of monitoring the progress of files dealt with by young people
- The external transmission of council deliberations
- The difficulty of breaking away from the numerous points of reference of the adult world which strangle the true expression of young people.
- The difficulty of perpetuating the actions of councils and sustaining their cumulative skills, the complete changeover of a council can sometimes occur very quickly.
- The value of ensuring the support of local youth organisations, who can incorporate the work of councils into broader socio-educative and cultural projects.
- The urgency of sheltering the council from political changes or modifications in the organisation of administrative services.
- The necessity of looking at the institutionalisation of councils as an effective working tool.

Apart from taking into account these critical elements it is perhaps also necessary to wonder what happens to these young elected members once they have completed their term of office.

As we hinted above, we now have an observable first generation, since the first elected children are now adults and therefore citizens with a right to vote and an eligibility.

It was this question in particular which interested the Institute for Chil-

dren and for the Family (IDEF) and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Childrens' and Young Peoples' Councils (ANACEJ) in a study<sup>7)</sup> carried out in 1993 in 15 councils throughout France. This was followed by a preliminary study commissioned by ANACEJ in 1994 so as to define the possible framework for research into the repercussions of the passage into councils on previous junior elected members. This preliminary study, carried out by Nathalie Rossini<sup>8)</sup>, provides several openings for reflexion and a number of hypotheses concerning the relations fostered between these ex-elected members and politics, the world of municipal institutions and voluntary organisations, and ultimately how they see themselves as actors in their environnement.

So will I be a councillor when I grow up? Nathalie Rossini points out that : "the real question to put to childrens and young peoples' councils is not that one... We would be rather more inclined to talk of councils in terms of social experience as referred to by François Dubet<sup>9)</sup>, insofar as it enables these young people to construct their experience and the sense of their relation with the surrounding world by positioning themselves as an actor. A stage in the life of a young person, not the only one, nor an end to it self<sup>10)</sup>".

The passage into a council, far from being a magic formula able to resolve the participation of young people is presented as a unique and unforgettable experience. Young people learn about public spiritedness and experience it directly. They have the possibility of acquiring knowledge,

---

7) ROSSINI (Nathalie) et VULBEAU (Alain) .— Les conseils municipaux d'enfants et de jeunes : à la recherche d'un dispositif de participation.—Éd. ANACEJ-FAS-IDEF : Paris, 1994.

8) ROSSINI (Nathalie) .— Pré-étude sur les répercussions de la participation des jeunes aux conseils.—Éd. ANACEJ : Paris, 1994.

9) DUBET (François) .— Sociologie de l'expérience .—Éditions du Seuil : Paris, 1994.

10) ROSSINI (Nathalie) .— Petit élu deviendra grand...? .— AGORA Débats Jeunesses, n° 2, 1995.

what is a town hall, and know-how, such as how to monitor projects, but also self-confidence, how to speak in public, listen etc. These skills appear to have a lasting effect and although it might prove impossible today to establish a link between participation in a youth council and a future as a politically elected adult member, it is clear that these young people have a better understanding and a greater respect of the democratic proceedings of representation.

#### 4. Young Peoples' and Adults' Democratic Forums

The limited and sometimes rather artificial experience of the CMEJ which mostly concern children of 8 to 12 years old, seem less suitable for the older age groups : “...It is an age when they tend to reject a considerable number of things and many are in danger of dropping out if we only offer this form of representativeness. Working with young peoples' committees, giving them a chance to speak and responsibilities with regard to actions conducted in their neighbourhood is a fundamental step towards citizenship and prevention...”<sup>11)</sup>.

It is precisely this limit in the formula of councils which has brought about experiments in other approaches to the citizenship and social integration of young people. We could quote “Young Peoples' Committees” or “Neighbourhood Committees”, we have chosen to evoke the Young Peoples' and Adults' Democratic Forums which are an interesting and original example. They aim at “bringing the city to life, i. e. overall society and the institution by creating a dialogue between generations at the level of communes. They seek to introduce regular organised and permanent discussion between generations of a same area”<sup>12)</sup>

---

11) “Les conseils d'enfants et de jeunes” .— Tremplin, n° 2, 1995.

Behind these first experiments, not so numerous, lies a small team of anthropologists<sup>13)</sup> which claims that faced with inner city issues the mere fact of querying is a therapy unto itself. Although the results of those first democratic forums such as Athis-Mons (near Paris) Poitiers or Grigny, might appear in rather a pale light, they do at least exist and can lead to developments of a more advanced form and probably better adapted in other areas.

Forums encourage a social intermixing of young people from all backgrounds especially from that of immigration. Desired and supported by the towns concerned, the basic principles of Forums are independence, secularity and pluralism.

In concrete terms this approach implies three public forums per year which constitute the highlight. These forums deal with questions put by young people through a previously conducted survey on a specific topic and the recording of open-ended questions. "Adult-repliers" have the task of perpetuating this approach and of linking into other local projects. These forums now replace more traditional forms of intergenerational dialogue which have disappeared and attempt to surpass the obvious difficulties of communication and of understanding.

However interesting this form of involvement of young people in inner city life might be, it is nevertheless subject to criticism of certain aspects worth mentioning since they are directly related to the problem of democratic expression.

Firstly and this is probably the most relevant criticism with regard to the mobilisation of actors young people within this process find that their

---

12) Ministère de la Jeunesse et des Sports et Institut de l'Enfance et de la Famille .— Les Forums démocratiques jeunes-adultes.— in Jeunes mais citoyen. Quelle éducation pour quelle citoyenneté—Ed?. IDEF : Paris, 1995.

13) Centre d'Auto-analyse Anthropologique.

very own questions are hijacked. At the very best they are reformulated and expressed in public by other young people, at worst they are neither retained nor followed up often resulting in an understandable feeling of frustration.

Furthermore such a rigid manner of functioning does not allow for a multiplicity of responses to a single question. This reality has the perverse and risky effect of conferring the status of “correct answer” to the one and only response prone to a question.

There is an obvious disconnection from the concrete reality of problems as a consequence of the rupture between the question and its “staging”, as one of the elected members of Athis-Mons says : “whilst the form itself the staging of a public debate, like the “TV” makes stereotypes unavoidable and produces the image of a caricatural world, I am nevertheless confident of the educational benefits of these forums”<sup>(14)</sup>.

Finally, and this is perhaps the most important point these one off experiences all suffer from a true experimental status which would allow for an analysis based upon a form of designed assessment and from a control by a reference group. Without that, the analyses are often partial in both senses of the term and their poorly managed hit and miss approach is likely to make it difficult to appraise these forums in their original state.

At the present time it is those independent areas or organisations unrelated to the initial experiments who are picking up on the original formula of citizens’ involvement of young people and trying to move forward. But it is also likely that the imminence of the objectives of the Young Peoples’ and Adults’ Democratic Forums and the Childrens’ and Young Peoples’ Councils might lead to organisations like ANACEJ taking over and going

---

14) DOUARD (Olivier) .— Lieux de jeunes. Entretien avec une élue .— AGORA Débats Jeunesses, n° 1, 1995.

to the root of this problem. Structured research, of public or private status, is still needed and it will not be at all surprising to see this emerge in the coming months.

## 5. Targetting Innovative Areas of Citizenship

Although some modes of citizens' involvement reflect a certain duplication, they co-exist alongside substitutive innovations of traditional forms of political enrolment. Allowing young people to effectively exercise their citizenship requires the creation at local level of concrete training areas which combine the educational and the experimental.

All these initiatives implicitly and paradoxically claim that the more collective attachments we have the greater our sense of being an individual. Concrete responsibilities (within their capabilities) in the management of projects with overall social repercussions seems to be the best line to take to involve young people from the inner city on a long-term basis.

But today whereas some of these modes reflect a certain duplication, they co-exist alongside substitutive innovations of traditional forms of political enrolment which are worthy of consideration.

Although for us the desire to see young people as "political actors" focuses the debate on these three terms :

**disenchantment, duplication, innovation,** it is quite likely that the reality is much more dialectic and that the interesting new forms of youth citizenship will be the outcome of the combination of these three hypothetical developments. This is being given further consideration within the councils and the cooperation of ideas and exchanges of good practice at European level will doubtless lead to new and original proposals being put forward. Hence the Commission of European Communities is financing a large European gathering initiated by the National Institute for

Youth and Popular Education (INJEP), and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Childrens' and Young Peoples' Councils (ANACEJ) which will take place in November 1995 in Strasbourg (France). The opening-up to other international experiences is manifest and emerges as a point of consensus in the preparatory work of the European steering group for this gathering<sup>15)</sup>.

This objective of training young people for citizenship doubtless implies, as is the current view of certain community education organisations, the need to create a local dynamic, a synergy tinged with co-education, enabling children and young people to effectively exercise their citizenship. It is therefore vital for adult groups to give a political verdict on the place of the child within the inner city so as to set up well thought out and long-term projects.

Afterwards, thanks to this momentum, varied and original actions can come into being in accordance with the complex requirements of the local environment. The wealth of these experiences, which need to be shared and analysed, will be a major asset to the emergence of a new society project aiming at reducing inequality, fighting against exclusion of all kinds and restoring to young people their rightful place as citizen-actor.

---

15) ANACEJ.— Synthesis of the european youth gathering preparation.—  
ANACEJ : Paris, 1995.— Non published.

# Les Jeunes Acteurs du Politique :

## Vers de Nouveaux Espaces de Citoyenneté en France

Olivier Douard\*

Dans notre pays des analyses de données déjà anciennes, relayées par une presse souvent sans nuance, ont mis l'accent ces dernières années sur ce qui pouvait passer pour une désaffection des jeunes à l'égard de la politique. Peut-être s'agissait-il d'ailleurs plus de "la" politique — celle dont les partis politiques ont le quasi monopole — que "du" politique, au sens de la gestion de la Res Publica ?

Ainsi les exemples sont nombreux qui montrent une citoyenneté en crise. Les plus frappants sont d'une part "l'abstentionnisme électoral trop persistant pour s'expliquer seulement par des raisons conjoncturelles, tout comme le constatait le recul de la syndicalisation et l'Éffaiblissement du militantisme associatif", comme le rapport sur la citoyenneté des enfants et des jeunes du Conseil National de l'Éducation Populaire et de la Jeunesse (CNEPJ) en 1991<sup>1)</sup>.

Si l'on retient comme définition qu'est citoyen tout individu reconnu par la cité comme étant l'un de ses membres, alors la citoyenneté ainsi comprise s'applique aux enfants et aux jeunes mineurs. Il semble clair que le regard de notre société vis-à-vis des jeunes a évolué en quelques années

---

\* Sociologue, Institut National de la Jeunesse et de l'Éducation Populaire (INJEP)

1) Rapport de la Commission "Citoyenneté des enfants et des Jeunes" du Conseil National de l'Éducation Populaire et de la Jeunesse, présenté par Patrick LÉTANG. — Paris, 20 Avril 1991.

es et qu'il est de plus en plus reconnu aux jeunes le droit et la capacité à émettre un avis sur la situation sociale qui est la leur.

C'est dans cette perspective de donner une place aux jeunes dans la construction collective qui caractérise toute société démocratique que la commission du CNEPJ conclue le dit rapport en ces termes :

“...il convient au plan local de créer la dynamique pouvant aboutir partout à la réalisation des conditions permettant aux enfants et aux jeunes d'exercer effectivement leur citoyenneté”.

Ce rapport du CNEPJ marque une étape dans la réflexion associative sur le sujet en France. Il est, de plus, contemporain de la ratification par la France de la Convention des Droits de l'Enfant.

Cette conjoncture particulière a favorisé de nouvelles modalités d'implication citoyenne des jeunes et d'éducation civique.

## 1. Éléments Historiques

En dehors de la famille, première sphère éducatrice de l'enfant, l'apprentissage de la citoyenneté en France est d'abord, et depuis longtemps, assurée par l'École républicaine. Elle s'est donné pour mission, dès la fin du XIX<sup>ème</sup> siècle, de réaliser l'unité de la nation sur les principes fondamentaux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Cet apprentissage passe avant tout par l'instruction civique, enseignée comme une matière scolaire au même titre que les mathématiques ou l'histoire. Mais au sein même de l'Éducation Nationale, des mouvements qui s'étaient donné pour objectif de contribuer à la rénovation de l'École, que l'on regroupe sous le vocable de mouvement d'Éducation Nouvelle, vont mettre en place des pratiques qui contribuent à l'éducation citoyenne des enfants et des jeunes. Il faut citer là les classes coopératives, les démarches pédagogiques inspirées de Célestin FREINET. Plus tard le système des

délégués de classes<sup>2)</sup> contribuera lui—aussi à l’acquisition de pratiques citoyennes.

Autour de l’École, le secteur des associations d’Éducation populaire, des mouvements de jeunesse, qui s’est historiquement constitué en parallèle de l’Éducation Nationale, a inclus dans ses objectifs la formation du jeune citoyen.

C’est tout particulièrement le cas d’un mouvement comme les Francs et Franches Camarades (aujourd’hui les Francas) qui constituent la fédération des centres de loisirs laïques et qui ont dès leur création réfléchi et pratiqué la citoyenneté des enfants et des jeunes à travers des activités socio—éducatives et de loisirs. Mais il faut aussi citer des pratiques d’autres organisations comme le scoutisme, les Auberges de la Jeunesse, l’Action Catholique des Enfants, les Républiques de Jeunes (Maisons des Jeunes et de la Culture) et des mouvements de jeunesse plus ou moins directement liés aux partis politiques comme le Mouvement de l’Enfance Ouvrières (Faucons Rouges, liés au Parti Socialiste) qui mirent sur pieds les Ré—publiques d’Enfants, les Pionniers, les Vaillants et Vaillantes (liés au Parti Communiste Français).

Au delà de cette double filiation de l’Éducation nouvelle et de l’Éducation populaire le modèle des Conseils a été inspiré aussi par les réflexions d’urbanistes, de psychanalystes, de chercheurs en sciences sociales. La formule s’est alors “urbanisée” en s’implantant tout particulièrement dans les “villes—nouvelles”, villes sans histoire, créées de toutes pièces pour désengorger des agglomérations surpeuplées.

Les premières expériences de conseils datent des années 1970, mais le premier important fut celui d’une petite commune d’Alsace : Schiltigheim.

---

2) ROUDET (Bernard) .— Conseil des délégués et droits des élèves. Quelle citoyenneté des lycéens pour quelle évolution du système scolaire.— Savoir Éducation Formation, n° 3, 1994.

Il y fut créé en 1979 à la suite de l'Année Internationale de l'Enfance<sup>3)</sup>. Puis le Maire de Schiltigheim créa une association de maires intéressés par le sujet : la Convention des Villes pour les Conseils de Jeunes.

Le premier congrès des CMEJ se déroula en 1987. Il fut suivi en 1988 d'un colloque international à Angoulême. Aujourd'hui il existe en France environ 750 Conseils Municipaux d'Enfants et de Jeunes. Des conseils de ce type existent aussi depuis quelques années dans d'autres pays dont l'Allemagne (11 conseils), la Belgique (27), l'Espagne (1), la Hongrie (9), l'Italie (6), la Pologne (9), la République Tchèque (1), la Roumanie (4), la Suisse (13)<sup>4)</sup>, auxquels se sont joints plus récemment le Royaume Uni, la Norvège, le Danemark, la Finlande, le Portugal et les Pays-Bas. Tous ces conseils de jeunes ne sont pas, à strictement parler, des conseils municipaux, mais ils concernent tous des territoires à une échelle de proximité qui les fait s'intégrer dans une problématique de développement local, qu'il s'agisse du quartier, du département, de la région ou même d'un lycée.

## 2. Les Conseils Municipaux d'Enfants et de Jeunes

Leur but est de proposer un apprentissage concret de la vie démocratique par une participation active à des projets intéressant l'amélioration de la vie de la Cité, et plus particulièrement celle des jeunes.

Ces conseils sont constitués en général de 20 à 40 jeunes élus par leurs pairs pour une ou deux années. Leur mission est de construire, proposer et éventuellement participer à la mise en oeuvre de projets concernant les jeunes dans la commune. A la différence des Conseils Municipaux des adultes, les conseils d'enfants et de jeunes n'ont qu'une voix consultative

---

3) JODRY (Claire).— A 13 ans, déjà citoyen ! .— Éd. SYROS : Paris, 1987.

4) Source : ANACEJ, Octobre 1994.

dans la gestion de la Cité. Mais leur intérêt est toutefois tout—à—fait évident au regard des objectifs poursuivis :

- être entendu des adultes, et surtout des pouvoirs publics
- formuler des propositions
- participer à la vie sociale de leur cité
- vivre une éducation civique active et concrète pour les adultes
- écouter les souhaits des jeunes et mieux les connaître
- consulter les jeunes sur des projets les concernant
- mettre en place les conditions d'un apprentissage de la démocratie.

Ce qui caractérise l'animation des Conseils d'Enfants et de jeunes, tous un peu différents les uns des autres parce que c'est une formule souple, c'est :

- qu'il n'y a pas de statut juridique
- que le public ciblé est large (enfants et/ou jeunes, notions floues qui permettent d'adapter le conseil aux demandes et aux besoins au cas par cas et éventuellement de le faire évoluer dans le temps)
- qu'il n'y a pas besoin d'équipement spécifique (comme les Auberges de la Jeunesse ou le Centre Social)
- qu'il ne nécessite pas de prise en charge par des professionnels spécifiques, qualifiés pour cette tâche. Ainsi si on y trouve toujours un adulte "animateur", il pourra s'agir soit d'un animateur professionnel, soit d'un enseignant, soit encore d'un parent d'élève ou même d'un élu municipal.
- qu'il n'y a pas de règles fixes de fonctionnement, chaque conseil construit son propre schéma de fonctionnement.

Si le fonctionnement concret des conseils est en réalité très variable d'un site à un autre, d'une façon générale on peut dire que : à l'issue du processus d'élection des membres du conseil, chaque jeune élu participe à une commission. Les commissions se réunissent une à deux fois par mois

pour mettre en place des projets. Elles travaillent avec un animateur adulte. L'animation de ces commissions et la place respective des enfants et des adultes est un sujet redondant, sans cesse proposé à la réflexion. Déjà lors du premier congrès de l'ANACEJ en 1991, c'était le thème d'un des ateliers les plus attendus. On y faisait remarquer que :

“l'animation des commissions est une des pierres angulaires d'un bon fonctionnement des conseils. Elle nécessite une disponibilité, une capacité d'écoute importante et des dispositions pour favoriser l'expression des enfants”<sup>5)</sup>.

Les thématiques les plus courantes abordées au sein de ces commissions concernent les loisirs sportifs et culturels, l'environnement, les droits de l'homme, la solidarité, l'aménagement et les équipements concernant les enfants et les jeunes, la liaison avec l'école. Une fois par trimestre, les élus se retrouvent en assemblée plénière et discutent des projets de chaque commission. Lorsqu'un projet est choisi par le conseil des jeunes, il est proposé au conseil municipal adulte qui se prononce à son tour sur la faisabilité du projet et vote un financement si cela est nécessaire. Le conseil municipal d'enfants dispose en général d'un budget de fonctionnement autonome.

### 3. Petit Élu Deviendra Grand ? Analyse des Expériences

Ces expériences de conseils sont relativement récentes puisque les premières datent de 1980 et elles ne touchent qu'un petit nombre d'enfants et de jeunes par rapport à la population totale. Toutefois il est d'ors et déjà possible d'en tirer des enseignements et nous avons assez de recul dans le temps pour nous poser la question de savoir quels peuvent être les effets

---

5) Soyons acteurs et citoyens! .— Congrès national des Conseils Municipaux d'Enfants et de Jeunes, ANACEJ : Laval, 4 et 5 Mai 1991.

de ces conseils sur les jeunes.

Comme le font remarquer les formateurs de l'Institut National de la Jeunesse et de l'Éducation Populaire<sup>6)</sup> chargés de la formation des animateurs des conseils, ceux-ci se situent toujours entre rêve et réalité. Le rêve des jeunes élus et de quelques adultes de transformer la commune et la rendre plus attractive et accueillante pour y bien vivre, et la réalité, celle des contraintes financières, des volontés politiques, des blocages administratifs, des logiques institutionnelles différentes et des lobbyings pas toujours très favorables aux enfants et aux jeunes.

Commençons donc par évoquer quelques-unes des difficultés les plus classiquement rencontrées dans la mise en place des conseils. Elles concernent essentiellement deux aspects : la représentativité des jeunes élus et les pratiques d'animation des conseils.

Sur le premier point, de nombreuses critiques se sont élevées, et depuis longtemps, pour dénoncer un fonctionnement qui serait peu démocratique et assez élitiste. Bien qu'il soit possible de constater des améliorations dans les modalités d'élection des jeunes élus par leurs pairs, il est toutefois certain qu'elles n'ont pas su (ou pu) se dégager complètement d'un processus de reproduction sociale. Les enfants, éloignés de par la situation socioculturelle de leur famille de la vie démocratique du pays, sont beaucoup plus difficiles à mobiliser dans ce cadre que d'autres dont les familles sont socialement et culturellement plus insérées. La grande proximité des conseils avec l'École peut paradoxalement amplifier ce problème, puisque seule une démarche inégalitaire qui permettrait un soutien particulier des plus défavorisés pourrait permettre une amélioration à ce sujet.

Le deuxième point, qui comme le premier, est un chantier permanent

---

6) Guide méthodologique de formation à l'animation des conseils d'enfants et de jeunes  
.— Les Dossiers Pédagogiques de l'INJEP, n° 5, 1995.

des associations et des fédérations de conseils, met en lumière la difficulté à faire de ces conseils des espaces d'expression vraie des jeunes. Cette difficulté renvoie directement au problème de l'animation des conseils. L'adulte doit savoir, pour permettre et favoriser l'expression des jeunes, s'effacer au bon moment et induire le moins possible sa vision des choses tout en sachant ramener la réalité des contraintes sur le tapis le moment venu. Les adultes doivent aussi être attentifs à faire que l'exercice grandeur nature d'éducation civique concerne le plus grand nombre d'enfants et de jeunes possible, au delà des seuls élus, par principe peu nombreux.

D'autres éléments de bilan doivent être au moins cités si l'on veut que ces expériences puissent servir à d'autres et que la transférabilité soit optimisée. C'est le cas des aspects suivants :

- la nécessité de s'assurer de l'avancement des dossiers traités par les jeunes
- la communication des travaux des conseils vers l'extérieur
- la difficulté à se dégager de trop de références au monde des adultes qui paralysent l'expression propre des jeunes
- la difficulté à pérenniser l'action des conseils et à garder une mémoire de ses acquis, le renouvellement complet des conseils peu être très rapide
- le grand intérêt à s'assurer le soutien des organisations de jeunesse locales, qui peuvent insérer le travail des conseils dans des projets socio-éducatifs et culturels plus globaux
- l'urgence de mettre le conseil à l'abri des changements politiques et des modifications d'organisation des services administratifs
- la nécessité d'aborder l'institutionnalisation des conseils comme un objet de travail

Au-delà de la nécessaire prise en compte de ces éléments critiques, il est nécessaire de se demander ce que deviennent ces jeunes élus quand

leur mandat est terminé. Comme nous le laissions entendre ci-dessus, nous avons une première génération observable, puisque les premiers élus —enfants sont maintenant adultes et donc des citoyens ayant accès au vote et à l'éligibilité.

C'est à cette question que se sont intéressés l'Institut De l'Enfance et de la Famille (IDEF) et l'Association Nationale des Conseils d'Enfants et de Jeunes (ANACEJ) à travers une étude<sup>7)</sup> menée en 1993 sur 15 conseils répartis dans toute la France. Elle fut suivie d'une pré-étude<sup>8)</sup> commanditée par l'ANACEJ en 1994 afin de définir le cadre possible d'une recherche sur les répercussions du passage dans les conseils pour d'anciens petits élus. Cette pré-étude, menée par Nathalie ROSSINI, pose des pistes de réflexion et propose quelques hypothèses concernant les rapports qu'entretiennent ces anciens élus à la politique, aux mondes municipal et associatif, et à leur manière de se positionner en tant qu'acteurs de leur environnement.

Alors petit élu deviendra grand ? Nathalie ROSSINI fait observer que :

“...la vraie question à poser aux conseils d'enfants et de jeunes n'est pas celle là...Nous serions plutôt tenté de parler des conseils en termes d'expérience sociale au sens où François DUBET<sup>9)</sup> y fait référence, en cela qu'elle permet à ces jeunes de construire leur expérience et le sens de leur rapport au monde environnant en s'y positionnant comme acteur. Une étape dans le parcours de la vie d'un jeune, ni la seule, ni une fin en soi.”<sup>10)</sup>

Le passage dans un conseil, loin d'être une formule magique permettant

---

7) ROSSINI(Nathalie) et VULBEAU (Alain) .— Les conseils municipaux d'enfants et de jeunes : à la recherche d'un dispositif de participation .— Éd. ANACEJ—FAS—IDEF : Paris, 1994.

8) ROSSINI (Nathalie) .— Pré-etude sur les répercussions de la participation des jeunes aux conseils.— Éd. ANACEJ : Paris, 1994.

9) DUBET (François) .— Sociologie de l'expérience .— Éditions du Seuil : Paris, 1994.

10) ROSSINI (Nathalie) .— Petit élu deviendra grand...? .— AGORA Débats Jeunesses, n° 2, 1995.

de ré-soudre la participation des jeunes est présentée comme “une expérience unique et inoubliable”. Les jeunes y apprennent le civisme et l’expérimentent concrètement. Ils ont la possibilité d’acquérir là des savoirs, comme ce qu’est une mairie, des savoir-faire, comme la conduite de projets, mais aussi des savoir-être, comme la prise de parole en groupe, l’écoute, etc... Ces acquisitions semblent avoir des effets durables et s’il est impossible aujourd’hui de faire un lien entre la participation au conseil de jeunes et un avenir d’élu politique une fois adulte, il est clair que ces jeunes ont une meilleure connaissance et un plus grand respect des instances de représentation démocratiques.

#### 4. Les Forums Démocratiques Jeunes/Adultes

L’expérience limitée et jugée parfois un peu artificielle des CMEJ, qui concerne surtout des enfants de 8 à 12 ans, semble moins bien adaptée aux plus âgés. Comme l’exprime une élue municipale, animatrice d’un conseil d’enfants depuis 4 ans :

“...c’est un âge où ils rejettent pas mal de choses et beaucoup risquent de s’exclure si on ne leur propose que cette forme de représentativité. Travailler avec des commissions de jeunes, en leur donnant la parole, des responsabilités sur les actions menées dans leur quartier c’est faire un travail fondamental de citoyenneté et de prévention...”<sup>11)</sup>.

C’est cette limite de la formule des conseils qui a entraîné l’expérimentation d’autres démarches de citoyenneté et d’insertion sociale des jeunes. Nous pourrions citer les “Commissions Jeunes” ou les “Commission de quartier”, nous avons choisi d’évoquer les Forums démocratiques jeunes/adultes qui sont un exemple original et intéressant. Ils visent à

---

11) “Les conseils d’enfants et de jeunes” .— Tremplin, n 22, 1995.

“faire exister la cité, c’est—à—dire la société globale et ses institutions, en créant un dialogue entre les générations au niveau des communes”<sup>12)</sup>. Ils essaient en effet d’instaurer un débat régulier, organisé et permanent entre les générations d’un même territoire.

A l’origine de ces premières expériences, qui restent très peu nombreuses, se trouve une petite équipe d’anthropologues<sup>13)</sup> qui postule que face aux problèmes de la cité le questionnement est déjà par lui—même une thérapie. Si les bilans de ces premiers forums démocratiques, comme à Athis—Mons (près de Paris), Poitiers ou Grigny, restent en demi—teinte, ils ont le mérite d’exister et par là—même de permettre des évolutions dans d’autres sites sous des formes évoluées, probablement plus adaptées.

Les Forums favorisent un brassage social de jeunes issus de tous les milieux et, notamment, de l’immigration. Voulus et soutenus par les municipalités concernées, les principes de bases des Forums sont l’indépendance, la laïcité et le pluralisme. Concrètement la démarche s’appuie sur 3 forums annuels publics qui constituent les moments forts. Ces forums permettent d’aborder les questions des jeunes, qui ont été collectées auparavant par une enquête thématique et l’enregistrement de questions libres. Des “répondeurs” adultes sont chargés de pérenniser la démarche et de la lier aux autres projets locaux. Ces forums qui sont venus remplacer des formes plus traditionnelles de dialogue intergénérationnelles qui ont disparues, tentent de dépasser les difficultés manifestes de communication et de compréhension.

Pour aussi intéressante que puisse paraître cette modalité d’implication

---

12) Ministère de la Jeunesse et des Sports et Institut de l’Enfance et de la Famille, — Les Forums démocratiques jeunes-adultes. — in Jeunes mais citoyen. Quelle éducation pour quelle citoyenneté? — Éd. IDEF : Paris, 1995.

13) Regroupes au sein du Centre d’Auto-analyse Anthropologique.

des populations de jeunes dans la vie de la cité, elle est aujourd'hui critiquée sur certains aspects qui méritent d'être évoqués, parce qu'ils ont à voir directement avec le problème de l'expression démocratique.

Tout d'abord — et c'est peut-être la critique la plus importante sur le plan de la mobilisation des acteurs — les jeunes dans ce processus sont dessaisis de leurs propres questions. Au mieux elles seront reformulées et portées en public par d'autres jeunes, au pire elles ne seront pas retenues et resteront sans suite, au risque de créer un sentiment de frustration bien compréhensible.

Ensuite, ce type d'animation ne permet pas, dans la forme relativement rigide qui a été expérimentée, de pluralité de réponses à une même question. Cette réalité a pour effet pervers de risquer de donner parfois un statut de "bonne réponse" à la seule réponse formulée à la question posée.

Il a été constaté aussi une certaine déconnexion de la réalité concrète des problèmes conséquemment à la rupture qui existe entre la question et sa "mise en scène", comme le dit une des élus d'Athis Mons :

"...tout en mesurant que la forme même — mise en scène du débat public, comme "à la télé" — ne permet pas d'échapper aux stéréotypes et produit une vision du monde caricaturale, je suis convaincue que les Forums ont un rôle pédagogique"<sup>14</sup>.

Enfin, et c'est peut-être le point essentiel, ces expériences souffrent sur le fond d'un vral statut expérimental qui permettrait une analyse à partir d'un outil d'évaluation construit et du contrôle par un groupe de référence. Faute de celà, les analyses sont partielles — et parfois partiales — et leur empirisme peu maîtrisé risque de rendre difficile l'évolution de ces forums à partir de leur forme première.

Ce sont des sites indépendants ou des associations extérieures aux pre-

---

14) DOUARD (Olivier). — Lieux jeunes. Entretien avec une élue. — AGORA Debats Jeunesses, n° 1, 1995.

mières expériences qui à l'heure actuelle se saisissent de cette formule originale d'implication citoyenne des jeunes pour la faire évoluer. Mais il est aussi possible que la grande proximité d'objectif des Forums démocratiques jeunes—adultes et des Conseils d'Enfants et de jeunes puisse voir des associations comme l'ANACEJ s'emparer de cette problématique pour mener une réflexion de fond. Une recherche structurée, de statut public ou privé, reste à faire mais il ne serait pas étonnant qu'elle puisse se formuler dans les mois à venir.

## 5. Vers des Espaces Innovants de Citoyennet

Si certaines modalités d'implication citoyenne nous renvoient plus du côté de la reproduction, elles coexistent avec des innovations substitutives des formes traditionnelles d'inscription politique. Permettre aux jeunes d'exercer effectivement leur citoyenneté suppose de créer au plan local des espaces d'apprentissage concret qui articulent l'éducatif et l'expérimental. Toutes ces initiatives postulent implicitement et paradoxalement que l'on est de plus en plus un individu qu'on a d'attaches collectives. Avoir des responsabilités concrètes de gestion de projets concernant un ensemble social, à leur mesure, semble être la voie à approfondir pour impliquer durablement les jeunes dans la Cité.

Mais aujourd'hui, si certaines de ces modalités nous renvoient plus du côté de la reproduction, elles coexistent avec des innovations substitutives des formes traditionnelles d'inscription politique qui méritent une attention.

Si, pour nous, vouloir voir les jeunes comme “acteurs du politique” porte le débat autour de ces trois termes : **désaffection**, **reproduction**, **innovation**, il est aussi probable que la réalité est beaucoup plus dialectique et que les formes nouvelles intéressantes de citoyenneté juvénile seront is-

sues de la combinaison de ces trois évolutions hypothétiques.

La réflexion se poursuit au sein des conseils et la coopération des idées et l'échanges sur les pratiques au niveau européen verra sans nul doute l'avancée de propositions nouvelles et originales. C'est ainsi que la Commission des Communautés Européennes finance un grand rassemblement européen initié par l'Institut National de la Jeunesse et de l'Éducation Populaire (INJEP) et l'ANACEJ qui aura lieu en Novembre 1995 à Strasbourg (France). L'ouverture à d'autres expériences internationales y est manifeste et apparaît comme un point de consensus dans les travaux de préparation du groupe européen de pilotage de ce rassemblement<sup>15)</sup>.

Cet objectif d'éducation à la citoyenneté des jeunes suppose probablement, comme le pensent certaines associations d'éducation populaire aujourd'hui, de créer au plan local une dynamique, une synergie empreinte de co-éducation, pouvant permettre aux enfants et aux jeunes d'exercer effectivement leur citoyenneté. L'urgence est alors de demander aux collectifs d'adultes de statuer politiquement sur la place de l'enfant au sein de la Cité pour permettre la mise en place de projets concertés et durables. C'est ensuite à la faveur de cet élan que des actions diverses et originales peuvent naître en fonction des données complexes de l'environnement local. La richesse de ces expériences, qui devront être partagées et analysées, sera un atout majeur dans l'émergence d'un nouveau projet de société qui veut réduire les inégalités, lutter contre les exclusions et rendre aux jeunes toute leur place de citoyen-acteur.

---

15) Source : ANACEJ .— Synthesis of the european youth gathering preparation .— ANACEJ : Paris, 1995 .— Document non publié.

## Éléments Bibliographiques

- Institut National de la Jeunesse et Association Nationale des Conseils Municipaux d'Enfants .— Les Conseils Municipaux d'Enfants — Les Documents de l'INJ, n° 6, 1990.
- VULBEAU (Alain) — La participation sociale des jeunes, un nouveau produit pour les politiques publiques ? — in Connaître les modes—de vie et de consommation des jeunes — Colloque européen, ADHEIC—FEN, Université Paris V et alii : Paris, 26—27 Septembre 1991.
- PERRIER (Jacques) — La participation des jeunes à la vie de la cité et l'expérience des conseils municipaux d'enfants en France — Étude pour le Ministère des Affaires Sociales : Paris, 1993.
- ROSSINI (Nathalie) et VULBEAU (Alain) — Les conseils municipaux d'enfants et de jeunes : à la recherche d'un dispositif de participation . — Éd. ANACEJ—FAS—IDEF : Paris, 1994.
- ROSSINI (Nathalie).— Pré—étude sur les répercussions de la participation des jeunes aux conseils.—É d. ANACEJ : Paris, 1994.
- \_\_\_\_\_.— Petit élu deviendra grand...? .— AGORA Débats Jeunesses, n° 2, 1995.
- HENRI (Jean—Paul) .— Le temps libre des enfants. Que faire dans votre commune ? .— Éd. Milan : Paris, 1995.
- Ministère de la Jeunesse et des Sports et Institut de l'Enfance et de la Famille .— Jeunes mais citoyens. Quelle éducation pour quelle citoyenneté ? — Éd. IDEF : Paris, 1995.
- Citoyenneté et participation des enfants et des jeunes .— Réussir—action, Les Francas : Paris, 1995.
- Guide méthodologique de formation à l'animation des conseils d'enfants et de jeunes .— Les Dossiers pédagogiques de l'INJEP, n° 5, 1995.

# Youth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Activities-U.S.

Justin Young J.Won\*

## 1. Introduction

Environmental issue is a universal concern that transcends boundaries and cultures of different nations. Depletion of the ozone layer and the green house effect are just few grim indicators of the status of our planet. Communities around the world cry out for drastic actions to slow down, if not to stop, the deterioration of our environmen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e of the nations which consumes the most amount of materials is no exception to the conservation effort. For example, one American family throws out “2,460 pounds of paper, 540 pounds of metals, 480 pounds of glass, and 480 pounds of food scraps every year... About 40 billion soft drink cans and bottles are thrown away by Americans.” (Elkington, et al., 1990) Realizing that it is our children’s generation that has to suffer tragic consequences derived from their father’s and grandfather’s generations’ reckless lifestyle, this issue becomes all the more alarming.

In terms of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efforts, one has to realize that no one is privileged enough not to get involved regardless of age, gender and clas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how the youth population in the United States is getting involved in the effort to protect the environment. A multi-faceted approach which incorporates environmental

education and actual day-to-day involvement in different activities will be introduced with recommendations for further development of their efforts.

## 2. Education

Raising the level of awareness through education would be the first thing to be done in order to get the youths involved. Helping them to realize the seriousness of the various environmental issues and how these issues affect our daily living can be done through education about related issues and what they can do to help. The environmental education can be accomplished in two parts. One, the youths can learn about such environmental issues as the ozone layers, deforestation, water pollution, etc. from a scientific point of view. Students learn how and why these problems occur, and what people, especially adults, are doing to solve these problems. As they are educated about the problems, the students are also encouraged to find ways to help solve them. Many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publishers provide possible class projects to help teacher. The following is an example of an afternoon class project in which the students are to study water pollution. First, the teacher can explain and lead a discussion about water pollution. Once everyone understands about water pollution and how it affects their lives, the students can then be asked to find what they can do to stop the water pollution in their community :

「Tracking Water Pollution — an afternoon project」

First, find some water near you... As you walk, write down all the pollution that you can see — trash, garbage, sewage, oil, chemical waste — and the place where you found it...When you get home, make a map of the water and the polluted places. When you have a water pollution map,

you can begin to track down the sources of pollution. It may be a factory that is dumping waste into a river; or it could be a picnic place where people throw away their paper plates. Whatever the source is, if you find it and report it to the proper agency, you will have begun to clean up the water. (Miles, 1974)

To help students learn more about the many environmental issues, local libraries have sizable amount of books and other resources available as well.

As the youths are educated to be more aware of the environmental problems at hand, the other part of their environmental education covers that they can do to help. Many environmental educators and organizations teach the youths what they can do make an impact. They teach how to write formal letters to local politicians and congressmen. Publications from the environmental groups often include addresses and phone numbers of local, state, and federal level officials, so that the youths can actually write letters to them. The youths are also taught to attract media's attention by writing newspaper articles and having press conferences. Through these well-rounded education, the youths are being equipped to get involved in the environmental issues more systematically.

### **3. Education through Different Media**

Rapid advancement of communication technology in recent years has helped in spreading more information widely in a short amount of period : this has ushered people into the "age of information." In terms of the youths' awareness of environmental issues, mass media also plays an important role. Many youth-oriented TV programs include environmental stories. For example, Nickelodeon, a cable station for children and young-

er youths, has a regular program where environmental problems are discussed and easy—to—do solutions are suggested for the viewers to follow.

As the environmental issues receive more attention, teen magazines which mostly cover topics of fashion, beauty, and consumption now cover stories of conservation and ecology. According to Curie's research based on articles in *Seventeen Magazine*, a teen magazine with annual circulation of over 2 million in the US and Canada,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number of messages related to environmental issues. For example, among the issues published in 1951, no mention about environmentalism could be found. In 1971, among 107 "potentially political messages," 7.5% were about environmentalism. This figure drastically increased in 1991 in which among 59 messages, environmentalism took 27.1% (1994). The magazine has a "Earth talk" section that covers environmental news and updates. Articles in this section are often messages from celebrities interviewed by teen reporters.

#### **4. Actual Involvement**

As environmental issues become critical, more opportunities for involvement have been made available for youth. According to The Student Conservation Association, there are more than 1,400 organizations which offer either paid positions or volunteer opportunitie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Student Conservation Association 1994). Involvement of youths is not only helpful for society in general in utilizing much needed human resources, but also beneficial for the involved youths themselves because their experiences in such services are advantageous in getting into colleges or finding jobs. By reviewing the following 4 examples, one can realize how extensive the available opportunities are, how easy it is to get involved, and what kind of advantage can be gained by getting in-

volved.

### 1) World—Wide Involvement : Peace Corps

Through services provided by the Peace Corps, youth and young adults from the US are getting involved in world—wide effort to preserve and save the earth.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61, the Peace Corps' mission has been to help meet the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for trained manpower and to promote a better understanding between Americans and the people of other nations. A person over 18 years of age can volunteer for program with normal duration for service being 2 years. During these 2 years, the volunteers receive living expenses, and upon returning, they receive a grant in lump sum. Throughout the years, the Peace Corps has placed more and more emphasis on conservation programs which include park and wildlife management, forestry freshwater fisheries maintenance, agriculture extension, and natural resources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Currently, there are 55 different environmental programs with more than 700 volunteers being sent all over the world. In addition, the Peace Corps provides about 600 volunteers for forestry to 55 countries in order to develop long—term re—forestation strategies which include “nursery development and management, agro—forestry, reforestation, village woodlots, forest resource management, and introduction of wood—conserving technologies.” (Student Conservation Association, 1994)

### 2) Nation—Wide Involvement : The Student Conservation Association

The Student Conservation (SCA) was established in 1954. Its establishment was mainly based on a 21—year—old college student's proposal which suggested utilization of student volunteers to maintain national parks in the US. The volunteers in turn could receive conservation education throughout the duration of their service. This idea was well received

by the National Park Services, and the project was launched with 50 students to look after the Grand Teton and Olympic National Parks. Now, SCA is the largest long-term conservation volunteer organization in the US with 2000 volunteers getting involved in various conservation projects such as air and water quality monitoring, endangered species protection efforts, and trail building. In addition, SCA has become a main center in collecting and providing information and training in traditional conservation work skills. In addition to the training of the traditional conservation work skills, SCA has been active in adopting and utilizing new and improved conservation and environmental education techniques. In 1989, SCA's volunteers were mobilized to restore the severe fire damages in the Yellowstone National Park which occurred in 1988. Furthermore, 600 SCA volunteers got involved in a 3-year long effort to reestablish ecologically damaged areas of the Yellowstone National Park (The Student Conservation Association, 1994).

SCA programs are divided based on the volunteers' age. For high school students, 5–6 weeks-long program for conservation is available. College-age youth and young adults can go through a 12–16 week internship program in which the volunteers are paired up with regular staff members as professional assistants. As the American society has become more diverse, SCA established the Conservation Career Development Program (CCDP) to encourage young women and minority youths to participate in the conservation efforts. Through this program, female youths and minority youths are guided and educated from their junior years in high school through college years and then placed into the field of conservation career. Participants get not only classroom education, but also intensive hands-on skills, as well as necessary experiences to increase their job readiness upon graduation (The Student Conservation Association, 1994).

### 3) State—Wide Involvement — California Conservation Corps

Many of the states in the US have their own state—run program which involve youths in various conservation programs while providing them with some monetary compensations and opportunity for continued education. the number of youth participants goes well over 7,000 every year. Among these programs, California's Conservation Corps (California CC)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most successful state—run programs in the US.

Before the California CC was established in 1976, then governor Ronald Reagan in 1971 formed the California Ecology Corps with about 100 participants to guard against forest fires. In 1976, the governor Edmund Brown Jr. replaced the California Ecology Corps with the California CC. Through various trial and error, the California CC began to have its current shape in 1979 under the leadership of B.T. Collins, a Vietnam veteran who had lost an arm and a leg. He first came up with the motto of the California CC : “hard work, low pay, miserable conditions.” Along with the motto, five very short and clear rules were given to the participants : “No booze. No dope. No violence. No destruction of state property. No refusal to work.” All the participants must register to vote, donate blood, and for male participants, register for the draft.” (Moskos, 1988)

Participants—high school age youth and young adults— enroll for one year period with minimum pay from which one—third is deducted for insurance and other expenses. Before starting their duties, they have to finish a two—week training course where all the participants go through physical training, lectures on work ethic, first aid, water safety, fire training, and use of various tools. After the training, the participants are assigned to various duties including “tree planting, growing seedlings, removing log jams in streams, renovating fish hatcheries, repairing storm damage, trail—building, and developing park areas,” (Moskos, 1988) In

addition, when environmental disasters such as oil spills and forest fires occur, the members of the California CC are mobilized as well to assist.

There are no restrictions in becoming a California CC participant except that one should not be on parole or probation. Even though the program does not target any particular population whether it be by gender, race or class, minorities and the poor are more interested in joining the program because of its educational and financial advantage. As a result, 1/3 of the participants are from families which receive public welfare assistance (The California Conservation Corps, 1985).

#### 4) Community—Wide Involvement : Bellamy Middle School

A town called Chicopee in the state of Massachusetts was faced with sludge problem which would cost the city \$ 120,000 to solve. Sludge is a form of liquid waste derived from local factories combined with sewage from residential areas. The sludge used to be burnt away but due to the state's stricter air pollution regulations, the sludge could not be burnt anymore, and hauling them to landfills was the only option. However, during the winter season, hauling could not take place since the sludge froze rapidly. Therefore, the city came up with a solution in which a brick building would be built at the site of the sludge in order to keep the sludge warm. The cost of this construction was estimated to be about \$ 120,000, but the city didn't have the money in their budget (Lewis, 1991).

As this story and the city's dilemma were covered in a local newspaper, students at the Bellamy Middle School took interest and visited the site to assess the situation. Upon visiting the site, the students got together and brainstormed for possible solutions. They also reached out to the local community for any ideas. Through the process of brainstorming and getting suggestions from the community members, they finalized their suggested solution and proposed it to the city. Their solution, compared to

the city's proposed solution was very simple : build a solar greenhouse over the site and utilize solar energy to keep the sludge warm for hauling. The cost for building this greenhouse was about \$500 which the city could afford. As a result, the city completely canceled their brick building idea and adopted the greenhouse solution ( Lewis, 1991).

#### 5) Incentive

Involvement in conservation is encouraged with various means. In other words, the youth get incentives to be involved. The incentives are divided into two parts. One gets psychological satisfaction for being able to make differences in one's lives, while he/she receives monetary compensation, actual work skills, or favorable advantages in college admission, scholarship selection, or job searches. If one expects youths and for that matter, anyone to donate their time and energy without any return, he/she won't have much success in recruiting enough numbers of volunteers. There has to be some gain for the volunteers. The gain may not be money but can be in some other forms as listed below.

For college applicants, getting involved in volunteer activities such as conservation programs is somewhat essential because most of the colleges require more than academic excellence for admission. In general, an applicant's grade point average, Scholastic Aptitude Test scores, and his/her extracurricular activities are weighed together to assess eligibility. In reviewing extracurricular activities, having rich experiences in social issues such as environmental protection becomes more attractive to the assessor than other volunteer activities in general. For scholarship awards, there are many different scholarships available, but not every award is based on academic achievement. Different scholarships are available for the students who demonstrate promising potential as community leaders, and being involved in community activities is a great plus in getting such

scholarships.

From the programs described above, learning actual hands-on work skills is quite self-evident. With the skills gained from programs such as the ones above, the participants have a better advantage in finding jobs or in getting promoted. Not only is the skill valuable, but also many employers actively search for and prefer applicants with rich experiences. For example, conservation organization all over the world highly value skills and abilities of the Peace Corps volunteers. Also, many of the available jobs in federal and state level conservation agencies are filled by those with the volunteer experiences in related fields. In particular, the US federal government grants “noncompetitive eligibility” (NCE) to the returned Peace Corps volunteers for one year, so that they are appointed to federal jobs without competition with other applicants in general. Among the various federal government agencies, the Forest Service, the U.S. Fish & Wildlife Service, the National Park Service, and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are the ones which hire the greatest number of returned volunteers (The Student Conservation Association. 1994).

## 5. Conclusion

As noted above, the youth population is being equipped to be a part of the movement in protecting the environment. The youths and children are the heirs of this world and therefore has the right to demand and secure a healthier and safer environment to live in. Through education and actual involvement in earth-saving efforts, their awareness level increases, and like those examples stated above, some do make differences in their own communities.

In order for this world to remain as a livable place, more active measures need to be taken both in the areas of education to increase the level

of awareness and in proactive as well as reactive actions. In 1992, representatives from all around the world gathered together at the historical U. N. Earth Summit in Rio de Janeiro, Brazil to discuss ways to protect the environment from any further destruction. There, a collection of recommendations, also known as Agenda 21, was presented and approved. According to the Agenda 21, youth involvement in this issue is considered an essential part of the long-term solution :

Youth, those adolescents over the age of twelve, comprise nearly 30 percent of the world's population... The involvement of today's youth in environmental and developmental decision-making will be critical to the long-term success of Agenda 21. In addition to their intellectual contribution and their ability to mobilize support, they bring unique perspectives that need to be taken into account. Each country should establish a process to promote dialogue between the youth community and government at all levels. Youth need access to information and an opportunity to present their perspectives on government decisions. (21 Agenda 1993).

Agenda 21 further recommends the following programs and activities to achieve its goal :

- Procedures should be established that allow for the participation of youth of both genders in the environmental decision-making process.
- Innovative education methods should be used which are aimed at increasing practical skills, such as environmental scouting.
- Educational and awareness programs specifically targeted to the youth population must be developed. National and local media, private organizations and business should assist in this effort. (21 Agenda 1993).

Reviewing the recommended programs and activities stated above, one may notice that there is an a priori assumption that the youth population is at the receiving end where they need to be educated and brought to be aware of the current situation. These programs are in no doubt very helpful and necessary, but one also has to realize that many, if not most, of the youth population do realize the seriousness of the current environmental crisis, and they actually are doing something to protect the environment in which they have to live in the next century. For example, in a survey conducted among 2000 youths in America, 95% of the respondents stated that the US government is not doing enough to solve the pollution problem, and most of them indicated that they would fix the pollution problem if they could (Curie, 1994). As noted, the youths are ready to be a part of the solution. More comprehensive programs which incorporates not only education, but also actual opportunities to get involved in making a difference in one way or another needs to be devised. It is they don't have any voting power. However, the youth population is not just a group of teenagers who needs to be guided and educated. More than that, they can be and are a powerful and ideal resource groups which is contributing to the society by suggesting possible solutions and putting the solutions to work.

## Reference

- Daniel Sitarz, ed(1993), 21 Agenda : The Earth Summit Strategy to Save Our Planet. Boulder : Earth P.
- California Conservation Corps(1985), An Analysis of Participant Characteristics. California Conservation Corps.
- Curie, Dawn H(1994), “「Going Green」 Mythologies of Consumption in Adolescent Magazines.” Youth & Society, Sep. 1994.
- Elkington, John, Julia Hailes, douglas Hill, Joel Makower(1990), Going green. A Kid's Handbook to Saving the Planet. New York : Tildon P.
- Lewis, Barbara A(1991), The Kid's Guide to Social Action. Minneapolis : Free Spirit P.
- Miles, Betty(1974), Save the Earth! New York : Alfred A. Knoph, 1974.
- Moskos, Charles C(1988), A Call to Civic Service. New York : Free P.
- The Student Conservation Association(1994), Earth Work : Resource Guide to Nationwide Green Jobs. Joan Moody and Richard Wizansky, eds. New York : Harper Collins West.

# A Quest for A Paradigmatic Framework for Youth Empowerment :

## Comparative Study of Three Government Administrations' Approaches to Effective Youth Mobilization

Allan Jose Justiniani Villarante\*

### 1. Introduction

Empowerment of youth is one of the rarely studies subject matters either in political science or in any related field of academic endeavor. Considerably, it is due to the perennial undrstanding of youth as “less significant” when taken in the larger societal context. The youth then, like women, are regarded weak, dependent<sup>1)</sup>, easily corrupted, and above all unwise.<sup>2)</sup> Traditionally, some cultures treat young members of their society with little more value than their material properties. In fact, some consider and treat them properties whith they can sell and purchase anytime they want to.

The study of youth empowerment should trigger a lot of interest on schlolars because the youth sector, aside from it constituting a formidable organization in Philippine society, are not actually weak, dependent and

---

\* Researcher,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unwise. It is one of the strongest and most dynamic sectors which determines the movement and flow of government. This is reaffirmed in the 1994~1998 National Youth Development Plan(NYDP) which states that “young people have shown, in numerous instances, both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their ability to introduce new dynamism in social interactions. Programs for national renewal and progress have always taken into account this special skill of the young generations.” The study of Bennagen (1995) on the kankanaey society in the northern part of the Philippine archipelago shows that the rites-of-passage undertaken by the young members of the community allows socialization and, hence, active participation in the furtherance of the culture. Specifically, the practice of head-hunting in the Mountain Province in the Philippines are also manifestations of the dynamism, prowess and determination of the young people in the community to dispute the common notion of youth.<sup>3)</sup> These were traditional rites which young members of the community must undergo to be recognized members of the adult group. In modern Philippine society, the culture of youth is not that of subservience and “useless passivity” but that of reflective action and cognizant character. Agoncillo(1990) and Constantino(1975) portrayed these tendencies in their writings. Both agreed that the revolution of 1896, which cultivated the spirit of freedom and sowed the seeds of unity among Filipinos, had its own share of young blood. Inbued with an exceptional sense of dedication and self-discipline, many young people in the likes of Andres Bonifacio, Emilio Jacinto and Gregorio del Pilar responded to the challenges of their times and un mindfully sacrificed their own lives to oppose foreign domination”. Kerkvliet and Mojares(1991) observed identical case in the youth during the Marcos and the Aquino regimes.

Dr. Jose P. Rizal, realizing the potentials of the Filipino youth during his time, also called “for a paradigm shift : a shift in traditional ways of

thinking away from the conventional ways of doing things.<sup>4)</sup> His message to the youth remains as relevant today as it was then. In the pertinent verses of the poem “A La Juventud Filipina,”<sup>5)</sup> Rizal said :

O youth, Fair hope of my fatherland  
with thy mighty hand,  
Raise the eager mind to higher station,  
Come down with pleasing light  
O youth and there untie  
The chains that heavy lie  
Your spirit free to flight!

The significance, therefore, of this study lies in the attempt of the writer to present a holistic view of the development and growth of present-day youth empowerment efforts by the government. This compares the themes, thrusts, approaches and policy strategies of the three recent government administrations, namely that of then Presidents Ferdinand E. Marcos and Corazon C. Aquino and the incumbent Fidel V. Ramos. The study evaluates the paradigmatic frameworks of aforesaid government administrations insofar as their efforts to establish a nationwide forum for youth empowerment are concerned.

The writer chooses to look at the three governments’ efforts toward empowering the Filipino youth as an important juncture in the country’s political development and endeavors. This does not simply review or study but also analyzes the implications and potentials of these efforts. The writer has since been personally involved, in one way or the other, in activities that enhance the implications of youth empowerment. This interest is rooted in his commitment to the furtherance of the agenda for youth empowerment which, for him, is in political terms “democratization from below”.<sup>6)</sup>

A comparative study that centers on the three governments’ programs

for the Filipino youth, in general, is therefore deemed necessary in order to assess in realistic terms the prospects of authentic youth empowerment, hence, social involvement of the Filipino youth in the struggle for nation-building. Such study will, hopefully, lead to a more humane, broader and deeper understanding of the definition of genuine youth empowerment that gives the younger people of the country the breathing space. It is imperative to let them fully exercise what they want and wish for themselves, and not what politicians and other political manipulators in government want and wish of and for them.<sup>7)</sup>

This endeavor also attempts to set a general perspective of the ultimate direction of all these government efforts. Analysis of themes, objectives and policy strategies are provided as well to draw out critical reflections of the state of youth empowerment efforts in the country. Finally, this aims to come up with a pragmatic proposal to effect an authentic, more responsive and culturally healthy youth empowerment programme for this country's youth in preparation for the next millennium.

## 2. Overview of the Scope

The discussion starts with the 20-year rule of the Marcos administration.

During that period of modern Philippine history, the Filipino people, especially the youth sector, took the frontseat of the struggle for liberation against what they referred to as "the tyrant" and "the imperialist rule." It was the advent of a continuing indignation clamoring for freedom, for justice... the event which ultimately ended up with the rebellion of the masses of youth during the First Quarter Storm (FQS)<sup>8)</sup>. The period was noted for the renaissance of the youth mass actions, protest-rallies and violent demonstrations, the parliament of the streets and, consequently, the

formation of the underground youth movement (e.g. KM, LFS, etc.). The Aquino regime, on the other hand, is significant to consider because it was a transition government from a “repressive system”<sup>9)</sup> of the Marcos administration to a government considered to be “the only better alternative to end the political crisis”. Then President Aquino was catapulted into power after her predecessor’s ouster by a popular revolt at EDSA in February 1986.<sup>11)</sup> Her succession to the presidency triggered a lot of hopes for a better government especially from the youth sector. It was of general perception that with Marcos’s ouster and the democratic space being made wider by the new government (one that the youth even helped catapult into power), students can now go back to their classrooms, and the youth, in general, can advance their visions for brighter future ahead; that they can cease to be political pantomimes, and lead normal lives once more. The thrust of youth movement during Mrs. Aquino’s presidency shifted from radicalism to political paranoia. With the progressive youth groups trapped in limbo of working within the confines of government bureaucracy under the Aquino regime, the youth movement is marred by sharp dividiveness. Moreover, the incumbent administration policies of President Fidel V. Ramos on youth empowerment is also worth studying because of its thrust which gives so much emphasis on youth involvement in national development. With its move to decentralize power-structure in the bureaucracy, the Ramos administration envisions to effect empowerment to the greatest majority. It hopes the youth will lead the country to attain the goal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NIC-hood<sup>13)</sup> by the next millennium. It further seeks to concretize the contribution of the Filipino youth in realizing the goals of the National Youth Development Plan (NYDP) to the blueprints of the Medium-term Philippine Development Plan (MTPDP) prepared by its planners. Under this plan, Ramos envisions the country to “achieve a growth rate of 6–8% be-

fore the turn of the century,...promoting global competitiveness and empowering the people by improving their capabilities and enhancing their self-reliance.”<sup>14)</sup> Through the NYDP, the National Youth Commission (NYCO) was formally established, all with President Ramos’s loyal LAKAS-Youth<sup>15)</sup> stalwarts taking the strategic positions in the Commission

Moreover, setting the scope of discussion on these three recent government administrations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no efforts at all or less efforts on youth empowerment were exerted during the previous government administrations. In fact, youth movements in the Philippines can be traced even during the Spanish colonial rule when the Propaganda movement and the KKK or the Katipunan of Gat Andres Bonifacio were established. During the Japanese time in the Philippines, some young Filipinos also took up arms in the name of freedom. Thus, the HUKBALAHAP Movement was conceived. These are evidences of the prevalence of youth movements’ long and arduous history in the Philippines.

Moreover, due to time constraints, the writer is compelled to limit his focus to the three latest generations of government administrations.

It is, therefore, in this premise that the scope of the study is defined.

### **3. Defining Concepts and the Framework Used**

Gutierrez, Torrente and Narca(1992) defined “people empowerment” (in the broader sense of the idea) as “democratization from below.” In the context of youth empowerment, this notion is expounded by the use of the “inverted pyramid” as the structural paradigm of reference for empowering the youth of the land. This structural paradigm guarantees genuine consultative-participative representations from local youth organizations throughout the country, thereby ensuring true delienation of power and

leadership in the grassroots level. This is opposed to the traditional notion of a centralized authoritarian leadership. With this inverted pyramid model, all authority, decisions and policies emanate from the youth sector which constitute the largest bulk of the Philippine society. So that, before decisions, programs and policies are handed down as a matter of national strategy, issues are discussed, deliberated and consulted to the youth groups concerned beforehand at the precinct level.

With youth's voluntary initiatives, governments should provide necessary assistance to youth organizations (even at the precinct level) and furthermore provide them the venue to establish their own linkage and alliances according to their own respective interests. With these initial efforts by the youth themselves, youth organizations at the precinct level will ultimately form among themselves caucuses to discuss and find remedies to their own respective subsectoral concerns which could be an alternative venue for massive participation among the greatest number of youth in the land. This set-up and process might be quite tedious and long but it is viewed as the ultimate means to let the youth sector feel the freedom about coursing their own plans, prerogatives, visions, and destiny for the future. Such model is considered an effective venue for channeling the youth sector's boundless idealism into the task of bringing about a real society of empowered youths. Moreover, while the initiatives are all left to the youth sector, it should be stressed that governments should be prepared to give technical and all forms of assistance without jeopardizing the youths' element of freedom of designing their own concerns. In short, the role and function of governments is purely to oversee and assist the youth and inhibit from causing influence on their plans, decisions, and policies.

For practical purposes of this study, the concept is defined as "enhancing him the potentials and atmosphere to freely express what the youth

wants to do with his life; giving him independence and opportunity to exercise what is best for him; allowing him to become existentially authentic... It involves the acquisition of power by the youth effecting democratization of control over policy and decision-making, as well as effective and sustainable utilization of such youth power that translates into concrete gains for the environment, economy, politics and socio-cultural conditions of the youth sectors in general.”<sup>20)</sup>

Political mobilization is both a strategy and a process of getting people to participate and actively involve in the political undertakings or efforts being done either by a government, a private institution or a sector of society.

Governments, or institutions or sectors of society mobilize their own constituents with the aim of getting maximum participation and involvement in the political undertaking. Prior to any involvement, however, is the need for consciousness-raising. A mobilized group with a haphazard of blurred awareness of the aims, thrust and direction of which it is created is in danger of disintegration. Mobilization effort based solely on superficial ground, devoid of principle of principles and solid understanding of issues, problems, and concerns is short-lived, unstable. Efforts to this end, therefore, should be grounded on something real. In the matter of youth empowerment, due importance should be given on the culture of youth. Youth culture is the sum total of behavior patterns of youth, in general. It is an offshoot of social integration that are learned, prescribed and ascribed from one generation to the next in the process of interaction. In simpler terms, it is those tendencies and behaviors which are revealed and manifested in the daily affairs of the youth—curiosity, receptivity, critical, dynamism, mobility, etc.

Paradigmatic framework, on one hand, is a model by which the writer intends to pursue and draw out to pose an alternative perspective to cur-

rent youth empowerment efforts being undertaken. The paradigmatic framework which this paper wish to draw out could be the basis for an alternative venue to effectively reach out to the youth in the grassroots level. It sets perspective of action and planning for whatever programs of action initiated to make the Filipino youth responsibly involved in nation-building.

#### 4. Four(4) Areas for Discussion

Four(4) areas are considered to provide a basis for elaboration and anylysis. First, the general historical overview of youth-related efforts by the three government-administrations under consideration;secound, the molding of values in the youth as reflected in the national experience; third, the cultural impacts of youth experience in the mobilization efforts of the aforesaid governments; and, fourth, the framing up of an alternative proposal towards genuine youth involvement in nation-building.

##### 1) Historical Considerations

① Marcos Machinations : Guided by the framework designed in his New Society Movement, President Marcos, on 15 April 1975, through the passage of P.D. 684 founded the Kabataang Barangay(KB) with its battlecry “Be involved! You are the new Filipino!”

Established as a political movement for the New Society’s youth, the Kabataang Barangay scored a number of projects and activities relevant to community-building and national development. With vision identical to that of South Korea President Park Chun-Hee’s Saemaul Undong<sup>22)</sup>, the Kabataang Barangay centered its programs in community cevelopment

projects; national action programs; and leadership training seminars to prepare the Filipino youth for future leadership. It also included into sports development activities; and cultural undertakings to remind Filipinos of their rich cultural heritage; and dialogues among youths of other Third World Countries.

In giving its programs preater relevance to every Filipino, the activities of the KB were spread in the grassroots level with its members located in all parts of the archipelago and with ages ranging from fifteen to twenty-one yours old. In creationg an impact to the country's development efforts, KB's undertakings were couducted on a highly coordinated scale with direct supervision from Malacanang.<sup>23)</sup> Coordination was fast and certain due to the appointment of presidential daughter, Aimee R. marcos, at the helm of KB's national leadership. Critics, however, doubted the authenticity of the goals and objectives of the organization with another Marcos at the topmost hierarchy of the national youth movement. Contrary to its pragmatic framework of "an inverted pyramid"<sup>24)</sup>, the KB was centralized to become later on a political machinery of the Marcos administration to perpetuate itself in power.

With its supposed grassroots level set up, the KB was well-proven as an effective venue for Marcos's propaganda in the facade of "chanelling the youth's boundeless idealism into the task of bringing about economic development."<sup>25)</sup>

Recognizing the necessity for the Filipino youth to possess marketable skills to assist the government in pump-priming the country's economy, the KB outlined a nationwide action program to prepare its constituents to compete more effectively in the Philippine job market. The components of this plan include : the KB out-of-school youth program; the skills training projects; the income generating project; and the placement services scheme.

Yet, in reviewing the youth experience of the 1980s, Ocampo(1989) stressed the urgent active involvement of the youth sector in the struggle for political emancipation from tyranny.<sup>26)</sup>

“The '80s was a precarious time for the Filipino youth. It was one dramatic phase in young people's lives which transformed them almost overnight and recast the nation's history. So wrenching was the change it brought that youth leaders became active participants in the people's movement for freedom and democracy. It even made heroes and martyrs out of some of them. Looking back at the youth sector's journey through all those years, we cannot help but marvel at the way our youngsters responded to the calls of those critical times.”

The youth and student movement in the “80s was primarily premotivated with the gains of the Democratic Reforms Movement (DRM), which was a result of the 1977 alliance movement created against tuition fee increases. The Democratic Reforms movement (DRM), led by the league of Filipino Students (LFS), was basically aimed at regaining students' rights to organize councils, manage publications, and other rights which were denied of the students during the martial rule.

The realization of the basic demands of the Democratic Reform Movement (DRM), including the delay of the passage of the controversial Education Act, was a vivid manifestation that united efforts and vigilant campaigns are effective methods for pushing for reforms, as well as broadening the space for mass protest and opposition to the Marcos government. Organization of student councils, publications, mass sub-sectoral associations and issue-based coalitions also paved way for raising the students' level of sectoral awareness and involvement.

② Aquino Ascendancy : There had been a lot of theories as to the collapse of the Marcos powerdom. But over and above all these assumptions

is the fact that Marcos's popularity had gone below so rapidly than what was expected. That fact alone contributed to the downfall of his 20-year hold-over presidency. The people's outrage came to its intolerable point after that cold-blooded murder of Marcos's arch-rival former Senator Benigno "Ninoy" Aquino at the Manila International Airport amidst security escorts. Most of the political observers proposed that the logic behind the public outrage was that the people have had enough of the repressive character of the Marcos regime, coupled with the deterioration of the economy during those dark years of Marcos's administration.

The people went out to the streets clamoring for change with the battlecry : "Tama Na! Sobra Na! Palitan Na!"<sup>27)</sup> The crisis in the Marcos governance reached its peak in the late 1985 and the first months of 1986 when massive protest and defiance to Marcos intensified necessitating the now known EDSA People Power Revolution which took place in February 1986.

Kerkvliet and Mojares(1991) vividly portrayed the transition from the Marcos to Aquino<sup>28)</sup> with the following descriptions :

"EDSA was a concatenation of events : the accelerating deterioration of Marcos authoritarian government, widening and increasingly vociferous opposition to the government, the snap presidential campaign of December 1985-February 1986, a military mutiny, a People Power uprising on Epifanio de los Santos Avenue (EDSA) in Metro Manila, the flight of Marcos and company, and Aquino's assumption of the presidency, followed by a prolonged struggle to stabilize and legitimate this government through such exercises as the constitutional plebiscite in February 1987 and congressional elections in May 1987 and local government elections in January 1988."

The people at EDSA clearly manifested the sentiment of a large sector of the country's population. The messianic underpinning of Corazon

Aquino's message in 1986 was welcomed by many who despise Marcos. But to those who benefited in the glory of Marcos, Aquino was a potential threat.

Yet, over and above this experience of shift was the contribution of Aquino's government in providing the fundamentals for tapping the youth sector of the Philippine society in her administration's efforts to bring about unity and national reconstruction.

The post-Edsa period also saw the birth of new political currents into the stream of national movements.<sup>29)</sup> This phenomenon did not spare the youth movement. Right after President Aquino came into office, there was an observable sudden shift of the thrust of the youth movement in the Philippines. Most youth groups shifted towards more participation in political governance which they propagandized as "working within the system."<sup>30)</sup> New breed of young leaders then emerged to work within the confines of government bureaucracy. The landmark activity which consequently allowed the entry of the youth into the affairs of government was the launching of the *Konsultahang kabataan*<sup>31)</sup> National Youth Conference sometime in February 1987. From that gathering, the youth representatives from various organizations throughout the country affirmed to the following proposals: the creation of the National youth Commission, a national assembly of youth organizations, and representation of youth in the local government set-up. The establishment of an autonomous National Confederation of Youth Organization (NCYO) was one of the *Konsultahang Kabataan's* strategic goals. Consultations, however, were later on left in the hands of the Presidential council for Youth Affairs (PCYA).

Due to the efforts of government on youth development programs the need for an integrated and comprehensive national youth policy was conceptualized. The initial study conducted by the PCYA presented that at

least 12 government functionaries were involved in various youth-related activities. The said study suggested that these activities were being implemented in different directions and were overlapping with one another. In that research endeavor, a series of consultative meetings were conducted by the PCYA with various socio-civic organizations. This effort later on served as the mechanism where inputs and programs were intergrated within the draft framework of the National Youth Development Program (NYDP). The basic guidelines for the formulation of youth policy were patterned by the PCYA on the United Nations Guidelines for Further Planning and Suitable Follow-up in the Field of Youth.

Through these developments, the youth and student movement was marred by divisiveness in issues, concerns and strategies. Some groups joined the Alliance of New Politics(which fielded nationalist candidates, some preferred the Movement for New Politics(MNP) or a host of other groups. Yet, others even insisted on supporting progressive administration candidates.<sup>32)</sup> Aside from these, the PCYA also entered the international scene with President Aquino's political appointee, Martin Yuchioco, to the PCYA acceptance of the leadership of the ASEAN Youth Forum and the PCYA membership in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Asian Youth Council.

Ocampo (1989) briefly enumerated several points reflecting on the experience of the youth and student empowerment in the eighties. Foremost in his concern was the urgency to develop critical and intellectual ferment among youth and students. Secondly, he emphasized the imperative that some of the organizing process of the past years should give way to new forms and creativity that is appopriate for the changing times. He as well pointed out the importance of a united front work in order to froge the broadest unity among all progressive youth forces, noting on the lessons of the EDSA uprising : the middle forces are important sectors in the

struggle for change. And lastly, he stressed on the global approach to change with the necessity for an internationalist perspective and linkage with other progressive youth and student movements worldwide by the Phillippine student movement.

③ Ramos Gimmickry : The assumption of Fidel V. Ramos to the Presidency of the Philippines casted a lot of skepticisms among circles of independent political observers and critics. These doubts stemmed up from two primary grounds which are basically political in nature. The first ground was founded on Ramos's insistence to run for the presidency in 1993 despite his failure to win in the national convention of then President Aquino's pro-administration party. The Labanang Demokratikong Pilipino(LDP) over party stalwart Speaker Ramon V. Mitra. Ramos bolted from the LDP and formed his own in consortium with former Senator Raul Manglapus's National Union of Christian Democrats(NUCD) after he received the check spelling from Malacanang through President Aquino. President Ramos enjoyed the popularity of aquino making him the virtual winner of the presidential contest. The second ground for doubt stemmed from the results of the 1993 electoral contest which led to President Ramos's saga of victory. Miriam Defensor-santiago claimed massibe fraud in that elections. An electoral protest was raised by santia-go against Ramos which up to now is yet awaiting court decision.

Those were history. Whether they hold any element of truth or not, a fact has to be faced. Fidel V. Ramos's presidency is irreversible considering the turtle-pace system of judicial process the country has, not mentioning the influence of "whoever-is-in-the-position" mentality of those in the bureaucracy. What could be done, however, is to do an honest to goodness evaluation of the Ramos's administration's performance give credit where it is due and constructively criticize if there is a need to.

Since the concern of this paper, however, is to evaluate the youth empowerment efforts of the three recent government administrations, it is worthwhile to focus more vividly on President Ramos's policies and efforts on empowering the Filipino youth.

There had been so many things said and done regarding youth mobilization and empowerment since President Ramos took office in 1993. Foremost among these efforts are the launching of the President's Summer Youth Work Program(PSYWP) in 1993 and the Kbataan 2000 in 1994, the holding of the first Sangguniang Kabataan(SK)<sup>33)</sup> local, provincial, and confederal elections, and the formulation of the comprehensive National Youth Development Plan(NYDP) in consonance with the Medium Term Philippine Development Plan(MTPDP).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NYDP created the proper venue in establishing the National Youth Commission(NYC) whose primary goal is to enable the youth to fulfill their vital role in nation-building, and, subsequently, the formation of the Youth Parliament.

It is the Ramos government's vision of Philippines 2000 which gives a sense of significance to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preservation, an urgent calling made by all earth-friendly organizations throughout the world. The Ramos administration stresses the current trend of global disregard for environmental regulation for the sake of modern industrialization. In its Philippine Strate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t justifies that "the only way of planning the country's national progress is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 : meeting the needs of citizens today without limiting the options of future generations to fulfill their needs. It is development without destruction; it is the achievement of material progress without compromising the life support of natural systems ; it is the pursuit of higher levels of quality of life while preserving or even enhancing environmental quality. It is the only true development." To

achieve this vision, vigilance of the youth in monitoring development projects was deemed necessary.

Along this line, the Ramos administration through its official arms, the Presidential Council for Youth Affairs(PCYA),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DENR), and the National Movement for Young Legislators(NMYL) initiated a National Youth Environmental Congress(NYEC) to evaluate the country's environmental state and, consequently, form a network of young leader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action. This ended with the united resolution drawn during the entire congress; emphasizing as the priority agenda not only government subsidiaries but also the entire Filipino youth sector.

While the Ramos government, however, is observed to have marked a remarkable leap from the traditional position and role of the Filipino youth in society, it is also worthwhile to consider the direction and motive to which all these government efforts are geared to. It is quite improbable though to substantiate, as early as now, that the Ramos administration's youth empowerment efforts are all done out of political motives as what Marcos did with the KB. What is rather clear are the manifestations leading towards an identical end. This is observed in the lack of consultative hearings on the drafting of the MTPDP and the NYDP and other presidential initiatives on youth empowerment. Questions and doubts still hold: If these are indeed genuine efforts effecting youth empowerment, why are the youth not properly consulted? Is the goal really to empower the youth or to subjugate their minds to make them feel their only future is the one which is prepared for them by their leaders? Where are the efforts really leading the Filipino youth to?

## 2) Youth Values and the National Experience

The pattern of experiences that the Filipino youth has encountered

through the years have molded in them a unique set of value-system determining their perceptions, judgments, and vision in life.

Traditionally, values are understood as basic attitudes and core beliefs which direct human actions and decisions. In layman's terms, it is what is worth and/or prices in life. To value is to have vigor, and to have vigor is to possess power to do specific things in order to realize certain urgent demands for something important. Robeach(1968) defines values to mean "interests, pleasures, likes, preferences, duties, moral obligations, desires, wants, goals, needs, aversions and attractions and many other kinds of selective orientations which serve as criteria for action." Social scientists, however, use the concept value interchangeably with "internalized standards of norms of behavior."

Majority of the Filipino youth have been bombarded with a serious problem on passivity and lack of initiative. Anthropologist Margaret Mead's theory of personality patterns<sup>34)</sup> could perhaps help explain this phenomenon. In her study of the Samoan islanders, she contended that "a person learns in childhood the patterns of behavior expected from him by the society in which he was born. Such predictable patterns of behavior are a result of cultural transmission....The goal of the ongoing society is to bring the individual into a general conformity with its prevailing view of the world." In short, for Mead<sup>35)</sup>, human behavior, values, and attitudes are offshoots of child-rearing practices adhered to by the members of society. So that, however dynamic the society is, if the culture is impoverish, the members will always become impoverish also.<sup>36)</sup> In the Philippine context, the serious problem of passivity and the growing lack of initiative among younger generations of Filipinos is said to be rooted in the prevalence of the culture of conservatism common among older peoples. Traditionally, older peoples are regarded as authority whom nobody can question their integrity, views and judgments. Anthropologists contend this to

be a cultural derivation from the oriental tradition which render highest respect to older peoples in the family, in the community. They call this concept “filial piety” high regard for elders. This emerged as a belief that older peoples possess “greater” wisdom earned and in seasoned through long experience of struggles for survival. This “greater” wisdom consists mainly of power enough to control the flow of society, enough to sustain respect among younger members of society, and enough to willfully design the values and character of the rest of their members. Filipinos, therefore, are trained and molded, from childhood, to be obedient, respectful and tolerable. Everything that the authority say and do are regarded as gospel truth. Hence, adhered, modeled and revered. This practice was reinforced upon the emergence of Spanish colonialism in the Philippines. Colonizers accorded it spiritual connotations attributing it with the dogma of the Christian faith. Violation the tradition, then, was said to constitute punishment which could bring “eternal damnation of one’s soul in hell.” This practice, consequently, on one hand, weakened the potentials of younger members in the society. The youth ultimately become helpless, powerless captivated by the manipulations of those in authority. The culture of overdependence grew, making the youth feel passive and indifferent about their own lives.

The study of Licuanan<sup>37</sup> presents a comprehensive description of this phenomenal passivity and lack of initiative (among the Filipino youth). The said value suggests a common tendency among Filipinos to always wait to be told what has to be done. In the matter of Filipino youths’ attitude : there is a strong reliance on others (e.g. leaders, government) to do things for them. Licuanan(1988) related this to one’s attitude towards authority. Authorities have been imposing things on the youth, hence, making them dependent on them. Generally, it is easy for them submit to the will of authority and keep among themselves doubts and reservations.

They seldom raise issues questioning the authorities and their decisions. They tend to be more complacent. The sense of urgency to respond quickly to any given problem is rarely observed. And the high contentment for the status quo, and even the violations of their rights are given tolerance. Other studies like that of Enriquez(1989), Quisumbing(1985), Bulatao, Lynch, and many others geared towards understanding the Filipino character more profoundly.

The problem, however, of youth passivity and lack of initiative greatly affect any empowerment effort. This sad fact made the Filipino youth vulnerable to corruption by the powers-that-be and victims of political perpetrators who wish to weaken their stance as a sector, to subjugate their minds, and to perpetually colonize them for the advantage of those for the status quo. The brief historical outline of the three government administrations earlier discussed clearly depicted the experience of the Filipino youth how they had been corrupted and how they are being continuously subjected to subtle exploitation by government administrations whose sole interest, with the facade of empowering the youth, was utilizing them for partisan political motives. To recall, during the Marcos era, political manipulations and repressions of the youth were vividly observed. The Aquino regime, on the other hand, simply neutralized the youth movement through indirect pacification process. This caused a serious paralysis to the advancement of the youth progressive cause nationwide. During the incumbency of the Ramos administration, the Filipino youth is again taken into a completely designed paradigm of action ... now, to become avid clients of the patron's "Philippines 2000" program. All these experiences perfectly molded the Filipino youth to become helpless ... beggars for government subsidies both in terms of "programs for empowerment" and all. With the persistence of government administrations to design the youth agenda for the youth, the Filipino

youth is ultimately incapacitated, indirectly paralyzed, and obliquely turned to become powerless. The youth, then are turned to value less political freedom than government dole-outs. The event consequently established an everycycling wheel of institutionalized corruption of youth helpless souls. Power is ultimately perpetuated in the hands of political manipulators. The youth are constantly left as victims.

Another problem among the Filipino youth is their selfish, self-serving character that generates a feeling of envy and competitiveness toward others who seem to have gained some status of prestige resulting to a “crab mentality” syndrome.<sup>38)</sup> This flows out from the basic assumption that another’s gains are somebody’s losses. The “kanya-kanya” syndrome,<sup>39)</sup> as it were, is evident in the personal ambition and drive for power and status each has. This manifested in one’s complete insensitivity towards the common good. Personal and in-group interests reign with the highest priority than common interests. This characteristic is also evident in the lack of a sense of service among the youth especially when this does not have any positive direct returns. Some critics proposed that this “kanya-kanya” syndrome is a character borne out of the experience of the Machiavelli principle<sup>40)</sup> largely practiced in the society to be able to rule. This triggers massive political partisanship and alignment in the political society.

### 3) Culture of Youth vs. Conservatism

Many a politicians and planners in government do not acknowledge the unique culture of youth. Some, if not all, of them even think of such culture as nonexistent for such is just “a passing phase of youthful restlessness.”

However, the culture of youth should be understood relative to those trivial involvements of youth with which they are expected to enjoy dur-

ing their school days; it is not those mere going home late at night which cause worries and heartbreaks among parents. The culture of youth is a phenomenon of participation and active involvement in society. This is a fact so inevitable because “to note change, to work for change, to adjust to changed conditions that is the mark of youth.”<sup>41)</sup> Tradition might not have implicitly taught the youth with such culture but, as it were, it shows. It is always there keeping the vigor, dynamism and potentials of youth ever alive.

History shows how culture of conservatism inculcated a tradition of passivity and indifference among the young. That culture had been so concerned with the struggles of everyday life which are primarily limited within the boundaries of personal dimensions. The culture of conservatism seemed to be indifferent with the social milieu that events of history are building up in society. It as well recognized the massive social changes occurring almost everywhere in the world as the younger generations of people experience and live them. yet, however, the points of view it adheres remain ever the same. While young people react radically to social phenomena, the culture of conservatism shun them away and/or offers the same old solutions to existing social problems. “The long years of miseducation, of constant subjection to the blandishments of Western propaganda have made older generations unappreiative of the commitment of the young today.”<sup>42)</sup>

The youth of today is entirely different. Their hopes in life, their utmost concerns about events in society, and their commitment towards change call for every government leader and planner to heed and understand their culture. An extensive enculturation process among these people must be afforded if governments indeed are sincere with their youth empowerment efforts. Constantino(1971) calles this “a reversal of traditional roles.” His Parents and Activists stressed that “traditionally, the young

were expected to be self-centred... to a great degree socially irresponsible. The old saw themselves as the guardians of society.... Today, it seems as if it is the old who are more guilty of social irresponsibility and the young have taken upon themselves to plan and sacrifice for a better world for themselves and for the future." In this sense, there is therefore an imperative for government leaders "to listen to the young, ask questions, read what they read, and examine their values."<sup>43)</sup>

To challenge this culture of conservatism operative in almost all aspects of Philippine life is an arduous task. It requires not merely a change in the political viewpoints government leaders and planners hold but rather also a radical transformation of attitudes and values, of culture as a whole. Everybody is a helpless victim because the virus of conservatism has already eaten up the system for a long period of time. Unless, however, a concerted effort between the youth sector and leaders of government is done, the future of the will always remain dim. Both must work hand in hand to internalize the struggle and lay down the foundations for the ultimate attainment of a genuine society of empowered youth. Authentic youth empowerment can only thrive in an atmosphere of genuine participative involvement of the greatest number of the youth populace and of the unconditional willingness of leaders of government to fully vest upon the youth the opportunity to exercise the freedom and responsibility inherently given to them.

In the struggle with people holding conservative views, a change in attitudes and values, emanating from an internal change, is more effective than any other means. The youth must, thus, work hard to achieve their goals. The rest of the members of the society are expecting so much to discover from the youth what they indeed wish to do with their life, with their future given the sole privilege to design it. A genuine partnership that is founded on the respect for the youths' freedom though is essential

to attain the real essence of youth empowerment. Such reduces the tensions on the part of the youth who considers government efforts as a pacification process to subjugate them. Finally, this can “yield valuable facts about specific areas of society beyond the present experience of the young.”<sup>44)</sup>

#### 4) Alternatives and Imperatives

The clamor for allowing the youth to design their own plans, purpose and strategies for the future is relevant. It is consistent with any government’s vision to enhance genuine youth empowerment. Laying down the foundations in preparation for such needs a lot of cooperation and close-in partnership between the youth sector and the government itself.

- For the Youth : to ensure an independent, free yet responsible youth sector : This will prove the worth of the youth sector that it can stand by itself, plan out and work for the survival and progress of its own sector.

- ① Establish networks with government and private institutions to disseminate information and campaign for Youth issue-advocacy and pave the way for resource accessing and the realization of policy and program formulations emanative from their own initiatives.

- ② Strengthen programs and activities to promote active involvement of the constituency in the democratic processes in the local and precinct levels.

- ③ Constitute discussion groups and massive media blitz to embrace capability-building for legislative lobby work to insure the formulation and passage of true and genuine pre-youth legislations, policies, advocacy, cooperative empowerment and participatory involvement even at the precinct level.

- ④ Work and demand for radical changes in both government policies

on youth : Review government legislations and programs on youth empowerment review;

⑤ Demand for the review and re-orientation of the Philippine Education System.

⑥ Strengthen existing and create more local youth sub-sectoral associations in the precinct level : Local youth sub-sectoral associations are the main organizational expression for the empowerment of the youth.

⑦ Initiate capability-building and local youth leadership development and skills training of members of youth organizations : This includes amongst others organizing leadership and social consciousness fora on relevant issues.

⑧ Organize and build working alliances and coalitions within and outside sector : alliances are usually multi-sectoral in character and often start out as tactical issue-based formations, although these may later have a more strategic/comprehensive orientation. Coalitions cut across various political ideological tendencies and may be sectoral or multi-sectoral in nature.

⑨ Initiate movement-building to broaden/expand the local youth sub-sectoral constituency around desired the basic local agenda of youth associations.

⑩ Design a comprehensive youth sectoral agenda : This is a consolidation of the concerns and issues raised by various local youth sub-sectoral associations.

⑪ Propose and formulate a working draft of the Magna Carta of the Democratic Rights of Youth : This in consonance with the need to lobby for the passage of genuine pro-youth Magna Carta of Student Rights.

⑫ Strengthen and/or establish regular sub-sectoral-based alternative classes to converse, update and conscientize the members of the sub-sectoral associations on the issues and concerns they are currently facing. This

will lead to the formation of a more cohesive, committed and united youth sector.

⑬ Work and coordinate with other government and non-government agencies to propagate an environment-friendly community : Youth may take this opportunity to turn this effort into a productive income-generating program.

● For the Government : To ensure the survival of youth initiative and efforts to attain authentic essence of youth empowerment that is independent, free, creative and responsible, government administrations must work for the following :

① Institute strategies to ensure genuine consultations, dialogues and participation among the greater number of youth in the formulation of youth-related programs and policies.

② Dismantle traditional myths which demean the potentials, vigor and dynamism of youth.

③ Conduct, coordinate and consult empowerment efforts with the youth sector so as not to curtail the freedom of the youth.

④ Provide every form of assistance to complement the efforts of the youth sectors towards its complete improvement.

⑤ Conduct a comprehensive scientific study to diagnose the furtherance of powerlessness among the Filipino youth.

⑥ Enhance greater opportunities for creating alliances and coalitions among local youth sub-sectoral associations.

⑦ Promote and support youth democratic efforts and initiatives.

⑧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networks between the youth sector and the government and private institutions.

⑨ Repeal legislations which are inconsistent with the aims/goals of genuine youth empowerment.

⑩ Support the creation of youth cooperatives which will encourage both participatory involvement in community-based activities and, at the same time promoting the youth's entrepreneurship especially in the sub-urban areas.

## 5. Conclusion

The survival of the democratic system of governance depends so much on the commitment of the popular masses to the true ideals of democracy. Unless people believe and actively work toward the ends it offers, the ideals of democracy remain a dream, an aspiration. To make it real, it must be grounded on something real, concrete. It must be founded in an actual fact.

Claiming that the Filipino youth is a potential living force in Philippine democracy is an inevitable reality. Great young lives have been spared in the efforts to attain liberation which many Filipino great men fought with the hope to see it realized but to no avail. History accounts the painstaking struggles young Filipinos untiringly waged—against facism and tyranny, against social injustices, class exploitations and colonial subjugations—only to win and savor the taste of independence. For decades and centuries, the Filipino youth witnessed the treatment accorded to them by scrupulous authorities usurping their rights and dignity; intimidating them so to follow unfounded ideals and designs; and, denying them the inherent power which emanates from their vibrant youthfulness. Unsatisfied with these, moves to annihilate them from their own future were made by authorities threatened by their bountiful idealisms. Those subtle manipulations endangered their potentials; ruined the path which paved the road to their total emancipation.

All these are not past history. To these days, the Filipino youth see and

feel the exploitation and marginalization mostly being done by people-in-power. More too often than always, their opportunities and privileges for self-expression and active involvement in governance are simply blunted by the invisible forces directing their motives and actions.

Spurred by their continuing plight, however, the gretest masses of Filipino youth must, once and for all, prove the inevitability of their being philippine democracy's potential living force. They must wake up and manifest vigilance and concern. They must demand quick action on the existing social problems. The empowerment of the youth does not only call upon them to work for ways to help government attain sustainable development as envisioned by the Ramos administraion. It also encourages the youth to be extra vigilant against any form of social crime, foremost of which is the usurpation of the youth's rights and dignity, that consequently alienates them, from their own idealisms. The Filipino youth must recognize their potentials and work within those potentials in order to advance its interest and welfare. They must struggle with the government, "not with and attitude of total negation or in antagonistic confrontation but with the same spirit of forbearance that they show to the unpoliticized masses." The success of this effort, at least to some degree, would test the youth's capacity to rally other sectors of society to their cause. There is no other way to effect genuine youth inpowerment than grounding all efforts to the fundamental perspective and culture of youth.

There are sevaral points though that must be instilled and considered in effectign real youth efforts for empowerment.

- 1) The efforts of three-generations of government administrations to empower the youth along their frameworks appartntly serve only to increase the dichotomy of differences between the Filipino youth's goals and strategies and that of government's. The bicultural trap conceptually pre-

pared for the youth by the so-called government administrations does not appear to be astute immediate concerns of the Filipino youth. The motives therefore appear far from the youth's desire for authentic empowerment.

2) With the upsurge of the concept "democratization from below", the various paradigms of empowerment have to be devised to grade the youth into the socio-political ladder. Genuine consultations and active involvement of youth in governance must be effected. The youth, thus, should be judged by their potentials, not by what they are.

3) Youth programs by government must be reviewed. Government must not impose on the youth its plans and visions for them but rather to enhance them a greater chance to develop their own initiatives. Youth plans as they were and are designed by government indirectly work to destroy the creative potentials of the youth of the land. They create automation-followers to spend their lives celebrating their subtle subjugation to perpetual dependency.

4) Governments must understand the prevailing differences between youth as involved participants and youth as spectators. Universally, young people want to participatively involve in political governance. That is, they are primarily concerned with their getting their sentiments heard and their plans acted upon. As involved participant, they could not, for the most part, care less what the rest of the members of society does. They are grossly interested to see their idealisms working.

## Endnotes

- 1) The idea of youth being “weak and dependent” has been originally quoted from the previous speech the author delivered during the 1995 World Youth Leaders Conference held in Seoul, Korea on June 1, 1995. The speech was entitled “Empowering the Youth for the World : The Challenge of Youth in the Second Millennium.”
- 2) Tradition has it instilled in the people’s minds that greater wisdom, if not all wisdom, is found in older generations of people. This customary belief, among cultures of people is revealed in the various cultural practices of “filial piety”
- 3) NYDP, 1994 : 1
- 4) Address of Senate President Edgardo J. Angara, 1994
- 5) “A L Juventud Filipina” was one of Dr. Jose Rizal’s masterpieces written “For the Filipino Youth”
- 6) Gutierrez, Torrente and Narca, 1992 : 4
- 7) Villarante, 1995
- 8) First Quarter Storm(FQS) : It was the height of student activism during the first quarter of the Marcos dictatorship. The event was characterized by mass actions, protests, underground movement, violence and other forms of anti government activities initiated primarily by members of the youth sector. The event prompted Marcos to declare Presidential Decree 1081 which imposed the Martial Law.
- 9) Political analysts and critics of then President Ferdinand E. Marcos often accused him of pursuing repressive policies and laws which for them permitted his two-decade-long totalitarian reign.
- 10) After the death of former Senator Benigno “Ninoy” Aquino his wife-turned President of the Republic, Mrs. Corazon C. Aquino, was

thought to be the only viable candidate to replace and/or challenge the presidency from Marcos. The belief was basically attributed to Mrs. Aguino's popularity due to her husband's assassination. Ninoy Aquino was killed by an assassin's bullet upon his arrival from self-exile in the United States. His death sparked the downfall of the Marcos regime.

- 11) EDSA of Epifanio de los Santos Avenue became so renowned worldwide as the site where the first People Power Revolution of 1986, which consequently ousted Marcos from the presidency, was consummated. It was the site where the Filipino people and the military then loyal to the dictator converged and later on united in an effort to cause that historical political transformation in the country.
- 12) The ultimate goal and vision of President Fidel V. Ramos's administration is to attain "sustainable development" by the next millennium. His program towards this end is lengthily described in his slogan "Philippines 2000"
- 13) This refers to the process of attaining an economic take-off of the state of an improved economy by year 2000 with technologies and industrialization booming, bringing the country's fame into the newly industrialized country.
- 14) Quoted from the speech of President Fidel V. Ramos during the launching of the kabataan 2000 program at the Heroes Hall, Malacanang, Manila on 18 February 1994.
- 15) LAKAS-Youth is the youth arm of the pro-administration coalition party called LAKAS-NUCD-UMDP with President Ramos as the figurehead.
- 16) The Propaganda Movement which was initiated during the late 1800s was instrumental in the advent and growth of national consciousness in the Philippines. It avowed to the aim of reforming the colonial

administration of the Spanish government in the country during the time.

- 17) Teodoro A. Agoncillo, History of the Filipino People. Quezon City, Philippines : Garotech Publishing, 1990.
- 18) Hukbalahap Movement : It has its deep roots in the Spanish encomienda system which developed into a system of exploitation. The numerous abuses, injustices, and cruelties perpetrated by the encomenderos upon the Filipino peasants led to uprisings that failed because of lack of unity and leadership. Nevertheless, the seeds of revolt were planted in the minds of the peasants. In the 19th century, Filipino landlordism rose and, with it, more abuses. The agrarian problem, far from being solved, became acute. It was not until the coming of the Americans that certain reforms were initiated to lessen the tension between the tenants and landlords. But the reforms were palliative in nature and did not actually solve the problem. With political consciousness, the peasants were united by educated but poor leaders. The most potent of these peasant organizations was the Hukbalahap, which began as a resistance organization against the Japanese and ended as a movement against the government. (from Teodoro A. Agoncillo, History of the Filipino People, 8th edition, Quezon City, Philippines : Garotech Publishing, 1990).
- 19) This was ideally adopted in the constitution of the Kabataang Barangay (KB), a brainchild youth movement of then President Marcos. But the idealism was never realized in the long run. Instead, decisions and policies became highly centralized and accorded with political manipulations according to the designs and blueprint of KB's god-father, Marcos.
- 20) Villarantee, 1995.
- 21) Kabataang Barangay or KB is translated into English as Youth of

the Barangay. Barangay, in the context of Philippine pre-hispanic history, is the smallest political unit in the community headed by its chieftain known as “datu”. With the advent of New society, the concept “Barangay” was adopted by Marcos to mean “the neighborhood political unit forming part of the Philippine crisis government’s plan to encourage greater involvement by the mass of the Filipino peopl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 22) Seamaul Undong was the brainchild program of South Korean President Park Chung-Hee which to many analysts was the key to Korea’s economic development nationwide. Translated into English as the “New Village Movement”, it was founded in the early 1970s simultaneous with President Marcos’s founding of the New Society Movement.
- 23) It is the official residence of Philippine presidents located near the Mendiola Bridge in the city of Manila.
- 24) This is clearly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of the kabataang Barangay. The model describes a democratic grassroots level approach to decision-making process in the movement
- 25) This is quoted from the article entitled “Kabataang Barangay : RP’s Symbol of Youth Dynamism” printed in the Philippine Youth. (A National Youth Magazine), no.1, June 1977.
- 26) Jojo Ocampo. “The 80’s : A Decade of Youth Activism,” Pahayagang Kabataan. Tomo II, Blg. 3, 1989 : 50-56. (Jojo Ocampo is a free-lance writer and member of the writer’s group PLUMA and was the publicity officer of the first Konsultahan. as staff writer for Mr. & Ms., he did several pieces for On campus.
- 27) This was the famous campaign slogan of President Corazon C. Aquino when she challenged Mr. Marcos for the presidency. The slogan became the battlecry of the people in their quest to replace Mar-

cos. It means "Marcos, enough is enough! We can't Take it any-more! You have to be replaced!"

28) Kerkvliet and Mojares, 1991

29) loc. cit.

30) ibid.

31) In Tagalog, Konsultahang Kabataan is translated "Youth Consultation". This is the title of the national youth conference held in Pook Maria Makiling in Los Banos, Laguna on February 23-28, 1987 organized by the Youth Affairs Committee, the PCIYY, and various youth and student leaders. The affair was participated in by 383 youth and student leaders from various organizations all over the country

32) op. cit., Pahayagang Kabataan, 1989

33) Sangguniang Kabataan or SK is the latest movement for the youth principally authored by the Ramos administration. It is the Council of the Youth which organization is based in the precinct level. It is the most established among the current youth movements primarily because it is being recognized by the government and thus given allocation in the barangay, municipal, provincial, regional, and national levels.

34) William A Haviland, Cultural Anthropology, (Chpter 5), 1975 : 112 ~114.

35) Margaret Mead went to Samoa in 1925 to conduct anthropological researches among the Samoan islanders By providing strong evidence of the effect of childhood graining on the formation of adult personality, Mead stimulated an interest in child-rearing not only as an anthropological problem, but also as a practical one.

36) I mentioned this same thesis in my semestral paper in Anthropology entitled "The impoverish Culture of Philippine Education System."

- 37) This is based on the study conducted by Dr. Patricia Licuanan entitled “A Moral Recovery Program : Building a People-Building a Nation” which was submitted to the Senate Committee on Education, Arts and Culture and on social Justice, welfare and Development on 9 May 1988.
- 38) This refers to the tendency of crabs in a basket to pull each other down (Licuanan, 1988)
- 39) This is a strong unique Filipino character which refers to the individualistic tendencies of people. This oftentimes is expounded to mean the tendency to be regionalistic in character or the giving of priority to oneself or to the in-group before others.
- 40) Particularly, this refers to the “divide and rule principle” of Mchiavelli.
- 41) Renato Constantino, Graphic, (28 April), 1971
- 42) Ibid, p.2
- 43) Ibid, p.7
- 44) Ibid, p.10

## References

### A. Books

- “Agenda for the Development of the Filipino Children,” Manila : Salinlahi Foundation.
- Agoncillo, Teodoro(1990), History of the Filipino People, Quezon City, Philippines : Garotech Publishing.
- Annual Report of the Child and Youth Research Center(1979), 940 Quezon Avenue, Quezon City.
- Benedict, Ruth(1934), Patterns of Culture. Boston : Houghton Mifflin.
- Bennagen, Ponciano L(1985), “Indigenous Learning System Among the Kankanaey : A Pilot Case study,” Innotech Journal. vol. ix, no.1.
- “Chapter II of the Program of Action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held in Cairo, Egypt, September 5 ~13, 1994).
- Constantino, Renato(1974), Identity and Consciousness : The Philippine Experience, Quezon City : Malaya Books.
- \_\_\_\_\_ (1966), Miseducation of the Filipino, Quezon City : Weekly Graphic.
- \_\_\_\_\_ (1978), Neo-colonial Identity and Counter-consciousness. London : Merlin Press.
- \_\_\_\_\_ (1971), Parents and Activists. Quezon City : Weekly Graphic.
- \_\_\_\_\_ (1975), The Philippines : The Past Revisited. Quezon City : Malaya Books.
- Diokno, Maria Serena(1988), “Unity and Struggle,,” Dictatorship and Revolution : The Roots of People’s Power, Conspectus Foundation.
- The Education for National Reconstruction, (1986), Quezon City : ADMU and Simbahang Lingkod ng Bayan.

- Francisco, Mariel et al(1987), *The History of the Burgis, Quezon City* : GFC Books.
- Freire, Paulo(1970), *Pedagogy of the Oppressed*, Trans. by Myra Bergman Ramos, New York : Seabury Press.
- \_\_\_\_\_ (1973), *Education for Critical Consciousness*, (First American Edition), New York : Seabury Press.
- Gascon, Jose Luis Martin C. (1987), "Issues and Problems Confronting the Filipino Youth," *Konsultahang Kabataan*. Malacanag Palace, Manila : KKPC : 34~37.
- Haviland, William A. (1975), *Cultural Anthropology*,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 Hollnsteiner, Mary R, "The Philippine Cultural Context, Social Problems, and Youth, "Youth's Positive Role in National Development, Quezon City : Ateneo de Manila University Press,(undated).
- Ileto, Reynaldo Clemena(1979), *Pasyon and Revolution : Popular Movements in the Philippines, 1840~1910*, Quezon City : ADMU Press.
- Illich, Ivan(1971), *Deschooling Society*, New York : Harper and Row Publishers.
- Konsultahang Kabataan(1987), : 1987 national Youth Conference, Malacanang Palace, Manila : Konsultahang Kabataan Project Committtee(KKPC).
- Lande, Carl H.(1965), *Leaders, factions, and Parties : The Structure of Philippine Politics*, New Haven, Conn. : Southeast Asian Studies, Yale University.
- Local Government Code of the Philipines(1989).
- Mc Coy, Alfred M. and Ed C. de Jesus (eds.)(1982), *Philippine Social History : Global Trade and Local Transformation*. Quezon City : ADMU Press.

- “Magna Carta on the Democratic Rights of Students,” Konsultahang Kabataan, Malacanag Palace, manila : Konsultahang kabataan Project Committe(KKPC), (1987) : 82~84.
- Mead, Maragaret(1961), *Coming of Age in Samoa*. (3rd Ed.) New York : William Morrow.
- Medium-Term Philippine Development Plan (under the administration of President Fidel V. Ramos).
- “Meeting the Needs of Street Children,” UNICEF 1991.
- National Youth Development Plan(1994~1998). Malacanang, Manila : Presidential Council for Youth Affairs, (1994).
- Nemenzo, Francisco(1988), “From Autocracy to Elite Democracy,” Dictatorship and Revolution : The Roots of People’s Power. Conspectus Foundation.
- Novak, Thomas C.(June 1977) “The Philippines Before Martial law : A Study in Politics and Administr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1 : 52~539
- Owen, Norman G. (1984), *Prosperity Without Progress : Manila Hemp and Material Life in the Colonial Philippines*, Quezon City : ADMU Press.
- “PCIYY, Guidelines for Further Planning and Suitable Follow-up in the Field of Youth”, 1985.
- People’s Agenda, 1991.
- Primer : Samahang Bagong Kabataan (SABAKA). manila : Philippines : National Media Production Center, (1973).
- Philippine Education Act of 1982.
- Sioil-Jose, Francisco. “Youth and the Country’s Social Problems,” Youth Positive Role in National Development.
- Quezon City : Ateneo de manila University Press,(undated).
- “Situation Study on Street Children in ten Cities,” UNICEF 1988.

Tavanlar, Eligio J., "Our Potential for Social Improvement," Youth's Postive Role in National Development, Quezon City : Ateneo de Manila University Press,(undated).

The Child and Youth Welfare Code(P.D. 603)(1976), Manila : Government Printing Office.

The Filipino Youth(1972),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Population Institute (UPPI).

"The Rebellion fo Youth", (Reprinted form Dialogue, Vol. 2, No. 2, 1968 by national Affairs, Inc., and Richard Von Voorhis).

Torre, Idicio dela(1988), "Structural Obstacles to Democratization in the Philippines," Conjuncture, Quezon City : Institute for Popular Democracy.

1987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1992 Philippine Yearbook.

## **B. Legislations**

Executive Order (E.O.) No. 176 : "Approving and Adopting the National Youth Development Plan (NYDP) 1994~1998."

Executive Order (E.O.) No. 139 : "Creating the Kabataan 2000 steering Committee, the Action Officers Committee and the Regional Steering Committee in Implementation of the Year-Round Youth Work Program, Kbataan 2000 and for other purposes."

Executice Order (E.O.) No. 274 : "Creation of the Presidential Council for Youth Affairs."

Presidential Decree 603 : "Child and Youth Welfare Code."

Presidential proclamation 406 : "Declaring 1990~2000 as the Decade of Physical Fitness and Sports."

Republic Act (R.A.) 7079 : "The Campus Journalism Act of 1991."

Republic Act (R.A.)7610 : "Act Providing for Stronger Deterrence and

Special Protection Against Child Abuse, Exploitation and Discrimination. Providing Penalties for its violation, and for other Purposes.”

Republic Act (R.A.) 8044 : “An Act Creating the National Youth Commission, establishing a National Comprehensive and Coordinated Program on Youth Development, Appropriating Funds therefor, and for other purposes.”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34/151 of 17 December 1979 :  
“Declaring 1985 as the International Youth Year.”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5/103 : “Policies and Programmes Involving Youth.”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037 XX of 7 December 1965 : “Declaration on the Promotion among Youth of the Ideals of Peace, Mutual Respect and Understanding between Peoples.”

### C. Articles and periodicals

Capiral, Virginia C.(July-December, 1994), “A Look at the National Youth Environmental Capability-Building Seminar-Worship,” The Youth Journal. vol. 1, No.2.

Child-Youth Research (CYR) Bulletin(January-April 1980), Vol.1, No. 1.

Domingo, Roquena R.(January-June, 1994), “Challenges Confronting the Youth NGOs in the Philippines : Towards the Resolution of Issues and Concerns”, (Country Paper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for the ASEAN Youth Day Meeting III) in The Youth Journal. vol. 1, No.1.

FOCUS.(March-April, 1974), (Official publication of the Philippine Mental Health Association), Vol. XXIV, No. 2.

Ocampo. Jojo(July-December, 1994), “A New Breed of Movers,” The

Youth Journal, vol. 1, No. 2.

OISCA Bulletin Board, No. 12, May, 1979.

Pahaagang Kabataan(1980), Tomo II, Blg. 3.

Pelaez, Joey G.(January-June. 1994), "Youth Environmental Action,"  
The Youth Journal. vol. 1, No. 1.

Philippine Youth(June 1977), A National Youth Magazine, No.1.

Siapno, Ferial E.(July-December, 1994), "The Youth and The Challenges of Time," The Youth Journal, vol. 1, No. 2.

The Youth Journal(July-December, 1994), vol. 1, No. 2.

UN News Digest. (Issued Monthly by the UN Information Center for the Philippines)(April, 1979), Makati, Philippines : 70/79.

Venzon, Regina Emily P.(January-June 1994), "NYDP Executive Summary, "The Youth Journal, vol. 1, No. 1.

Youth Action Development Organization (YADO) Magazine, Vol. 1, No. 3, (August-September, 1979).

Villarante, Allan Jose J.(1991), "Power and Knowledge : Powerlessness of the Miseducated, "Ritarian Echoes, (Quarterly publication of Colegio de Sta. Rita, san Carlos City, Negros Occidental, Philippines).

\_\_\_\_\_, "Towards a Critique on the Impoverished Culture of Education : The Philippine Context," (Unpublished).

#### D. Speeches

"Empowering the Rural Youth,"(speech delivered by the PCYA Chairman Joseph T. Javier for the FAO Inter-Asian Training in Rural Youth Population Program on October 17, 1994) in The Youth Journal. vol. 1, No. 2, July-December, 1994.

Empowering the Youth for the World : The Challenge of Youth in the Second Millenium,"(Paper Presented by Allan Jose Justiniani Villarante during the 1995 World Youth Leaders Conference and the

Drafting of the Seoul Declaration held in Seoul, Korea on June 1, 1995)

“Hold Fast To Your Ideals,” (Remarks of President Fidel V. Ramos during the ceremonial signing of R.A. 788 : “Resetting the Sangguniang Kabataan (SK) Elections to May 1996 at the Malacanang Palace on September 2, 1994).

“The Aventure of the 21st Century,” (Speech of his Excellency President Fidel V. Ramos during the launching of the National Youth Development Plan held at the Heroes Hall, Malacanang, Manila on 5 May 1994).

“The Nation and the Youth”, (Speech of Hon. Secretary Rafael M. Alunan III during the Opening Ceremony of the National Youth Congress at ECOTECH Center, Lahug, Cebu City, 2 July, 1993).

“The Youth in Philippines 2000,” (Speech of President Fidel V. Ramos during the National Youth Congress held in Lahug, Cebu City, 4 July, 1993).

“Youth as Catalysts”, (Speech of His Excellency President Fidel V. Ramos during the launching of the Kabataan 2000 held at the Heroes Hall, Malacanang, manila on 18 February 1994.)